

갑니

# 건축사

은 30여년  
만 전념해  
30여년간 오직  
학의 산업응용

보온단열재, 서  
등 우리나라 무  
양한 건축재, 신  
강기술 -  
건축재, 신소재  
융해가고 있습니

■ 등록 1967년 3월 23일 ■  
■ 1985년 12월 31일 제1회 정기총회 ■  
■ 1991년 11월 1일 제2회 정기총회 ■  
■ 전화 137-070 ■  
■ 대한건축사협회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유리면·세라믹·시라카



(암면·라코트·마이론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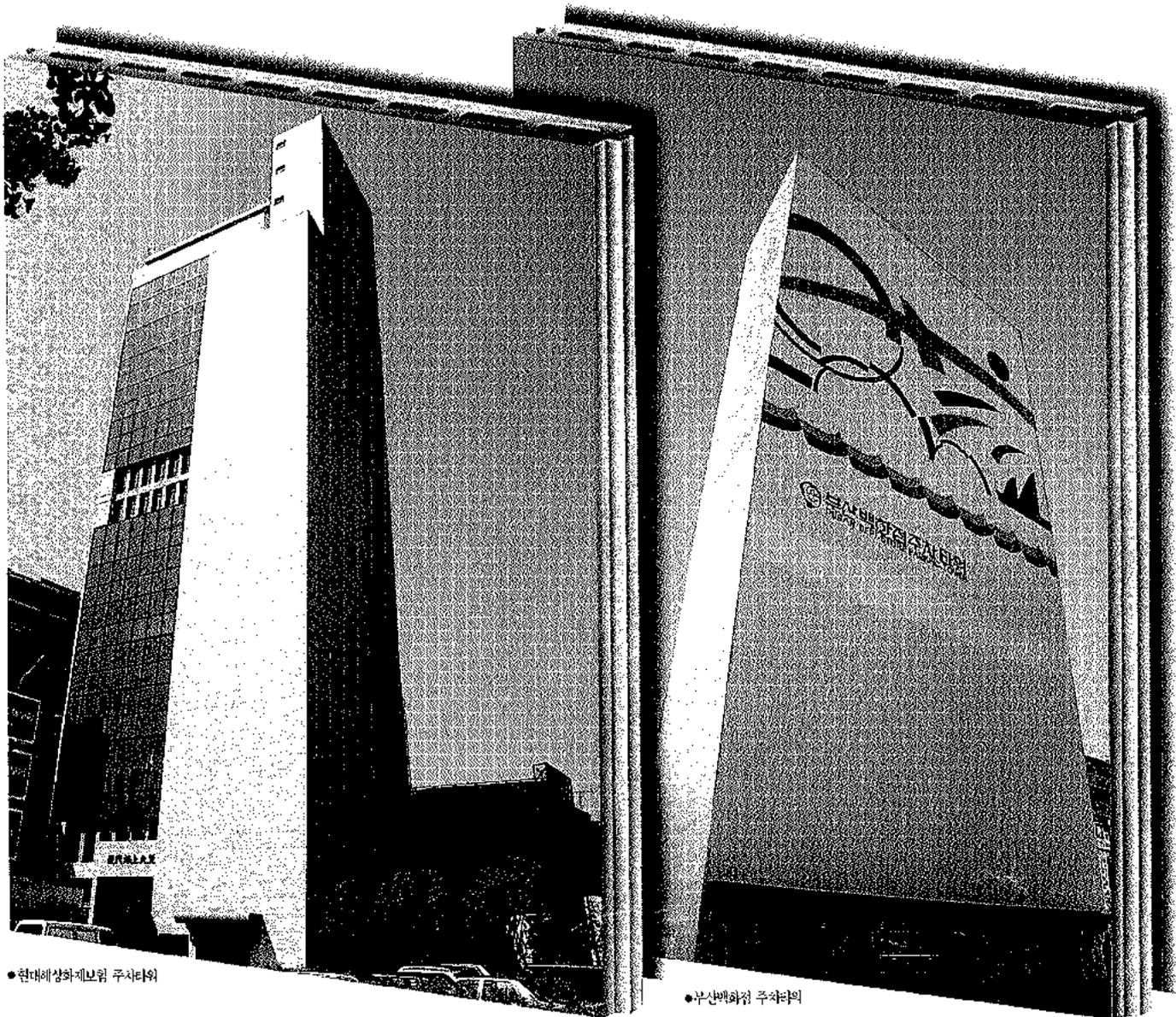


(석고보드)



물 (플로트 유리·석유리·저탄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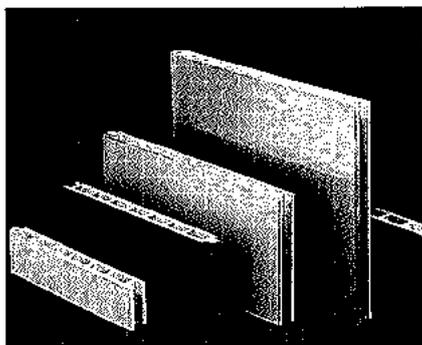




●현대상화제보림 주차타워

●부산백화점 주차타워

# 가장 이상적인 외장재 베이스판넬 - 주차타워에도 잘 어울립니다.



베이스판 시멘트를 주원료로 진공 압출성형하여 생산되는 경량의 조립식판넬로서 제품 내부에 이상적인 공간이 형성되어 있어 강도가 높고, 차음, 내화, 단열성이 우수한 내구성 자재입니다.

**경량성** / M<sup>2</sup> 당 무게가 50kg으로 건물의 구조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 / 내동결 용해성이 우수하고 강도가 높아 영구적입니다.

**안정성** / 고압 증기 양생하므로 시공후 수축, 팽창, 뒤틀림이 전혀 없습니다.

**의장성** / 건물의 외관에 따라 판넬의 표면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감성** / 타일, 본타일, 페인트등 자유롭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내진성** / 이상적인 조립방법에 의해 시공되므로 지진에 의한 충격을 흡수합니다.

용도 : 건축물의 외벽, 칸막이, 계단, 도로변의 차음벽

치밀한 고강도 압출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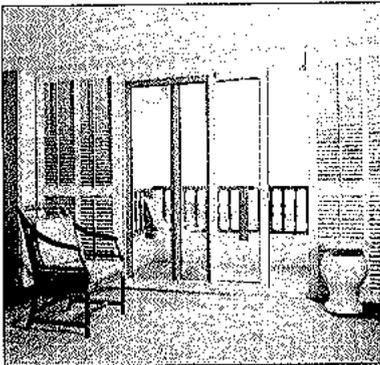
**벽산 베이스**

# 명품창문 이견창호와 세계수준의 제주신라호텔이 만났습니다

제주도 중문에 본격 리조트호텔로 문을 연 제주신라  
세계적 수준의 제주신라호텔 330개 객실 창문으로  
이견창호 Royal Lift Sliding Series가 선택된 이유—

세계 10대 호텔로서 신라호텔의 명예가  
제주신라를 만들었다고 할 정도로  
호텔측이 창문 하나의 선택에 보여준  
세심함은 컸다.

평상시 강한 바람은 물론,  
여름에 특히 태풍이 많은 제주해안지역의  
특성을 감안한다면 과연 어떤 창문이 적합할까?  
'밀폐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창문' —  
이견창호 특유의 장점이 호텔측이 요구하는  
기능에 그대로 일치되어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높여주는 창문으로서  
멋진 사례를 남기게 되었다.



실제 : 삼우 중원건축사사무소



## 뛰어난 기능으로 건물의 품격을 더해주는 이견창호

디자인·소재에서/기존 창호와 전혀 다른 개념의 소재 결합과 칼리의 조합으로  
건물의 다양한 요구에 알맞게 주문 제작할 수 있습니다.

**방음·단열에서**/컴퓨터로 정밀 설계되고 밀폐성높은 가스켓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방음, 단열 효과가 특히 뛰어납니다.

**환기·개폐에서**/특수 기어시스템에 의해 작동이 부드러우며 환기만을 위한  
특수 개폐가 가능, 환기가 편리하게 이루어지므로 쾌적한 실내가 유지됩니다.

**안전·수명에서**/특수 유리와 고강도 소재 사용, 특수 배수 시스템에 의해  
수밀성과 내부식성, 내풍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태풍, 폭우등의 악천후에서도  
변형되지 않으며 독특한 잠금장치로 인해 도난, 침입의 우려가 없습니다.

**시공에서**/공장 완제품으로 시공되기 때문에 현장 작업이 간단하며 건식공법에 의한  
깨끗한 마감 처리로 정기적인 보수 필요없이 영구 사용이 가능합니다.

## 이견 시스템 원도우

■ 상설전시장 안내 위치 : 강남구 논현동 58-7 태석빌딩 3층  
전화 : 540-2071~9 FAX : 540-2080  
\* 일요일에도 문을 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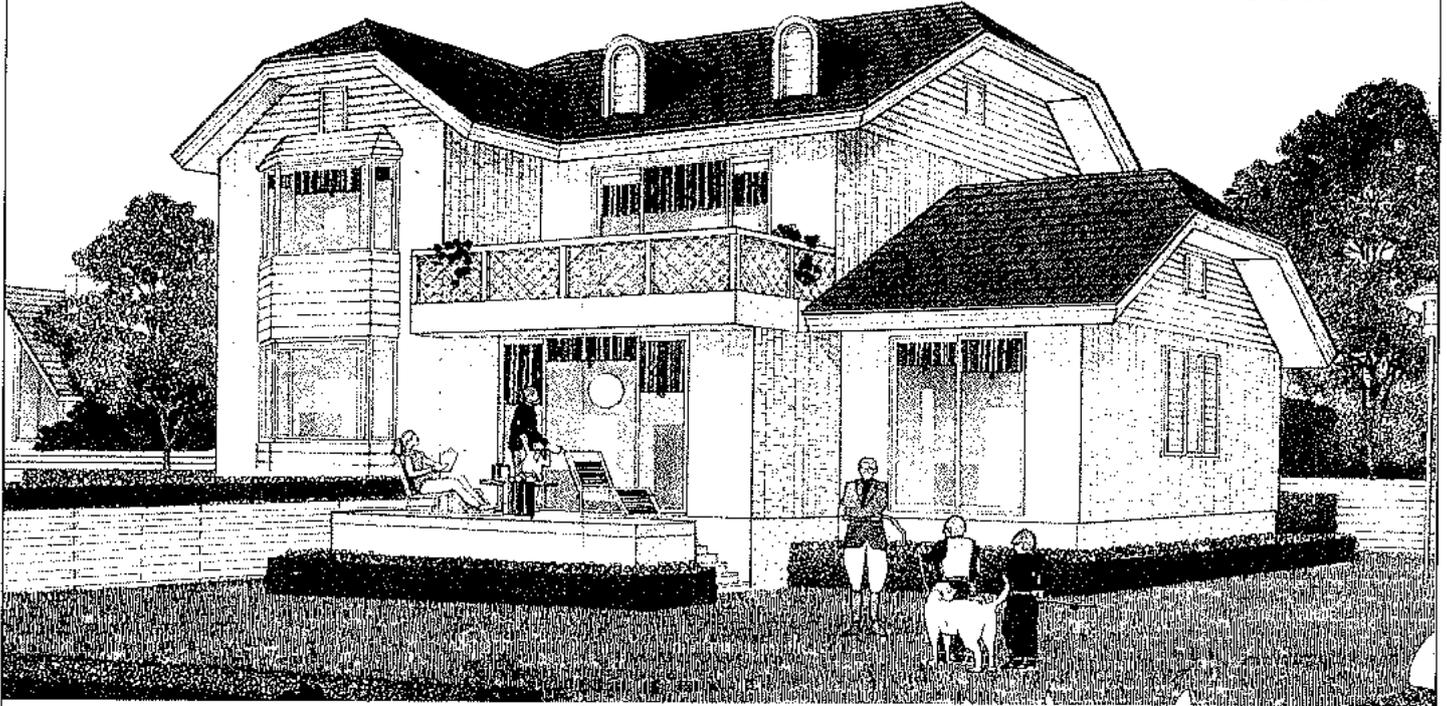


**이견창호**

● 이견자연주식회사 ● 이견자위개발주식회사 ● EAGON FOREST PRODUCT INC.

# 한국에 온 정통 칼라이스팔트 싱글 - 맨빌 **MvL** Roofing Systems Division

미국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정통 칼라이스팔트 싱글 - 맨빌이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Manville 특점 수입판매권자 (Exclusive Agent) 인 동림산업이 개성있는 주택을 꿈꿔오신 분들께 자신있게 전하는 130년 전통의 칼라이스팔트 싱글 - 맨빌. 다양한 패턴, 아름다운 색상으로 한국에 지붕재의 칼라이스팔트 싱글 시대를 선언합니다.



삼익 세라믹 판넬 외벽재와 맨빌 칼라이스팔트싱글 지붕재를 사용한 양재동 빌라.

##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

가드레일, 가드케이블등의 철구조물 및 산업기계 등을 제작·판매해오던 東林이 신규 분야에까지 사업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축, 산업기계 토목, 무역, 주문주택사업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 부문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기업 - 동림산업을 주목하십시오.

## 칼라이스팔트 싱글이란?

아름다운 외관과 간편한 시공으로 독특한 주택의 미를 살려주는 칼라이스팔트 싱글은 경계성은 물론 내구성도 뛰어난 유럽풍의 고급 지붕재입니다. 최고급 빌라, 고급주택, 골프장, 클럽하우스, 영업용 건물, 별장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어 새로운 주택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맨빌의 칼라이스팔트 싱글이 우리나라 주택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 미국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Manville

130년 역사를 지닌 ROOFING SYSTEM 전문업체인 MANVILLE은 지붕재 분야에서 쌓은 축적된 경험과 고도의 기술로 아름다운 색상, 다양한 패턴의 칼라이스팔트 싱글만을 생산함으로써 미국 의 아스팔트 싱글 시장을 이미 석권 했습니다.

## "맨빌의 명성" - 역시 최고임이 입증됩니다.

1. 맨빌은 130년 전통을 자랑하는 지붕재 전문회사
2. ROOFING SYSTEM 전문회사인 대형 다국적 기업
3. 미국 UL 마크를 획득한 보증할수 있는 제품.
4. 25년이상 장기간 품질보증
5. 최상의 화이버글라스 함유로 뛰어난 내구성
6. 미국시장을 이미 석권한 최고급 세라믹 화이버글라스 싱글
7. 완벽한 책임 시공 팀 운영, 전국적인 직영판매
8. 전문건설업, 갑류 무역업, 무역대리업 등록 및 제조업체로서 신뢰할 수 있는 회사.



## 다양한 칼라, 다양한 패턴 - 맨빌

- WOODLANDS PREMIER
- WOODLANDS
- FIRE KING
- ADVANTAGE 25
- WEATHER-SEAL
- FIRE GLASS III

## 주요관련 사업

철구조물·철골계좌, 산업기계 제작 및 수출, 토목공사, 아스팔트 싱글등 건축자재 수입, 주문주택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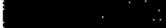
## COLOR SELECTION



SHAKEWOOD TAN



HICKORY



BROWN BARK



CAMBRIDGE GRAY



TUDOR BLA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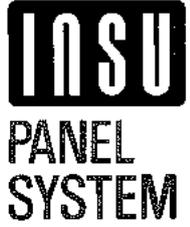
COUNTRY SLATE



특수사업부: 강남구 삼성동154-15 (진술빌딩4층)  
TEL: 557-1544, 563-1431~4  
FAX: 563-1435

■ 인슈그라스울파넬이란?

INSU GLASS WOOL PANEL 은 내부단열재를 1급 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함으로써 단열효과가 우수한 것은 물론 화재시 불에 타지않는 불연성이고 유독가스가 발생하지 않아 화재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특히 유리섬유의 입자크기가 오히려 진동을 완충시켜주므로 차음 및 방음, 흡음 능력이 더욱 우수한 획기적인 소재입니다.



# 1급불연 단열파넬 탄생!



# GLASS WOOL PANEL

인슈그라스울파넬은 내부단열소재가 1급불연재인 유리섬유를 사용하였으므로 기존단열파넬의 가장 큰 문제점인 화재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 날 수 있습니다!



(인슈그라스울파넬 방화실험장면)



주식회사 인합인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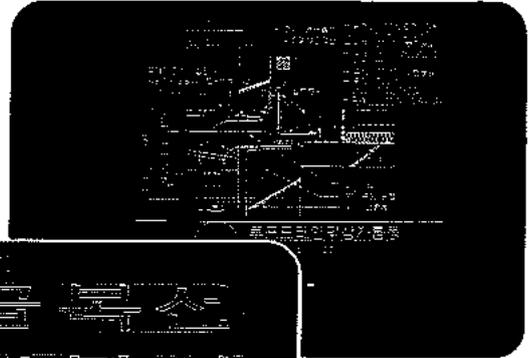
본사및청정 :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림리 39-2  
TEL : (02)745-0687, 이천 : (0336)32-4635-6  
서울사무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73-6 연합인슈빌딩  
TEL : (02)555-6891, FAX : 553-1651  
부산사무소 : (051)462-9554 · 대구사무소 : (053)53 4543  
광주사무소 : (062)524-9779 · 창원사무소 : (0551)85 5944

# ARRIS CAD 지원용 3rd PARTY APPLICATION SOFTWARE 공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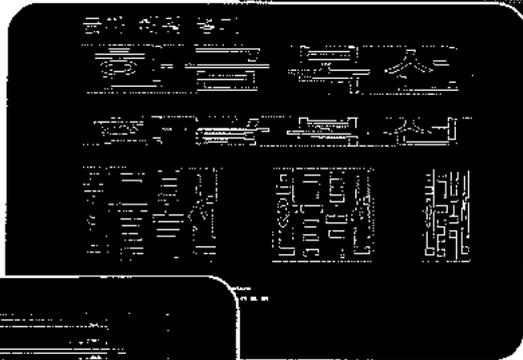
ARRIS

ARRIS CAD가 획기적인 진보의 발을 내디딤니다.

서통 AI사업부는 국내 유명 건축사무소인 (주)우일종합건축사  
사무소, (주)정림건축과 협조하여 그동안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절실하게 필요로 하던 DETAIL LIBRARY, 한글단·복선체 및  
구조일람표(철근, 보, 스키브, 기둥,  
철골접합) 등의 Manual 및 SOFTWARE를 서통 AI사업부에서 공급  
하게 되어 건축 설계 사무소의 CAD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 1. 지중상세도면  
▲ 2. 한글 복선체



▼ 3. 구조일람표 철골(스키브)



## ARRIS CAD 지원용 3rd PARTY SOFTWARE의 특징 ■ DETAIL LIBRARY SOFTWARE

- 1. 고임금, 기술인력난 해소**
  - 반복제도 작업의 전산화
  - 기술인력의 전문성 향상
  - 전문인력 활용의 효율화
- 2. 기술자료의 자산화**
  - 체계적인 등록 CODE제공으로 상세의 추가등록 용이
  - 사용자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편집
  - 기술자료의 공유
- 3. 품질향상효과**
  - 실시 도면의 Quality 향상
  - 시공주로 부터의 Claim 축소
  - 표준화로 인한 회사 Q.C업무의 기류마련
  - Quality향상에 따른 고객 확보
- 4. CAD도입사무소의 CAD 활성화 저해질**
  - 간편한 조작
  - 체계적인 표준화 실행방식제공으로 인한 인력 및 시간절감
  - CAD SYSTEM의 올바른 활용방향 제시

### 1. DETAIL LIBRARY

Mock-Up 작업으로 인한 도면작성

- 상세도 종류
- 일반 DETAIL 상세도
- 실내 마감 상세도
- 바닥 상세도
- 전성 상세도
- 단위실 기구 상세도
- 외부 시설 상세도 (총 450개)

### 2. 한글 단·복선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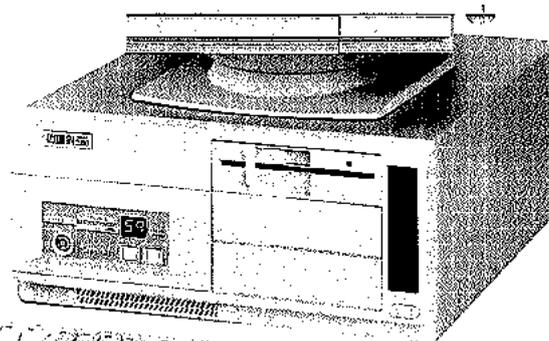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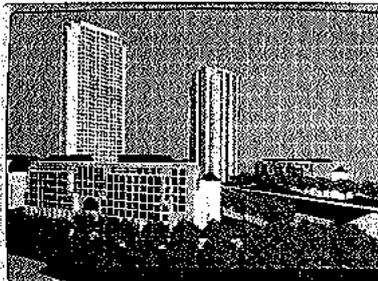
한글 MENU화로 인한 손쉬운 조작

- 기능
- 크기 조절기능
- 평장기능
- 한글 간대유기 기능
- 공간채우기 기능

### 3. 구조일람표(슬라브)

간편한 WORD PROCESSOR.

VI EDITOR 사용  
자동제도 빠른 수정



### ■ 한글단 복선체

- 1. 한글단식**
  - Dynamic 입력기능
  - 한글+영문 혼용기능
  - 타한글 코드와의 호환(AutoCAD 전환글, 행당등 5가지)
  - 도표작성 기능
  - 기타 사용자 편의를 위한 기능

### 2. 한글복선

- 정교한 글씨체(160×160 좌표분류)
- 크기, 가로, 세로 비율 등 임의 조절
- 내부 칠(Hatching) 기능
- 한글 메뉴를 비롯한 사용자 편의를 위한 계란기능

### ■ 구조일람표

#### 1. 철근-보, 기둥, 스키브

- 간단한 조작으로 입력
- Batch 처리기법에 의한 완전자동제도
- Data 오류 사전점검기능
- 수정용이

#### 2. 철골-접합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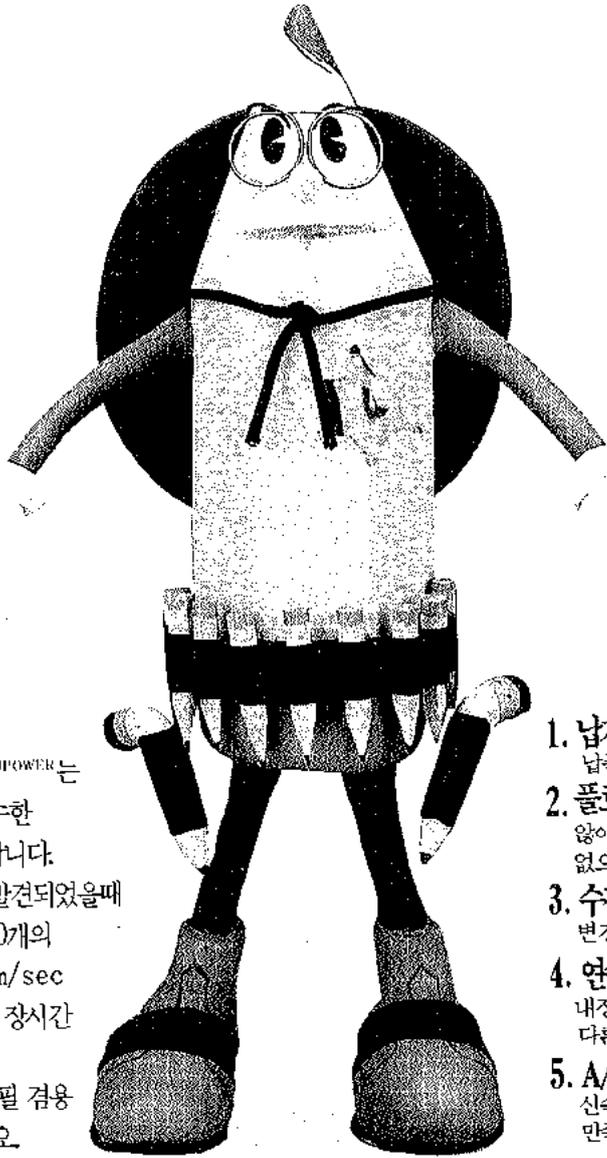
- 처리부재 - Column, Bracket, Girder, Beam의 임의 조합
- Editor에 의한 Data 일괄입력 또는 사용자 대화식 입력
- Joint 방법은 Bolt 또는 Welding
- Joint 부재계산은 사용자 입력 또는 자동계산



서통 AI사업부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선파위컴퓨터전시장

# “빨리 뽑는다!”



펜과 연필을 함께 쓰는 플로터  
**MUTOH** Sunpower 의  
 다섯가지 속사능력!

펜과 연필을 함께 쓰는 플로터 MUTOH<sup>SUNPOWER</sup>는 기존의 펜 전용 플로터에서 볼 수 없었던 우수한 기능으로서 플로팅의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연필을 사용하기 때문에 도면에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일부분을 빨리 지우고 수정할 수 있으며, 40개의 연필을 장착하는 F-910E의 경우, 1131mm/sec (가속 5.7G)의 속도를 발휘하여 중단없이 장시간 플로팅이 가능합니다. 이제부터 다섯가지 속사능력을 가진 펜, 연필 겸용 플로터 MUTOH<sup>SUNPOWER</sup>를 만나보십시오.

1. **납기** 걱정 재고를 항상 유지하기 때문에 주문 즉시 납품이 가능합니다.
2. **플로팅 속도** 연필 플로팅의 경우 잉크가 나오지 않아 생기는 펜 전용 플로터 경우의 SKIP 현상이 없으므로 초고속 플로팅이 가능합니다.
3. **수정작업** 연필 플로팅은 일부분을 지우고 설계도면을 변경하는 수정작업이 가능합니다.
4. **연속작업** 플로터 내에 1MB 용량의 BUFFER가 내장되어 있으므로 플로팅 작업중에도 컴퓨터를 다른 작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A/S** MUTOH<sup>SUNPOWER</sup> 전용 A/S 센터를 운영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A/S로 사용자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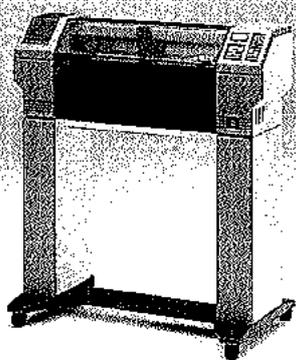
## 펜 전용 플로터의 문제점을 모두 해결한 MUTOH<sup>Sunpower</sup> 플로터!

### F SERIES PLOTTER

The F-910E Professional Plotter

용지의 크기 : A1,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 1131mm/sec  
 (가속 5.7G)

정확도 : 0.1% 0.25mm  
 해상도 : 0.01mm  
 버퍼 용량 : 1MB  
 사용 가능 펜수 : 8 PEN  
 사용 가능 연필수 : 40 Pencil  
 Interface 방식 : RS-232C/RS-442A  
 소비자 가격 : ₩ 10,25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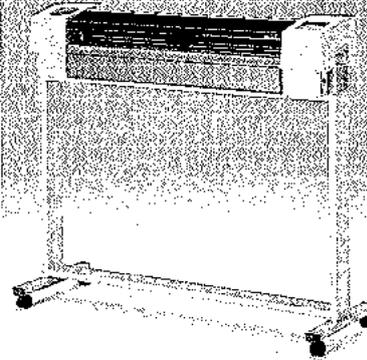


### iP SERIES PLOTTER

The iP-530EL iP-530E Plotter

용지의 크기 : iP-530EL A0, B1, A1,  
 A2, A3, A4,  
 iP-530E A1, A2, A3, A4

플로팅 속도 : 705mm/sec (가속 2.1G)  
 정확도 : 0.01%  
 해상도 : 0.025mm  
 버퍼 용량 : 1MB  
 사용 가능 펜수 : 8 PEN  
 사용 가능 연필수 : 6 Pencil  
 Interface 방식 : RS-232C  
 소비자 가격 : iP-530EL ₩ 6,250,000  
 iP-530E ₩ 4,650,000



**MUTOH** Sunpower

서통 시사업부 5140-386

서울지역 A/S CENTER

서울 강남구 논현동 6-21 썬파워컴퓨터전시장  
 Tel. (02) 5140-386 (대) Fax. (02) 545-0296

부산지역 A/S CENTER

부산 중구 대창동 32-4 성림빌딩 태창캐드팩스  
 Tel. (051) 464-6450 (대) Fax. (051) 464-5344

# CAD 교육안내

현대사회의 고도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건축문화와 컴퓨터문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본협회에서는 서동 AI사업부의 협찬으로 CAD교육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더욱 세련된 DESIGN과 다양한 SIMULATION을 통해 정확하고 빠른 설계와 대고객 PRESENTATION으로 효과의 극대화 및 신뢰성 확보로 회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되고자하는 본계획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교육개요

- 기간 및 시간 : 매기별 1주일단위 (총 56시간)
- 인 원 : 매기별 20명
- 장 소 : 본 협회 1층 CAD교육연구소
- 참가비 : 과정별 20만원

## 교육일정표

과 정 명	기 수	일 자
실 무 과 정	5 기	91년 1월 7일 - 1월 12일
경 영 자 과 정	1 기	1월 14일 - 1월 19일
실 무 과 정	6 기	1월 21일 - 1월 26일
연 구 과 정	1 기	1월 28일 - 2월 2일

\* 교육은 연중계속되며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과정

미국 SIGMA DESIGN사에서 개발한 건축전용 CAD인 ARRIS를 다음과 같이 교육합니다.

- 실무과정 : COMPUTER 또는 CAD에 사용경험이 적은 분을 대상으로 컴퓨터개론에서부터 CAD의 기초 및 응용까지 교육하는 실무과정입니다.
- 연구과정 : CAD이용경험(6개월 이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Xenix 및 ADD(Architectural Drafting & Documentation), M&R(Modeling & Rendering)에 교육의 비중을 높인 고급과정입니다.

- 경영자과정 : CAD SYSTEM의 기본적인 조작과 함께 운영의 특성,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 설계사무소 소장 및 중견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자 과정입니다.

## 교육신청방법

- 기한 : 매주 수요일(수강개시前週 수요일)
- 장소 : 본협회 총무부
- 방법 : 아래의 교육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참가비와 함께 내방접수 또는 우편이나 FAX(586-8823)를 이용할 경우에는 당협회 구좌(제일은행 429-20-166612, 예금주: 대한건축사협회 출판원)로 송금후 무통장 입금표를 첨부

## 교육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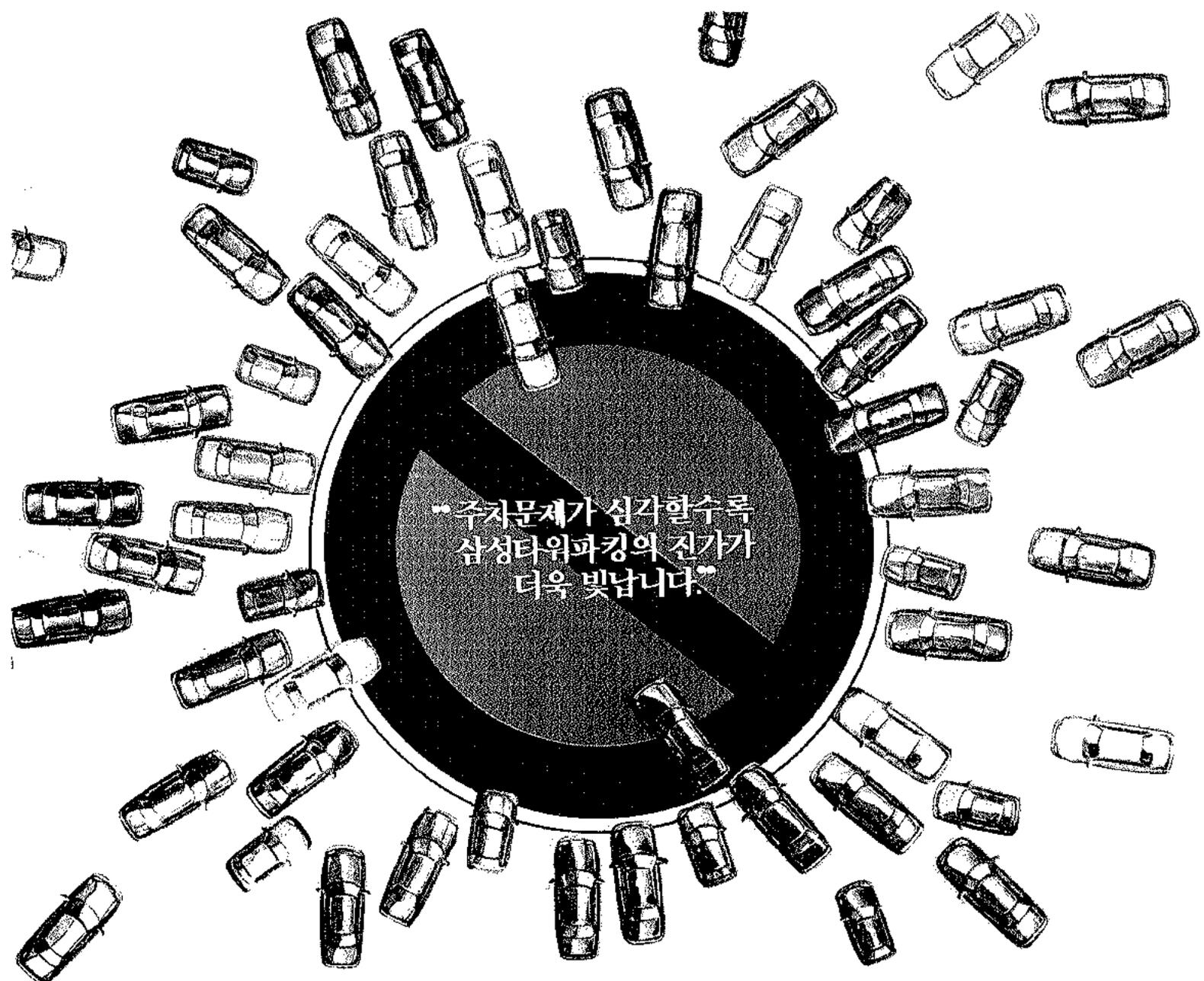
- 1인 1대 실습위주의 교육  
국내 CAD교육센터중 최대의 장비보유로 1인 1대의 실습위주교육이므로 단기간에 최대의 교육효과를 보장합니다.
- 경험많은 전문강사진 운영  
서동 AI사업부의 전문강사진으로 건축과 전산을 전공한 해당분야의 유경험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완벽한 책임교육  
교육이수후 당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평가에 합격하여야만 수료증이 발급되며 불합격자에게는 합격시까지 무상교육이 계속되므로 교육의 책임을 다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협회 총무부 또는 CAD교육연구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581-5711)

## 교육참가신청서

성 명	주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근부처	근부처주소	
직 위	참가일정	과정 기 CAD사용기간 개월

- \* 신청서가 부족한 경우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 \* 해당과정의 신청인원이 많은 경우 조정후 통보합니다.



“주차문제가 심각할수록  
삼성타워파킹의 진가가  
더욱 빛납니다.”

# 삼성타워파킹

## 국내 처음으로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타워파킹 개발!

알짜기 15년전, 국내에 입체주차장을 처음 소개한 삼성은 그동안의 축적된 경험과 첨단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여 대도시 주차난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취급기종

- 수직순환방식 : 초고속형, 턴테이블내장형, 이중탑재형 ● 엘리베이터방식
- 다층순환방식 ● 2, 3단 주차설비 ● 자동차용 엘리베이터

본 사 : (02)728-6431~3 FAX: (02)728-6214, 756-9358  
 청원공장 : (0551)60-6382~3 FAX: (0551)60-6767  
 부산지점 : (051)807-6814 FAX: (051)862-5375  
 대구지점 : (053)254-3004~5 FAX: (053)23-9244  
 광주지점 : (062)224-2174 FAX: (062)224-2173  
 대전지점 : (042)253-2252~3 FAX: (042)253-3988

## 축적된 기술의 크기만큼 선택의 폭도 다양한 삼성타워파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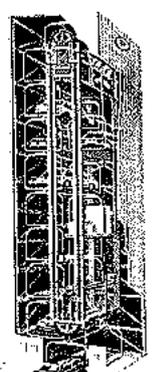
수직순환방식 : 대형체안에 차를 실을 수 있는 상자(Cage)를 매달아 순환이동시키면서 입출고하는 방식입니다.

엘리베이터방식 : 엘리베이터에 차를 싣고 오르내리면서 좌우의 주차구역으로 차를 입고하는 시스템 (횡식, 종식)

1. 초고속형 : 입출고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2. 턴테이블내장형 : Cage 자체가 회전하여 전후좌우로 입출고 가능

3. 이중탑재형 : 파레트 하나에 2대를 주차



**삼성중공업**  
기계사업본부

## 차례/1990년 12월호 등권 제260호

특집	국립중앙과학관/(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14
	건국대 충주캠퍼스 학생회관/張錫雄	18
	대코사옥/鄭世植+徐鎮宇	22
	늘원빌딩/承孝相	26
	SN빌딩/承孝相	28
	두영빌딩/安吉元	30
	이화여대 박물관/金正滉	3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진천공장/俞元在	35
나의 스케치	자연속의 집/李鍾祥	38
특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보는 建築士의 視角/金知德	40
알려져야 할 이야기	시간·숙련·道/朴研心	42
	庚午年の 始末書/金仁喆	43
특	세계접근으로서의 건축형태/董政根+朴研心	44
	韓國 傳統家屋의 再照明/李王基+朴明德	54
	교토, 다카마쯔 신, 고성능 기계/金文德	62
ARCASIA	ARCASIA대회 및 아시아건축사협회 이사회/李廷根	74
알	ACAIE 및 쟈보리대회/田鳳秀	79
각	인도에서의 9일/남수현+이소진	82
저	1990년 10월분 도서신고현황	84
	'90년도 建築士誌 총목차	86
간	간행 支部會長의 紹介	88
	協會消息/제25회 定例總會消息	92

**發行人:** 宋基德  
**編纂弘報委員會**  
**委員長:** 禹南龍  
**委員:** 董政根, 朴舒弘, 吳澤吉, 金基哲,  
 趙聖烈, 崔正一, 鄭正治, 朴研心,  
 崔命喆, 金周喆  
**編輯:** 出版事業部  
**發行處:** 大韓建築士協會  
**住所:** 서울特別市 瑞草區 瑞草洞 1603-55  
**郵便番號:** 137-071  
**電話:** 代表 (02)581-5711, 581-5712~4  
**팩시밀리:** (02) 586-8823  
**텔레кс:** KIRAA 33550  
**登錄番號:** 서울 라-26 (月刊)  
**發 錄:** 1967年 3月 23日  
**U. D. C.:** 69/72(054-2); 0612(519)  
**印刷人:** 全允珪/沈文精版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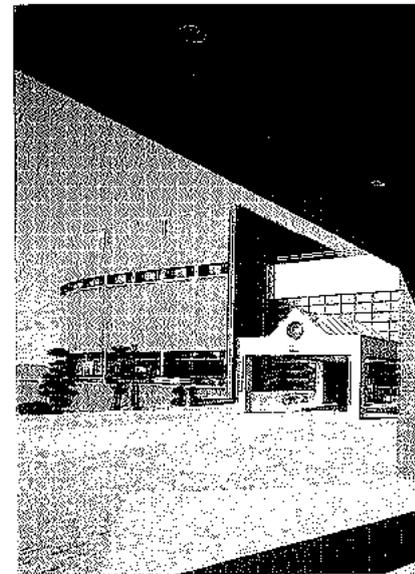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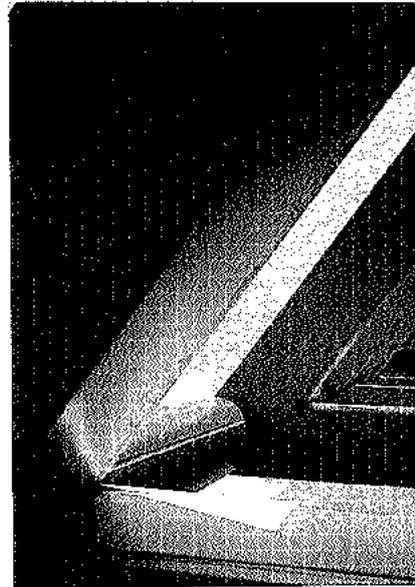
**Publisher:** Song, Kee-Duk  
**Editorial Committee**  
**Chairman:** Woo, Nam-Yong  
**Member:** Dong, Jeong-Kwon/ Park, Seo-Hong/ Oh, Teak-ki  
 / Kim, Kee-Chul/ Cho, Sung-Yul/ Choi, Jeong-Il/  
 Jeong, Jung-Chi/ Park, Yeon-Sin/ Choi, Myung-  
 Chul/ Kim, Joo-Cheol  
**Editor:** Editorial Committee  
**Assistant Editor:** Publishing Department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1  
**TEL:** (02) 581-5711, 581-5712~4 **FAX:** (02) 586-8823  
**TLX:** KIRAA 33550  
**Registered Number:** Seoul Ra- 26  
**Registered Date:** March 1967  
**U.D.C.:** 69172(054-2); 0612(519)  
**Printer:** Jeon, Yun-Kyu (Kwang Moon Printing Co.)



표지 : 건국대 충주캠퍼스 학생회관  
 (설계 : 張錫雄)

## CONTENTS Vol. 260, DECEMBER 1990

WORKS	<i>National Science Museum, Taedök/Space of Korea</i>	14
	<i>Kunkook Univ.(Choongju Campus) Student's Hall/Chang, Suk-Woong</i>	18
	<i>Deko Building/Chung, Se-Sik &amp; Seo, Jin-Woo</i>	22
	<i>Nulwon Building/Seung, Hchih-Sang</i>	26
	<i>SN Building/Seung, Hchih-Sang</i>	28
	<i>Mooyoung Building/Ahn, Gil-Won</i>	30
	<i>Museum of Ewha Women's Univ./Kim, Jung-Sik</i>	32
	<i>Texas Instrument Korea Limited Chinchon Facilities/Yoo, Won-Jai</i>	35
ART SKETCH	<i>A House in Nature/Lee, Jong-Sang</i>	38
FOCUS	<i>Our's Review on the Uruguay Round/Kim, Chi-Dok</i>	40
ESSAY	<i>Time, Skill, and Moral Sence/Park, Youn-Sim</i>	42
	<i>Written Apology of 1990/Kim, In-Cheurl</i>	43
REPORT	<i>System Approach Design Method/Dong, Jung-Keun &amp; Park, Youn-Sim</i>	44
	<i>Review of the Traditional House/Lee, Wang-Kee &amp; Park, Myoung-Duck</i>	54
	<i>Kyoto, Shin Takamatsu, Erotic Machine/Kim, Moon-Duck</i>	62
ARCASIA	<i>ACA-4 and 11th ARCASIA Council Meeting/Lee, Jeong-Keun</i>	74
REPORT	<i>4th ACAE Anual Meeting and 3rd Asian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i>	79
	<i>/Jeon, Bong-Soo</i>	
	<i>Looking Back Upon 3rd Asian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i>	82
	<i>/Nam, Soo-Hyun &amp; Lee, So-Jin</i>	
MATERIALS		84
NEWLY BRANCH CHIEF OF KINA		88
SEA NEWS		92



### 전국시도지부 및 건축상담실 안내

서울특별시지부 / 서울특별시초구조조팀1603-55, 581-5715~8 · 서대문분소 / 서대문구연희동169-25, 333-6411 · 관악분소 / 관악구신림동1422-17, 882-6744 · 도봉분소 / 도봉구수유동191-13, 903-3425 · 영등포분소 / 영등포구당산37181, 634-2143 · 강동분소 / 강동구성내동317-4, 484-6840 · 강서분소 / 강서구화곡동1105-05, 604-7158 · 성동분소 / 성동구구의동252-16, 446-5244 · 동대문분소 / 동대문구신설동101-7, 923-6313 · 중로분소 / 중로구청진동201-1, 738-5416 · 마포분소 / 마포구 성산동275-1, 333-5251 · 송파분소 / 송파구송파동50-12, 423-9158 · 중구분소 / 중구로2가49-11, 279-1415 · 용산분소 / 용산구원효로1가129-22, 712-7647 · 서초분소 / 서초구서초1동1623-1, 587-9760 · 은평분소 / 은평구녹번동79-32, 352-6720 · 동작분소 / 동작구사당동206-6, 815-3026 · 강남분소 / 강남구논현동241-6, 511-8515 · 노원분소 / 노원구상계1동1049-79, 992-8076 · 양천분소 / 양천구신정동1027-9, 646-7172 · 중랑분소 / 중랑구목1동171-12, 973-4921 · 성북분소 / 성북구삼선5가10, 923-4401 · 구로분소 / 구로구구로동86-4, 853-4084 ■ 부산직할시지부 / 부산직할시중구동광동17가(부산테크노파크) (051) 246-6284~5 ■ 대구직할시지부 / 대구직할시수성구원어동3가1-8, (053) 72-5141~2 ■ 인천직할시지부 / 인천직할시남구간석1동558-1, (032) 424-0146, 5100(한국종합빌딩204호) ■ 광주직할시지부 / 광주직할시북구중동694-10, (062) 521-0025 (FAX) 521-0026 ■ 대전직할시지부 / 대전시중구대흥동437-1, (042) 254-2441 ■ 경기도지부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7124-5, (0331) 47-6129~30 · 직할분소 / 경기도수원시매산로3가1-8, (0331) 42-6490, 7072 · 안양분소 / 안양시안양동719-9, (0343) 2-2698, 2-0012 · 부천분소 / 부천시원미동74-6, (032) 63-3144 · 성남분소 / 성남시신원동5512, (0342) 2-5445 · 의정부분소 / 의정부시외정부동182, (0351) 2-1083 · 송탄분소 / 송탄시신상동21, (0333) 4-6153 · 고양분소 / 고양시원당읍주교리38블럭16로트, (0344) 63-8902 · 구리분소 / 구리시수택동409-2, (0346) 63-8112 · 이천분소 / 이천시인촌읍중리216-8, (0336) 2-3396 · 광명분소 / 광명시철산동464-7, 682-2875 · 안산분소 / 안산시고잔동531-5, 82-2820 ■ 강원도지부 / 강원도춘천시옥천동39-5, (0361) 54-2442 · 원주분소 / 원주시일산동206, (0371) 142-3257 · 강릉분소 / 강릉시성내동6-14 (0391) 2-2262 · 속초분소 / 속초시동명동466-33, (0392) 33-5081 · 삼척분소 / 삼척시남양동55-43, (0397) 2-3106 · 영월분소 / 영월군영월읍영동121960-12, (0372) 43-2659 ■ 충청북도지부 / 충청북도청주시북문로27116-168, (0431) 56-2752, 53-7342 · 충주분소 / 충주시역전동673-1, (0441) 2-3082 · 계천분소 / 계천시외림동8-8, (0443) 2-6253 · 옥천분소 / 옥천군옥천읍삼양동222-206, (0475) 32-9997 ■ 충청남도지부 / 충청남도대전시중구대흥동473-1, (042) 256-4088 · 천안분소 / 천안시문화동160-1, 4, (0417) 2-4551 · 홍성분소 / 홍성군홍성읍오관리239-1, (0451) 32-2853 · 부여분소 / 부여군부여읍남리703-1, (0463) 2-2217 · 대천분소 / 대천시대천동197-10, (0452) 34-3367 ■ 전라북도지부 / 전라북도전주시서노송동635-5(대북빌딩508), (0652) 87-6089 · 이리분소 / 이리시남중동1가77-22, (0653) 52-3304 · 군산분소 / 군산시중앙로17110-11, (0654) 2-4060 · 남원분소 / 남원시하정동106-2, (0671) 2-6002 ■ 전라남도지부 / 전라남도서구화양동783-23(추신역관) (062) 364-7567, 33-9944 · 목포분소 / 목포시대안동1, (0631) 43-3348 · 순천분소 / 순천시향천동51-11(0661) 3-2457 · 여수분소 / 여수시관동441번지, (0662) 64-7023 ■ 경상북도지부 / 대구직할시중구동인동171285번지, (053) 425-4904 · 포항분소 / 포항시죽동43-22, (0562) 144-6029 · 경주분소 / 경주시노동동42-2(0561) 3-3638 · 구미분소 / 구미시원평동964-264, (0546) 52-6351 · 안동분소 / 안동시서부동157-4, (0571) 2-5703 · 김천분소 / 김천시평화동200-1, (0547) 2-2541 · 영주분소 / 영주시효현2동295-2, (0572) 2-4566 · 점촌분소 / 점촌시중앙동280-3, (0581) 2-2706 · 상주분소 / 상주시남성동36-23, (0582) 2-4306 ■ 경상남도지부 / 경상남도마산시중앙동3713-47, (0551) 46-4530~1 · 울산분소 / 울산시남구신정동585-6, (0522) 74-8836 · 진주분소 / 진주시본성동7-20, (0591) 2-6403 · 통영분소 / 통영시서호동163-18, (0557) 43-3577, 2-7420 · 김해분소 / 김해시부원동24B-10L, (0594) 2-6114 · 밀양분소 / 밀양시삼문동184-108, (0527) 53-2110 · 거창분소 / 거창군거창읍중앙리274-3, (0598) 12-7090 · 양산분소 / 양산군양산읍다방리522-4, (0523) 184-3050 · 거제분소 / 거제군신현읍고현리139-2, (0558) 1635-3432 · 삼천포분소 / 삼천포시봉동91-6(0593) 83-3591 ■ 제주도지부 / 제주도제주시2도1동1289-6, (064) 22-3248, 52-3248 · 서귀포분소 / 서귀포시서귀동299-6, (064) 32-7777

本協會는 每年 가을에 開催하였던 建築士 作品 巡迴展과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을 發展的으로 統合, 1991년부터는 「韓國建築展」으로 名稱을 變更하고, 全國建築士大會와 並行하여 開催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91年 '農村住宅 懸賞募集'으로 始作된 建築士 作品巡迴展은 그동안 우리나라 建築界 發展의 礎石이 되어 왔으며, 더불어 開催되어 왔던 新人·學生 建築設計公募展은 새로운 建築文化의 開拓者를 養成해온 産室이 되어 왔습니다. 이에 본協會는 우리나라 建築文化 幅達이란 時代的 使命 아래 그동안 未洽했던 점들을 補完, 發展시켜 全 建築界의 盛大한 祝祭가 되도록 할 豫定입니다

특히 施賞 制度를 大幅 強化하여 會員 및 新人·學生들의 創作 意慾을 복돋우기 위해 그 格을 높이는 한편, 一般人들의 參與를 誘導하여 建築 底邊 擴大를 圖謀하는 立體的인 展示 計劃을 樹立하였습니다.

우리나라 建築文化의 새로운 氣風 造成을 위한 本協會의 努力에 建築界 모두의 積極的인 聲援을 바라며, 會員 및 新人·學生들의 폭넓은 參與뿐 아니라 "韓國의 建築을 새롭게 자리 매김"할 優秀한 作品과 斬新한 아이디어가 出品되어 우리 建築文化 位相을 한층 더 드높이는 契機가 되기를 바랍니다.

### ■ 開催時期

—1991年 3月의 '91 全國建築士大會와 並行하여 開催 (1991年 4월부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등 주요도시 순회 전시)

### ■ 出品資格

- ◆ 建築士部門 : 1991年 1월 現在 개업 建築士
- ◇ 新人部門 : 일선 설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및 건축전공 대학원 재학생.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건축사 제외)
- ◇ 學生部門 : 대학 및 전문대학 건축전공 재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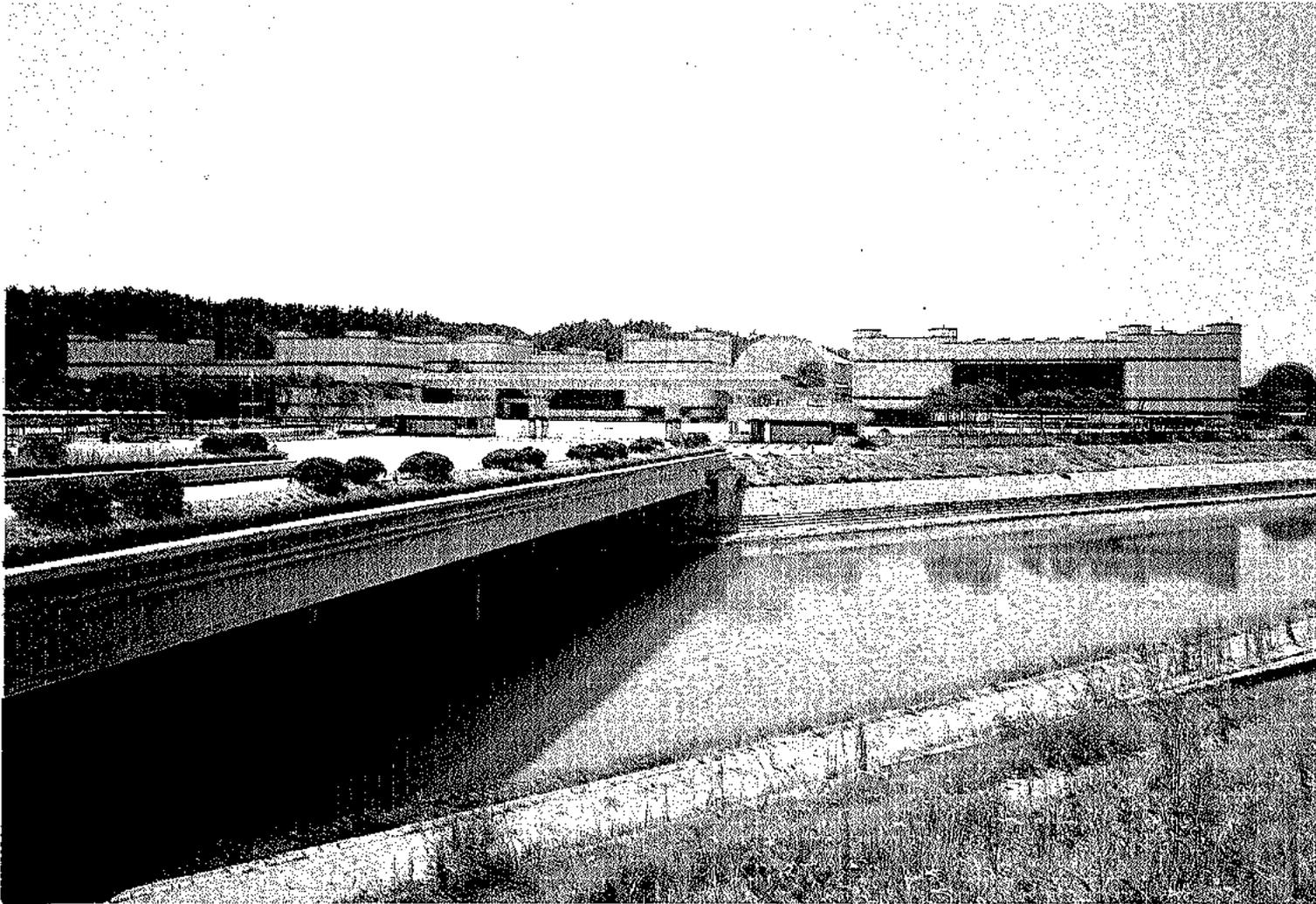
### ■ 施 賞

- ◆ 建築士部門
  - \* 大 賞(1) - 國務總理賞 : 상장 및 트로피
  - \* 最優秀賞(1) - 建設部長官賞 : 상장 및 트로피
  - \* 優 秀 賞(3) - 協會長賞 : 상장 및 트로피
  - ※ 수상작품의 건축물에 수상기념패 부착
- ◇ 新人部門
  - \* 最優秀賞(1) : 상금 300만원 및 상패
  - \* 優 秀 賞(1) : 상금 150만원 및 상패
  - \* 獎 勵 賞(3) : 상금 50만원 및 상패
- ◇ 學生部門
  - \* 最優秀賞(1) : 상금 200만원 및 상패
  - \* 優 秀 賞(1) : 상금 100만원 및 상패
  - \* 獎勵賞 - 市道支部會長賞(多數) : 상금 30만원 및 상패
  - ※ 수상자중 영어회화 능력을 갖춘 2명을 선발, ARCASIA 학생멤버리 과견특전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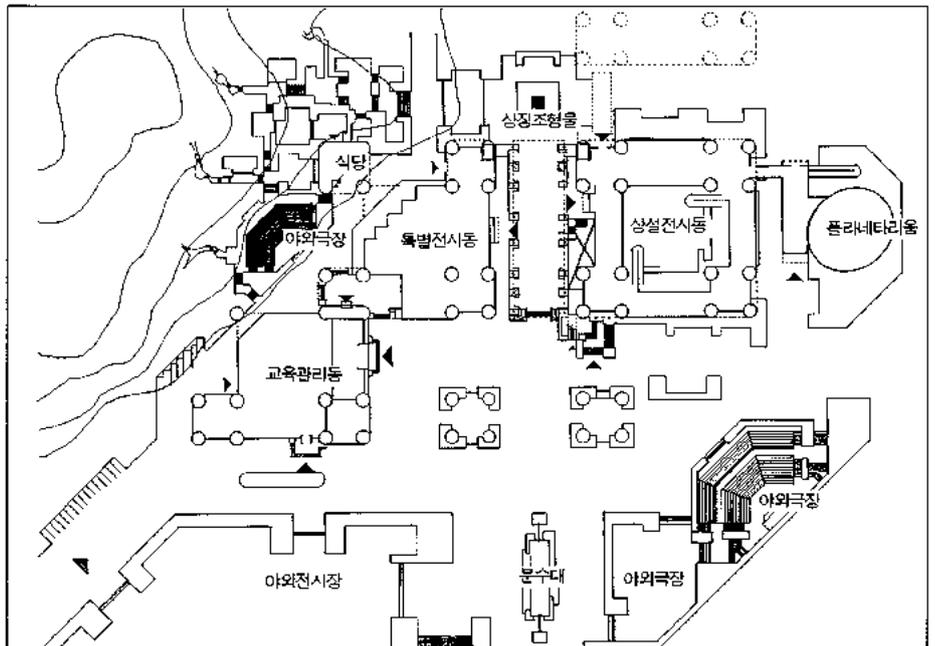


# 국립중앙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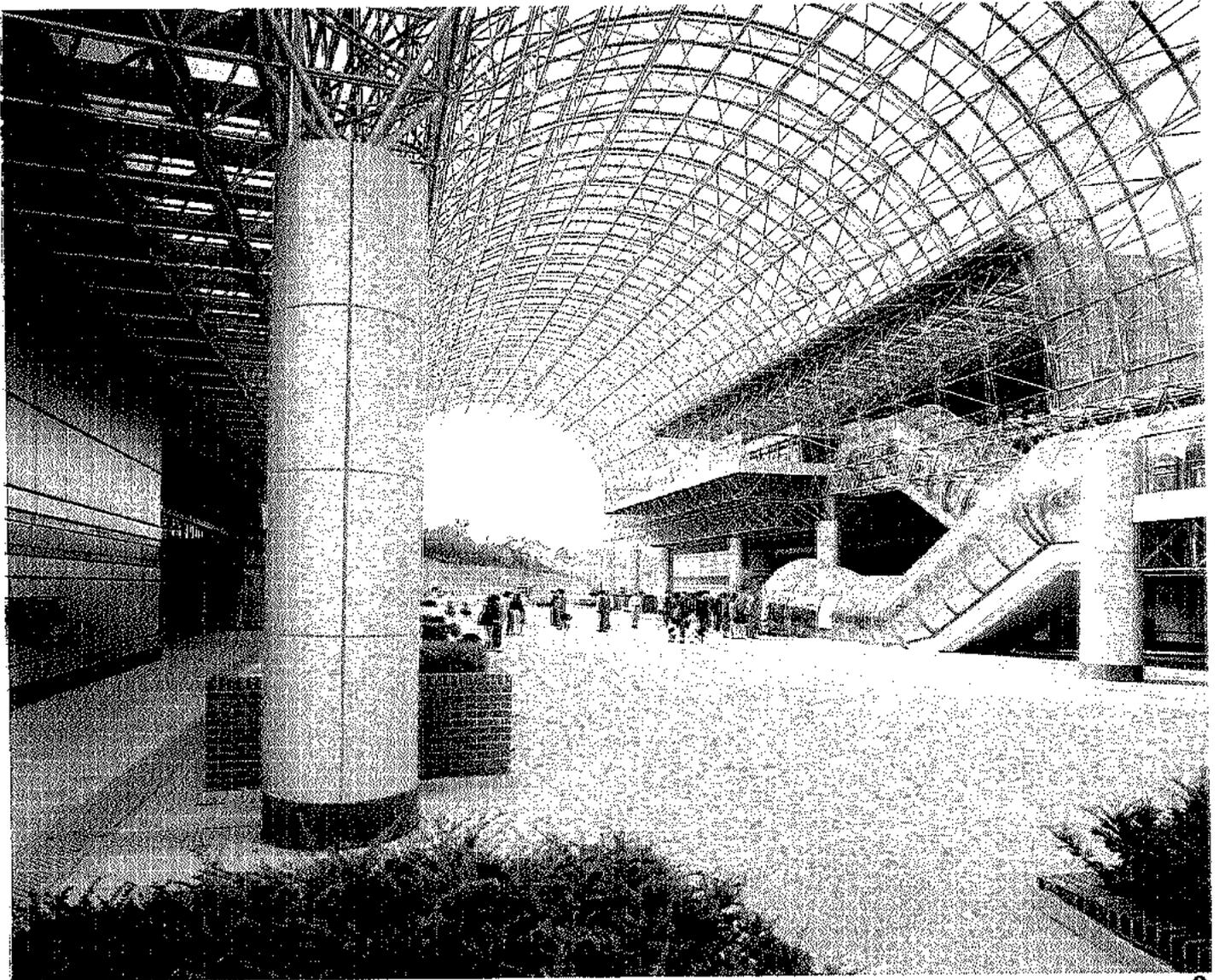
National Science Museum, Taedö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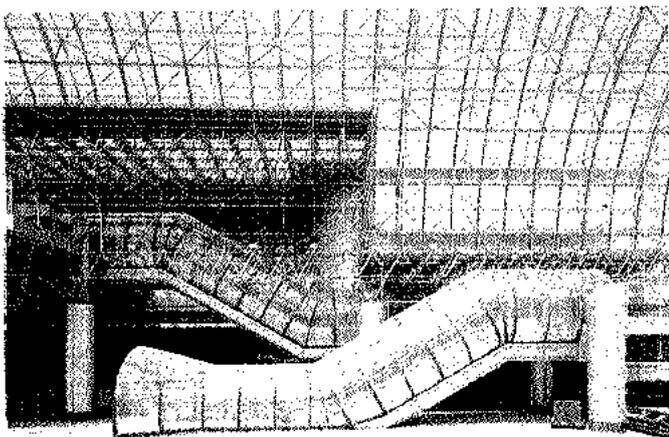
대지위치/대전시 중구 구성동, 가정동 일대  
 대지면적/165,000㎡  
 건축면적/8,559㎡  
 연면적/21,676㎡  
 규모/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지상층-철골트러스조, RC슬라브  
 지하·지층-철근콘크리트조  
 기초-철근콘크리트 독립기초  
 중앙볼트 및 천창부-Space Frame  
 플라네티리움-Space Frame, Geometric 2중돔  
 외부마감/외벽-알루미늄판(불소수지도장)  
 창호-16mm 착색 패어글라스  
 플라자바닥-회강석 버너구이 표면처리  
 옥외전시장-인트럭킹 블럭  
 주차장-아스콘



(주)공간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pac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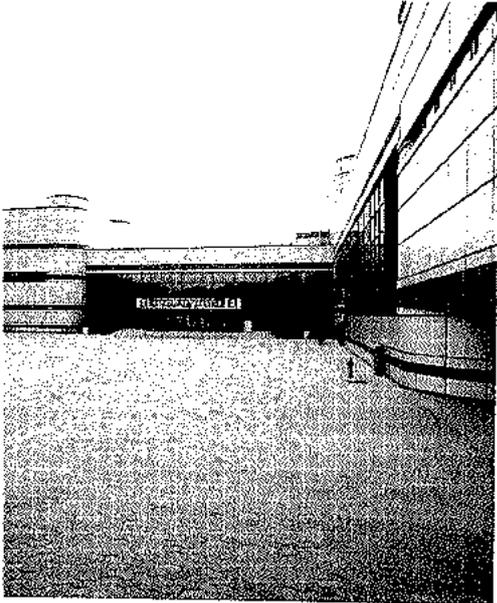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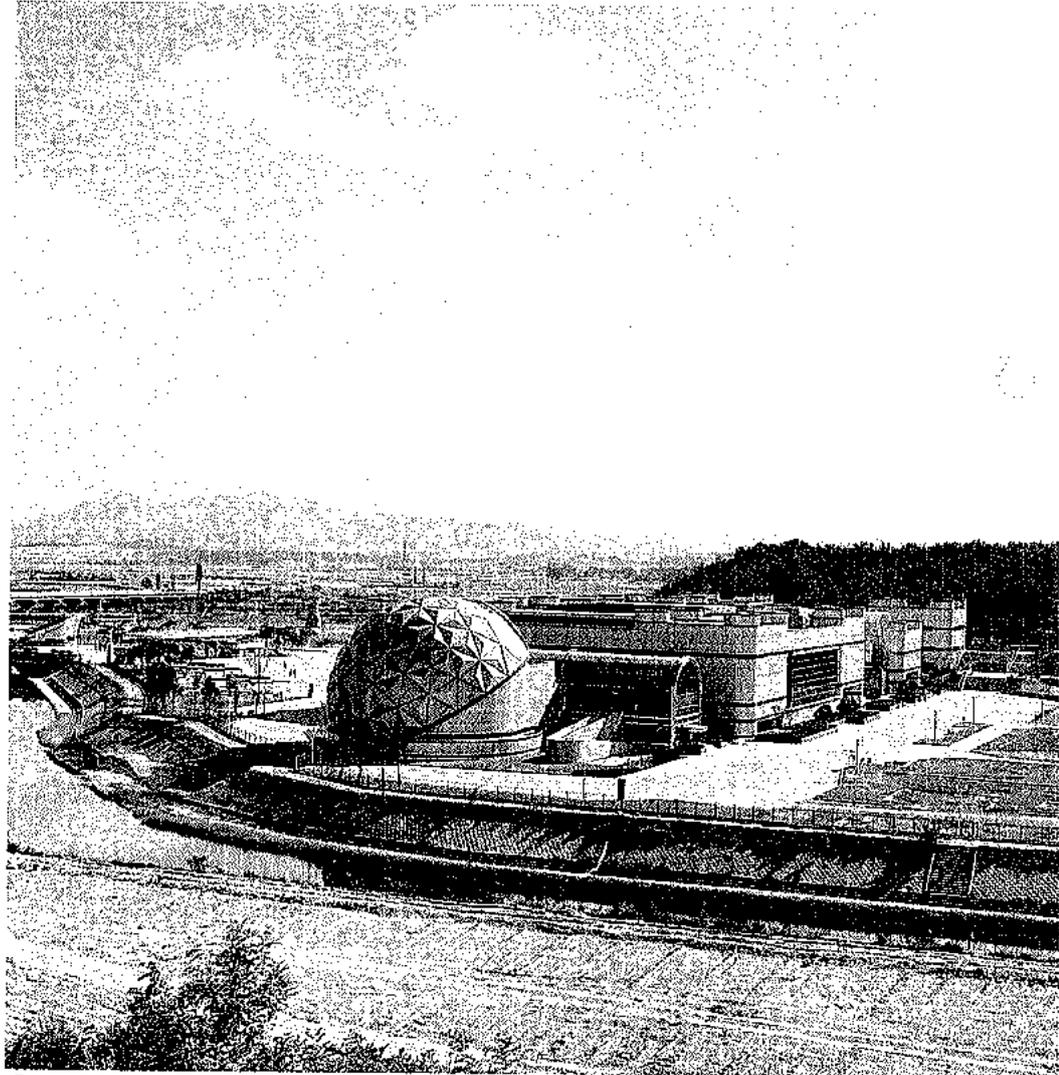


4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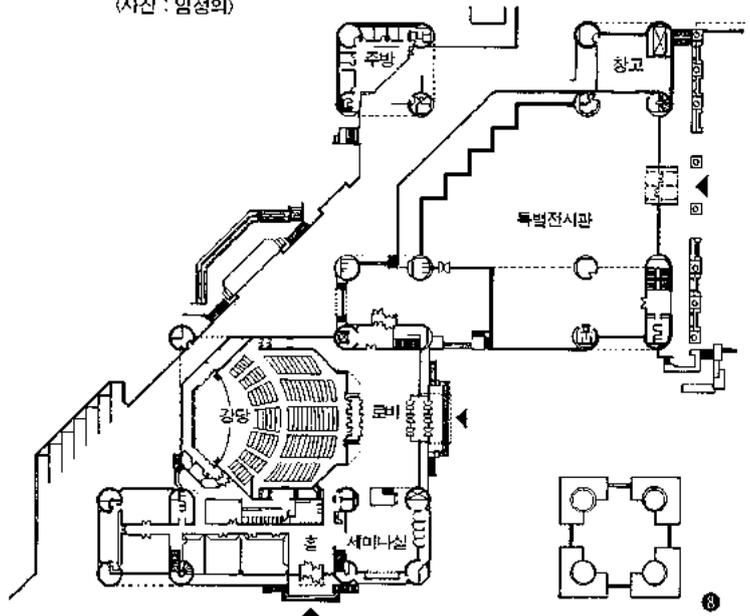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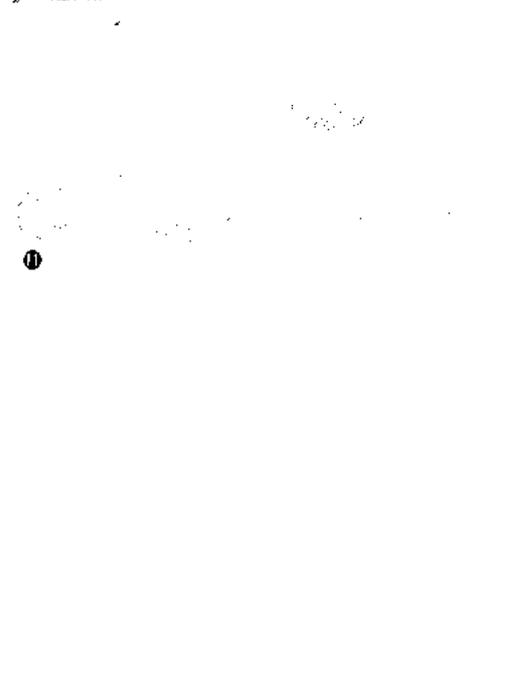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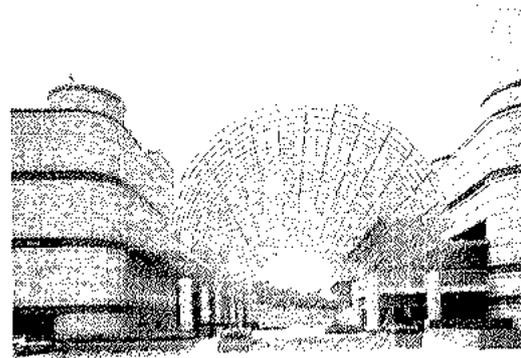
7

(사진 : 임정의)

- 1 주진입구측 전경
- 2 배치도
- 3 중앙볼트 하부의 대공간
- 4 상설전시동으로 오르는 에스컬레이터
- 5 위로부터 동, 서, 북, 남측 입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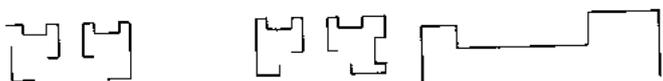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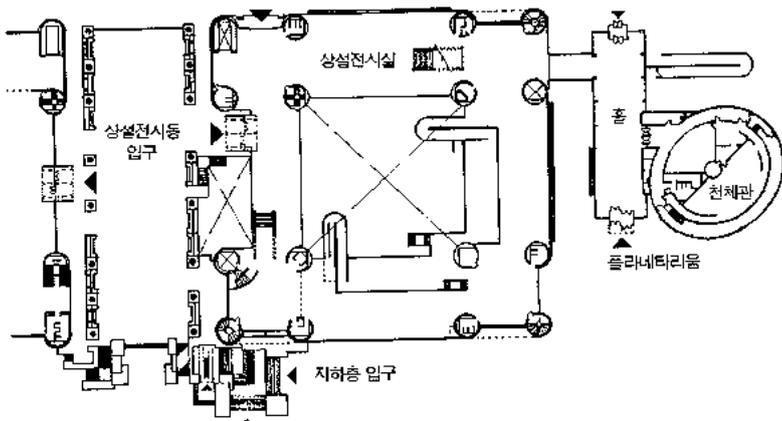
8



- ⑥ 관리동 북측 파사드
- ⑦ 매동산에서 본 전체조감
- ⑧ 교육관리 및 특별전시동 1층평면도
- ⑨ 상설전시동 1층평면도
- ⑩ 특별전시동 메인홀
- ⑪ 중앙 볼트와 전면광장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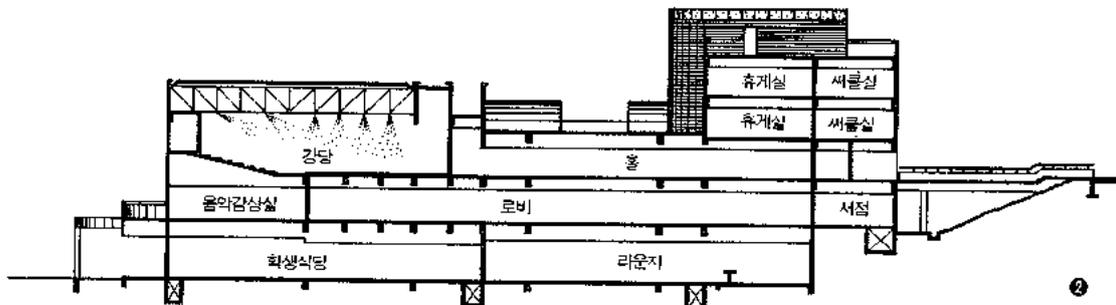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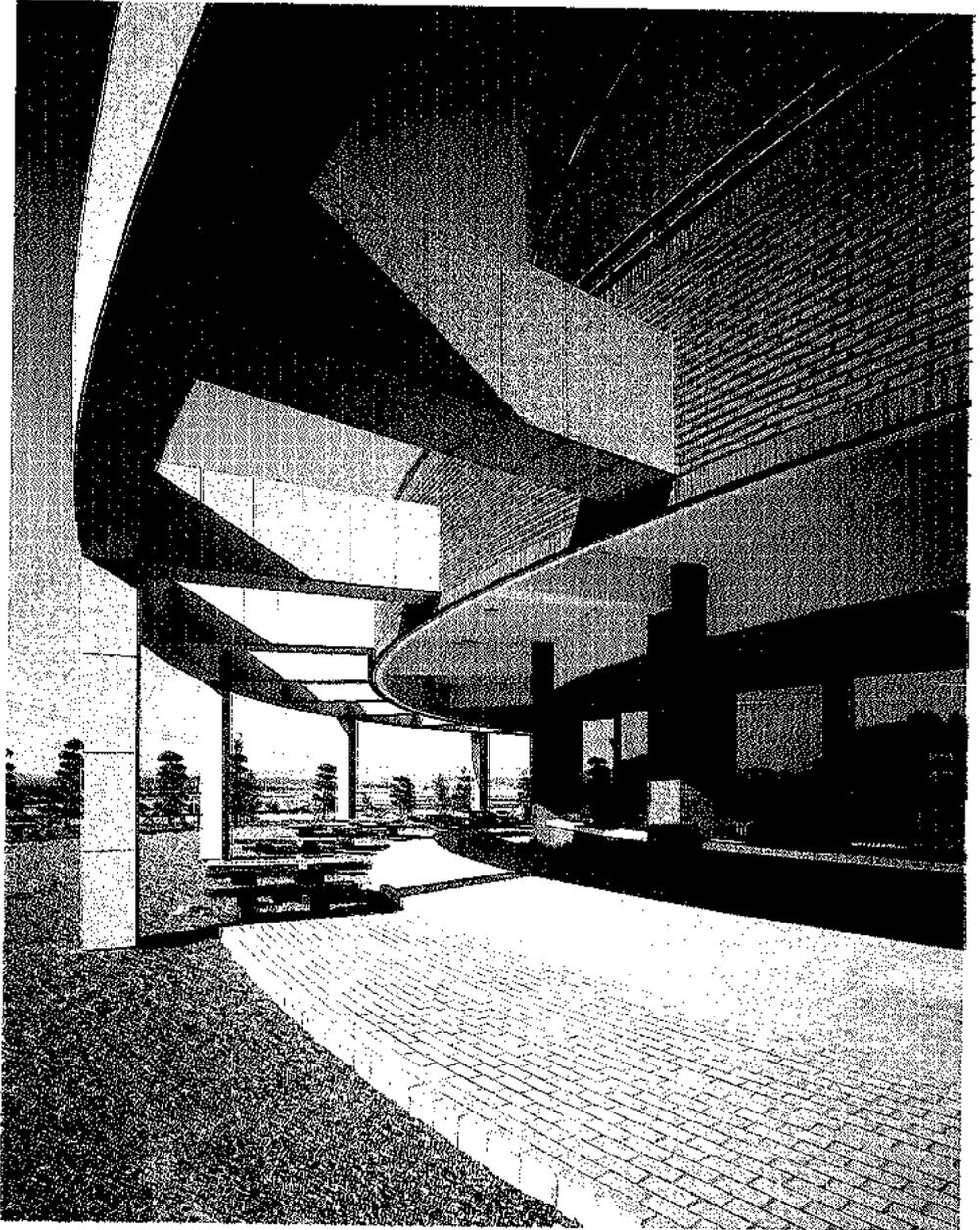


⑨

# 건국대 충주캠퍼스 학생회관

*Kunkook Univ.  
(Choongju Campus)  
Student's Hall*

대지위치/충북 청주시 건국대학교 캠퍼스내  
규모/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7,429.33㎡  
건축면적/2,068.64㎡



張錫雄 / (주)아도무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Chang, Suk-Woong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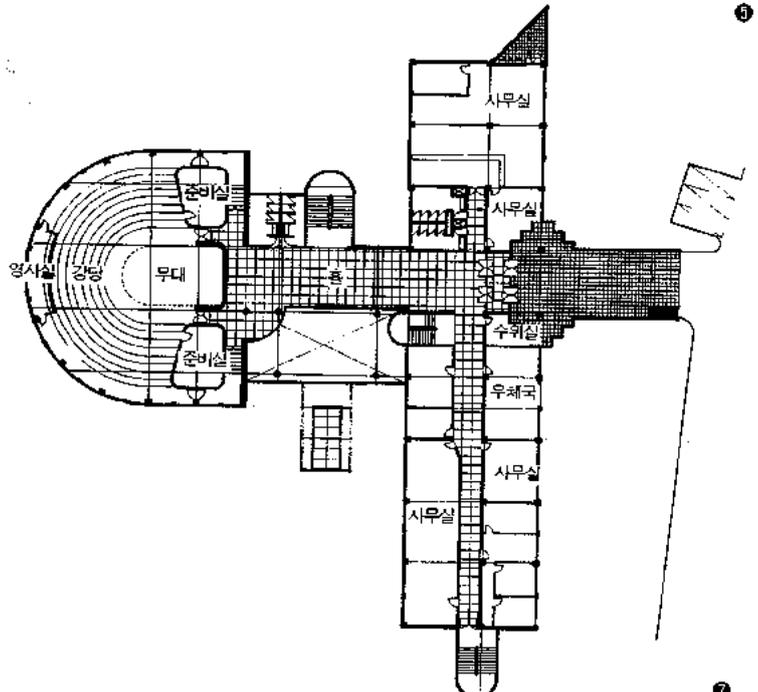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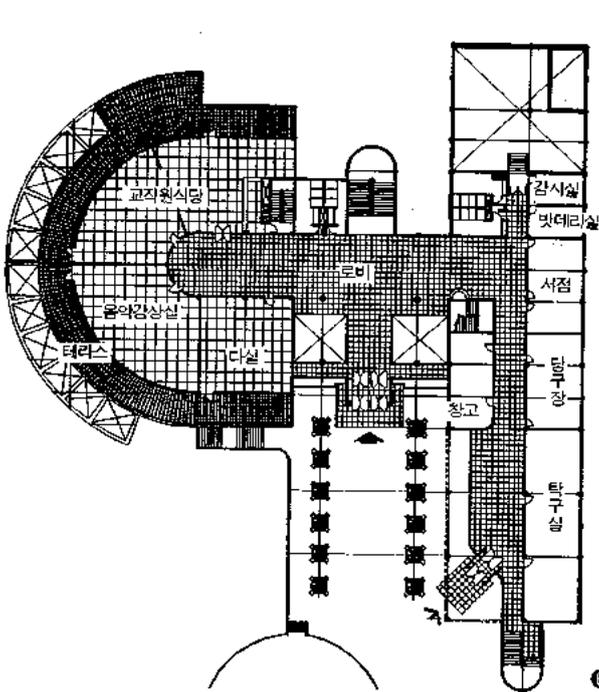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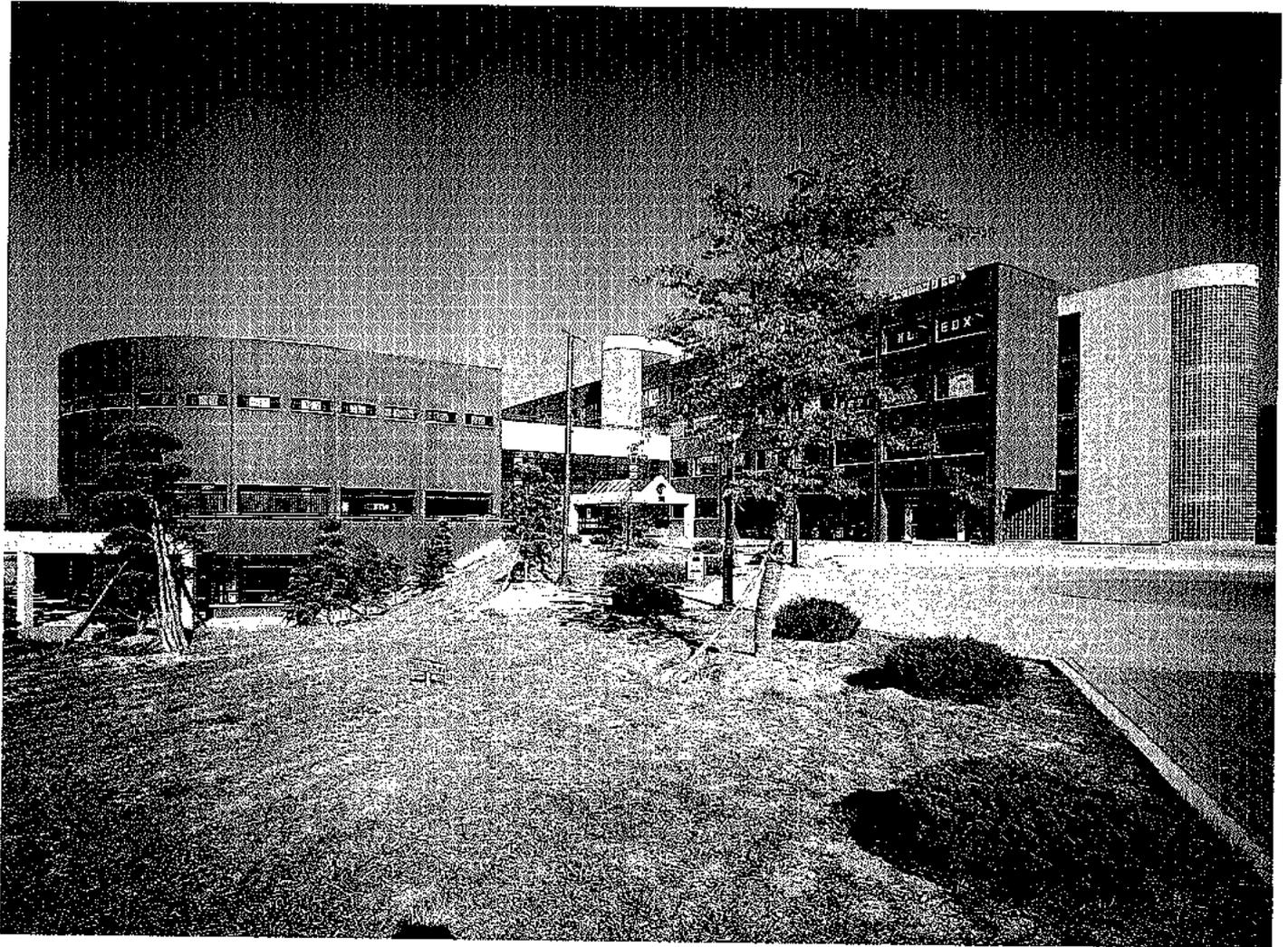
#### ■ 설계소요

남·서·북측으로 전개된 중원평야를 조망으로 Campus에 교실, 운동시설, 기숙사와 등하교의 길목에서 각시설을 조화롭게 연계하는 기능과 조형적 의미를 갖는다.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Campus 내의 학문적 열의 못지않게 문화, 예술, 스포츠등 씨름활동이 크고 작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수있고 학원활동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마련하였다.



④





①



②

- ① 테라스측 외벽상세
- ② 단면도
- ③ 정면 전경
- ④ 주출입구 상세
- ⑤ 전경
- ⑥ 1층평면도
- ⑦ 2층평면도
- ⑧ 내부 홀
- ⑨ 부출입구측에서 본 상세

(사진 : 정정승)

# 데코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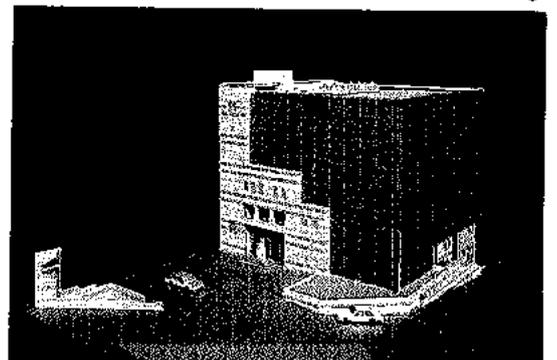
## Deko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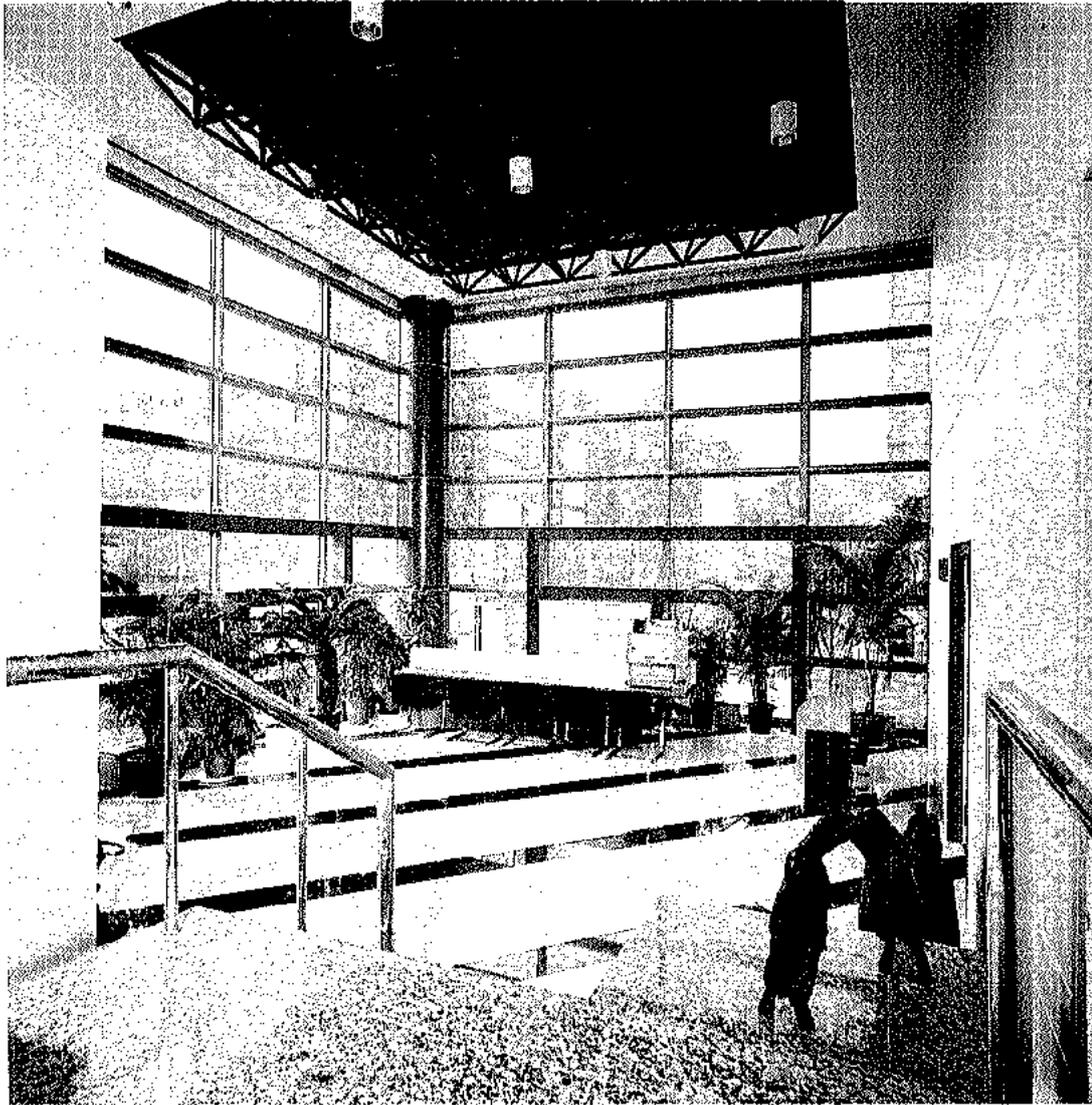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대지면적/1,154.1㎡  
 건축면적/570.2㎡  
 연면적/4,019.2㎡  
 건폐율/49.4%  
 용적률/191.3%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외부마감/화강석, 24mm 반사복층유리

鄭世權 + 徐鎮宇 / 건축사사무소 협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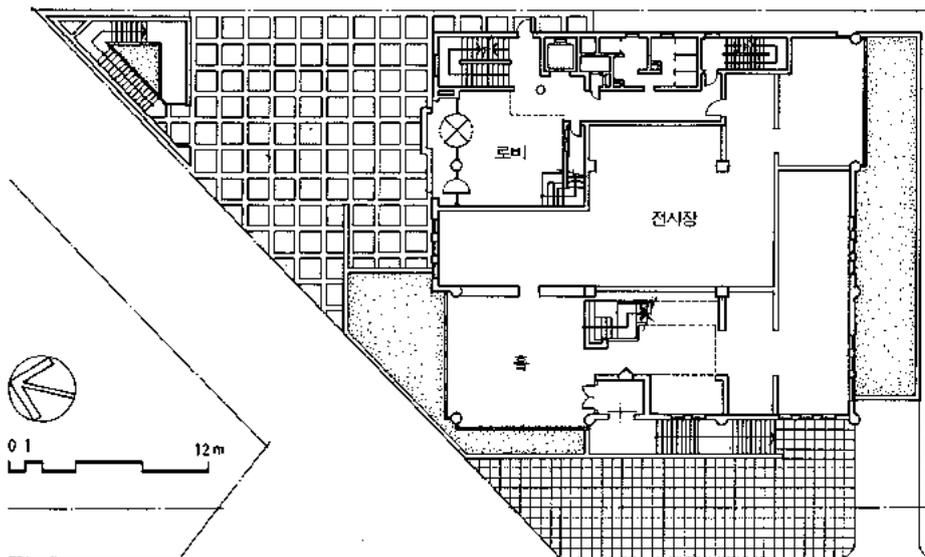
Designed by Chung, Se-Sik & Seo, Jin-W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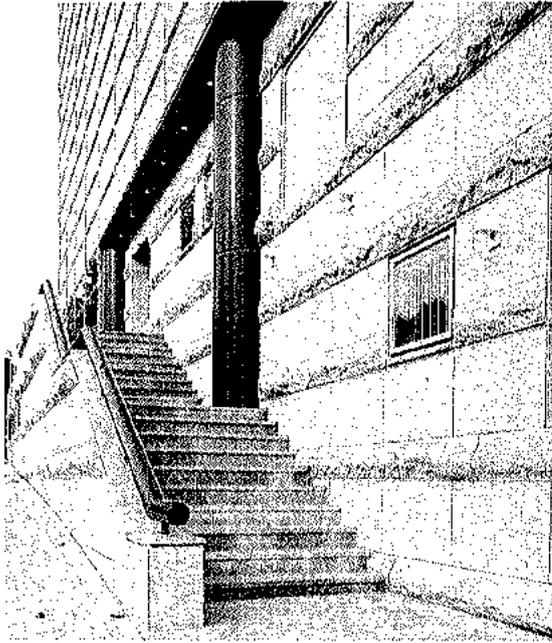


- ① 주도로서 본 전경
- ② 모형
- ③ 매장 출
- ④ 배치 및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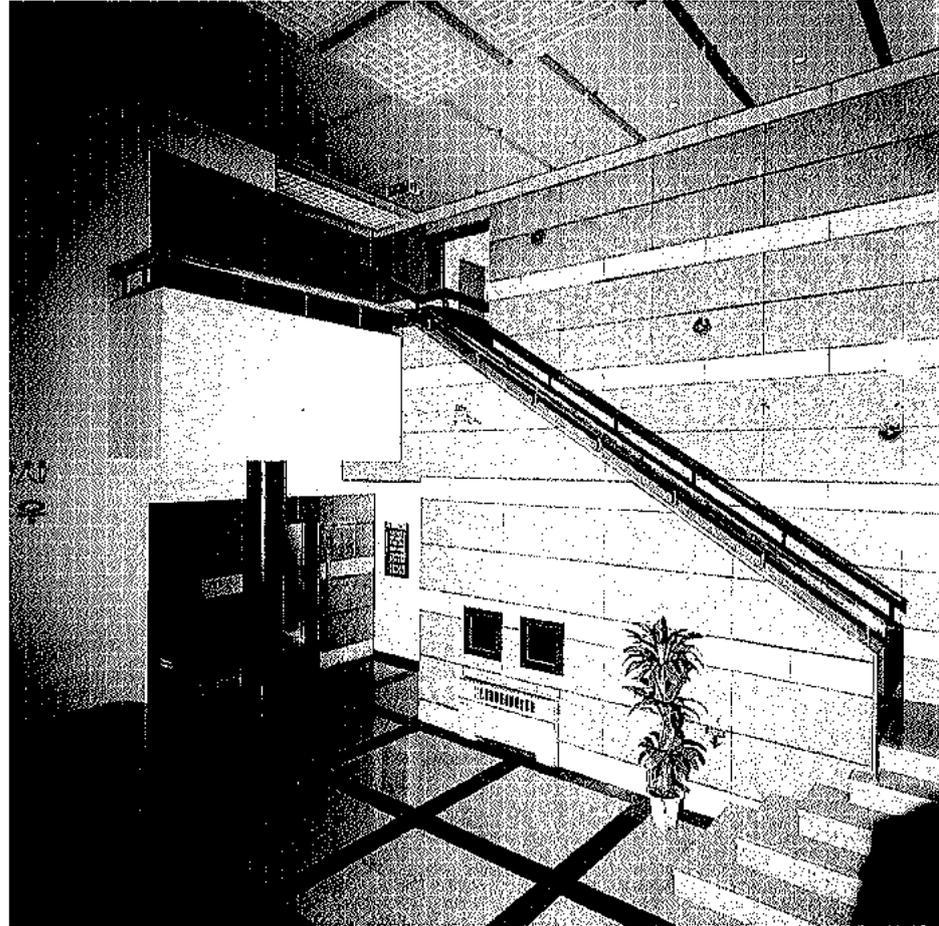
③



④



5



6

### ■ 설계소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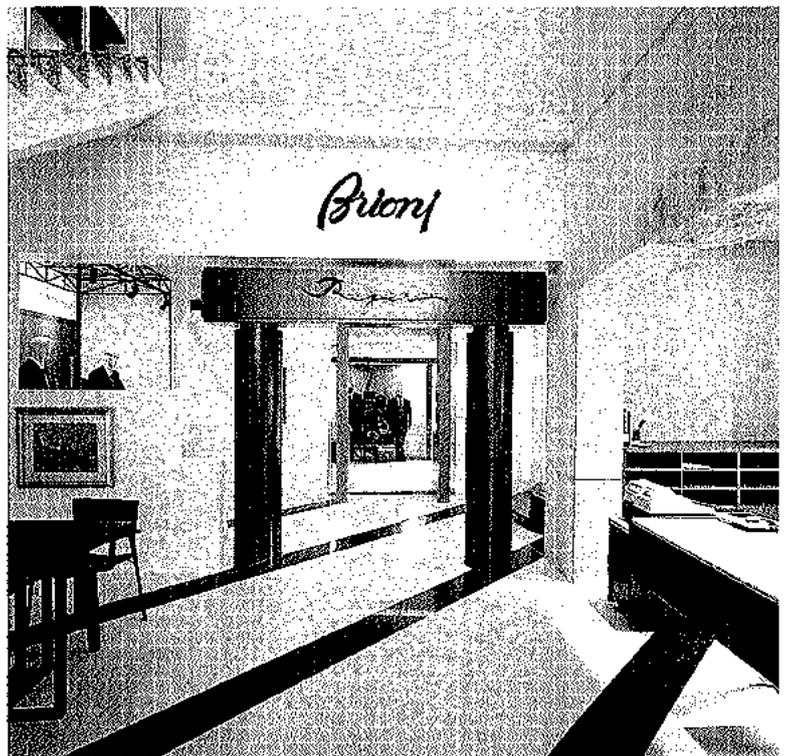
도시 한 모퉁이에 위치한 비교적 경사진 대지, 움푹파여진 구석구석이 잡초로 덮혀있는 대지는 뒤쪽의 허름한 연립주택과 도로건너편의 오래된 아파트와 더불어 화색빛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창조하는 행위는 필연적으로 파괴를 수반한다. 건축의 창조는 도심 속에서 폐허의 재구축으로 실현되고 있다. 결국, 새로운 생성은 보이지 않는 폐허의 흔적을 남기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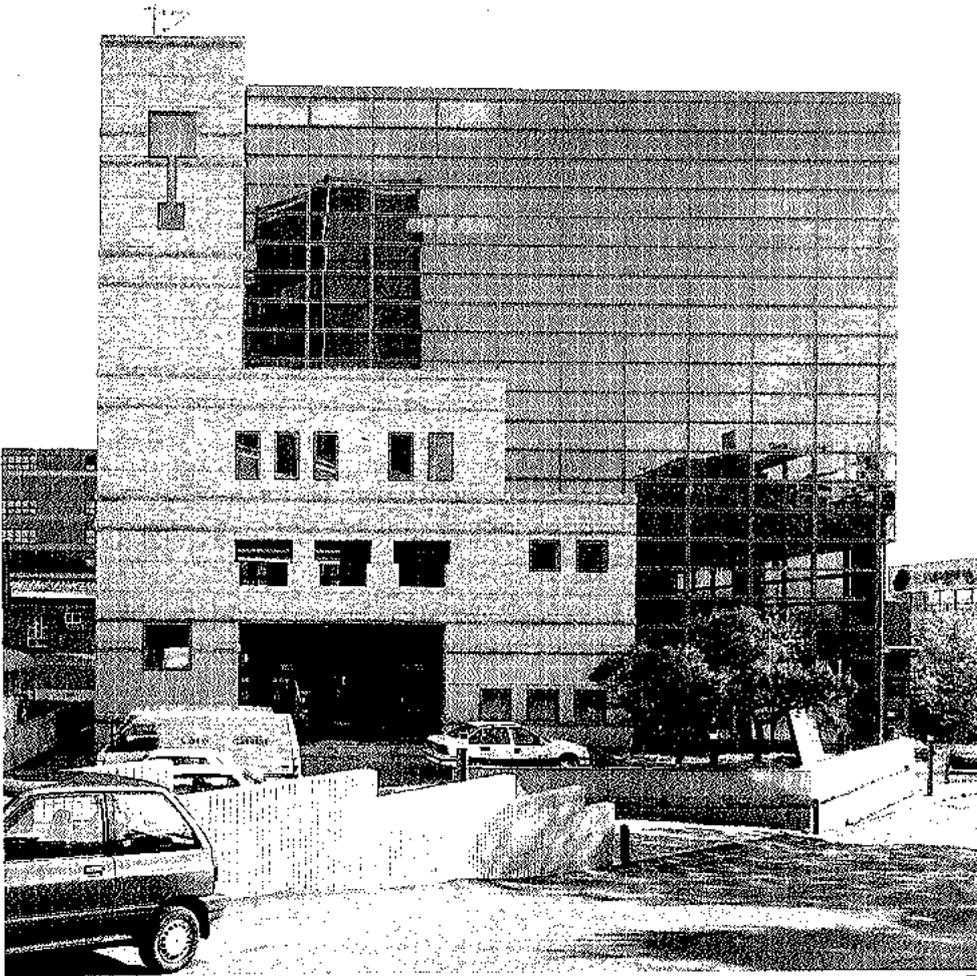
이번 프로젝트를 접하면서 강렬하게 와닿았던 폐허와 생성의 이미지 이 두가지 상반되는 개념의 복잡과 대립, 형태와 재료에 의한 이미지 구체화는 과거와 현재, 소멸과 생성을 근간으로 재료는 돌(폐허)과 유리(생성)로 채택되었고, 형태는 원초적 기하학 도형인 입방체로부터 유추되었다.

가로변을 따라 폐허의 성 이미지를 구축하고 그리한 가운데 현대 메카니즘의 대표적인 커튼월 박스를 그것에 대비시켜 놓았다. 적절한 비례로서 두 매체의 조화있는 결합을 이루고자 노력하였으며 이질적인 매스의 대립을 일원화 시키기 위해 전체에 걸친 수평적 분할로써 질서를 부여하는 돌과 유리의 모듈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서로 다른 두 매스를 연결하는 요소로서 원형기둥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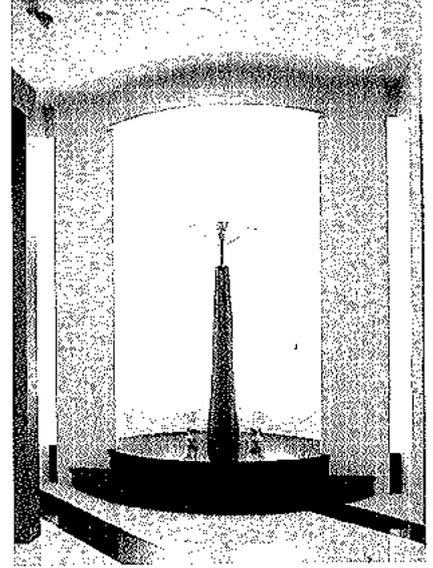
이러한 결합은 서로의 특성을 강조시키는 동시에 서로 조화를 이루게 하며, 그에 따라 본 건축물은 자신의 대지에서 폐허와 함께 생성하는 뚜렷한 자기성격을 갖게 된다.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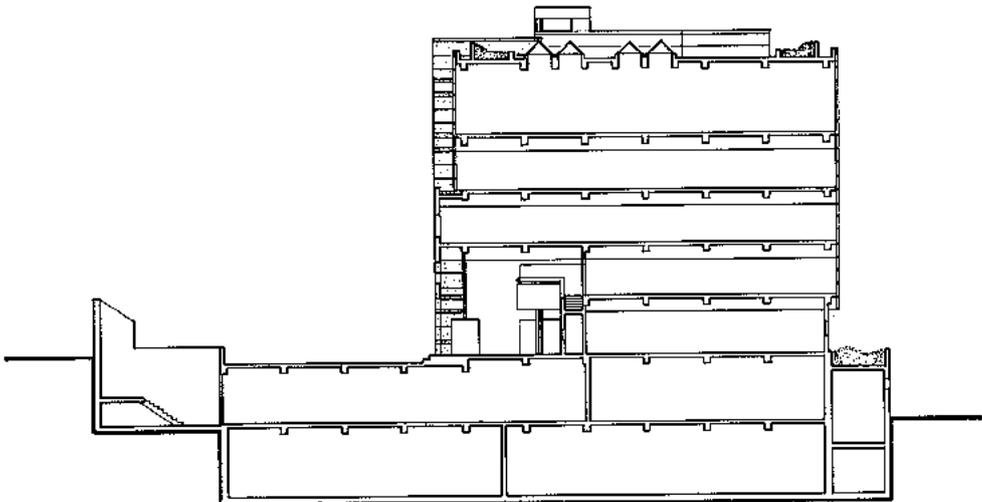


(사진 : 윤창진)



⑧

- ⑤ 매장출입구 계단부 상세
- ⑥ 사무실 로비
- ⑦ 매장 내부
- ⑧ 매장 내부 조명
- ⑨ 주진입부 전경
- ⑩ 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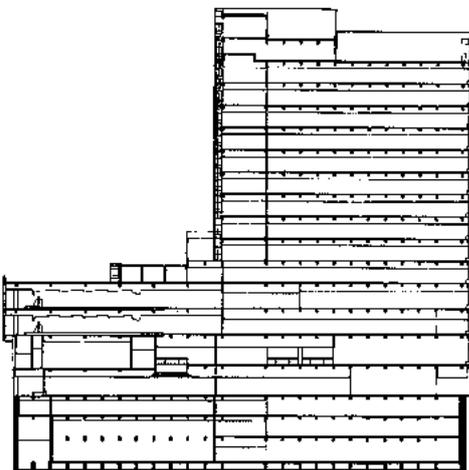
0 2 4 8 12 20m

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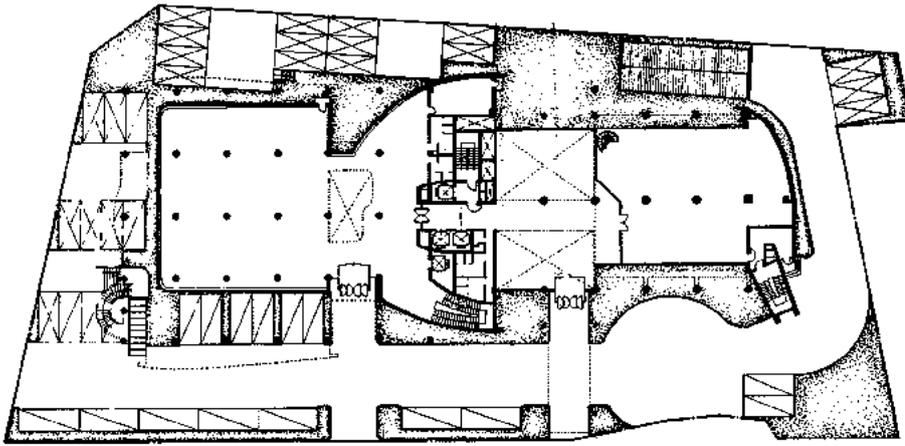
# 늘원빌딩

## Nulwon Building

대지위치/부산서 동구 범일동 825  
 대지면적/4,846.22㎡  
 지역·지구/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방화지구, 최저고도 12m지구  
 규모/지하 3층, 지상 14층, 옥탑 2층  
 건축면적/2,280.86㎡  
 연면적/23,465.75㎡  
 건폐율/47%  
 용적률/356.67%  
 구조/철근콘크리트 리멘조



承孝相/TSC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eung, Hchloh-Sang



### ■ 설계소요

부산의 도심 남포동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본 건물은 설계에 있어서 부지가 교차로 코너부분에 입지해 있다는 환경적 측면이 최대한 반영되었으며, 지반이 극히 불량하여 지하층의 도입이 불가능하였으나 Slurry Wall공법으로 지하층 설정에 성공, 바로 옆에 있는 지하철로부터의 접근도 가능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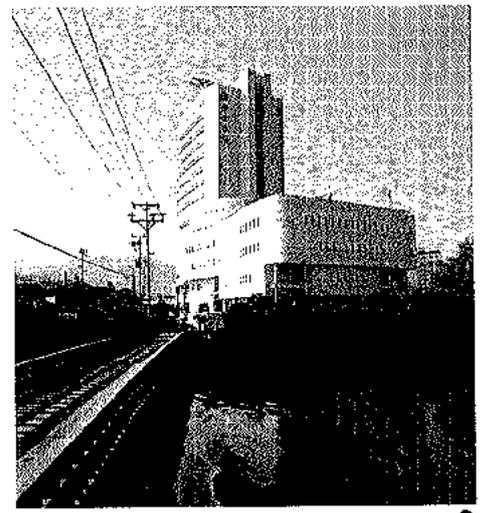
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주출입구가 인도와 인접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배타적 이미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출입구를 뒤로 Set-Back시키고, 그로부터 완충적 공간과 피로티가 갖는 질은 음영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입면계획에 있어서는 서측면에 공용부분과 설비부분을 모으고 엘리베이터홀과 계단실을 기능상 알맞은 높이까지 올림으로써 자연스런 요철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하고 있으며, 외장재로는 가공성이 우수한 불소 알루미늄 단열판을 사용하였다.

전체적으로 주변 건축물 사이에서 강하게 두드러져 보이는 감이 있으나, 낙후된 건축물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재개발의 모티브로 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① 전경 및 스케치
- ② 단면도
- ③ 배치 및 1층평면도
- ④ 로비
- ⑤ 원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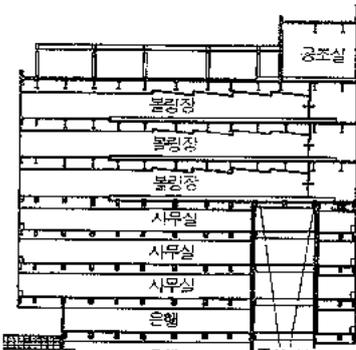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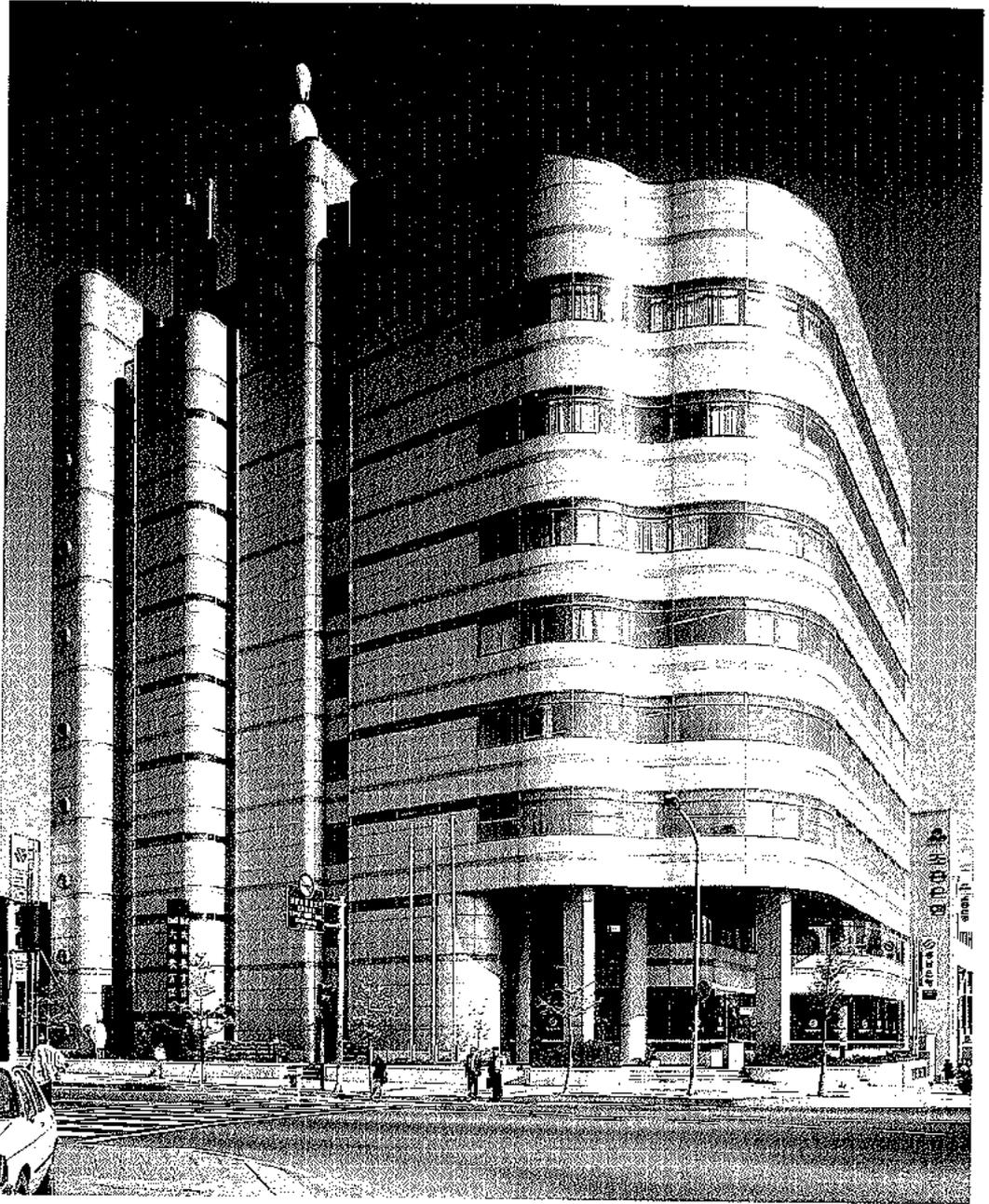


# SN 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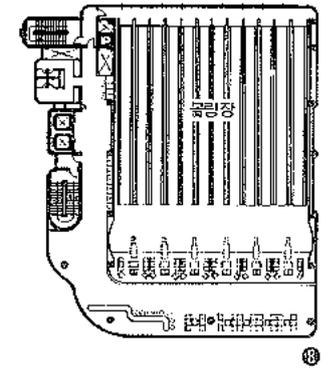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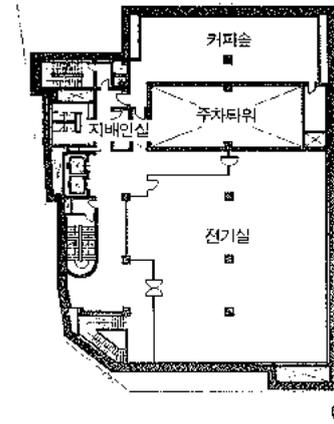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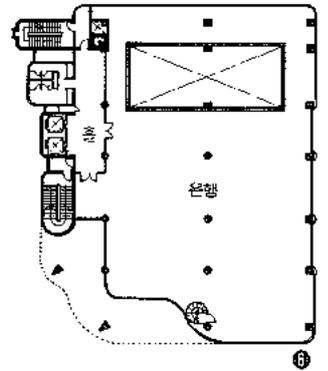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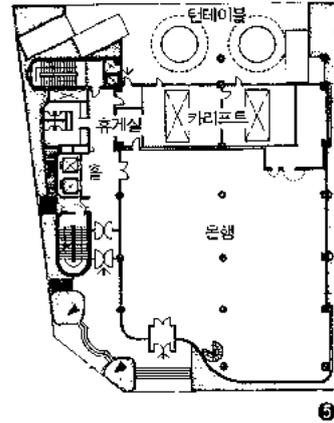
## SN Building

대지위치/부산시 중구 남포동6가 63  
지역·지구/상업지역, 방화지구,  
주차장정비지구,  
최저고도지구, 2층미관지구

대지면적/1,307.2㎡  
조경면적/199.46㎡  
건축면적/984.23㎡  
건폐율/75.18%  
용적률/554.83%  
규모/지하 3층, 지상 8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承孝相/TSC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Seung, Hchih-S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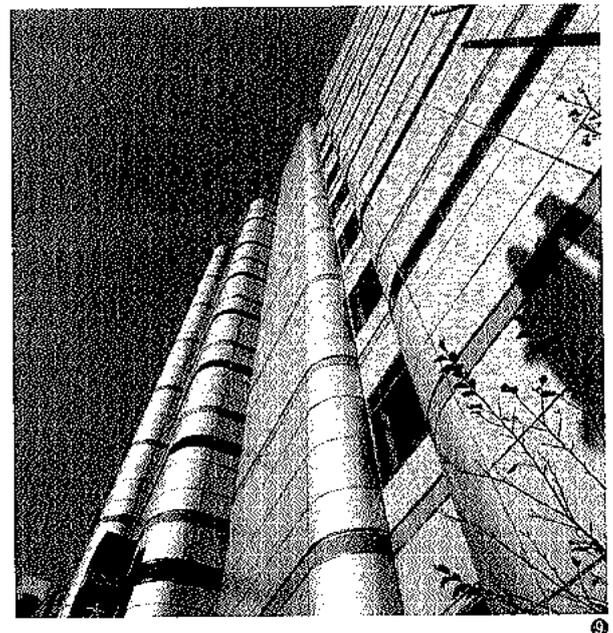
### 설계소묘

부산지역 낙후된 건물들 속에서 지역개발 촉진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건물은, 항만과 근접한 부산시의 무도심권에 위치한 대지의 도시계획적 측면의 검토로부터 시작되었다.

복합임대건물이라는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 안에 들어설 극장·볼링장·식당가 등에 대한 각각의 고려가 필요했던 이 건물은 곡선의 사용으로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파도의 이미지와 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을 떠올리게 하는 이 건물은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기 쉬운 Dead Space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공용부분과 설비부분을 곡선부에 적절히 배치, 최대한의 공간활용을 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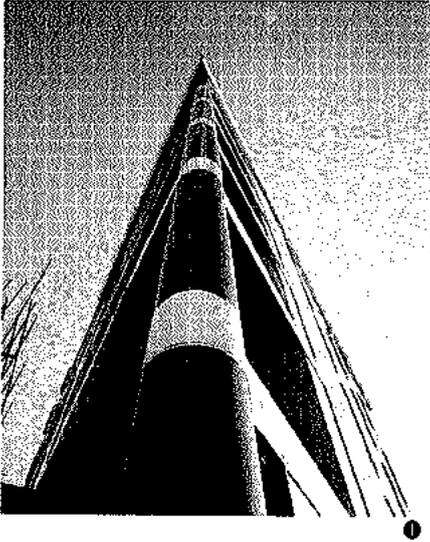
건물의 외부마감은 당초 알루미늄 패널로 의도되었으나 공사비의 한계로 인해 PC 위 불소페인트로 변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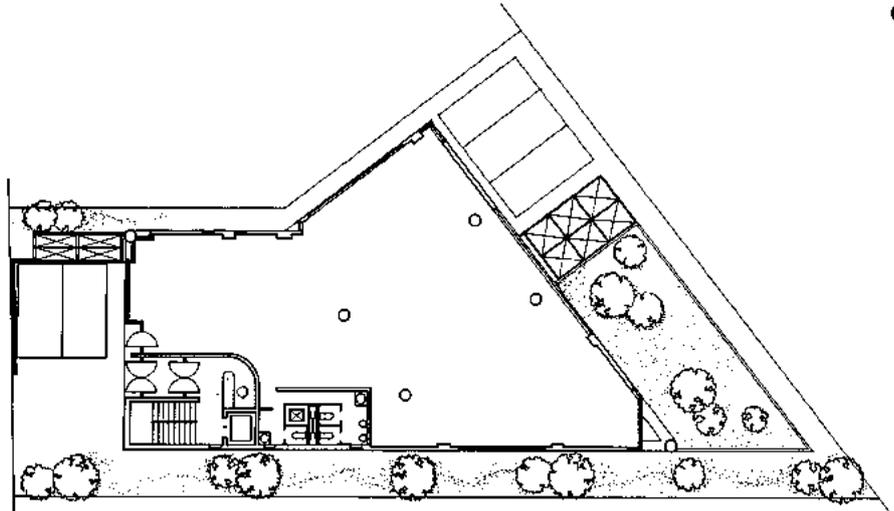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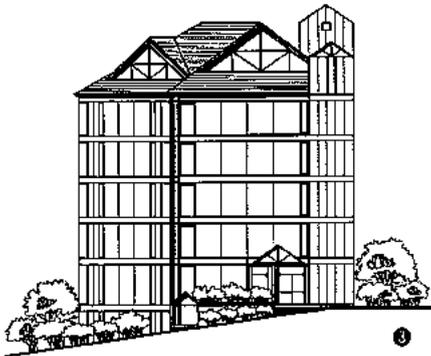
- ① 전경
- ④ 배면전경
- ⑦ 지하 1층평면도
- ② 단면도
- ⑤ 1층평면도
- ⑧ 7층평면도
- ③ 스케치
- ⑥ 2층평면도
- ⑨ 외벽상세

# 무영빌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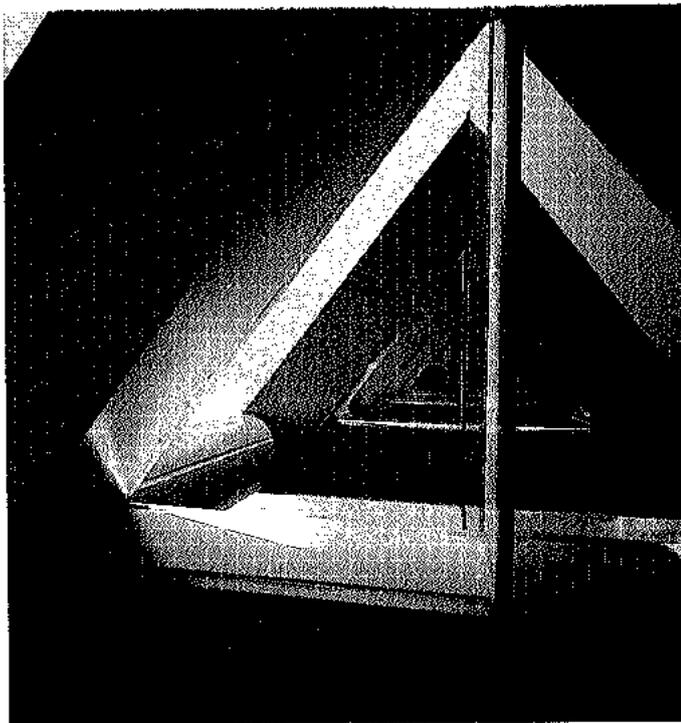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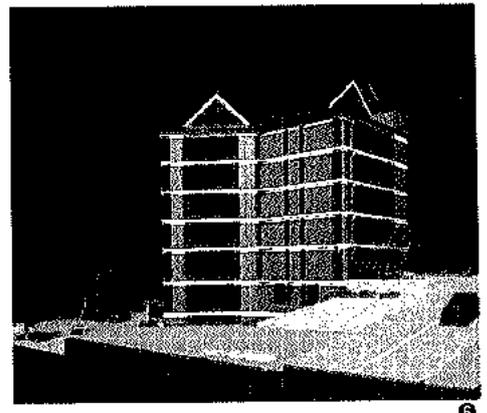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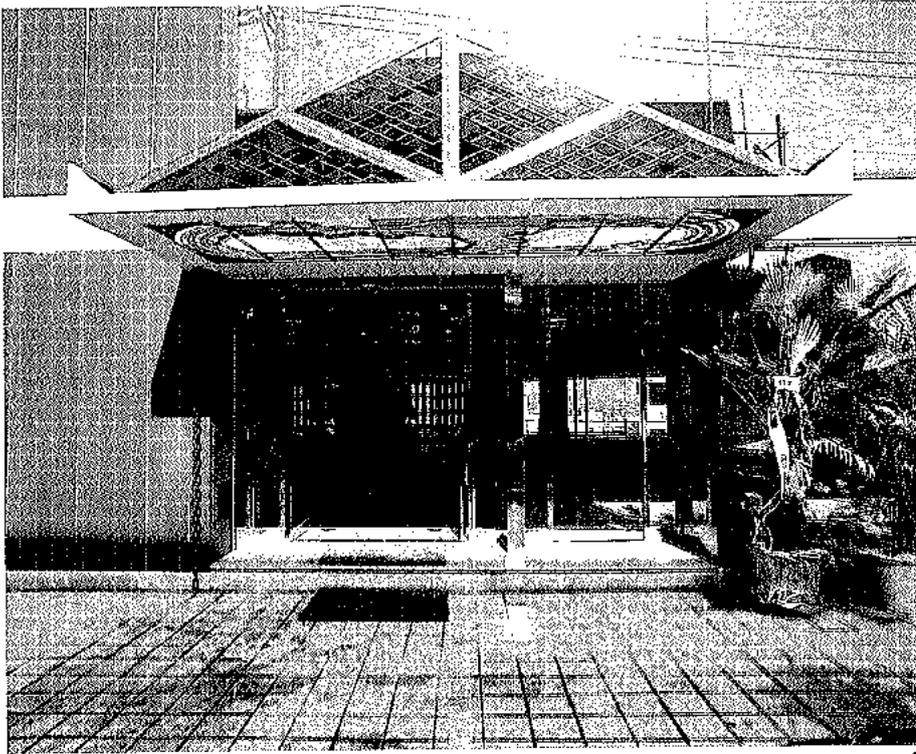
## Mooyoung Building



대지위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04-1  
 대지면적/737.70㎡  
 연면적/3,195.20㎡  
 건축면적/356.70㎡  
 외부마감재/베이스패널, 복층유리  
 구조/철근콘크리트조  
 규모/지하 2층, 지상 7층



安吉元/(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Ahn, Gil-Won



### ■ 설계소요

신축대지의 남과 북이 8m 도로에 접해 있으면서 레벨차가 6m나 되는 Site의 조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Approach시켜야 할 것인가가 본 계획의 주안점이었으며, 또한 대로변에서 한 Block 후면에 위치하고 있는 본 Site에 건물의 접근성 및 인지성을 어떻게 부여하여 건축적으로 해결하느냐 하는 것 역시 계획과정에서 고민했던 사항이다.

평면계획에서는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층의 진입 동선을 적절하게 배분하면서 Dead Space를 최대한 줄이는 Core계획을 시도하고 대지의 레벨차에서 오는 지하층 및 지상 1, 2층 각각의 진입방식을 부여하여 경사지에 순응한 계획을 하였다. 또한 대지형태를 이용한 평면형태의 구현으로 각 층의 효율성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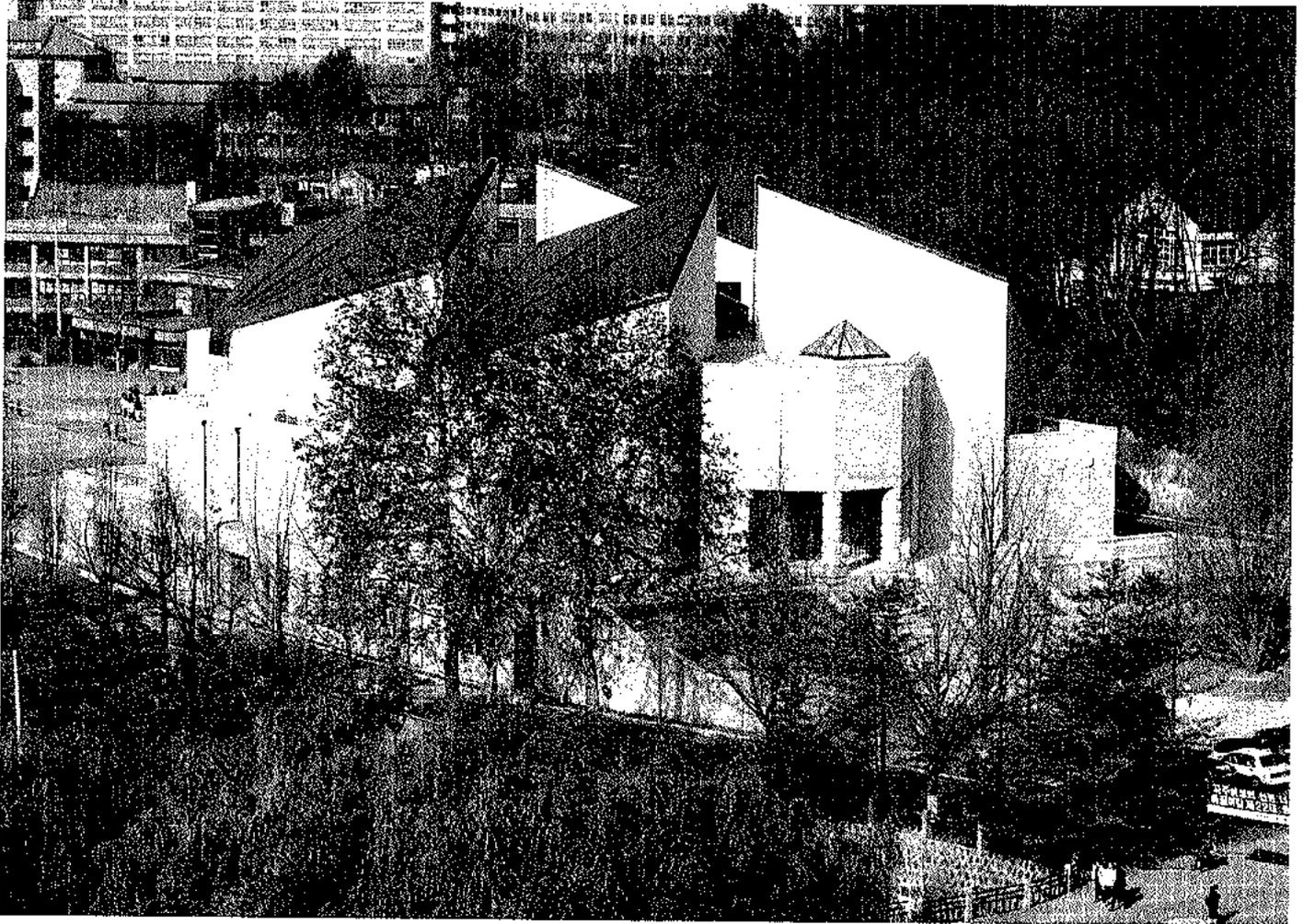
입면계획에서는 이형적 매스의 복잡성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주변건물과 조화되는 기본 Module의 적용, 디자인 요소의 절제 등으로 단순성을 구도하고 경사지붕의 특성요소를 활용하여 기존 주거군과 동화시켰다. 침잠된 주변지역에서 느껴지는 열악한 환경에 생동감을 주기 위하여 청·적·백의 원색을 강하게 대비시켜 사용함으로써 도시경관에 활력을 주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전체적으로 느껴지는 단순성과 다양성을 조화하여 부분적 Detail을 강조하였다. 외관의 일부 모서리 부분은 원형기둥을 돌출시키고 커튼 월 벽체를 Set Back 시킴으로써 날카로운 느낌을 완화시키고 내부에 조명이 부착된 상징적인 중을 윗부분에 설치하여 낮과 밤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건물의 시간성 및 양면성을 도입하였다. 그리고 최상층에 천장을 설치하여 상승감과 투명감으로 외부의 천공에서 돌출되는 청명함을 실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언덕 위에 세워진 본 건물의 특성을 살려 실내에서의 조망을 강조기 위한 전면창을 채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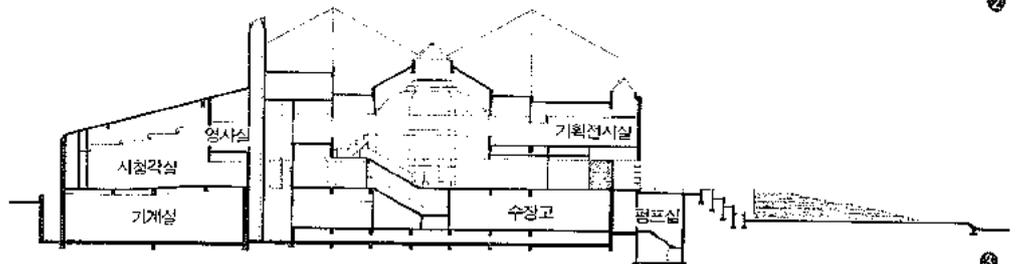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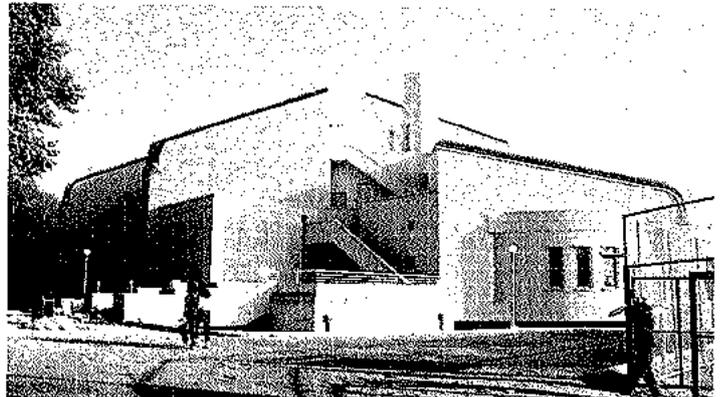
- ① 외벽모서리 상세
- ② 전경
- ③ 입면도
- ④ 배치 및 1층평면도
- ⑤ 주출입구 상세
- ⑥ 모형
- ⑦ 모서리외벽 양각상세

# 이화여대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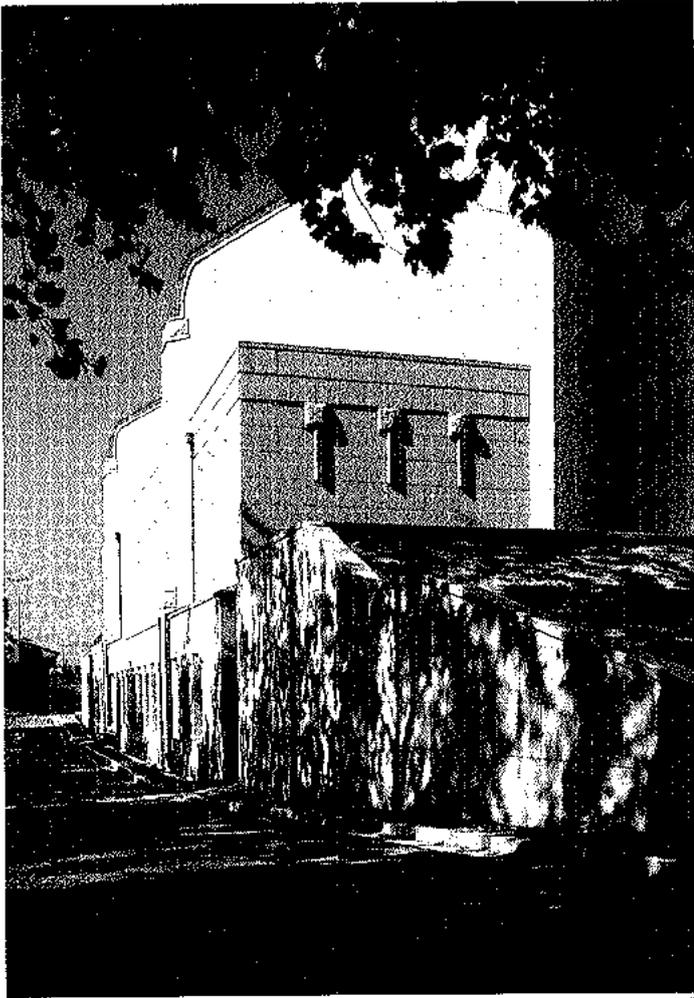
*Museum of Ewha Women's Un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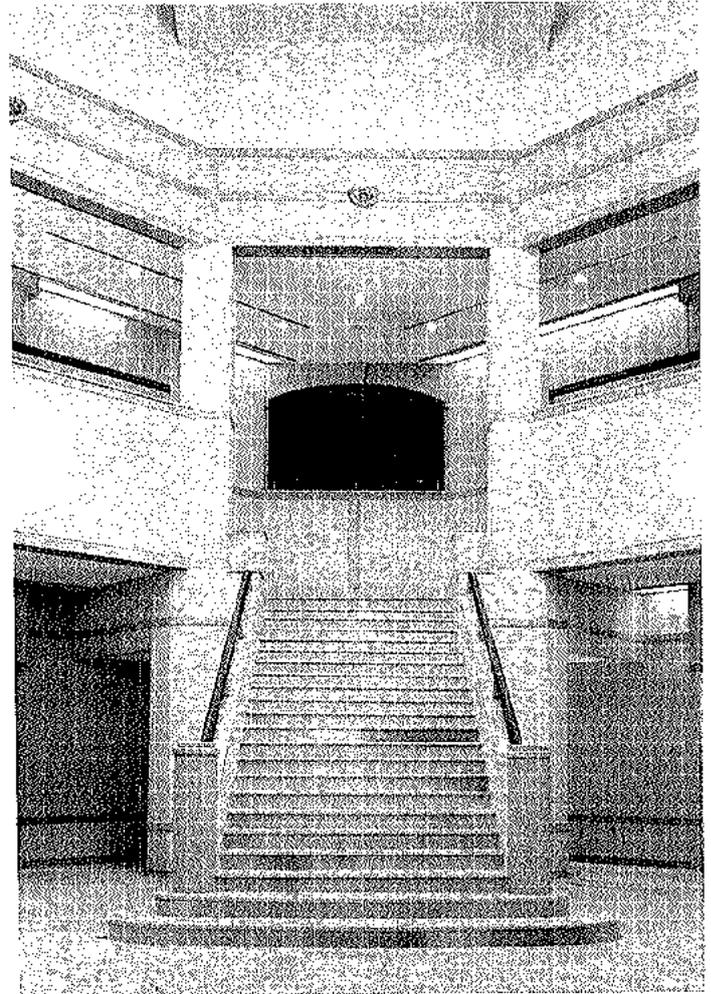
대지위치/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11-1  
 건축면적/2,029.5㎡  
 연면적/4,665.5㎡  
 규모/지상 3층  
 구조/철근콘크리트조  
 주요 마감/외벽-화강석(포천석)버너구이,  
 흑두기·울갈기·정다듬  
 지붕-THK 0.5mm 동판집기  
 내부-!강석 버너구이 울갈기



金正湜/(주)정림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Kim, Jung-Sik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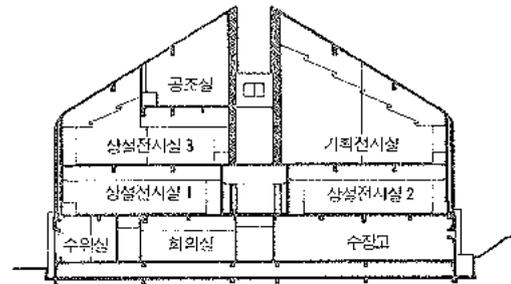
■ 설계소묘

이화여자대학교 창립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본 박물관 계획의 주된 의도는 1세기라는 이화여대의 역사와 그 내면에 흐르는 정신을 담은 상징물로서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는 것이며, 이는 이화여대 고유의 캠퍼스 환경을 수용함과 동시에 과거의 역사를 바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이화여대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다.

이화여대 캠퍼스에서 박물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철도를 건너지르는 다리를 지나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하게 되어 있는 이화여대 경문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위치로서 그 규모로써보다는 장소성에 의해 이화여대의 첫인상으로 남겨질 수 있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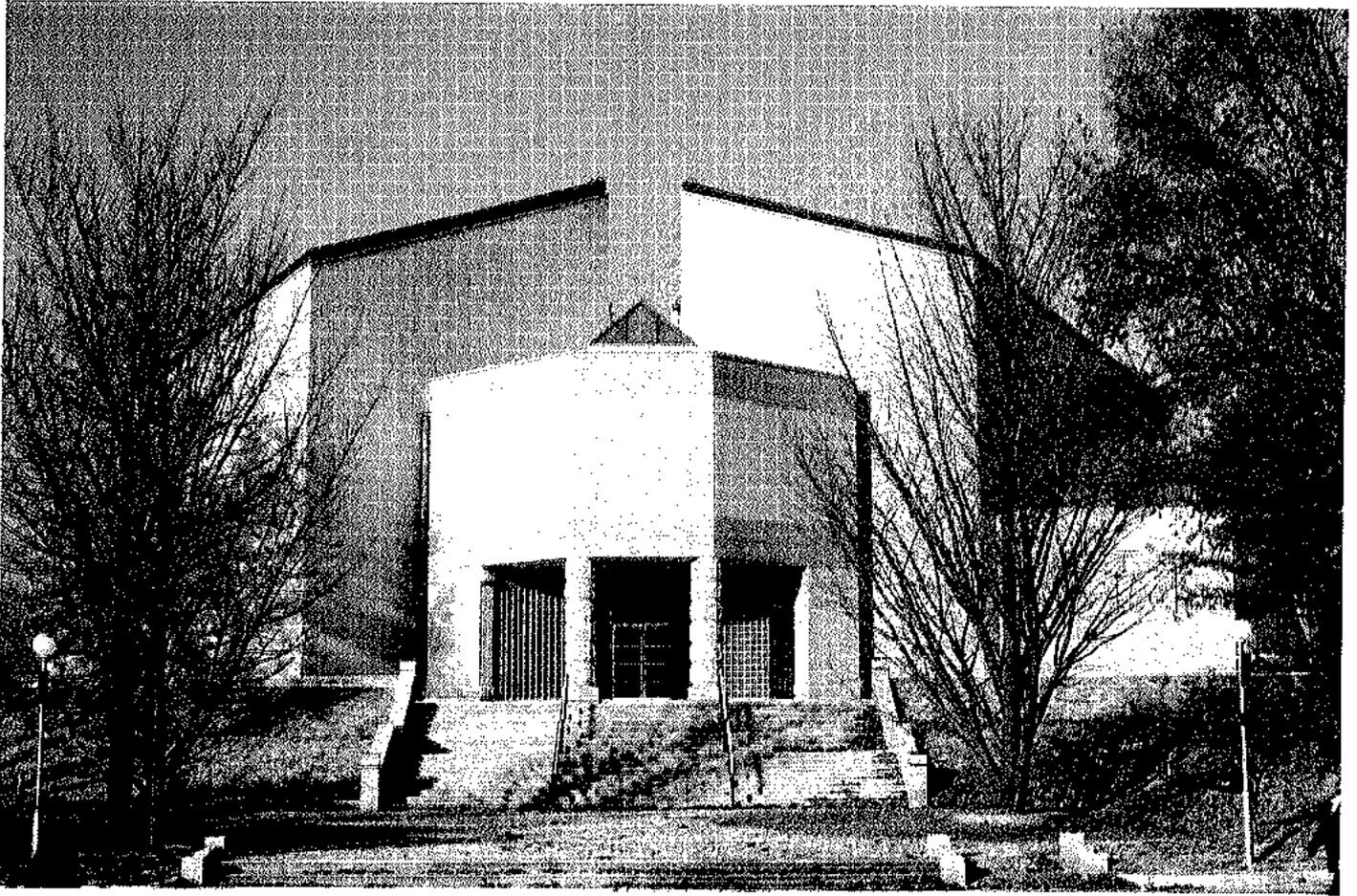
이에 기존 캠퍼스의 질서와 환경의 큰 틀을 공유하며 이화여대 캠퍼스라는 동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석조의 마감을 취하였고, 그 구성도 기단부와 몸통부 그리고 상단부의 3단으로 구성하여 석조건물의 기본 형식을 갖도록 하였다.

한편으로 박물관의 기념성과 상징성에 대한 요구를 담을 수 있는 자기표현(Identity)의 방식은 매우 具象的인 동기(Motive)를 형상화하여 표현하고자 하였는데 즉, 상단부에 표출되는 5개의 마름꼴의 분절된 덩어리(Mass)와 그 경사진 지붕면에 의해, 이화여대를 상징하는 배꽃(梨花) 봉오리가 개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하고 있는 것이



⑥

- ① 전경
- ② 배면
- ③ 종단면도
- ④ 측면 외벽 상세
- ⑤ 내부 계단실
- ⑥ 횡단면도
- ⑦ 접면 파사드
- ⑧ 2층평면도
- ⑨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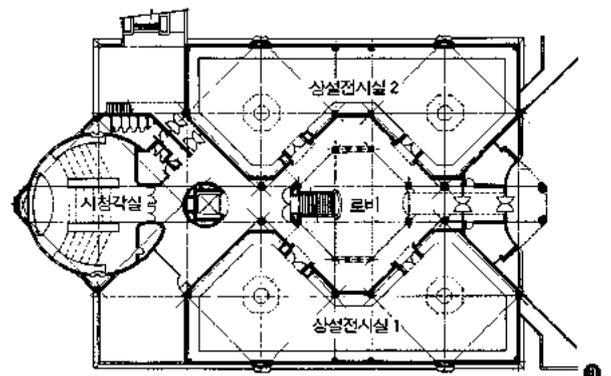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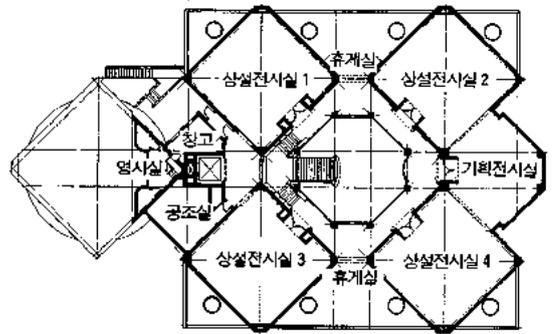


다. 이는 캠퍼스의 환경을 주도해 온, 소위 'Academic Gothic'이라는 서구로부터 유입된 보편적 건축어휘로 (뽕쪽 경사지붕과 박공면에 의한 정면성) 대표되어 온 이화여대의 건축적 맥락(Context)에서 벗어나 본 박물관에 내재된 '매듭인 동시에 출발점'이라는 역사적 의미와 이화여대라는 지역성(Locality)을 수용하는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어휘를 취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내부공간에 있어서는 그 중심부에 주공간으로서 기념 전시홀을 두고 그 주위에 각각의 전시장이 둘러 싸여 있는 '홀형 전시장'으로 계획하여 주공간인 중앙전시홀에 의해 분절된 각 공간이 통합되어 전체 전시장을 하나로 만듦과 동시에 캠퍼스의 상징적 중심점의 역할이 될 수 있기를 의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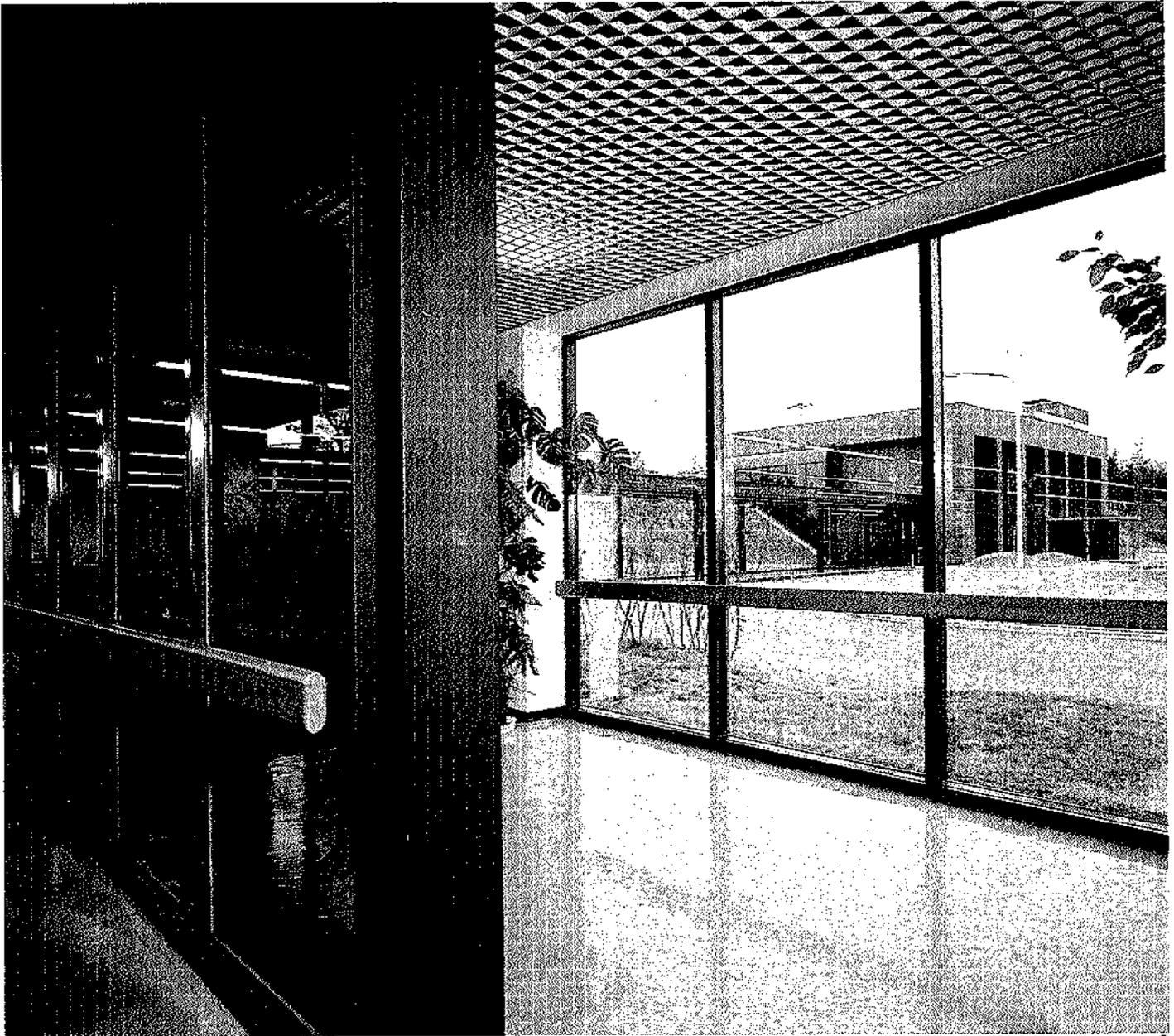
중앙 전시홀의 상부는 격자형 보를 노출시키고 그 정점에 천창을 두어 빛의 효과에 의해 구심성의 표현이 배가되도록 하였으며, 2층의 상설전시장과 3층의 기획전시장 그리고 중앙홀의 전시장의 공간은 각각 다른 단면의 높이를 갖고 있어 높이 변화에 따른 다양한 전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박물관으로 진입하는 동선은 2층의 메인레벨로 바로 진입하는 전시장 동선과 1층의 사무실과 수장고로 진입하는 직원동선이 주변의 기존 지형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분리되도록 하였고 특히 정면으로 열려진 조경광장에 의해 확보된 친근한 매개영역이 있어 2층으로 진입을 용이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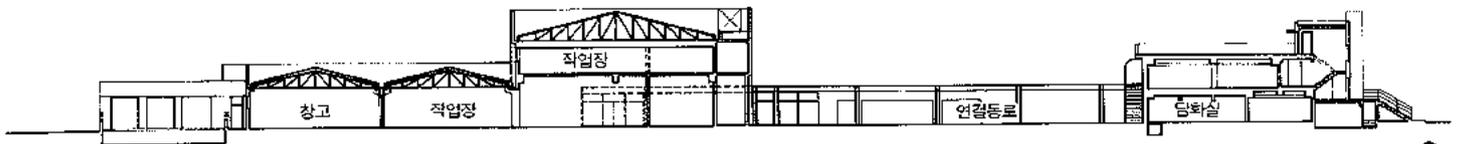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진천공장(1단계)

Texas Instrument Korea Limited Chinchon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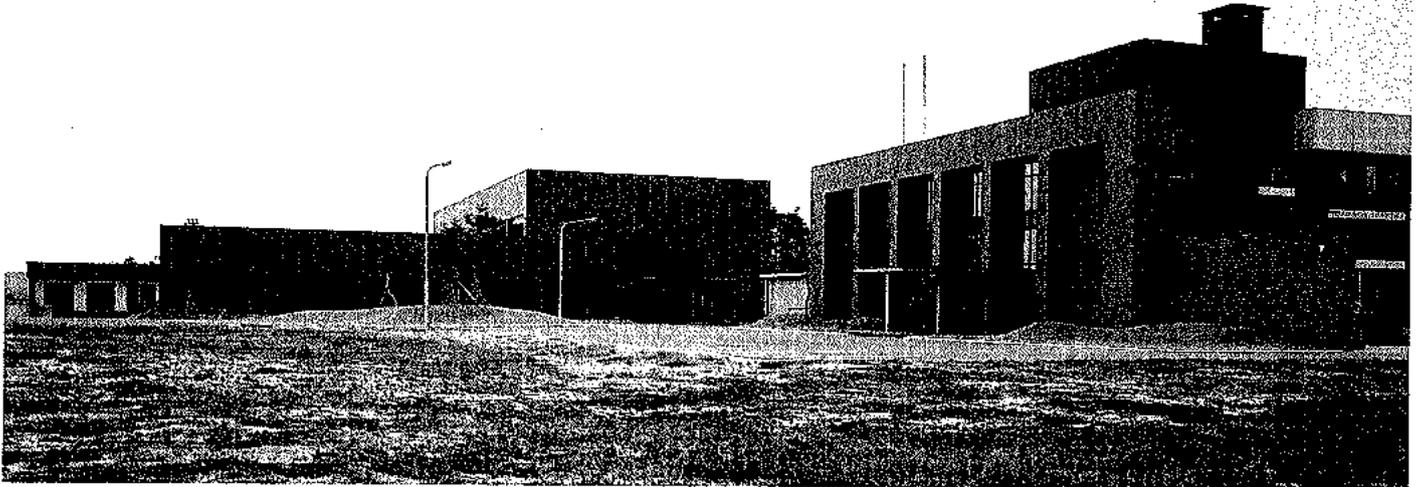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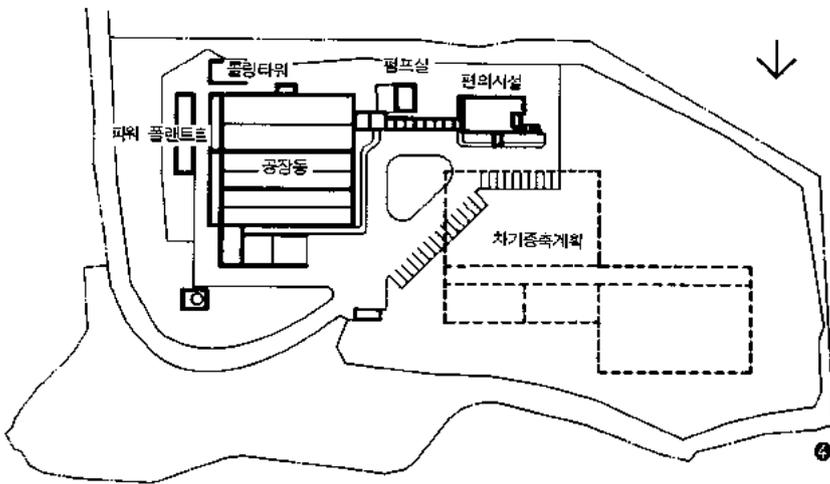
2

대지위치/충북 진천군 이월면 사곡리 산 67-1  
 대지면적/24,163㎡  
 건축면적/2,677㎡  
 연면적/3,723㎡  
 구조/철근콘크리트라멘조+철재 지붕트러스  
 외부마감/외벽-자기질 외장타일+스프레이스 텍스+일부 기존 적벽돌  
 지붕-50mm Tectun위 폴리우레탄 폽칠

俞元在/건축사사무소 다건축  
 Designed by Yoo, Won-Jai



③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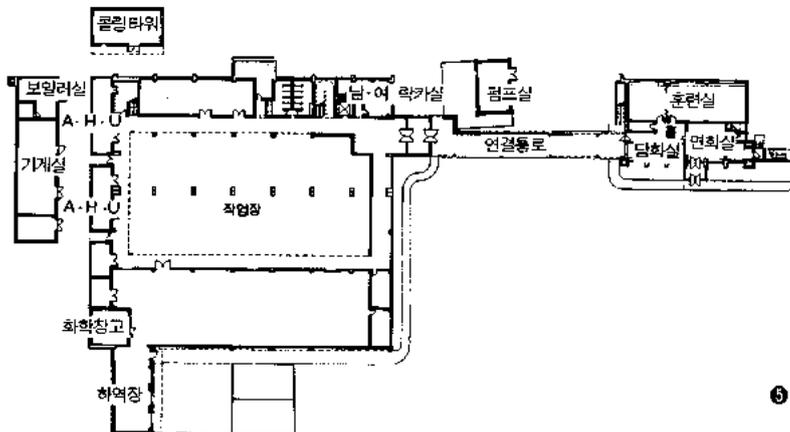
### ■ 설계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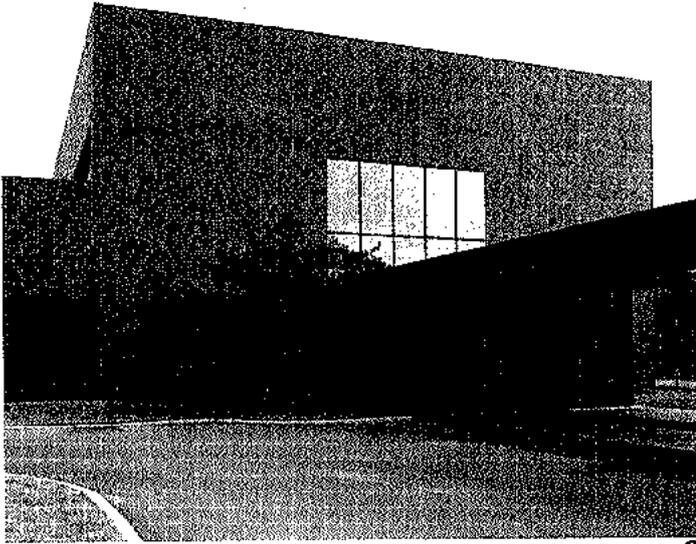
충청북도 진천읍에서 국도를 따라 북쪽으로 8km쯤 떨어져 있는 이곳은 원래 농공단지로서 공을 세분하는 공장이었다. 경영난의 악화로 인해 반도체 및 각종 전자기계제어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인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사가 매입하였다.

설계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가보니 이곳은 국도변에서 조금 떨어진 조그만 야산을 정지해 만든 공장이었다. 우선 기존건물을 실측하고 설계에 들어갔다. 외국 건축주를 상대로 설계를 한다는 설레임을 갖고 의욕적으로 시작하였으나, 건축주측이 요구하는 기능과 건축적 표현욕구에 필요로 하는 건축 및 설비공간을 기존건물에 담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다. 공장이 제품만을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구매자들이 제품을 신뢰하고 직원들에게 TI맨이라는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이 회사의 정책아래, 이 회사 건설부서의 협조로 모든 시설물들이 지나는 내적·외적 퀄리티에 대해 설계에서 시공까지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각 담당자들과의 많은 만남을 통해 프로젝트에 대한 세밀한 자료를 구할 수 있었으며, 조직적이고 합리적인 시행과정 속에서 많은 수련을 쌓을 수 있었다. 또한 섬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속에서도 간단한 스케치들은 보다 명료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공통언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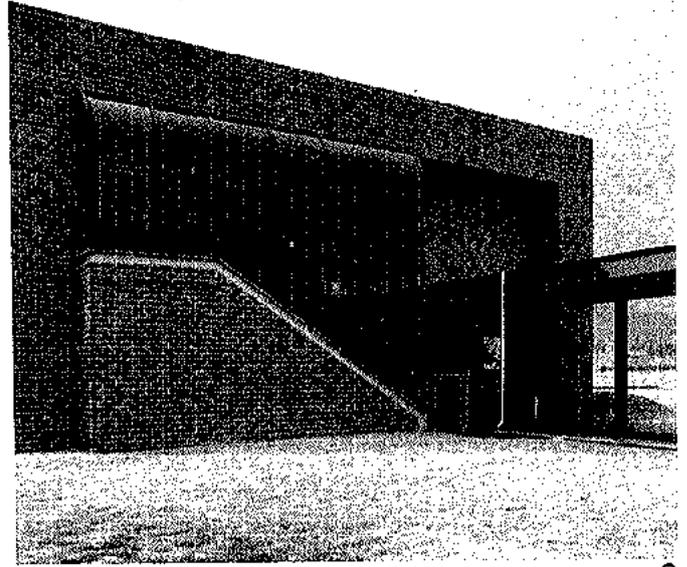
설계의도는 규모환경에서 반복적인 생산활동에 따르는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건물내부에 주위의 좋은 자연환경을 끌어들이어 공간의 질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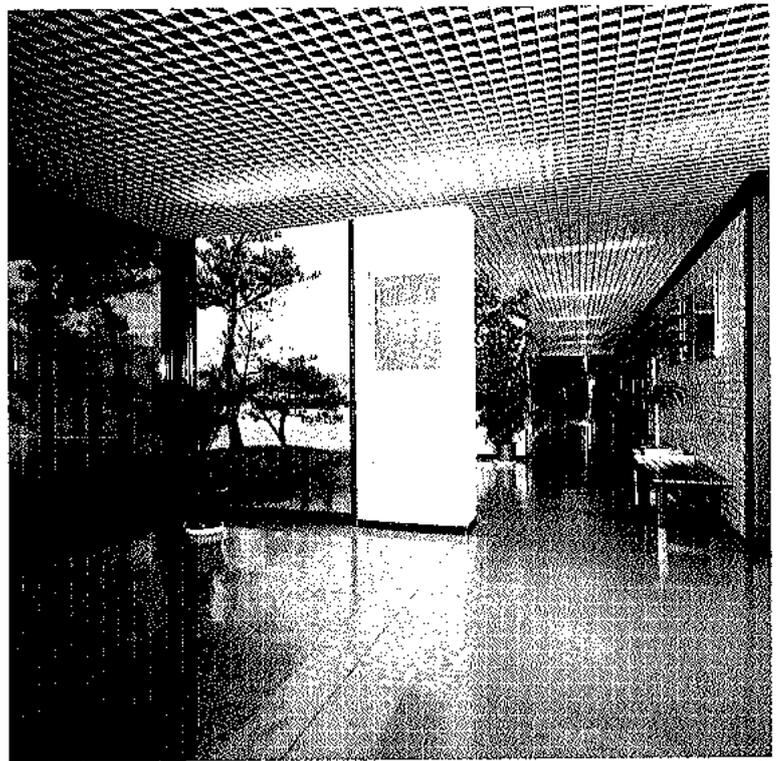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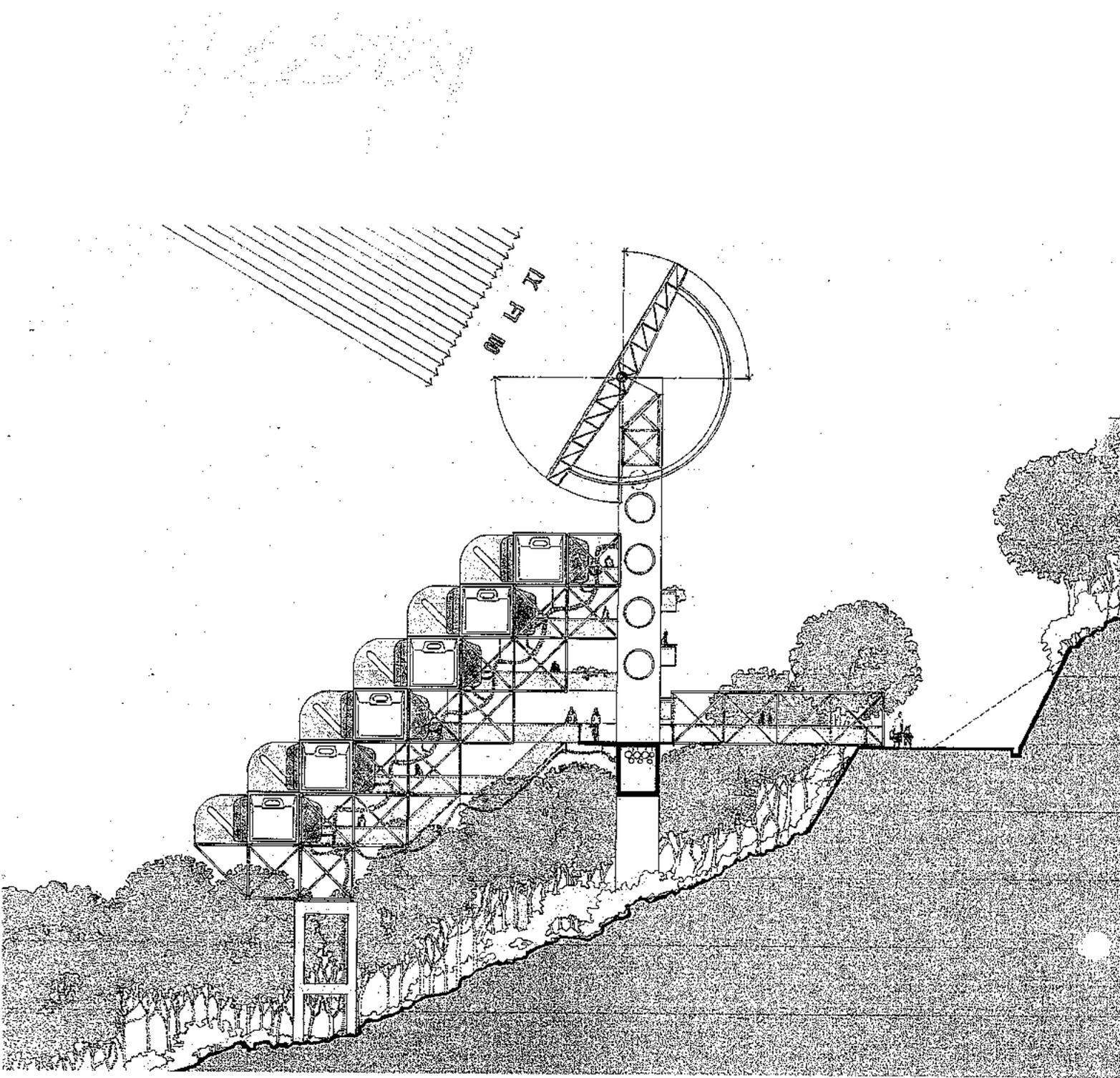
7

공장동, 편의시설, 그리고 파워 플랜트로 구성된 제분공장 용도가 전혀 다른 자동제어 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의 개·보수작업은 성격과 용도에 맞게 적극적으로 시행되었다. 기존공장은 저층부 두 베이와 고층부 한 베이로 구성되어 있었다. 단백공장 제분기가 놓여 있던 고층부는 처마높이가 7.4m인 2층 높이의 건물이었다. 여기에 우리는 기둥을 세워 2층을 설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기둥을 세우는 방법이 문제였다. 따라서 기존 독립기초 사이에 새로 지중보하중을 받는 기초를 만들어 기둥이 지중보 위에 서게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제품창고 옆에는 물건반입에 필요한 하역장을 매달고, AHU실은 파워 플랜트와 면한 벽에 길게 배치하여 각 실에 직접 냉난방을 공급토록 하였다. 연결통로는 공장동 편의시설을 연결하는 중심축의 기능을 가지며 H형강을 세우고 데크 플레이트로 지붕만을 덮어 자연에 최대한 개방시킴으로써 공장동과 편의시설의 이질적인 행위의 전이를 흡수토록 하였다. 편의시설에는 연결통로와 동선이 자유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출입문과 계단을 설치하여 평면구획을 조정하였으며, 2층 주방의 물품반입과 주방사용자를 위한 전용계단을 서측면에 배치하였다. 또한 외벽과 평행하게 벽을 연장하여 설치함으로써 벽 뒤쪽과 주방을 위한 작업장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공장동 기존건물의 불규칙한 박공지붕 파라페트를 연장하여 외벽만을 수평하게 맞추어 넓은 자연환경에 단정한 매스를 만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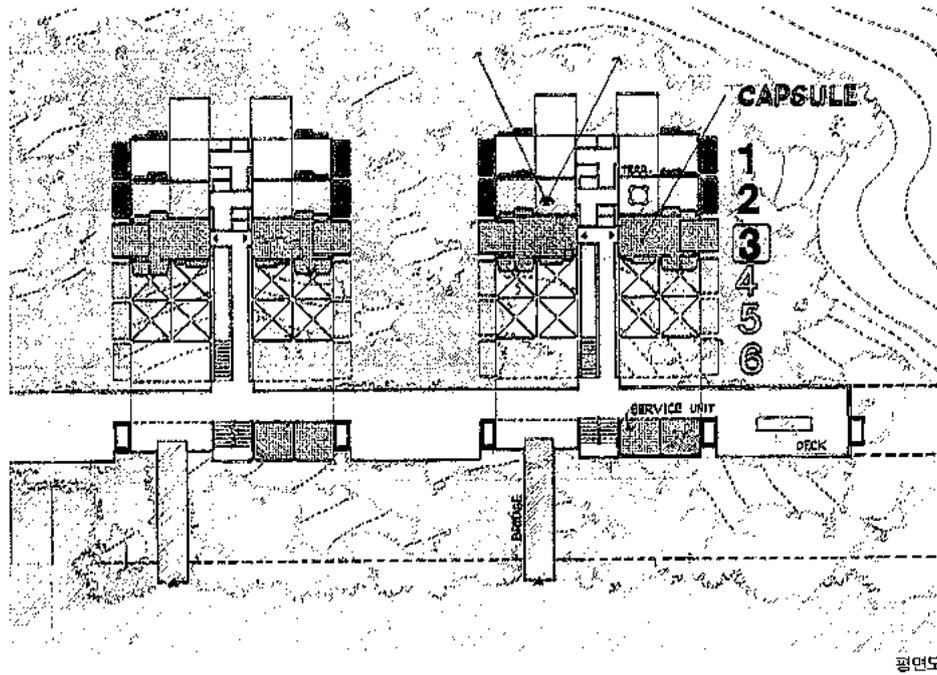
8

- ① 작업장에서 바라본 편의시설
- ② 단면도
- ③ 전경
- ④ 배치도
- ⑤ 1층평면도
- ⑥ 공장동 주출입구측 전경
- ⑦ 연결통로측에서 본 편의시설
- ⑧ 로비 및 복도



# 자연속의 집

李鍾祥  
이데아건축사사무소



평면도

• 인간이 만든 어떤 위대한 구조물도 자연보다 못하다.

니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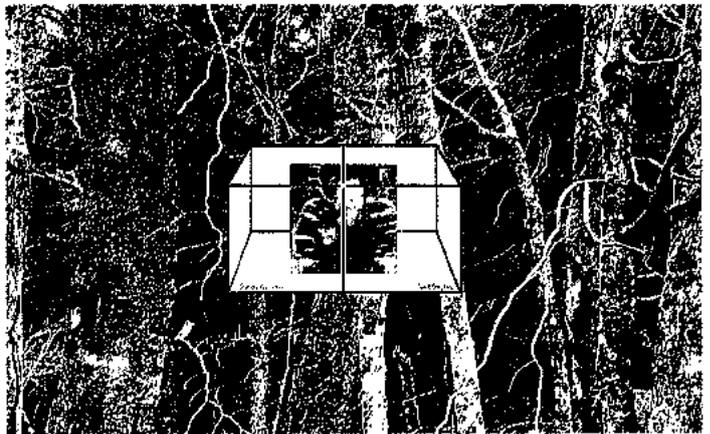
이 계획안은 1974년 경의 작업이다.  
이 빛바랜 도면을 꺼낸 것은 두가지 이유에서이다.  
그중 한가지는 자연과 인공물(건축)과의 관계이고,  
다른 한가지는 High Teck 건축에 대한 관심이다.

건축은 자연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어 결과적으로 자연환경을 파괴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참다운 건축은 자연에다 인공물을 부과하여 또하나의 자연을 창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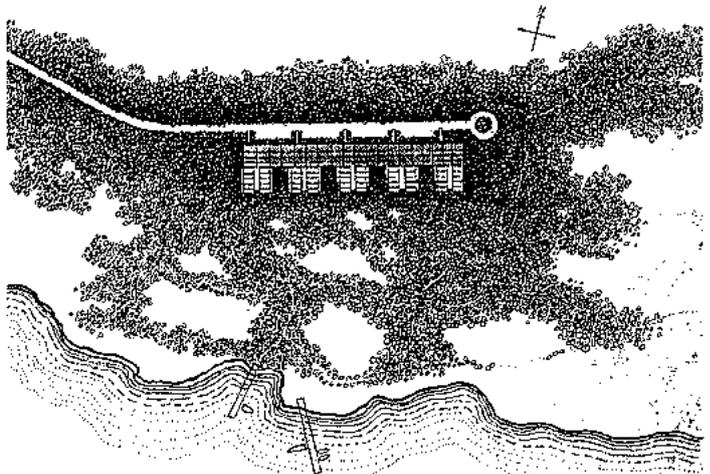
자연속의 집(Shepher)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 계획안은 가능한한 자연을 파괴 하지않고 자연과 공존하는 건축을 꿈꾼 것이다.

이 계획안의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태양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다. 집열판은 태양의 고도에 따라 움직이며 집은 마치 케이틀카처럼 공중에 떠 있다. 집 아래에는 수목이 있으며, 이른 아침이나 비가 온 뒤에는 숲속에 안개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High Teck 건축에 매력을 느끼는 이유는 그 건물이 기존의 일반적인 건물보다는 자신의 존재감을 덜 부각시키는데 있는 것 같고, 건물의 기능이 다했을 때 쉽게 해체하여 소멸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죽음 곧 소멸의 의미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건축도 자연의 일부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개념도



배치도

#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을 보는 建築士의 視角

金知德/(주)유신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UR 협상이 대정부 차원에서 협상에 임하고 건축부문중 엔지니어링 서비스 부문의 상당한 부분이 당초 발상안의 원칙에서 각국의 사정을 감안, 점차 그 견해가 좁혀지고 있으며, 이의 시행을 예측하는 우리 건축 실무측에서 보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지 자못 걱정이 된다.

외국의 건축사들이 우리나라 설계시장에서 기본계획 단계부터 잠식하여 우리 업무분야의 꽤 깊은 곳까지 침투할 때 우리의 대처는 어떠한 것이 옳은 것인가. 우리의 건설시장내 사업발굴,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보수 등의 일련의 과정이 포함될 때 우리의 인력이 얼마나 타격이 있을 것인지 의문도 들게 된다. 최근 국제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금융, 정보, 통신, 전문 서비스 등 국제적인 거래는 상당히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계의 상황을 살펴보면 현 926개사 중에서 시공능력과 관리능력등이 외국 업체와 대결하여 당당히 상위권에 진입하는 회사는 상위 50~60개사에 불과하고 그 외에는 해의 경험이 전무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외국과 경쟁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인 포장기술, 아파트건설, 상하수도 등에는 국제 건설시장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자타가 공인하나, 건축설계쪽의 경쟁은 만만치 않다고 판단된다. UR 협상이 아니라도 현재 국내의 대형 건축물의 기본설계는 일부 외국에서 해오는 사례와 같이, 선진국에게 국내시장을 크게 잠식당할 우려가 있다.

기술집약형 공정에 속하는 Soft ware 의 Know How 에 속하는 엔지니어링과 건축설계쪽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시장의 개방 측면에서 볼 때 우리 건축의 기술적 우위 경쟁력은 동격, 중격, 하격으로 볼 때 절대로 우리 건축설계의 수준이 동격 기술로 인정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기에 UR 의 한국진출을 눈앞에 둔 우리 건축사들의 심정은 착잡할 수밖에 없다.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건대 앞으로 수년 후에는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게 발전된 모습으로(제도적인) 정착될 것임은 틀림없다. 우리의 현실을 볼때 국가가 발주하는 여러형태의 대형 건축물과 개인 기업에서 발주하는 여러 건축물의 형태가 UR 규정에 따라 외국인들에게 참여의

기회가 공동내지 단독으로 계약될 수 있다고 했을 때 우리의 현재 능력으로는 일 자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진 외국의 건축설계 기술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한 기술축적을 많이 했고, 우리가 시도하는 건축공법의 개발과 설계방면의 아이디어도 상당한 수준으로 우리 건축사들에게 위협이 가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우리 건축계는 UR 협상과 때를 같이해서 해야할 일은 첫째, 정부에서 인정한 설계보수 요율을 분명히 한 건축사가 지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하며,

둘째, 전국의 건축사가 실적회비 산정기준을 가지고 더이상 용역계약을 하지 말 것이며,

셋째, UR 협상이 이루어져 외국의 선진 용역회사가 우리나라에 침투하여 실질적으로 업무에 파고들 때, 우리 건축사들이 그들과 공동으로 작업하며 연구하여 다음의 Project 가 왔을 때는 실력면에서 뒤지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넷째, 우리 모두가 UR 에 대비한 새로운 각오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즉, 우리의 건축설계비가 연구까지 할 수 있는 여유있는 설계비가 되어야만 깊이있는 연구를 통하여 선진국가와 함께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용역비용에 제도적 잘못이 상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적인 상황하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미 우리나라 각 대기업에서 그들의 사옥이나 공공 건물을 발주할 경우 일단은 기본계획설계를 외국 업체에 의뢰하고 우리 건축사들은 그 기본안에 따라서 그대로 시공될 수 있는 도면을 작도하고 있는 현실이 아닌가.

1989년의 세계 상품무역 총액은 기록적인 3조1천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지난 5년 동안에 50여%가 증가된 것이며, 1950년의 그것은 600억 달러에 불과했었다. 1989년의 세계 상품무역 총액에 민간 서비스(용역)무역액을 포함시키면, 세계 무역 총액은 무려 4조 달러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세계 무역법규 개편 협상의 최종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약 97개의 선진, 개발도상국가 및 동유럽 국가들이 이 협상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세계의 무역증가는

우리나라가 외국과 경쟁하여 국제경쟁력을 갖고있는 분야는 포장기술, 아파트건설, 상하수도 등으로 국제건설시장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사모가 꼽았으나, 실제와의 경쟁은 만만치 않다고 판단된다. UR협상이 아니더라도 현재 국내 대형건축물의 대부분이 기본설계를 외국에서 해오던 사례와 같이, 선진국에게 국수시장을 가장 크게 장악당할 우려가 있다.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우루과이라운드란 다자간 통상협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최근 국제교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목할만한 현상으로 금융과 통신, 전문 서비스 등의 기업 활동에서 국제적 거래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각 국에서는 무역 역조현상에 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서로의 국가를 서로가 보호하자는 원리로서, 원래는 EC를 침공하기 위한 미국의 방안이었으나 지금은 일본, 한국, 대만 등 신흥국가를 겨냥, 맹렬한 문호개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국제적 법규가 없으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의회들이 농업과 같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법규가 없는 분야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무역 분석가들은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염려로 해서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 통상협상은 세계 경제성장의 유지와 아울러 선진공업국들의 시장을 개방도상국 상품에 계속 개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통상협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무역분석가들은 말한다.

우루과이라운드가 실제할 경우 앞으로 전세계에 걸쳐 번영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미국측의 무역대표가 예견한 바 있다. 의회의 지도자들이 자국의 국익보호 차원에서 별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무역의 역조 현상을 좌시 못하겠다는 단순논리에서 쌍무적 협상에 무역이 성장토록 한다는 뜻을 갖는 것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거대한 시장에 우리의 국내 상품을 팔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자국생산품을 팔기 원한다는 단순논리가 결국은 우루과이라운드라는 정책적인 안이 나오게 됐는데 최종 단계에서는 농산물의 협상이 현재 큰 관건이나 이에 대한 협상도 곧 이뤄지리라고 보는 것이다.

미국의 쌀 생산비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쌀의 4분의 1밖에 돈이 안든다면야 어찌 정부쪽에서 경계를 따지는 정책입안자들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물론 자국의 현재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배려 해줘야 할 관건을 찾고 있어 마땅한 정책적 배려를 할줄로 판단된다.

이런 논리로 건설부에서는 Full Turnkey 로 설계, 시공,

감리를 One Package 로 하여 건설회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새로운 종합건설업면허제도가 지금 심각히 고려되고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 각종 유관단체들과 협상을 하고 있는 바 여기에 매력을 느끼는 정부측의 안들이 항상 우리 건축사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 건축계는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안을 갖추지 못한 실정이다.

UR 협상도 그와 똑같은 우리의 자세에 달려있다. UR이 우리 건축사 업무에 파고들어 A&E업계가 우리 옆에 올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해야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대비가 없는 사실이다. UR 협상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층건물이나 현대 건축물중에서 수많은 Project 들이 이미 외국의 건축사들에 의해서 기본설계와 실무협약에 의해 지어진 예가 매우 많다. 미국의 SOM, CRS, 일본의 넷켄 세케이 등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건축물의 기본설계에 관여하여 온 지는 이미 수년 전부터였으며 지금도 수개의 Project 가 설계중에 있으며, 보다 의미있는 자기네 건물을 갖고져 "멋"있는 건축물 설계를 하고져 외국에 기본계획과 감리를 맡기려는 국내 업체들도 상당히 많이 있음을 우리 실무에 종사하는 건축사들은 이미 알고 있는 바이다.

정부는 우리의 기술열세 분야에서 선진국 업체의 대량진출이 불가피하다는 현실을 직시, 시장 개방을 계기로 국내 기술 수준의 향상을 촉진하여 외국 업체와의 합작 또는 하도급으로 실질적인 기술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함께 서둘러야 될 것이다.

건설업체에서도 수주패턴위주의 경영발상에서 적극적인 기술개발만이 살 길이라는 점을 명심해 경영 패턴을 조정해야 한다. 우리 건축사들도 건축물의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하여 기술개발, 기능개발, 작업성 연구 등 해야 할 산적인 일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새로운 안을 만들어 실행에 옮기는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됐던 우리분야에 선진국의 시장개방 압력에 현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건축사들은 대응 대안이 없이 시간만 보내서는 안될 것이다.

# 시간 · 숙련 · 道

朴研心/건축사사무소 장원

시간의 흐름이 나이에 비례해서 가속화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다. 시간이 누구에게나 항상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모순이 되는 것은 사제의 초침에서 뿐이다. 개인의 역사에서 뿐만 아니라 지구의 역사를 통하여도 그렇다.

누군가 '우리가 초원의 언덕 위에 올라서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은 죽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시간의 흐름은 그만큼 무정한 것이기도 하다. 아이들이 보는 위인전에서처럼 이유와 목적, 원인과 결과, 성공과 좌절의 명확한 궤적에만 초조하게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우리들은 죽음을 향한 시간의 광적 질주를 보지 못한다.

시간을 우리의 자유의지(free will)로써 느리게도, 빠르게도 갈 수 있게 하고 싶은 노력은 신에 대항해서 불(지식 혹은 과학)을 훔쳐온 프로메테우스의 현실과 비교할 만하다. 죽음이 없는 신에게 있어서 시간은 얼마나 지루한 것일까. 할 일이 있어도 오늘 아니면 내일해도 좋고 하는 식으로 말이다. 지루하기 때문에 난의 운명에 장난을 하는 것리라.

스키를 타기 시작하여 아직 초보일 때, 운전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스키장의 경사는 왜 그리 높아보이는지, 그리고 타고 내려올 때의 속도는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주위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로지 앞만 보고 내려오게 된다. 그러던 것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리프트 타는 레인의 색깔이 달라지고, 점점 높이 올라가서 타고 내려오게 되면 초보일 때와 똑같은 시간 인데도 주변의 경관을 감상하고 엉뚱한 생각까지 하면서 내려오게 된다.

똑같은 시간은 똑같은 시간이 아니었다. 그 사이에 무언가 차이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숙련(skill)'이라는 것이다. 숙련은 반복과 집중을 요한다. 숙련은 시간을 엇가락처럼 늘린다.

숙련이 확대되면 어떻게 될까? 상인? 축지법?

도(道)? 건축의 경우 어느 프로젝트도 쉽게 끝낼 수 있는 프로젝트는 없다. 모든 것이 반복과 집중을 요한다. 제도권 위에서, 요즘은 컴퓨터 앞에서 좀 더 오래 앉아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점점 더 복잡하고 딱딱해져가는 상황의 컨텍스트 막을 뚫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과 시간을 요한다.

오늘날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매스 미디어의 휘황한 불빛 아래서 건축작품은 작가의 저 뒤쪽으로 사라져 버리거나 어떻게든 쉽게 감각적으로 사람들의 환심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것들을 만들어 내거나 한다.

매스 미디어시대의 미학은 불가피하게 '키취(kitch)'의 미학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매스 미디어가 점점 더 우리들의 삶을 포위하고 그 속으로 스며들며 따라 카치는 우리의 미학, 우리의 일상 모랄이 되어버린다.

극단적으로 최근 일본 건축계의 경향은, 전부가 아닌 일부이겠지만 건축작품이 잡지나 신문에 낼 수 있는 적당한 시각을 2,3곳만 만들 수 있으면 성공작이라고 하지 않는가!

건축은 인생이 한 번 살기에 숙련 될 수 없는 것과는 다른 경우인 것이다. 진정한 건축가라면 자신의 작품 뒤로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진정한 건축가라면 소설가 프로베르가 말하는 '꾸이온 생각의 공허함'을 논하는 사람보다 창조의 직관에 몸을 맡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 너머에 있는 지혜의 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의 작품보다 더 현명한 작가라면 아마 직업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창조의 직관이란 작가가 자신을 뛰어넘는 것이며 현재를 뛰어넘는 것이다.

유대인의 속담 가운데 '인간은 생각하고 신은 웃는다'라는 감탄할 만한 속담이 있다. 신은 왜 생각하는 사람을 보고 웃는 것일까? 그것은 인간이 생각해 봐야 진리는 그들에게서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창조의 과정 속에서는 신의 웃음의 메아리를 피할 수 있다. 결국 인간이란 결코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은 존재이기에. '90년을 반성하면서, 연중행사가 되어버린 이 글 쓰기는 잠시 시간을 정지 시킨다.

# 庚午年의 始末書

김인철/종합건축사사무소인제건축

80년대가 90년대로 바뀐 첫해인 올해라고 해서 별난 시작도 별난 마무리도 없다. 다만 건축이라는 집짓기가 환경과 여건의 파장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기에 어차피 세태의 흐름과 무관할 수가 없다. 하나의 조그만 파장이 조그만 진동을 일으키고 또다른 파장과 잇물려 버라벌 소음을 일으켰던 한해인 것 같다.

유사이래 최대규모인 200만호를 짓겠다는 구호로 비롯된 부동산투기를 잡고 말겠다는 파장으로 인해 증폭되어 너도나도 집을 지으려는 열기로 시끄러워지고 물만난 물고기처럼 신난 사무소의 전능이 밤늦게까지 꺼질 줄을 모르더니 어느 곳에선가 찬바람이 불어와 되서리 맞은 쪽정이 모양이 되고있다.

이런 꼴을 겪으면서 맨 먼저 걱정이 되는 것은 과연 우리나라에 행정이란 것이 있는지 하는 의문이다. 또 그게 있다면 행정을 움직이게 하는 머리는 도대체 무엇으로 가득차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전세 계약자들이 일년마다 재계약을 위한 시시비비에 곤란을 겪는다고 해서 1년마다 할 것을 2년마다 하라고 했을 때, 당연스럽게도 집주인은 2년치 올릴 뽕까지 이번에 받으려하게 될 것이 분명하고 올려낼 돈을 준비하지 못한 세입자는 괴로워지게 마련이고 너무 괴로워서 복숨을 꿇기까지도 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도 쉽게 일어나고 있다.

부동산투기를 잡는다고 동문서주하는 당국자들이 여기저기 족치고, 세물계 제도를 만들고 열심이지만, 이렇듯 땅을 소유하려는 것을 억제시켰을 때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공급함 이전에 의문이 앞서는 것이 하나 있다. 부동산이란 개념이 땅이라는 것에만 국한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이다. 당연히 포함되어 같이 생각해야 할 건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도 없는 것이 이상하다. 다시말하면 건물은 몇십 채씩 갖고 있어도 좋지만 빈 땅을 갖고 있는 것은 안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토지에 대한 투기만 억제하라는 지시만 받아서 그런 것이라면 그럴법도 하겠다. 하지만 그냥 두어놓자나 그렇고 집을 지으면 괜찮다니 특별한 목적도 없이 건물이나 지어둘까하는 생각을 너도나도 하게되기 마련이다.

목적에 없는 건물들이 빈땅들에 들어서면 목적이 있는 건물이 나중에 들어설 여유가 없어진다는 결과가 되고, 목적이

없는 건물들이 제대로 설계되고 제대로 시공될 리가 없을 것이 뻔하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일을 치루기 위해 사람 손과 재료의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을 분명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인데도 아무런 대책없이 밀어 부치고 있으니 결과로 나타난 것이 자체파동·노인상승·인력부족의 현상이다. 올해는 유난히도 많이 내린 비로 인해 업컨데 덤친 격이 되고 말았다.

시멘트가 만원을 호가하고 레미콘은 쟁탈을 해야하고, 판공으로 인력을 뺏기지 않으려니 부르는 것이 값이 되었다. 남들은 호황이라고 부리워하지만, 여기저기서 시끄러워지니까 덜컥당하고 규제장치가 떨어져 내리온다. 많이 지어서 문제가 되었으므로 많이 짓지 못하도록 하면되니까 건축허가를 제한하면 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전개된다. 이번에는 밤일까지 헤가며 건축주의 독촉에 시달리던 건축사사무소에서 난리가 난다. 허가가 나지않을 설계도는 돈과 바꾸어질 수 있는 가치를 상실한 것이 되니까 설계비 지불을 하려는 건축주는 얼뜨기일 뿐이다.

이쪽에서 아우성을 치니까 그 다음 단계로 머리를 쓴 것이 허가는 처리하되 착공계를 접수치 않는 것으로 갔다가, 그것또한 문제가 되니까 허가 자체를 아예 접수치 않는 것으로 되돌아갔다. 이런 뒤죽박죽의 숨막꼭질을 하다가 올해도 마감을 한다. 어린아이들의 장난도 아니고 멸쩍한 어른들이 하는 것이 이래가지고서야 어디가서 내놓고 말하기도 쉽지 않다. 이웃나라 일본의 관료들이 우리나라를 제일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 부소불위, 전지전능의 행정력 구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

안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단순논리가 판을 치고 이것 아니면 저것, 네편 아니면 내편,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나가는 이분법적 논리가 사회에 만연해 있다.

누구의 선언하나로 세상이 달라지는 유지한 놀이보다는 밑에서부터 틀이 잡혀나가는 세상이 됐음직도한데, 아직도 오리무중이라 답답하기 그지없다. 그동안 연습을 했어도 충분히 했고 여건도 어지간히 조성되었을 터인데 어느 한 곳만 계속 잠자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국 올해도 시작만 있고 끝이 없는 상태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게되는 모양이다.

우리들의 머리를 한번쯤 맑게 비워볼 필요가 있다.

# 체계접근으로서의

## 건축형태

### System Approach

### Design Method

고전과학	기계적 체계	부분들의 연결	특정산출물	주체와 객체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사상	구조적
뉴턴물리학	보이는 체계			이분법		
현대과학	유기적체계	관계, 과정, 통합	자기갱신 (self-renewal)	주체	동양적 사상	탈구조적
아인슈타인적 물리학	보이지 않는 체계					?

## —분화되어지는 구조들—

기계의 엔진이 에너지를 상호교환하여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움직이게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체계의 한 예가 될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전통적 목가구의 받침기법(도2)이나 식물의 꽃의 수술이나 암술 꽃잎 꽃받침이 보여주는 구조(도3)도 하나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중의 한 부분만 없어도 존재할 수 없는 상호의존을 보여주며 어떤 형태로든지 그들 나름대로의 일정한 구조적 형상 (structural - configuration) 을 갖는다는 것이다. 이들 볼 수 있는 체계에서의 특징적인 활동은 선형, 연쇄적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며 원인과 결과에 따라 작용하여 만약 그것들이 고장났을 때에는 그 고장의 단일 원인이 통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 또 시계장치 같은 것은 상대적으로 독립된 구조로써 작동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지만 계속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과 반드시 상호작용 할 필요는 없다. 다른 모든 기계적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운동 법칙에 의해서 진행 될 것이며 힘과 열교환등의 모든과정이 평형상태에 이르러 그것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질서로부터 무질서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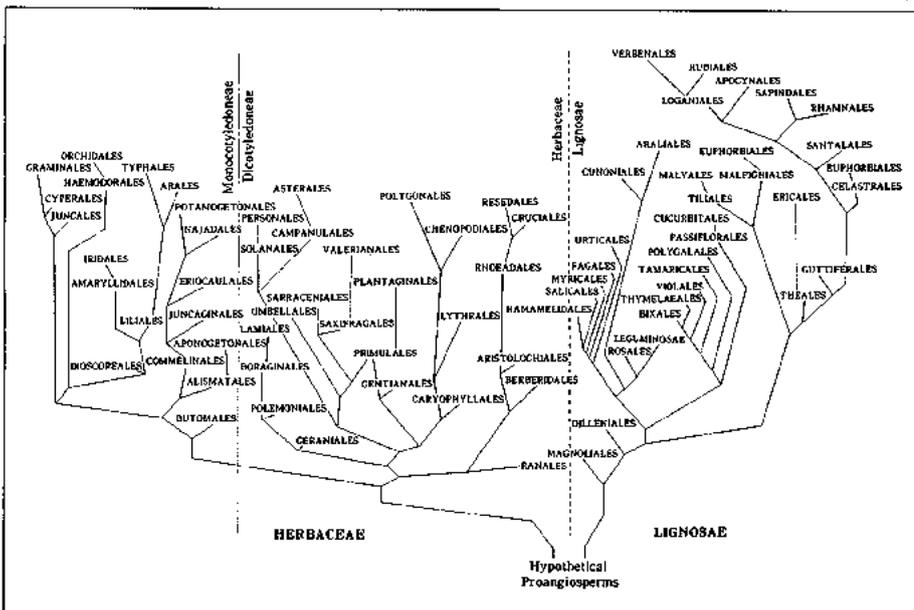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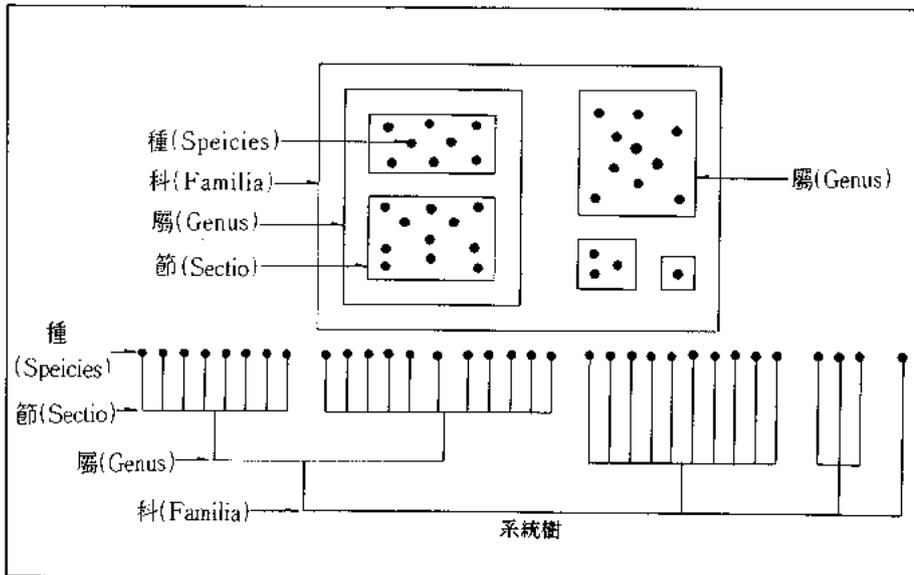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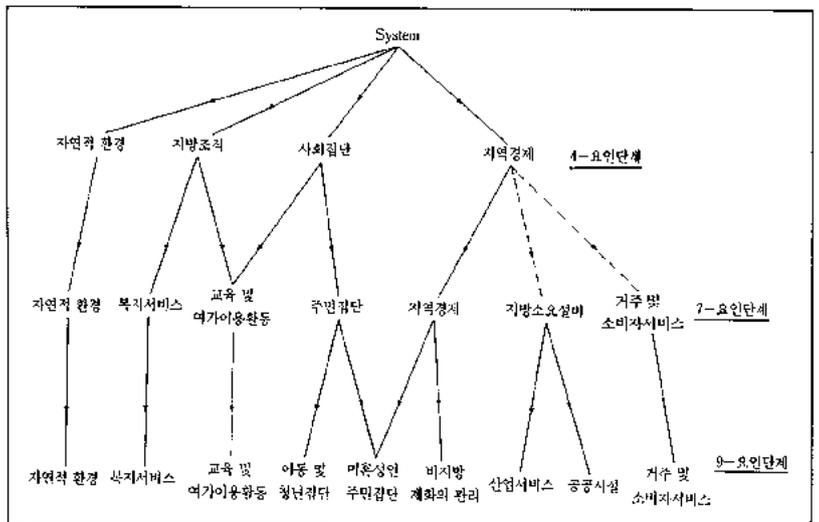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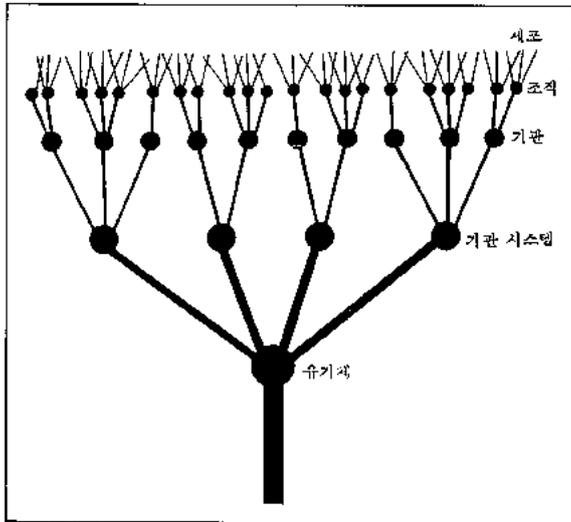
시스템적 견해 (system view) 에서 이러한 기계적 체계는 뉴턴 물리학에 기본을 두고 있어서 이들의 연결은 단순한 부분과 부분으로 보며 주체와 객체가 이루어지는 이분법적 사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도시설계의 한 방법으로서 체계분석 (system analysis) 에서나 문화를 생태계의 적응으로 보는 문화인류학에서의 체계이론 (system theory), 현대 물리학에서 우주를 분해할 수 없는 역동적 전체로써 부분 부분이 상호의존적이라고 하는 시스템觀, 살아있는 유기체등에서의 체계는 볼 수 없는 유기적체계로써 단순한 부분들의 연결이 아니라 그들의 관계와 과정과 통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체계라는 것은 통합된 전체이며 그 성질들은 작은 단위의 성질로 환원될 수가 없는 것이다. 체계접근은 기본적인 구성체나 요소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신 이들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내는 조직체의 기본적인 원리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 사고의 근원은 아인슈타인 이후의 물리학에 두게 됨으로써 객체가 무너지는 지점, 그래서 어떤 것도 그것 자체가 무엇이냐가 아니라 다른 것과의 관계에 의해서 정의되는 오로지 주체만 남은 것이다. 또 기계적 체계에서는 특정한 산출물을 생산하거나 재도자가 의도하는 특정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데 반하여 살아있는 체계에서는 자기갱신 (self-renewal) 이라는 정보흐름의 패턴에 유도된다.

정보흐름의 패턴은 원형패턴을 형성하게 되어 예를 들면 구성부분 A 는 구성부분 B에 영향을 주고 B는 C에 영향을 주며 C는 A에 영향을 주기 위해

董政根+朴研心/건축사사무소 장원  
by Dong, Jung - Keun  
& Park, Youn - S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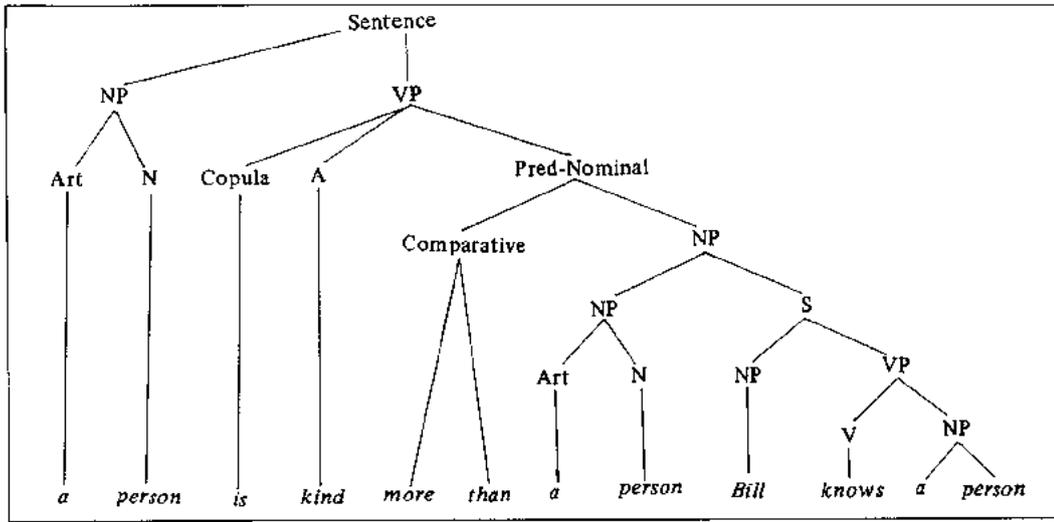




합성으로서 그 두 단어의 조작적 정의다. 체계분석은 도시의 하위체계간의 상호관계와 하위체계와 전체체계와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그 구성 부분인 하위체계와(sub-system)"로 부분화하는 것이다.

동식물의 분류체계 (taxonomy) 는 생물학적 진화에 있어서 서로 공통적인 특색으로 분류된다. 種 (species) 은 모두 같은 屬 (genus) 에 넣고 유연관계가 가까운 속은 한 科 (family) 에 통합한다. (도6) 식물학에 있어서 분류의 기준이 되는 것은 형태학 (morphology), 해부학 (anatomy), 발생학 (embryology), 화분학 (palynology), 세포학 (cytology), 생리학 (physiology), 화학분류학 (chemotaxomy), 생물지리학 (biogeography) 및 고생식물학 (paleobotany) 등이 있다. 이중에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형태학 (morphology) 은 식물의 줄기, 뿌리, 잎, 꽃 등 우리가 직접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외부적인 형태모써 식물을 식별하는 방법이다. 이런 자연형태의 분류법은 그 기관의 구조의 형태가 어떤 것이 원시형이고 어떤 것이 발달형인가에 관한 진화론적 가설도 많이 제기되게 되었다. 식물학자 린네같은 사람은 꽃의 구조만으로도 식물계를 24상 (class) 으로 나누었다. 도7은 피자식물의 꽃의 구조에 의한 한 분류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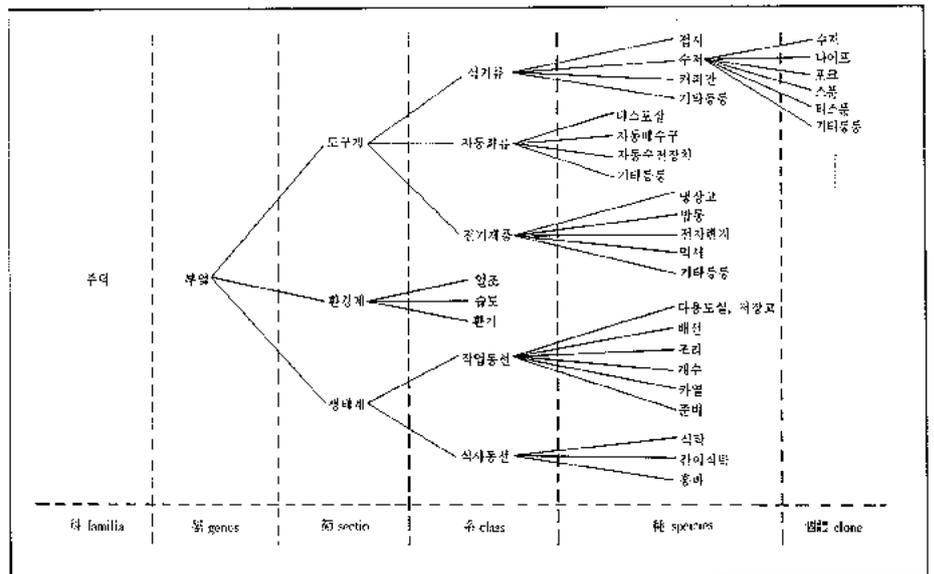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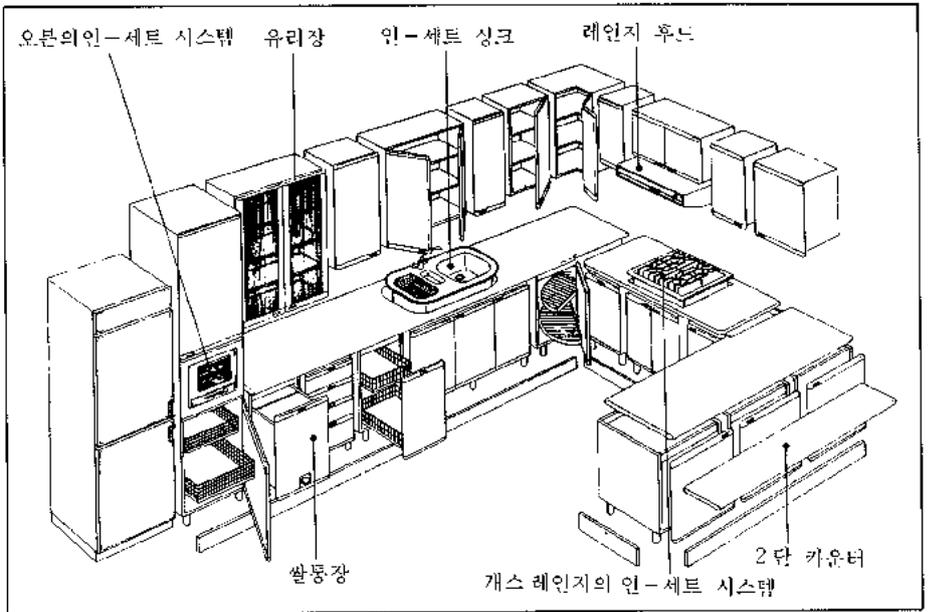
현대 언어학에서의 분류학 (taxonomy) 적 이론에서는 자연어의 문법을 쓰는 일은 마치 도서관의 도서분류 체계와 유사한 치밀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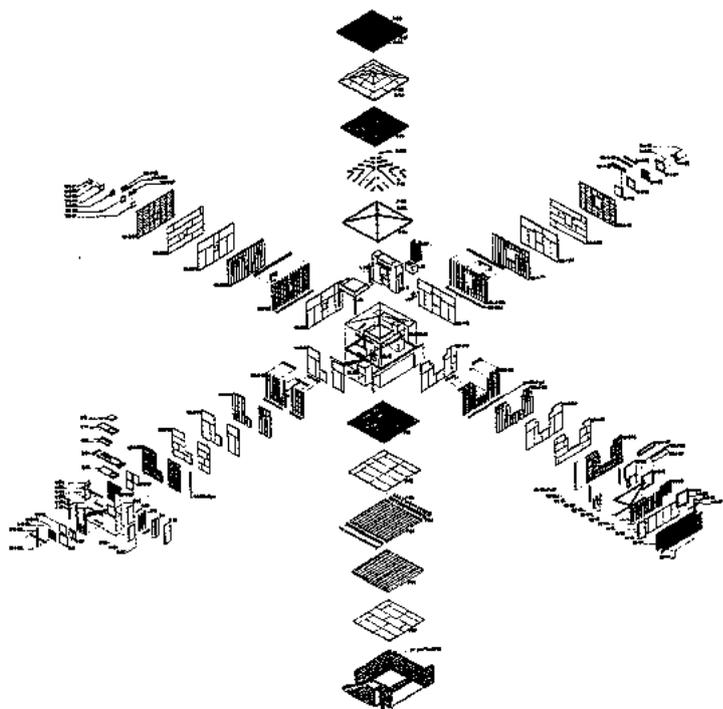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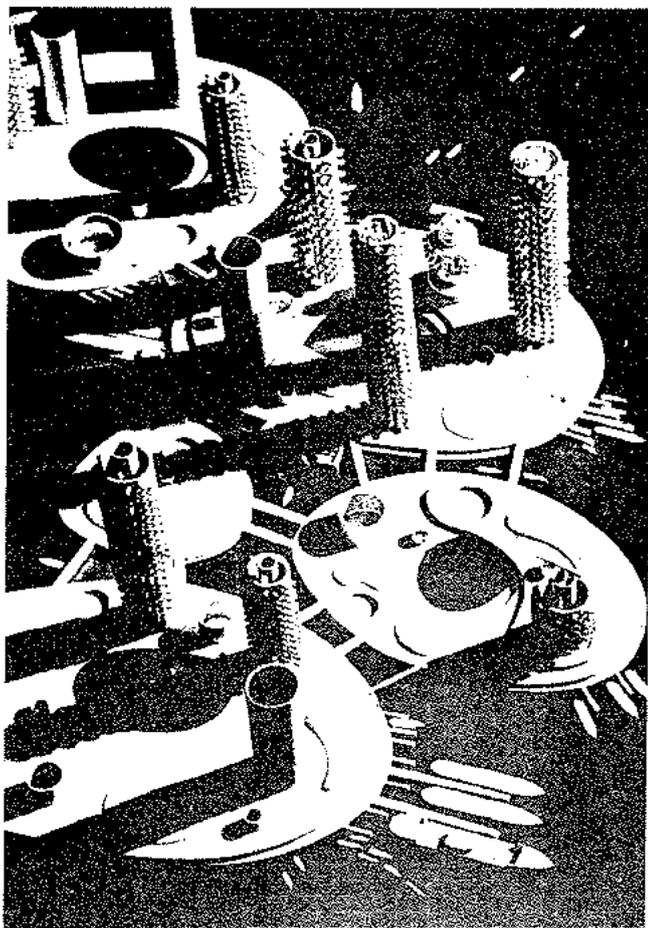


- ④ 시스템 나무
- ⑤ 계획의 부분문제를 나타내는 분소결함으로의 System분해
- ⑥ 분류군의 系統樹
- ⑦ 피지식물의 계통도
- ⑧ 영어구문의 통사론적 분해
- ⑨ 편리한 빌트인 기기와 시스템 설비들
- ⑩ 부엌의 계통도

도서목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반해 변형문법이론에서는 문법이란 하나의 이론이라고 생각되며 이 이론은 말하는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든 정각적 신호를 그 의미와 연결시킬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다른 과학에서의 이론이 사물의 구조에 관한 일반적 원리에서부터 한 덩어리의 자료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그 자료들을 설명하는 것과 형식상 유사하다. 그리하여 가령 예를 들면 영어의 한 구문을 통사론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다. (도8) 이런 문법체계의 이해는 언어가 현대철학의 중심이 되기 전에 우리가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워드프로세서에 이용되고 있다.

부엌의 입식화 및 현대생활 패턴에 따른 기능변화와 더불어 등장한 것이 바로 시스템 키친 (system kitchen) 이다. 우리나라에 시스템 키친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년대말로 종래 부엌막이나 설겅이통 등의 개념에서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 등으로 연결시키고 여기에 상·하부 수납장과 근래에는 간이 식탁까지 더하여 분절된 부분들이 모여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부엌기구 형태를 이루게 함으로써 주택특성에 따라 -자형, 병렬형 또는 7자형, C자형 등으로 다양하게 배치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한 부엌과 식당 거실과의 관련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 됨에 따라 부엌의 거실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 쌀통, 저장고 등이 함께 설치될 수 있는 Build-In 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도9) 부엌이라는 자그마한 공간에서도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춘 계통도를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도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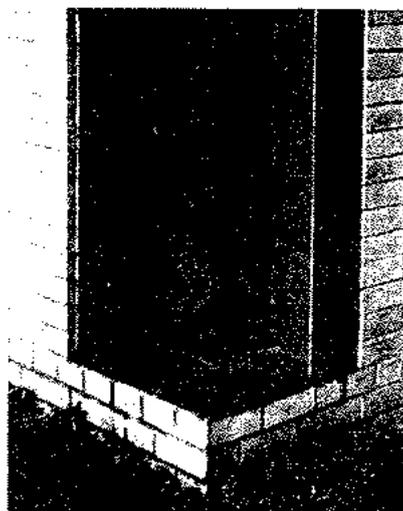
시스템キッチン에서의 상품의 규격화나 표준화는 초기에는 필요하였겠지만 최근에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크기나 형상에까지도 현장 조립이 가능하게 되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말하는 체계화는 대량생산을 위한 계량화, 공업화 같은 방법이 목적이 아니고 문제해결의 초점이 아니다. 종래의 기능주의 건축에서는 그것이 단순한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인간 삶에 아무런 의미를 던져주지 못하였던 것일게다.

그것은 마치 일본의 메타볼리즘운동이 하나의 유토피아로 끝난 것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열렬히 꿈꾸던 건축의 미래상 속에는 건축물을 신진대사하는 유기체로 본 것까지는 좋았으나 계획을 위한 계획으로써 그 속에서의 인간은 생리적 요구가 덧붙여진 일종의 기계로 그려지고 있었다. 아마 그것은 아키텍트의 여러계획안과 함께 그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였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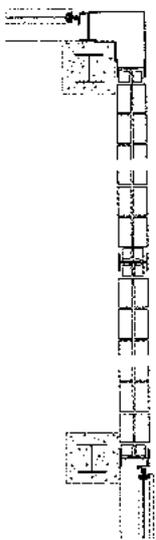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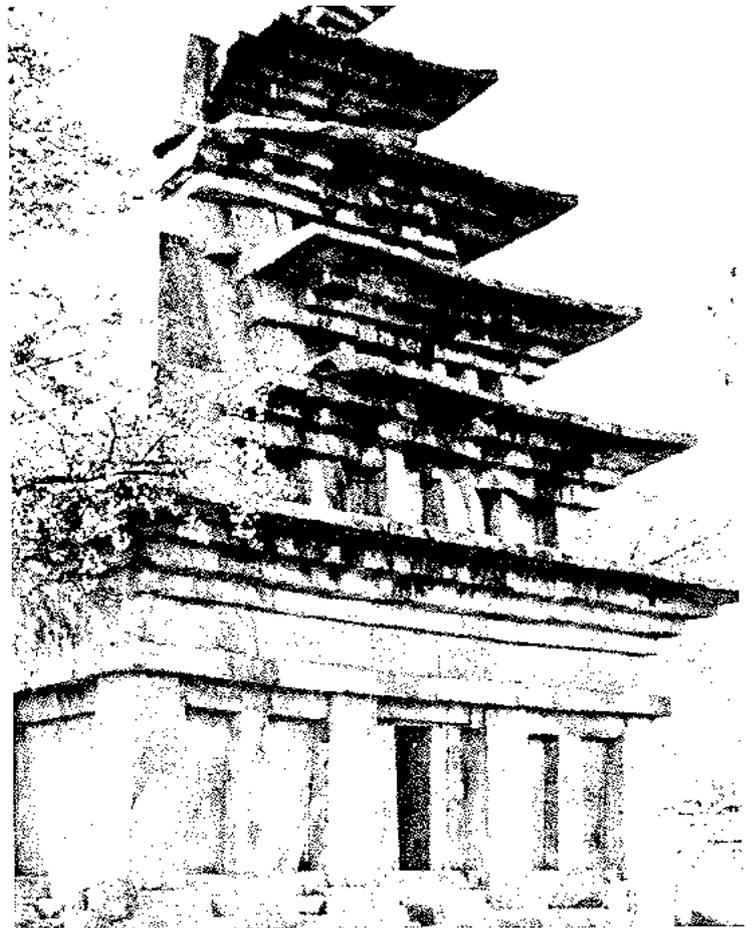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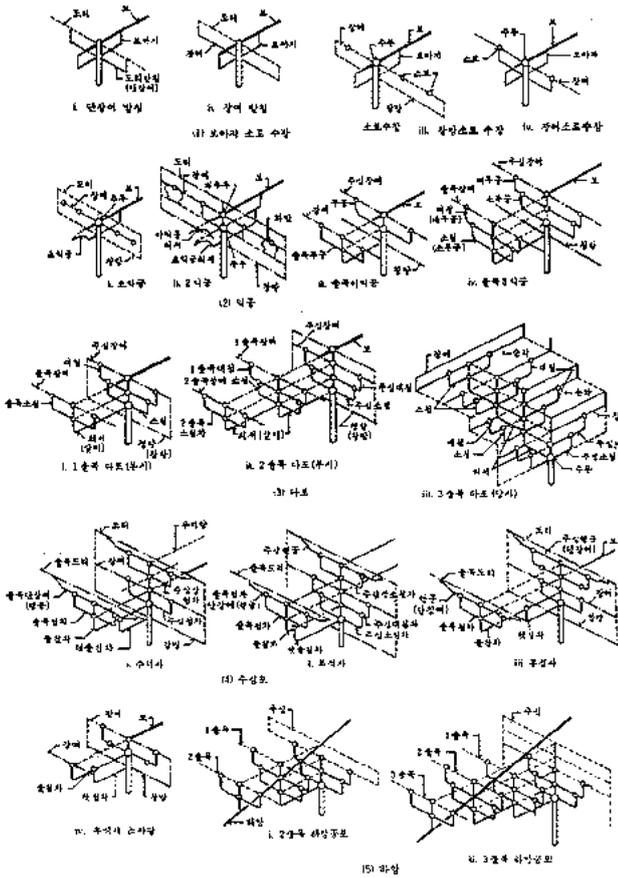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주택, 대량생산으로 Plug-In 할 수 있는 초고층아파트, 분리되어진 서비스공간, 인공대지등. (도11) 그런 개념과 계획방법의 영향은 후에 젊은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주었지만 메타볼리스트들의 작품들은 인간의 구체적 삶, 하이데거가 말하는 '삶의 세계 (life-world)'에는 별 의미를 주지 못하였다.

아무튼 체계접근과 의미, 상징체계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논할 과제로 남겨둔다. 단지 여기에서는 어떤 건축운동이건 그 목적이 인간의 생활에 개방적이고 의미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즘의 탈구조주의는 어떤가? 단순히 형태를 일그러뜨리고 (distort), 해체하고 (split), 우굴어지게 (warp)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뿐일까? 그 올바른 정신적 배경과 추구하는 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과제; )

여기에서는 체계접근(system approach)의 한 방법으로써 세분되어지는



- ① 메타볼리즘의 계획안  
기쿠타코의 Ocean City모형
- ② 돌포시스의 「Assembly House」해체도



⑬ 한국건축의 공포조립도  
 ⑭ 한국의 탑-미륵사지 서탑부분  
 ⑮ 미스반 델로에의 일리노이 공과대학 부분 디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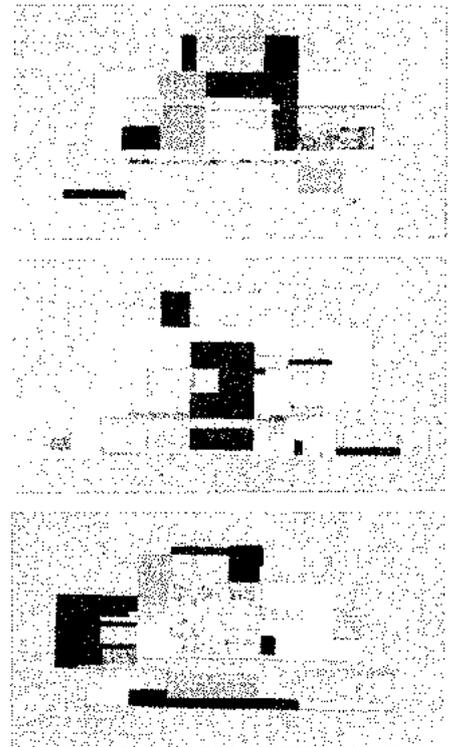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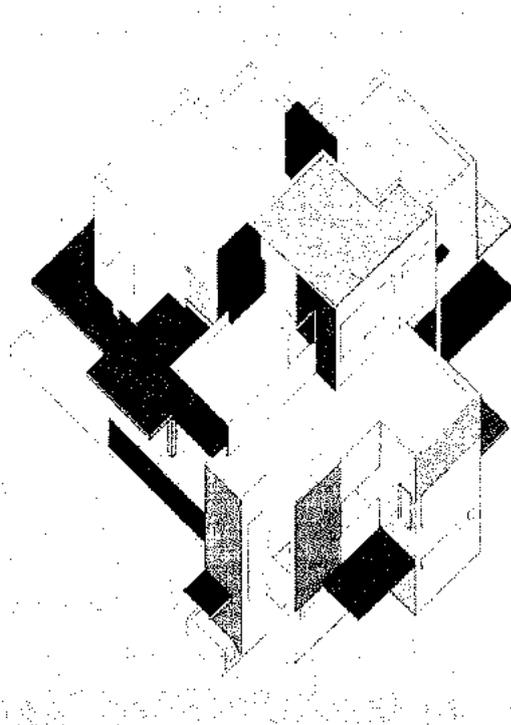
요소들, 분화되어지는 구조들이 어떻게 어떤계통을 갖게 되는지 여러분야에서 찾아 보았다. 그중에서도 놀라웠던 점은 단지 문화 인류학에서의 세계체계 (world system) 에서부터 시작된 체계이론 (system theory) 의 탐색이 이론물리학에서는 우주도 스스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하나의 체계로 보고 있다는 점과 더욱이 신학에서도 조직신학 (system theology) 이라고 하여 성서의 부분들을 해석하여 커다란 성서의 역사를 만들어나가는 방법론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전통건축에서 보여지는 구조적 형태는 (structural - configuration) 목가구기법에서도 보여 주듯이 집착제나 못은 불가피한 부위에만 사용될 뿐 맞짜임, 연귀짜임, 턱짜임, 사개짜임 등 매우 합리적인 결과가 외면 또는 내의 이증으로 건설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식 구조인 철근콘크리트와는 다르게 건물을 다른 위치로 옮기거나 켜어서 못쓰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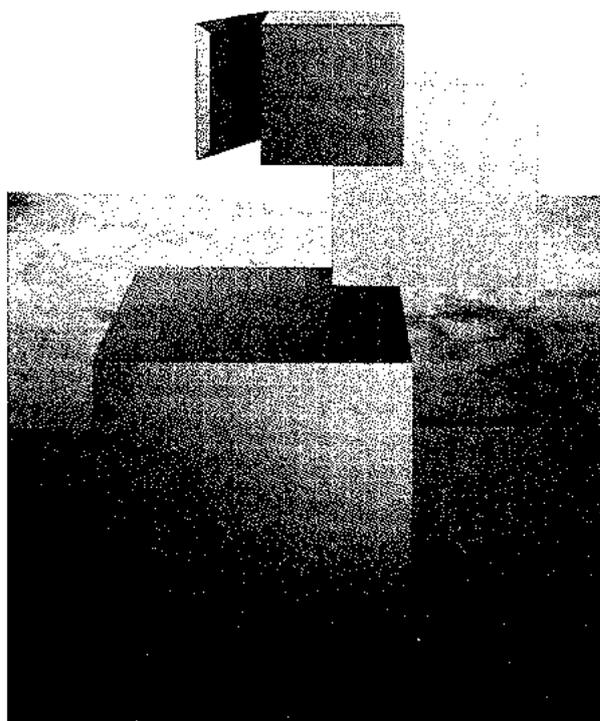
된 부위만을 따로 보수할 수도 있다. 이들 건축물의 전체적인 구조형상 (structural - configuration) 으로 아주 멋진 해체도 (exploded - diagram) 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도13) 마치 몰포시스의 Assembly House 의 해체도처럼 (도12)

우리나라 특유의 석탑이나 전탑에는 이런 목가구의 기법을 넣으려고 애쓴 흔적이 있다. 처마나 공포의 모양을 만 옥개석, 그림의 2단, 3단의 받침, 사각형의 돌기둥은 목조건축에서 보이는 엔터시스가 있는 그 위에 평방과 창방을 얹은 식의 구조적 형식을 갖춘 형태로 모방하고 있다. (도14) 특히 이런 규준을 충실하게 따른 정도를 고식(古式)이라 하여 탑을 만든 시대를 측정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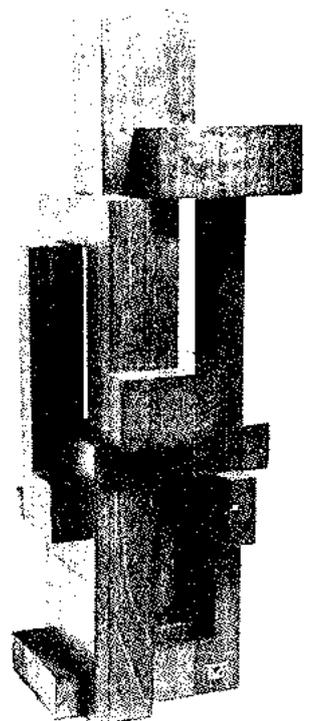
목재의 재료가 돌로 바뀌어서 사용 되었으나 이들 석탑들은 동양에 유래 없는 고유한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있다. 우리 전통의 맥락이 근대에 와서 끊김이 없었다면



16



1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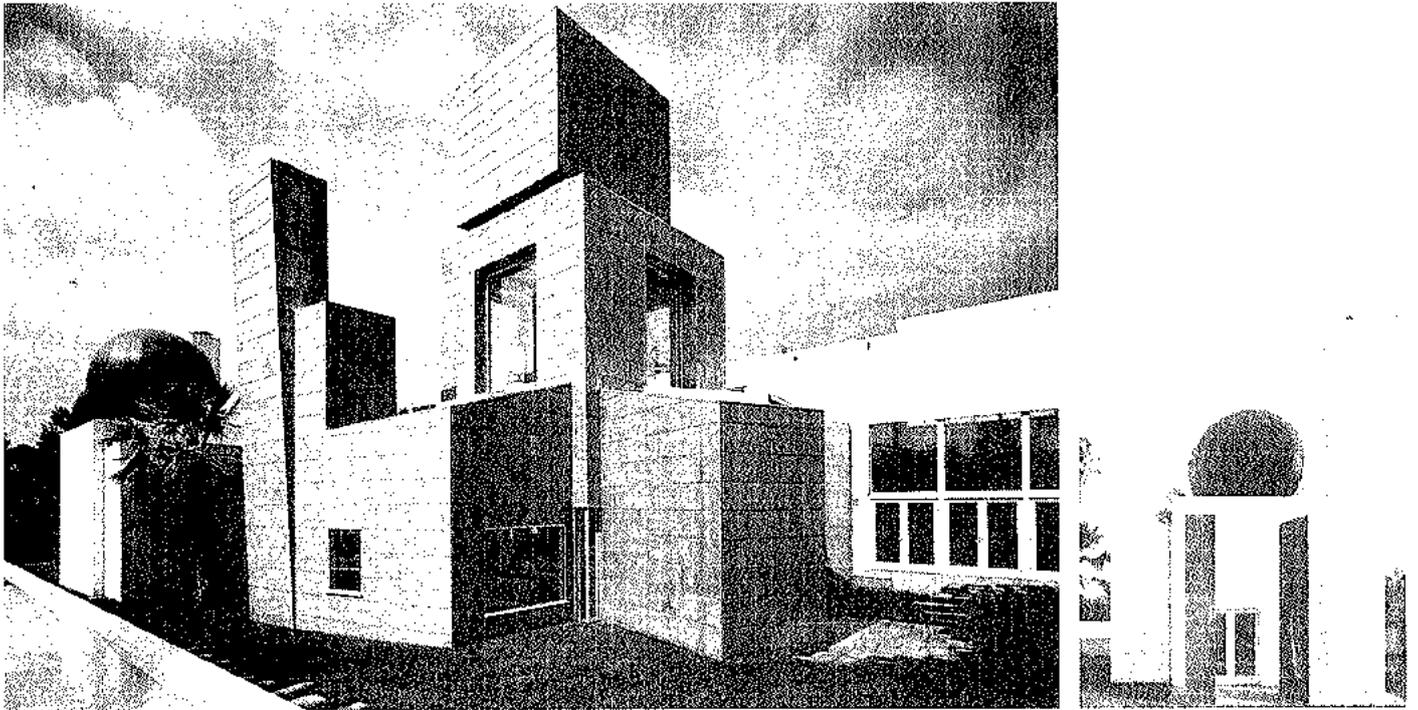
16 데오반 데스버그의 주택습작

17 스콧 버턴, 빨강, 노랑, 파랑 입체의 구성

18 조르주 뮌텔로, 입체관계의 구성

19 프랭크게리의 Scribble House

20 제랄드 마페이의 Tin House



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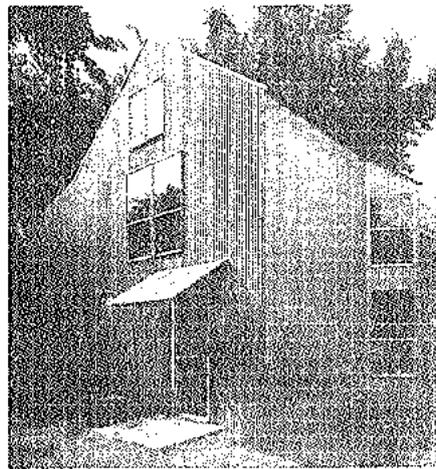
콘크리트 구조물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전통 속에 동화되지 않았을까.

코르비지에의 「도미노 시스템 (Domino system), 1920」의 구조적 방법은 수평슬라브와 수직인 기둥으로 구성되어 철근콘크리트의 구조적 특성에 착안한 것이다. 그 이전의 서양건축의 전통은 조적조에 있었기 때문에 철골조의 탄생과 함께 건축역사에서 획기적인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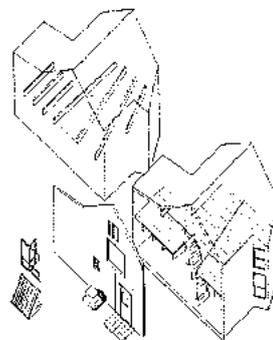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특성이란 일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형태를 기둥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또 조적조에서와는 다르게 구조를 외벽에서 분리할 수도 있다. 미스 반 델로에는 그의 철골조 건물의 디테일에서 벽과 구조체인 기둥과의 분리를 엄격하게 지키고 있다. (도15)

신조형주의 (Destijl)의 리더였던 데오 반 데스버그의 주택의 습작들을 보면 구조체에서 벽들을 분리하기 위한 노력이 보인다. 그것이 단지 몽드리아네적 입면상의 면분할 같은 것이어서 삼차원으로는 분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도16)

오리려 조르주 반톤제로의 입체주의(도18)이나 신조형주의의 영향을 받은 스룻버턴의 '빨강, 노랑 파랑의 입체,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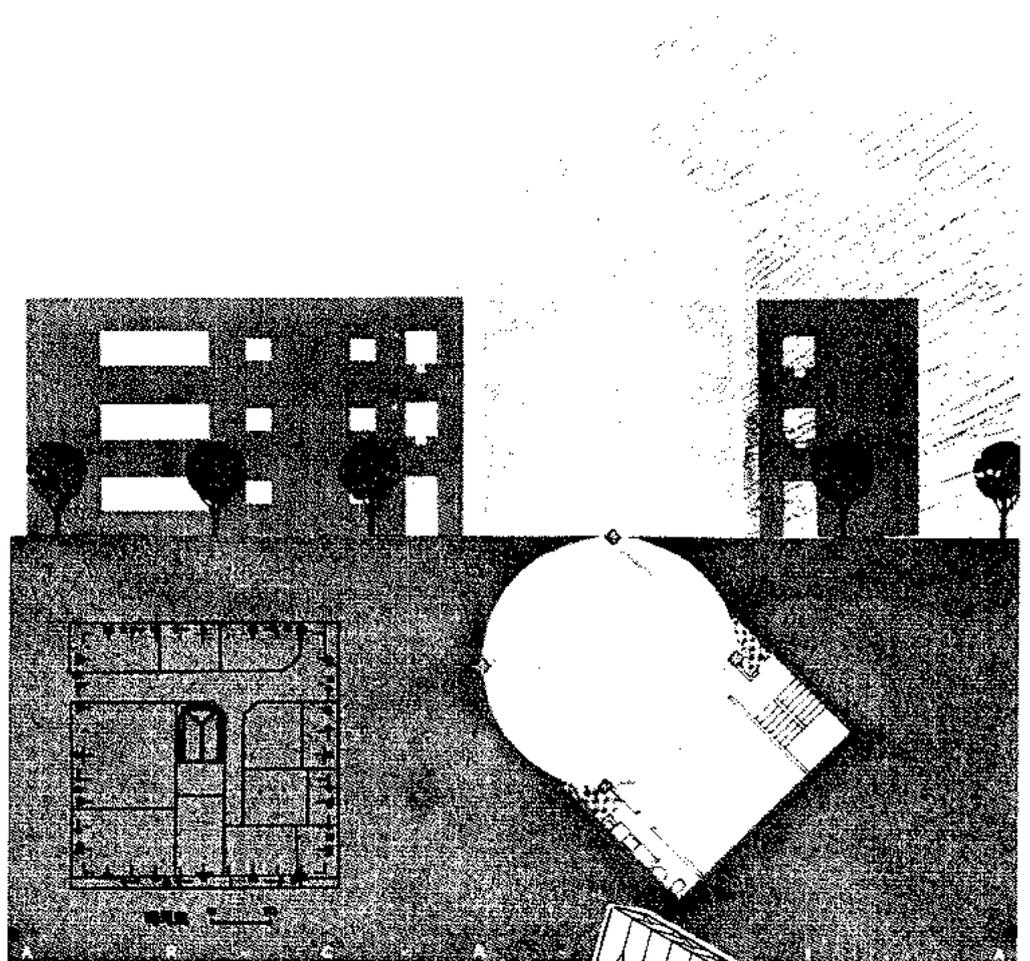
(도17)에서처럼 입체로써 분리되었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영향은 후랭크 게이리의 형태구성의 기본원리에 나타난다. 왜냐하면

그는 메스스타디움 할 때 입체조각들을 나무조각이나 스티로폼덩어리 같은 것으로 -첨가했다했다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도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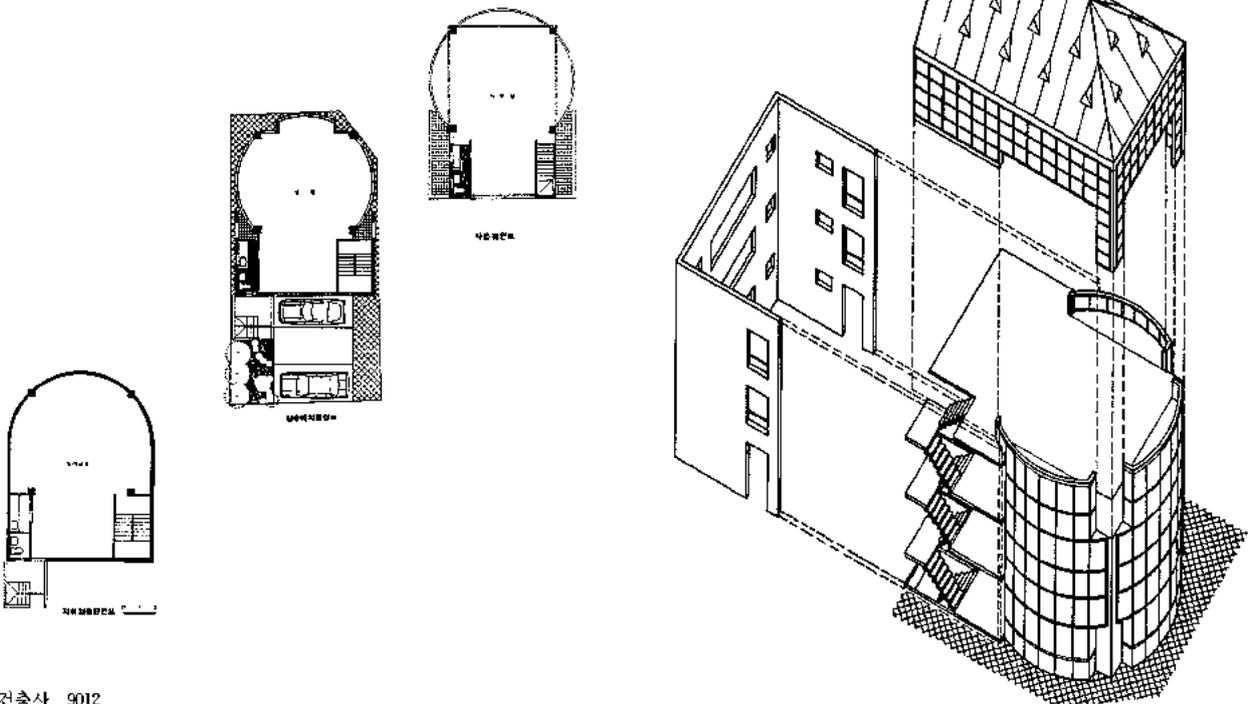
여기에 소개하려고 하는 3개의 프로젝트들의 공통점은 분화하려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의 구조적 형상 (structural - configuration) 은 각각이 갖는 건축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며 그것으로 해체도 (exploded - diagram) 를 그릴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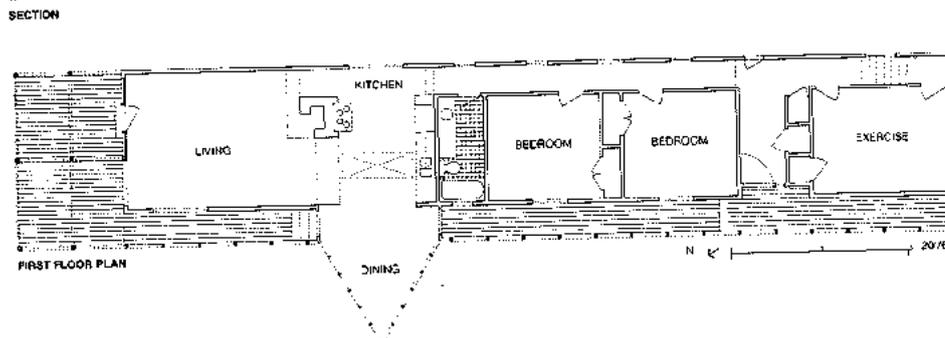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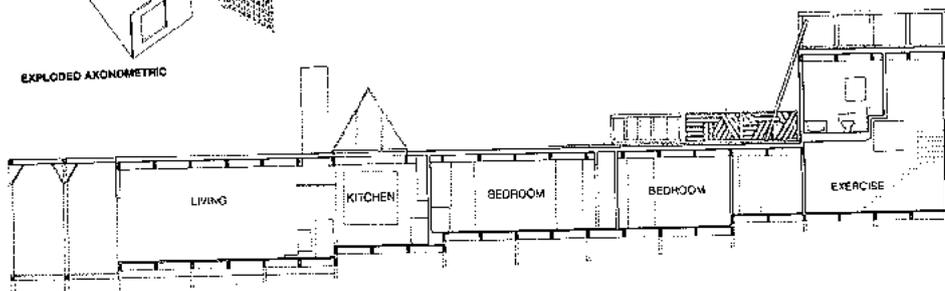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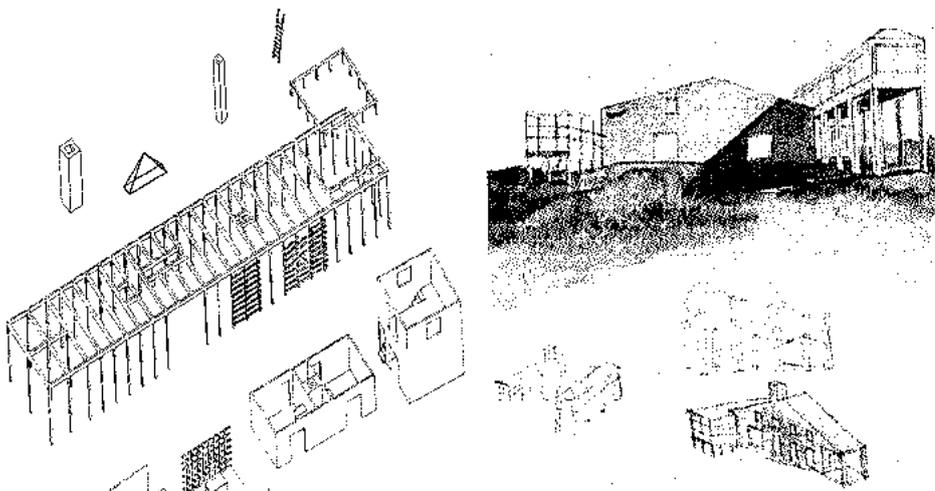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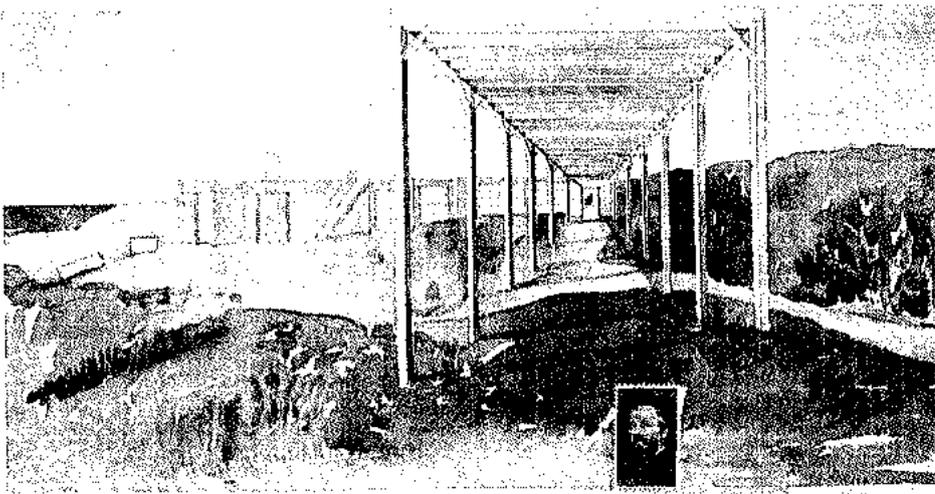
도20은 텍사스 수립대학의 교수이자 건축가인 제랄드 마페이 자신의 집으로써 대학 옆 철로변의 작은 주택이다. 주변은 빅토리아 스타일의 소유주택들이 붙어 있으므로 환경에 맞게 지붕은 경사가 심한 박공지붕으로 되어 있다. 외벽의 재료는 특이하게 광택주석판으로 되어 있다. 명확한 건축구조의 분해를 갖는다.

강남의 대다수의 부지가 그러하듯이 특별히 고려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경우 건물은 구심적이고 추상화되는 경향이 있다. 모퉁이 대지의 사선제한과 주차계획에 의한 배치에 의해 사각형과 원의 순수기하학의 분해와 그 재구성으로써 화상석의 외벽, 원형의 커튼 월, 알코본드의 사각형 지붕으로 구성된다. (도21)



① 동정근+박연심작 부암동 근린상가  
 ② 스티븐 룬의 Literary House





스티븐 홀은 최근에 미국건축계에서 무서운 신진으로 대두되는 작가다. 도22는 그에 의해서 남부 캘리포니아에 세워진 주말주택이다. 허먼 멜빌의 소설 「백경」에 나오는 거대한 고래 뼈로 지은집의 이미지를 건축주가 요구하였다. 목조의 결구들과 콘크리트의 벽체 및 바닥과의 분리를 통하여 구조를 분해하고 있다.

이런 구조들의 분화 및 통합의 기준은 세계체계(world system) 속에서 체계전체의 윤곽과 운영을 객관적으로 응시 관찰하고 반성·생각할 수 있는 조망(perspective)이 필요 하듯이 건축물에 있어서도 총체적 조감의 시점을 주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도사람들의 세계관은 우주가 거대한 한 마리의 코끼리로 되어있다고 여긴다고 한다. 어떤 사람은 그 코끼리의 다리부분만이 이 세계의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죽을 수도 있지만 수도승이나 구루(guru)들은 코끼리의 모양 전체를 보기 위해서 도를 닦고 고행을 한다는 것이다.

건축방법론으로써 꾸며본 이 이론이 요즘 서울에 다양하게 들어서는 패션건물들의 부분적 모양내기나 개념없는 건물, 나아가서는 총체성 없는 건물들에 대해 하나의 비전있는 제안이 되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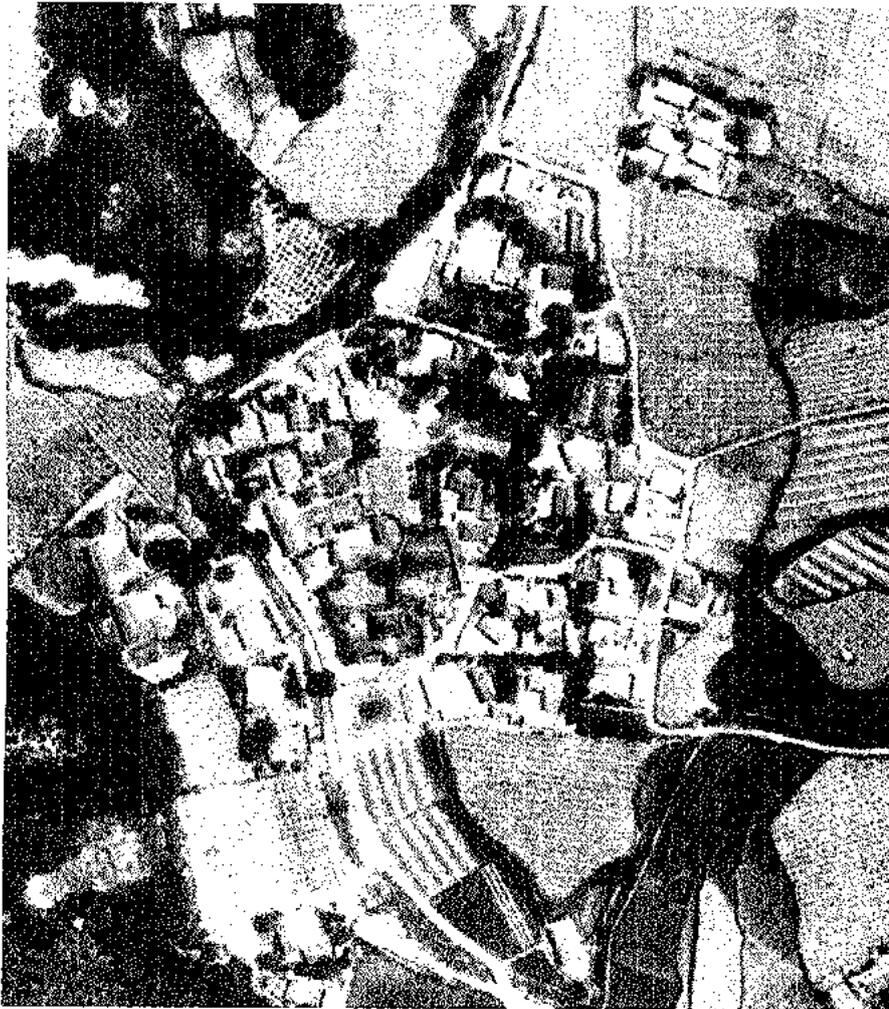
□註

- 1) 이상의 살아있는 체계에 대한 논지는 UCLA의 물리학 교수인 프리츠오펜베르크의 'the turning point', 새로운 과학과 문명의 전환, 이성법, 구술서 옮김, 범양사, 1985의 제 6 장 생의 시스템적 견해에 근거를 두고 있음.
- 2) 도시환경을 다룰때 다루어지는 방법으로서 체계이론(System theory)외에 균형이론(Equilibrium theory), 성장이론(Growth theory), 계획이론(Planning theory), 정보이론(Information theory)등이 있다.
- 3) 체계이론에는 그마디의 구조가 있다고 하였는데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도시문제를 다룰때는 상위체계와 하위체계, 언어학에서는 표층구조와 심층구조, 하는 식으로.
- 4) 분류도의 근거는 식물분류학, 이창복, 김윤식, 김정석, 이정석 공저, 향문사간, 1985.
- 5) 책방에 꽂혀있는 그많은 건축서 책중에는 작은 공포하나도 평면이나 입면으로만 도식적으로 복제되어 나와있지 입체적인 도해는 찾을 수가 없었다.

# 韓國傳統家屋의 再照明

## Review of the Traditional House

### 同族部落 上沙마을



#### 1. 上沙의 人文地理

현대 도시사회에 있어서 인간들 사이의 건축공간적 구성을 “수평적인 폐쇄질서”라 한다면 조선시대 전통마을의 공간적 구성은 “수직 적위계의 개방질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말하자면 현대의 마을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그 영역성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더러 인위적으로 영역을 정한다 하더라도

개체공간들 사이에는 엄격한 폐쇄감이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형태적으로 상·하로 보인다 해도 절대 공간적 위계를 표현해 주지 않는다.

한편 전통적인 마을의 공간적 질서는 형상이 평면으로 확산되었든, 점으로 이어지든 거기에는 엄격한 위계질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동족부락일때 더욱 그러하다.

자연부락이나 동족부락의 조사·연구는 그것이 갖는 희귀성과 일회성의 가치도 가치러니와 나아가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인문적인 계몽으로서의 물리적 보편성을 구명하려는 것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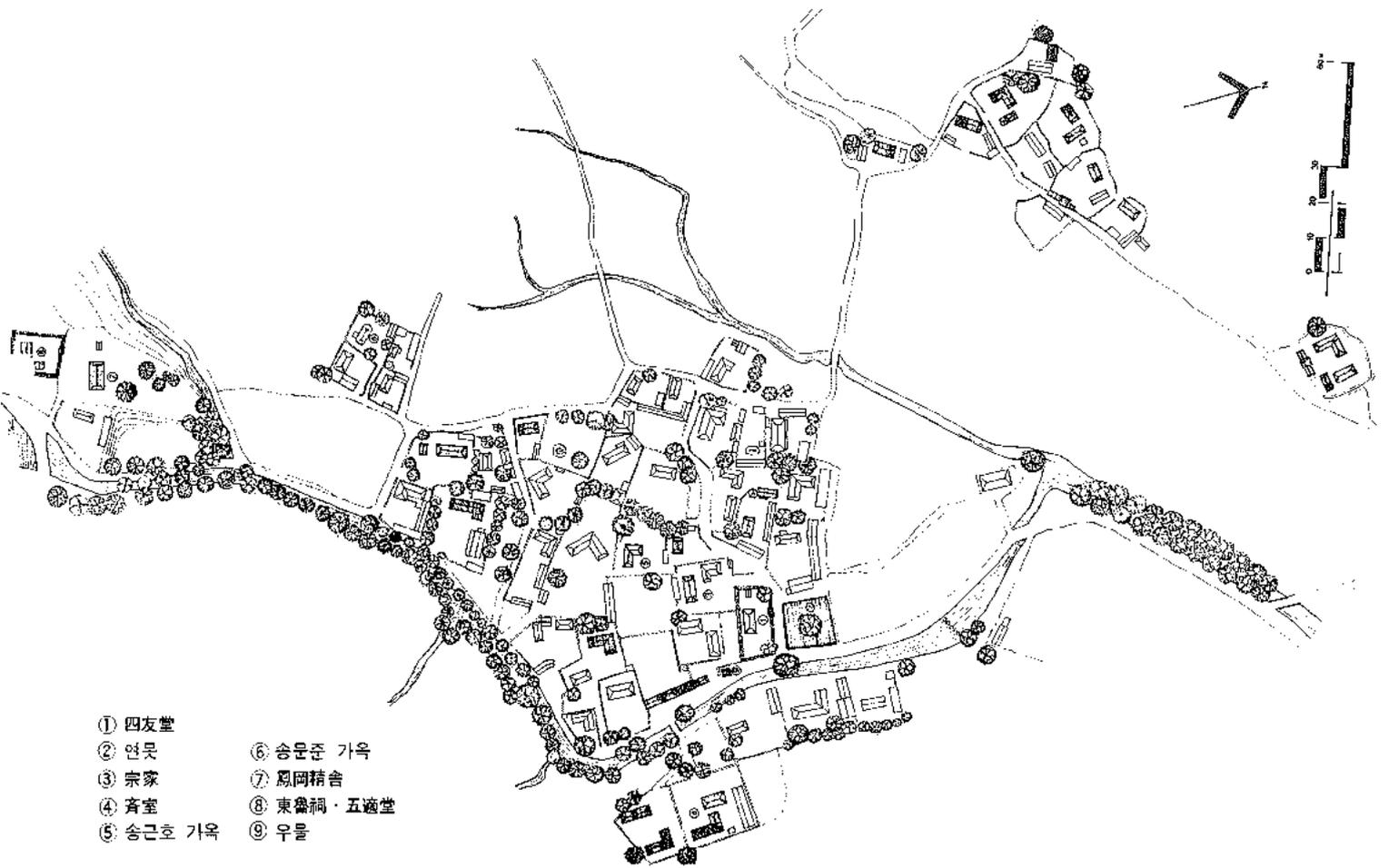
대전근교에 위치한 상사마을은 원래 他姓이 世居하고 있었던 마을이나 조선조 후기에 이르러 恩津宋氏 孝貞公派(일명 四友堂派)일족의 동족부락으로 형성되었다. 근래에 들어와 외형이 변모되었지만 구성의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는 마을이다. 행정구역은 대전직할시 동구 산내동으로 현재의 명칭은 二沙里이고 대전의 남쪽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다. 원래는 上沙마을과 下沙마을로 불리었으나 일정때 행정개편으로 인하여 이 두 마을이 합쳐 이사리가 되었다. 대전근교의 몇 개 송씨마을 중 한곳이다.

대전의 지리를 이야기 하자면 공주로부터 실마리를 끌어와야 할 것이다.

고을의 동쪽에서 금강남쪽 언덕을 따라가다가 계룡산 뒤가되는 곳에서 큰 嶺을 넘으면 儒城 큰 돌판이 나오니 곧 계룡산의 동북방이다. 계룡산 남쪽마을은 조선초에 도읍으로 정하려 했던 곳이나 실행되지 않았다. 이 골목이 온돌 가운데를 가로질러 서편에서 동편으로 흐르면서 珍山·玉溪의 물과 합치고, 북으로 금강에 흘러드는데 이 냇물이 甲川이다. 갑천동편은 懷德이고 서편은 유성과 珍岑이다. 동서 양쪽의 산이 남쪽으로 돌판을 감싸 안으며 북편에 와서는 서로 교차되어 사방을 고리처럼 둘러막았다. 들가운데에는 평평한 둔덕이 구불구불하게 뻗었고 산기슭이 깨끗하게 빼어났다.

九峯山과 寶文山은 남쪽에 불끈 솟아서 맑고 밝은 기상이 거의 漢陽 東郊보다 나은 듯하다고 「擇里志」는 말하고 있는데 상사마을은 바로 보문산을 安山으로 그 남쪽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子坐午向의

李王基  
육원대학 건축학과 부교수  
朴明德  
동양공업전문대학 건축과 부교수  
by Lee, Wang - Kee &  
Park, Myoung - Du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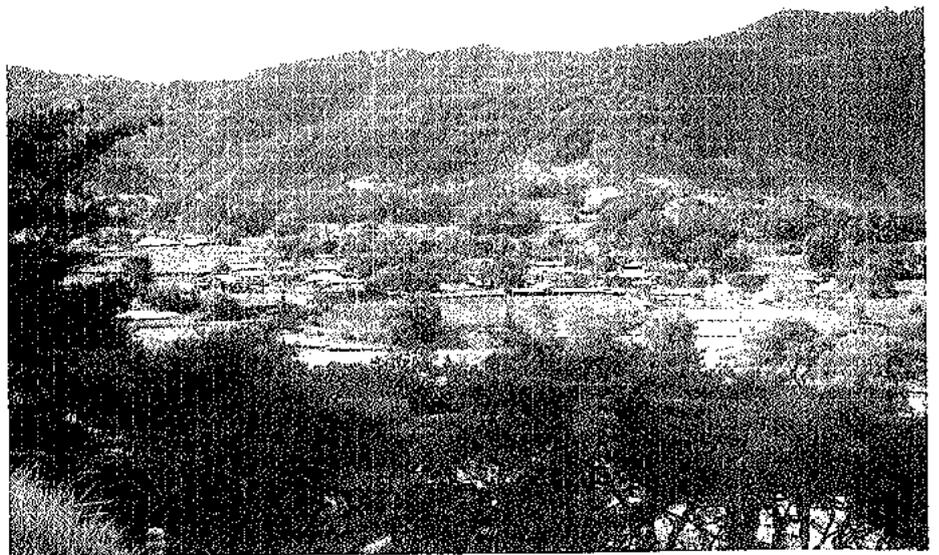
- ① 四友堂
- ② 연못
- ③ 宗家
- ④ 齋室
- ⑤ 송근호 가옥
- ⑥ 송문준 가옥
- ⑦ 鳳岡精舍
- ⑧ 東魯祠·五適堂
- ⑨ 우물

일반적인 남향배치가 아니라 소위 逆風水라 일컫는 午坐子向인 북향으로 배치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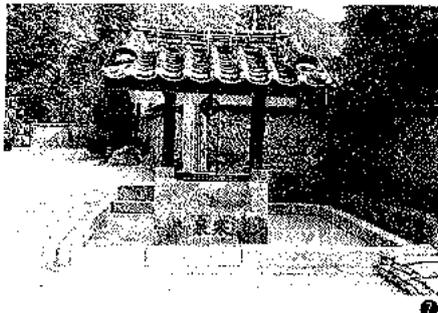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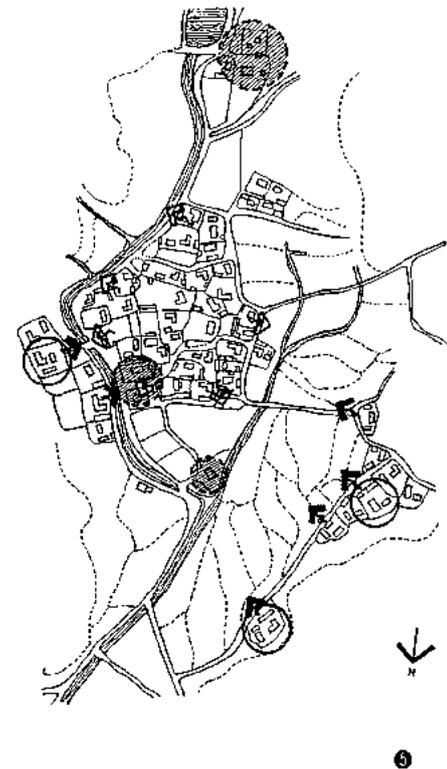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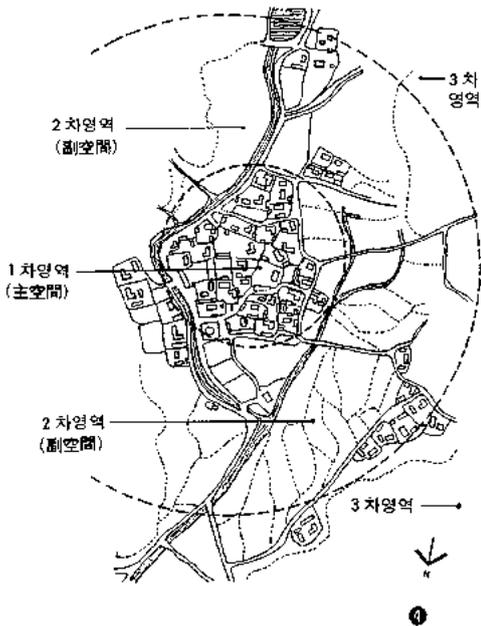
이 마을이 처음으로 형성되기는 조선조 초기로 처음에는 白氏가 살고 있었는데 그후 송씨가 들어 오면서 백씨들이 한둘 이주해 지금은 거의 송씨들만 살고 있으며 타성으로는 다만 몇 가구만 있을 뿐이다.

동족부락의 개념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동족집단의 전체가구수가 부락전체 가구수의 반이상을 차지하고 기능적으로는 共祖同族의 意識을 기본으로 집단적 행동으로 맺어진 地緣의 生活共同體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동족부락에는 공동체의 대표적 건축물로서 宗家가 상징화 되어야 하고 그와 齋室, 祠堂, 亭子, 碑閣, 書堂 등 공동시설물중 몇 가지가 반드시 배치되어 있다.

이 마을의 은진송씨 입향조는 宋星駿으로서 호는 寒泉이고



- ① 상사마을 항공사진
- ② 배치도
- ③ 전경



- ④ 공간구조
- ⑤ 개체 공간의 시각구조(사선부분은 공동공간, 원내는 제실공간)
- ⑥ 사우당 전경
- ⑦ 마을내의 공동우물
- ⑧ 鳳岡精舍
- ⑨ 봉강정사 배치도

正祖21년(1797)에 태어났다. 寒泉이 이곳에 입향한 것은 그로부터 약 20여년후인 1820년 경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상사가 은진송씨 집성촌으로 된 것은 조선말기라 할 수 있다. 入鄉祖 寒泉은 恩津人 四友堂 國澤의 후손이고 더불어 집성인들은 바로 사우당의 후손이 되는 것이다. 四友堂은 沙溪 金長生의 문인으로 광해군 11년(1619)에 생원시에 합격하고 인조2년(1624)문과에 급제하여 承文院 정자, 박사를 역임하다가 인조 5년(1672) 정묘호란때 號召使로 사계선생의 휘하에 있다가 천거로 檢閱이 되었다. 이어 威吉道都事를 지내고 持平이 되었을 때 인조의 생부 원종에 대한 추소를 반대하다가 좌천되어 輸城道祭訪·文川郡守를 역임 하였다. 장령, 宗廟를 승을 지내고 인조14년(1636)병자호란때에는 함락된 강화도에서 소헌세자의 아들(원손)을 탈출시켜 그 공으로 通政大夫에 올랐다. 그뒤 병조참지를 거쳐 형조, 공조의 참의,

승지, 예조참의를 지냈다.

마을정면에 위치하고 있는 사우당건물은 원래 송촌에 있었으나 송촌의 것은 퇴락되고 1971년 이곳에 재건하여 이 마을의 상징적 공간으로 여겨지고 있다. 송촌에 있었던 사우당건물은 인조 20년(1642) 그 후손들이 선생의 호를 붙여 하당으로 지어서 관리해 오던 것이 1960년대 말까지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형태조차 찾아볼 수 없다.

상사에 있는 현재의 건물은 정면3칸 측면2칸의 5량집 팔작지붕으로 건물 동측에 사우당유허비를, 서측에 서교를 두고 있다. 최근 건축된 건물이어서 건축사적 의의는 별로 없으나 주위는 담을 둘러 공간을 구획하고 그뒤로 종기를 비롯한 일가의 주거가 배치되어 있어 집성마을의 공간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전통성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전체적인 배치구성에서 찾을 수 있다.

## 2. 上沙의 空間構造의 特性

해발 457m의 보문산을 안산으로, 五頭山(마을주민은 五道山 또는 五臺山이라 부른다)을 주산으로 그 사이에 입지한 상사는 안산과 주산의 줄기가 서쪽으로 뻗으면서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트여있는 동북쪽으로부터 접근해 가면서 형성되는 경사는 주산에 가까울수록 경사의도가 가파르게 되다가 마을뒤의 봉강정사에

이러러 또 하나의 평지를 구성하고 끝을 맺는다. 안산은 북쪽에, 주산은 남쪽에 있어 이를 “逆風水”라 일컫는데 이러한 지형조건에 따라 거의 모든 가옥은 북향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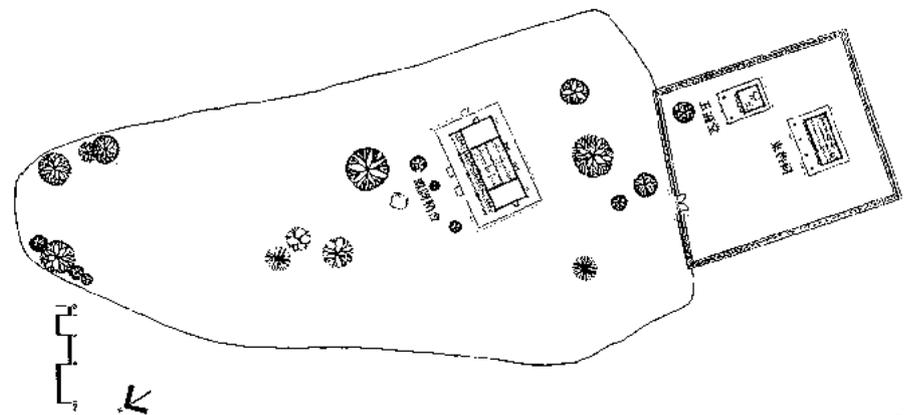
전해오는 풍수형국은 매매논 형상 즉 “繫舟形”이라 한다. 마을의 형상으로 보아 배(舟)를 연상케 할 뿐만 아니라 배의 양쪽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 마치 흐르는 강위에 배를 매어놓은 듯하다. 이 양쪽의 싹개천은 한마장 건너에서 대전천을 만나 갑천으로 흘러든다.

배치형상을 볼 때 좌우에 개천이 흐르고 가운데 한 무리의 주거군이 있으며, 개천을 건너서 주위로 여러개의 가옥이 산재해 있다. 주거의 성격으로 볼 때 개천사이의 주거군에는 主性인 온진송씨가, 주위의 산재된 가옥에는 송씨 이외의 타성들이 거주하고 있다.

마을의 공간구성에 있어서 크게 주공간과 부공간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개천사이의 주거군을 주공간이라 한다면 이를 제외한 전면과 좌우의 주거들을 부공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건축공간의 특성으로 볼 때 主空間에는 同性으로 구성된 주거와 이들의 공동공간인 증가, 서당, 정사, 사당, 우물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부공간은 제사, 계사, 관리사 등이 배치되어 있다. 주거영역을 권역으로 구분해 볼 때 중심을 이루는 주공간을 1차영역, 주공간을 에워싸고 있는 부공간을 2차영역이라 한다면 그 바깥의 지역을 3차영역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심영역을 제외한 주변의 공간은 생산을 위한 토지와 선조의 묘소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주거환경과 관련하여 주·부 두 공간에 접지하고 있는 개채공간의 좌향적 특성을 보면 주공간의 개채공간이 외향적이라면 부공간이 개채공간은 내향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말하자면 중심영역의 가옥은 동북, 북, 서북향으로 배치하고 있는데 비해 외곽의 부공간에 위치한 가옥은 동남, 남, 서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이다.

마을의 공동공간은 사우당과 봉강정사가 중심영역의 전후에 배치되고 그 사이에 공동우물, 빨래터 등이 배치되어 있다. 그외 문중의 시제를 지내기 위한 제설이나 묘사는



이를 둘러싸고 있어 이러한 모든 시설물과 공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마을의 공간구성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는 반면 건축물은 많이 변모되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몇 개의 실례는 아직도 원형을 잘 간직하고 있다.

소개되는 이 마을의 실측도는 1986년 목원대학 건축학과와 서울대 건축학과가 공동으로 조사한 것인데 이를 보완 정리한 것이다.

### 3. 鳳岡精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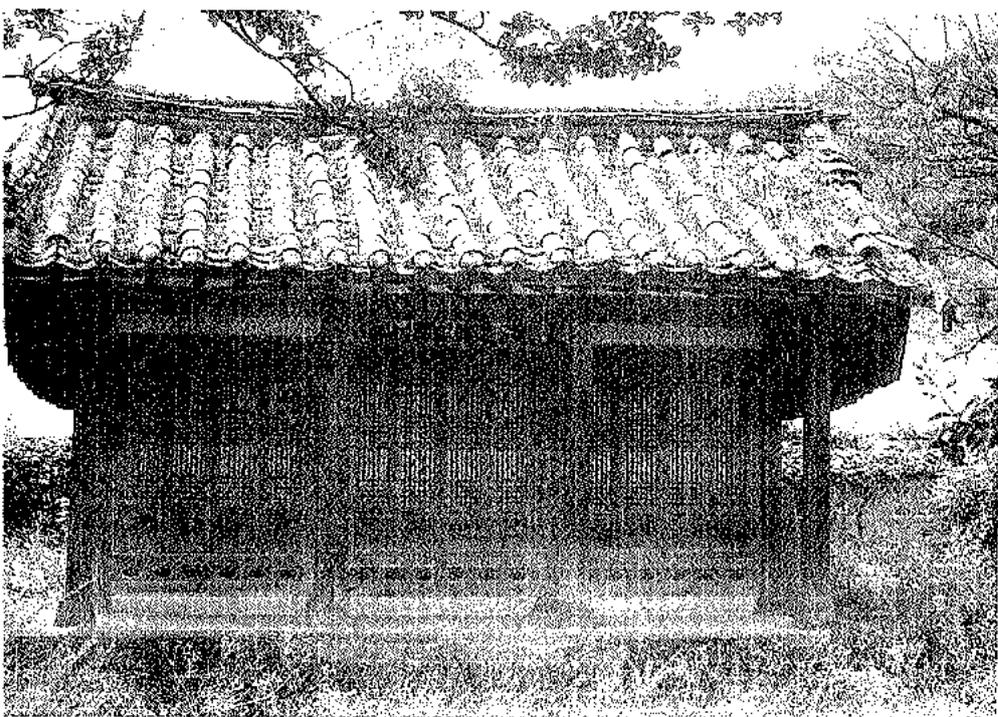
상사마을의 뒤편 영귀대에 자리잡고 있는

봉강정사는 조선말의 유학자 蘭谷 宋炳華가 후학들을 강학하기 위하여 고종 33년(1896)에 지은 건물이다.

정면4칸 측면2칸의 팔작지붕으로 무고주5량집 구조이다.

평면의 구성을 보면 가운데 2칸은 마루로 하고 양측에 온돌방을 배치했는데 정면의 전칸에 퇴를 달았다. 온돌방의 아궁이는 전퇴밑에 두고 반대측 뒤에 굴뚝을 세웠다.

약2척 높이의 기단은 표면을 시멘트로 마감하고 갈 다듬은 초석을 썼는데 전열은 원형이고 뒤의 2열은 방형이다. 이 모양은 기둥의 형상에 따른 것인데 전열의 기둥은 직경28cm의 원주이고 나머지는 21cm 각 방주를 세웠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으로



기둥상부를 바로잡고 주부를 올린다음 그 위에 평방으로 보강하였다. 평방은 주두부분에서 퇴보와 결구되는데 보밀은 외부로 直切, 내부로 斜切된 보아지를 받쳐 두었다. 창방과 평방사이에는 정면 각 칸마다 5개씩의 소로를 키워 일체가 되게 하였다.

공간의 쓰임새에 있어서 대개이 서당에서는 중간대청과 방사이의 문을 열어열개로 한 반면 여기서는 미서기문으로 한 것이 조금 다르다. 대청의 정면을 포함한 모든 외부문은 세살문으로 처리하였다. 마루의 천장은 연등천장이고 방은 고미반자로 하였다.

외부로 담을 두지않고 개방되어 있으며 전면뜰에 노송등이 봉강정사를 에워싸고 있어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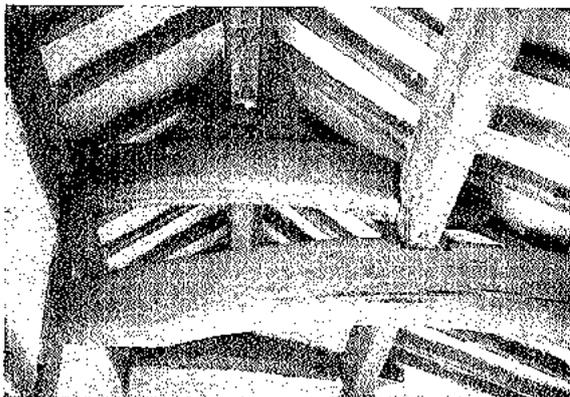
봉강정사 뒤로 2채의 사당이 울담에 둘러싸여 배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東魯祠”이고 또 하나는 “五適堂”이다.

봉강정사를 지어 강학하던 宋炳華는 四友堂의 9대손으로 바로 이곳 상사마을에서 철종3년에(1852)태어났다. 자는 晦卿 호는 蘭谷 또는 約齋라고도 한다. 구암 신응조 문하에서 증유하였는데 학문이 깊고 식견이 높아 1905년 도학으로 참봉을 제수받았으나 취임하지 않고, 조정에서 관리를 보내 불렀으나 시국을 한탄하며 상소로 거절하였다. 그는 예적을 물리치고 성현의 도학과 의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오로지 후학을 위해 강학 하였다. 병자년 수호조약 이후로는 울분을 못참고 매일 한양을 바라보며 통곡하다 6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東魯祠는 바로 蘭谷 宋炳華의 학문을 세습하기 위하여 그가 죽은지 5년 후인 1920년에 제자들이 지었다. 정면3칸, 측면2칸에 맞배지붕이고 1교주5량집이다. 내부공간은 하나의 통간으로 하고 정면은 퇴칸을 두었다. 바닥은 우물마루를 깔았으며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지붕의 박공외부는 풍판을 달았다.

기간은 다듬돌로 한벌(높이 1척)놓고 방형주초 위에 방형주를 세웠다. 기둥머리에서는 창방으로 상부를 잡고 보와 도리가 결구하였는데 이를 보완해 주는 보강부재는 별도로 두지 않았다. 봉강정사와 같이 전면에 퇴를 두었는데 내부공간과 퇴공간의 분리는 하부에 세살창호를 달고

- ① 東魯祠
- ② 東魯祠 구조
- ③ 五適堂



상부는 벽을 쳤다. 따라서 가운데 고주를 세우게 되는데 고주의 중앙부에서 퇴량과 내부의 대들보가 걸리게 하였다. 종보 위에 놓이는 대공은 마루대공으로 하였다.

정면3칸을 제외하고 외벽은 흙심벽으로 하였는데 강두리 높이까지 돌을 쌓아 풍우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근래에 들어와 시멘트로 외벽을 보완하였다.

내부에는 공자와 노자의 영정을 봉안해 두었다.

東魯祠의 전면동측에 정면1칸 측면2칸의 五適堂이 있다. 五適堂은 별도로 蘭谷의 영정을 모셔두기 위하여 1934년에 지은 것인데 후일 난곡의 수제자 宋炳華의 영정을 함께 봉안하였다. 규모가 작고 단순한 건물로서 전면은 퇴칸으로 후면은 室로 꾸몄다. 기단이나 기둥, 목구조의 기본적인 구성형태는 東魯祠를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만들었다.

#### 4. 송근호 가옥

이 마을 중심영역의 거의 가운데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이 가옥은 1806년에 지어진 주택으로서 이 마을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중 하나이다. 특히 이 집을 지을 때 마을의 조산에서 재목을 구해와서 지었다 한다. 처음에는 이 집 뒤편에 안채가 별도로 있었으나 오래전에 퇴락하여 철거하고 지금은 이 건물만 남아있다고 호주는 진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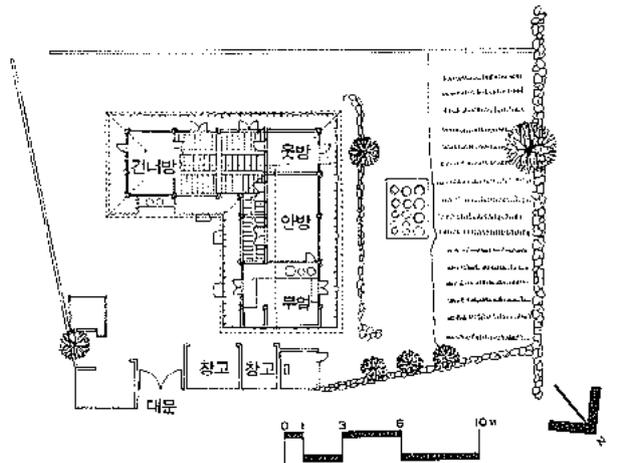
평면은 일반적인 농가주택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현재 배치형태는 대지가 축소되어 협소한 모습이다. 평면은 곡척형(ㄱ자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건물로 최근에 만든 창고와 화장실건물이 정면인 북측에 배치되어 있다.

평면구조는 가운데 대청을 두고 서측에 안방과 옷방이 배치되고 동측에 건너방이 있다. 부엌은 대문과 가까운 북측에 두고 대청과 부엌사이에는 퇴마루로 연결하였다. 현재의 부엌은 전면부와 측면부로 퇴칸만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퇴마루가 부엌과 접하게 되었던 것이다. 부엌상부는 다락을 두고 안방에서 출입하도록 하였다.

건너방 전면에도 원래는 퇴마루가 놓여 있었으나 나중에 퇴마루를 없애고 건너방을



18



18 송근호 가옥 전경

18 배치 및 평면도

18

확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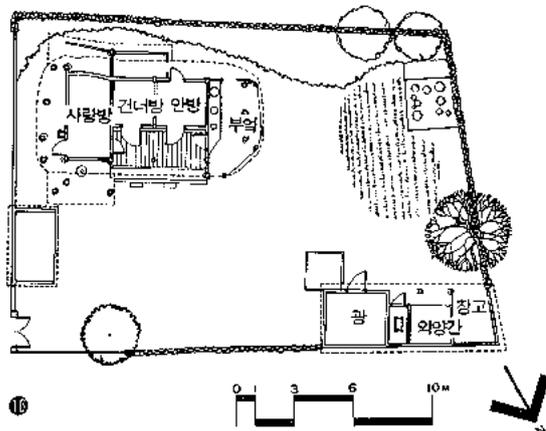
기단은 막돌허튼층쌓기 1척반으로 하고 덩명주초를 놓았다. 원주는 쓰지않고 방주를 썼는데 특이하게도 꺾여지는 부분의 회침기둥은 8각주를 썼다. 기둥머리에서는 간단히 도리와 보를 걸구하면서 도리말에는 장여로 보강하였다. 기본적인 구조형태는 1고주 5량집으로 하고 대청쪽은 팔작, 부엌쪽은 받배지붕으로 하였다.

대청의 정면은 창호를 두지않고 후면 각 칸에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각 지방의 외부창호는 세살분을 달고 부엌은 장판문이다.

주택의 뒤뜰에는 높이 2자정도 단을 높이고 장독대와 터밭을 두었다. 외주로 돌아가는 담장은 농측과 남측에 불력담을,



㉑ 송문준 가옥전경  
㉒ 배치 및 평면도



북측과 서측은 돌담을 둘렀다.

이 주택이 처음에는 사랑채였다고 하나 평면구조로 볼 때 사랑채였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오히려 기본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옥의 후면에 안채가 있었다는 호주의 진술은 정면이 사랑채가 있었다는 것을 잘못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옥은 마을의 전체적인 좌향에 따라서 북향으로 배치하고 있는 까닭에 남측의 좋은 향은 뒤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배치가 건물의 개체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요인을 안고 있지만 마을의 전체적인 배치 측면에서의 공간적 위계질서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 5. 송문준 가옥

마을의 뒤편에 위치한 이 가옥은 이 마을에 남아있는 2채의 초가중 하나이다.

본체는 지금으로부터 약100년 전에 지었다하며 부속사는 1970년 새마을사업 당시 증축된 것이다.

동쪽으로부터 진입되어 들어가면 앞뜰이 있고 서편에 터밭과 장독대가 놓여있다. 본체는 약간 남측으로 치우쳐 배치되고 북측으로는 부속사가 배치되어 있는데

부속사는 곡식넣어두는 광, 변소, 창고, 외양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외부로 둘러진 담은 불력담과 돌담을 혼용하였는데 남, 서 그리고 북측일부는 돌담으로 동측과 북측일부는 불력담으로 하였다.

본체는 정면3칸 측면2칸으로 가운데 2개의 작은방(안방, 건너방)과 그앞에 퇴마루를 놓고 동측에 사랑방을 두었다. 서측끝에 부엌을 배치하였는데 부엌에서 안방에 붙을지피고 사랑방은 정면에 별도의 아궁이를 두어 난방을 하도록 했다. 이 아궁이 위에는 큰 가마솥을 걸어두었다. 방뒤쪽으로는 벽을 추가하여 농기구창고와 허드레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꾸몄다.

약 1.5척 높이로 기단을 쌓았는데 막돌허튼층 쌓기로 하였다. 기단앞에는 두곳에 디딤돌을 놓아두었다. 초석역시 막돌로 만든 덩벙주춧돌이고 기둥은 직경 12cm 정도의 매우약한 부재를 썼다. 기둥의 상부에는 내부를 가로지른 보가 기둥위로 얹어지고 그 위에 노리와 보가 만나는 결합부를 홈으로 파서 두 부재를 결구시켰다. 이러한 결구기법은 한식목조건축의 원초적인 형식에 가까운 것이라 하겠다.

한때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초가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이면사정인지는 모르지만 현재까지 전통적인 형태를 잘 간직하고 있다. 일부 외벽을 보수하지 않아 임시방편으로 지내고 있지만 이러한 모습은 이제 좀처럼 보기가 힘든 것이라 하겠다. 이 가옥은 숙련된 대목장이나 일류목수가 지은 것이 아니라 숙련되지 못한 마을목수가 지었다는 점에서 한편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말하자면 집을 조영함에 있어서 건축기술 발달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점점 소멸되어가는 이러한 집들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건축사의 기록일수도 있기에 보존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 6. 宋氏齊室

마을 중심영역의 동측개천 너머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로서 재실이라고 하지만 일반민가와 다름없이 지었다. 농편에 배치되어 마을을 향해 서향하고 있는



17



18

형태로서 전체적인 마을 형국으로 볼 때 중심공간을 향하고 있는 부속공간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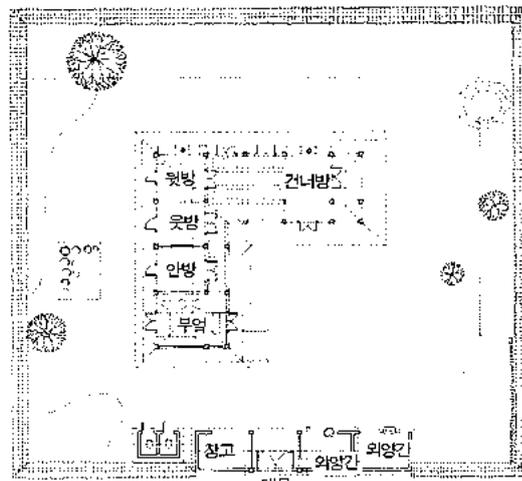
본체와 문간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체의 종도리에 「月峯之前 索溪之上, 崇禎後五丙辰六月十日入住上 樛甲坐康向, 脩人間之五福 應天上之三光」이라는 명문이 있어 일제내인 1916년에 입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간채는 나중에 개수되었다.

3칸규모의 문간채 가운데 솥대문을 들어서면 주위에 담으로 둘러싸인 꼭적(7자)평면으로 구성된 본체가 서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평면구성은 가운데 대청을 두고 북측에 안방, 옷방, 뒷방을 배치하고 반대편 남측에 건너방을 배치하였다. 건너방에 붙여서 반칸정도 퇴를 날아 누마루를 설치하고 부엌은 대문간과 가까운 서측에 배치하였다.

공간활용에 있어서 안방과 옷방은 4폭 미서기문으로 하여 부녀자들이 쓰도록 하고 건너방은 사랑방으로 사용하였다. 뒷방은 별도로 출입구를 달아 광으로 사용하고 있다. 안방과 옷방앞으로는 약3자폭으로 전퇴를 달아 대청과 연결시켰다.

5랑집 팔각지붕구조의 이 가옥은 처음부터 제실기능으로 조영되었지만 평면구조는 중부지방 중농가옥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단은 다듬돌 약 1자높이로 쌓고 상부는 시멘트로 간단히 마감하고 대충 다듬은 돌로 초석을 삼았다. 기둥은 21cm각



- 17 송씨제실 본체
- 18 부엌 외부
- 19 배치 및 평면도

방주를 썼으며 기둥머리에서는 창방과 보를 함께 결구하면서 창방밑은 장여로 보강하였다.

대청은 우물마루로 하고 천장은 연등천장이다. 대청의 전면은 개방시키고 후면은 각 칸에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았다. 각 방의 외부창호는 세살문 쌍여닫이로 하고 부엌은 전후로 쌍여닫이 골판문을 달아 앞뒤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3칸규모의 문간채는 가운데 솥대문을 두고 양측은 외양간과 창고를 들었다. 외양간 외부로는 나중에 한 칸을 추가하여 또하나의 외양간을 두었다.

이 가옥은 비록 제실이지만 처음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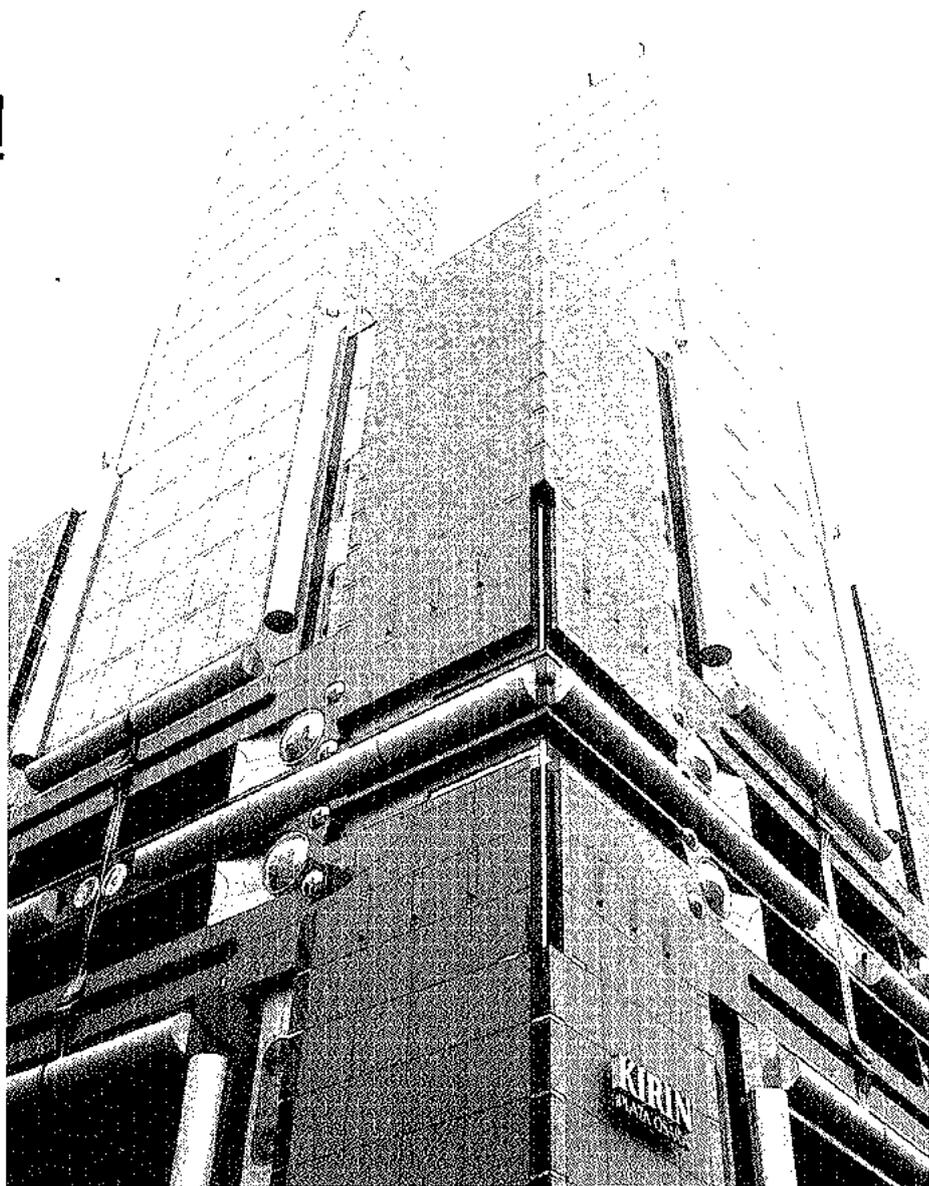
거주와 제실기능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따라서 일반 농가의 기본적인 평면형식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중부지방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었다. 배치가 있어서도 문중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관리인이 거주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인 계획때문에 상사마을의 중심영역에서 벗어난 위치, 즉 동쪽의 개천건너를 선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좌향에 있어서도 마을의 중심영역의 가옥과 같은 것이 아니라 중심영역을 향하게 입지하도록 의도적인 계획방법이었던 것이다.

# 교토, 다카마쓰 신 (高松 伸), 관능적 기계.

*Kyoto,  
Shin Takamatsu,  
Erotic Machine*

“예를 들면, 다카마쓰 신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지닌 문장을 성립시키고 있다. 「위장, 수태, 잔재, 날조, 교태, 증류, 발광, 비상, 정련, 교합, 잔조(殘照), 조사(照射), 환시, 봉합, 야합, 가사(假死)…」 이 용어들의 계열은 연금술사들이 선호하여 사용하는 용어들이다.”

—하라 히로시(原 廣司)



## 1. 영화 속의 다카마쓰 건축

한스 짐머(Hans Zimmer)의 음악을 배경으로 뿌영계 안개가 낀듯한 오사카 신사이바시(心齋橋) 도톤보리(道頓堀) 개천 옆에 빛을 발하는 건축물이 서 있다.

4개의 빛을 발하는 4각형 발광체의 탑으로 상부가 구성된 이 건축물이 다카마쓰 신이 설계한 기린 플라자 오사카(Kirin Plaza Osaka : 1987)이다.

오사카에서 신사이바시를 방문한 사람들이거나 리들리 스크트(Ridley Scott) 감독의 「블랙레인」(Black Rain : 1989)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들에게 이 정교한 기계적 관능미를 발산하는 다카마쓰의 건축물이 상당히 강력한 인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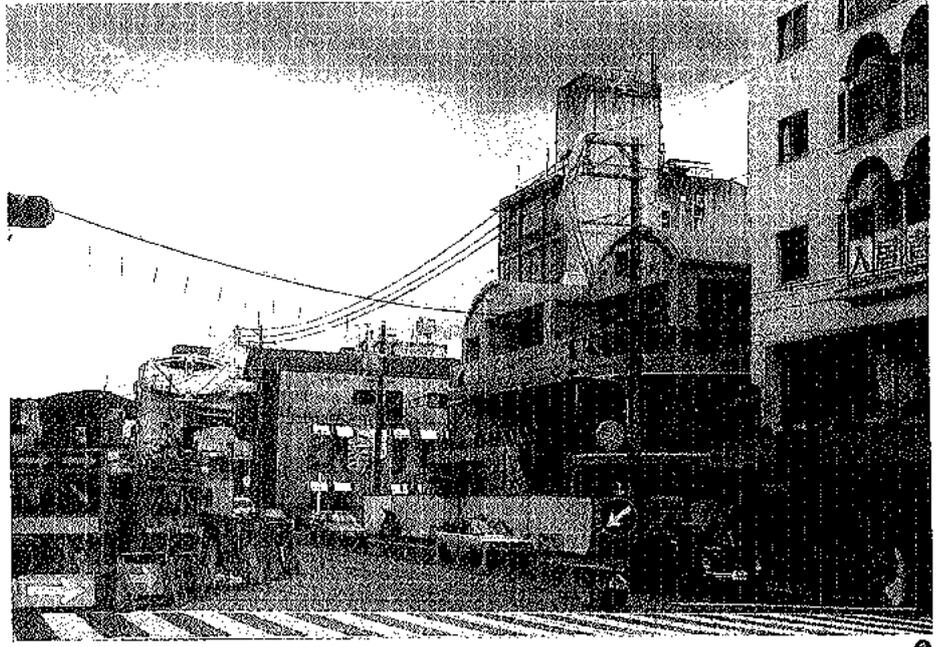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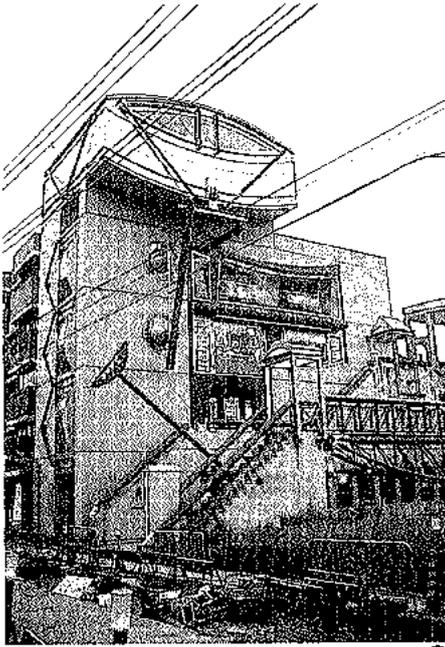
주었을 것임이 틀림없다. 다카마쓰 건축의 영화에 대한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62회 아카데미 미술상을 받은 「배트맨」(Batman: 1989)으로까지 확대된다.

배트맨에 나오는 시청건물의 셋트는 다카마쓰 신의 ARK(1983)에서의 영향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왜 영화에서 그 배경으로 다카마쓰 신의 건축물이 잘 사용되는 것일까?

영화 속의 배경으로 어울리는 건축물 / 우디 알렌(Woody Allen) 감독의 「한나와 그 자매들」(1986)이나 로브 라이너( Rob Reiner) 감독의 「헤리와 셸리가 만날 때」에서는 F.L.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이 나오고 테리 길리엄(Terry Gilliam) 감독의

金文德  
건축대학교 실내디자인과 교수  
by Kim, Moon - Duck



「미래사회 브라질」(Brazil : 국내에서는 TV에서 「컴퓨터 환상의 여행」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에서는 리카르도 보필 (Ricardo Bofil) 설계의 마르노-라 반테의 집합주택(1979~83)이, 그리고 양복 다만의 CF 광고에는 마노로 누네즈 야노브스키 (Manolo Nunez Yanowsky) 설계의 피카소 광장 집합주택(1982)이 배경으로 나온다. 그러면 보필, 누네즈 야노브스키, 다카마쯔 신의 건축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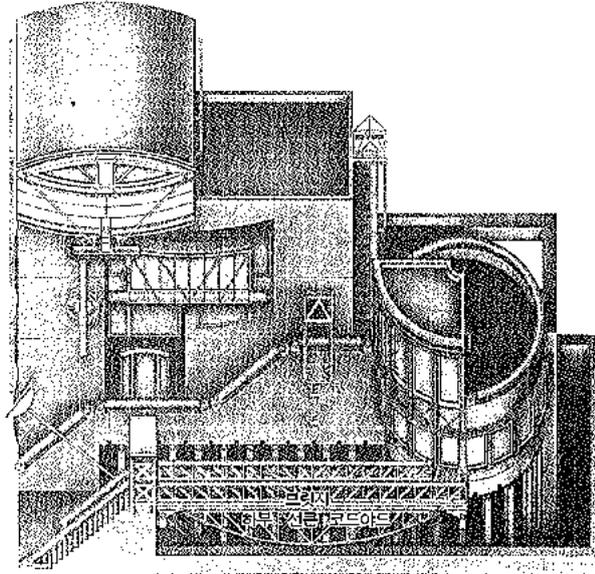
그들의 건축은 그로테스크하다고 할 정도로 현실적이기보다는 공상적이고 기괴한 형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화라는 매체가 환상과 현실을 넘나드는 것처럼 이 건축가들의 건축물들이 현실세계에 존재하면서도 공상적이며 환상적(?) 이미지를 지녔다는 점이 영화의 속성과 일치한다고 할까?

다카마쯔 신의 건축이 전술한 영화들에서 배경으로 이용됐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로든 그의 건축의 비중을 암시하는 사건으로 필자에게는 받다들어졌다.

## 2. 교토와 다카마쯔 신

교토는 헤이안(平安)시대부터 메이지(明治)유신까지 천 년 동안의 왕성이 위치했던 곳으로 나라(奈良)와 함께 일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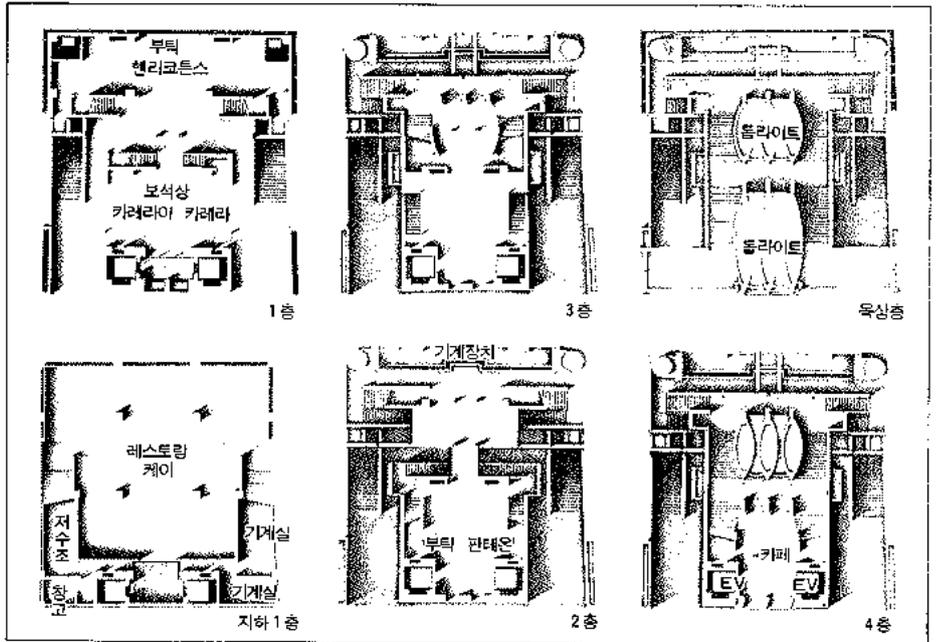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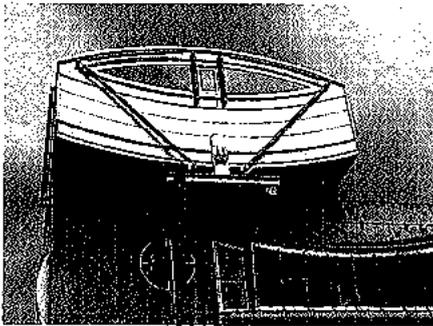
대표하는 역사적 도시이며 이 글의 주인공 다카마쯔 신의 건축물들이 산재한(?) 도시이다.

다카마쯔 신의 작품외에도 안도 다다오(安藤 忠雄)의 타임스 I (TIME'S : 1984)이나 마끼 후미히코의 교토국립근대미술관(1986) 등 일본현대건축의 걸작이 위치한 도시이지만 단연 다카마쯔의 건축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다카마쯔의 초기의 대표작 오리진(織陣)연작을 비롯해 워크(1986), 파라오(1984) 그리고 최근의 대표작인

- ① 오사카의 기린 플라자  
다카마쯔 신의 최초의 대형 프로젝트로 4개의 발랑하는 탑은 등대의 이미지를 연상시킨다.
- ② 다양한 장치와 공간으로 구성된 워크
- ③ 지하철 공사가 진행중인 기다야마 거리의 워크
- ④ 워크

- ④ 캔디레버로 돌출된 5층 구조물
- ⑥ 1층부분의 의상관계 접포실내
- ⑦ 부분 디테일  
45경사 계단 위의 입구를 상징하는 정자형 구조물
- ⑧ 각 층 평면도



신텍스(1990)에 이르기까지 30여개의 건축물이 가모가와(鴨川)강줄기가 남북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 조용한 천 년의 고도에 위치해 있다는 것 자체가 필자의 눈에는 아이러니컬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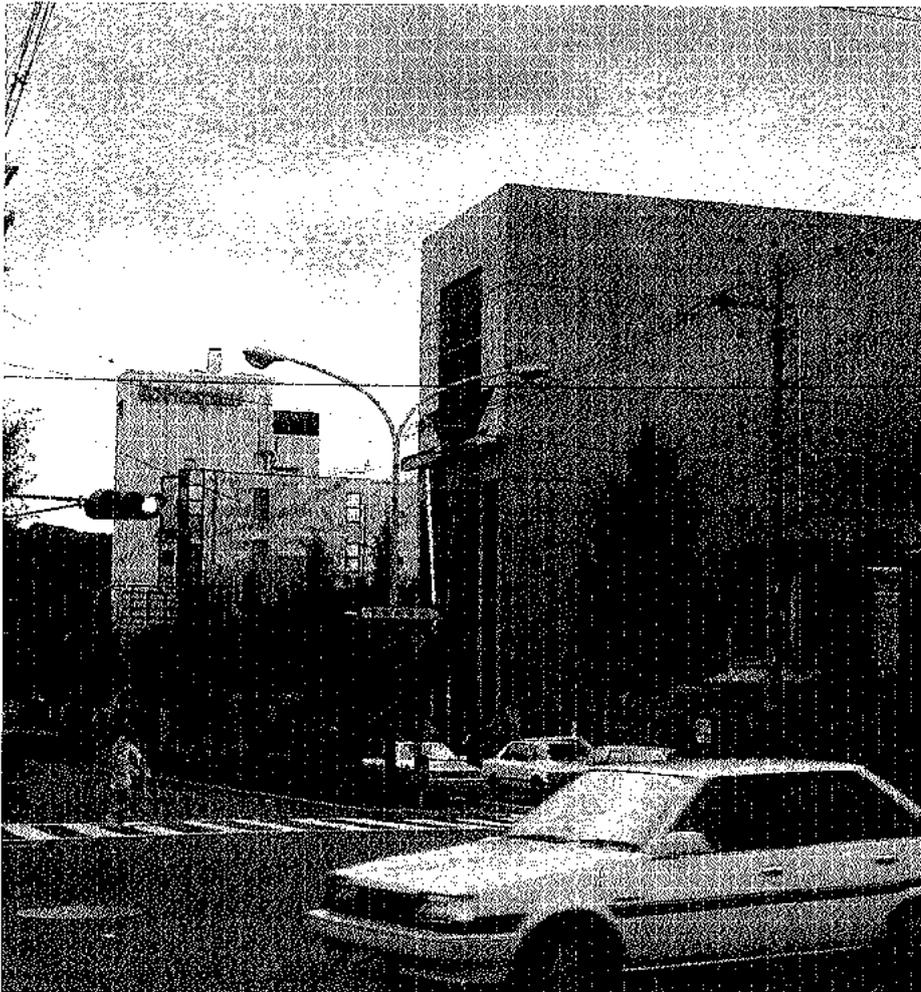
이것은 마치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과 관능적 건축을 창조하는 한스 홀라인의 관계처럼 불가사의하기만 하다. (그러나 빈은 오토 바그너 같은 선례가 존재했었다)

다카마쓰의 관능적이며 연금술과 같은 건축과 교토와의 관계가 헤이안시대부터

유명했던 니시진(西陣)작물의 정교함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보기도 하지만 아직도 의문으로 남는다. 여기서 거론하는 의문이란 다카마쓰와 교토라는 도시의 관계가 아니라 이 조용한 역사적 고도와 기계적 관능미가 넘치는 그의 건축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되는 교토시민들(건축주를 포함해서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의 다카마쓰 건축에 대한 포용력 있는 수용에 대한 의문인 것이다.

우선 다카마쓰의 학력을 살펴보면 쉽게 교토와의 관계가 노출된다.

1948년 시마네(島根)현 출생, 1971년 교토대학 건축학과 졸업, 1979년 교토대학 건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80년 교토에 다카마쓰 신 건축설계사무소 설립에서 다카마쓰가 교토를 근거지로 활동하는 건축가임을 알 수 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와 리카르도 보빌, 오스트리아의 빈과 한스 홀라인, 네델란드의 암스텔담과 헤르만 헬츠베르하, 스위스의 루가노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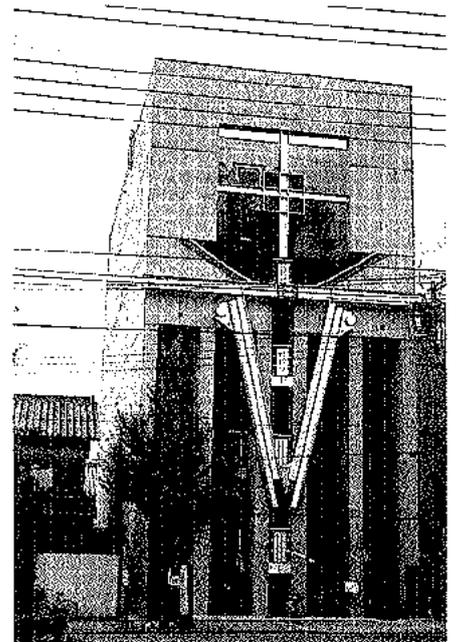


⑨ 기따야마 이닝 23빌딩 전경

위크에서 200m 정도 떨어져 있다.

⑩ 전면 옥외 계단실에 V형 구조물이 부착되어 강력한

느낌을 부여한다.



마리오 보타처럼 국제적인 건축가들이 자신이 활동하던 도시를 발판으로 삼아 국제적으로 성장해왔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다카마쯔 신도 현재는 오사카의 기린 플라자 오사카처럼 교토에서 오사카, 도쿄로 그의 활동무대를 확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근거지는 역시 교토인 것이다.

교토하는 도시중에서도 특히 기따야마(北山)거리에 다카마쯔 신의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

86년초 기따야마거리에 위크(Week)가 다카야마의 이 지역 최초의 건축물로 들어선 이후 현재 최후작 신택스(Syntax : 1990)를 비롯해 기따야마 이닝 23(北山 INING 23 : 1987), OXY 교토(1989)에 이르기 까지 4개 건축물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 지하철개봉을 앞두고 있는 교토의 신흥 패션거리로 대두한 기따야마거리는 교토의 역사와 전통에 속박되지 않는 새로운

혁신적 도시풍경을 연출하는 전초기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기따야마거리는 도쿄의 아오야마(青山), 오사카의 미나미, 고베(神戸)의 기따노마찌(北野町)처럼 한적하고 녹음이 우거진 환경을 배경으로 한 고급 패션거리인 것이다. 건너편의 식물원 자연환경이 큰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 거리에는 다카마쯔 신의 건축물외에도 유명한 공간프로듀서 하마노(浜野)그룹이 프로듀스한 트리스(Tree's : 1986)외에 재팬 클럽(Japan Club), 노스 사이드(North - Side) 같은 흥미있는 형태의 소규모 의상점건물들이 밀집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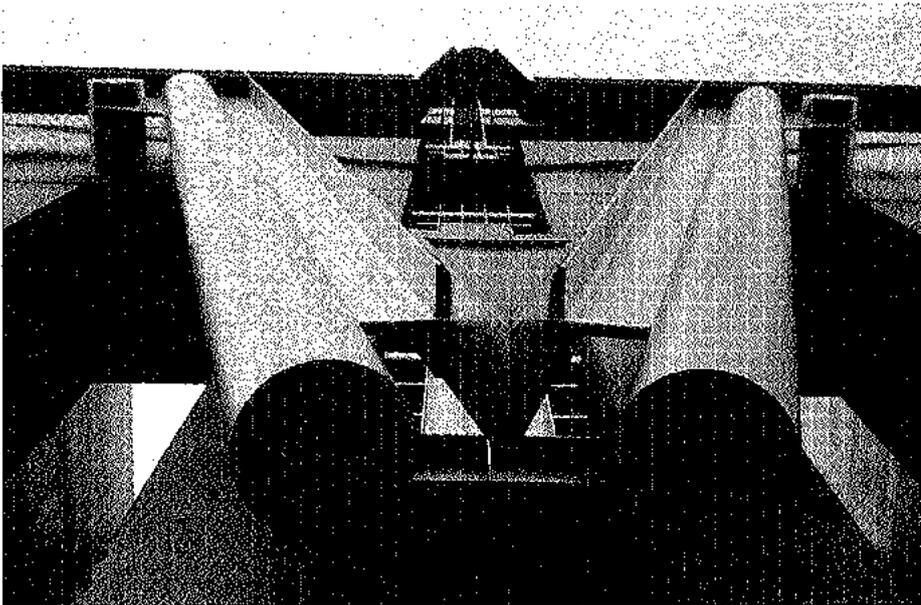
### 3. 위크(Week)와 기따야마 이닝(北山 Ining)

전원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비교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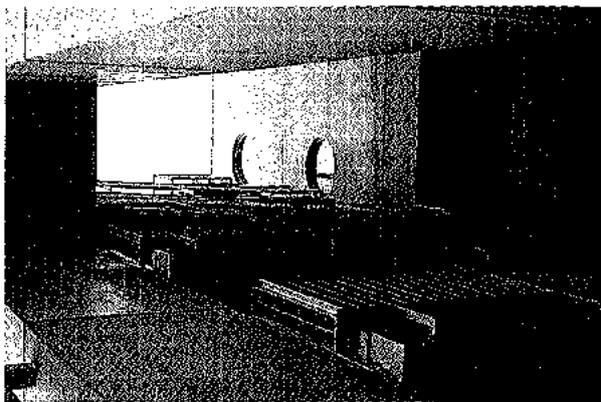
한적한 기따야마거리에 노출 콘크리트 마감과 적색으로 도장된 원형 파이프의 난간과 트러스가 대비되어 인상적 형을 취하고 있는, 다카마쯔 신이 기따야마에 완성한 최초 건축물인 이 위크는 이 거리의 랜드마크가 되기에 충분한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5층에 돌출시킨 알루미늄 마감의 타원형 이미지의 구조물, 후면의 원형 건물과 연결시키는 구조물, 후면의 원형 건물과 연결시키는 적색 도장의 파이프 트러스 브릿지, 45°의 급경사 계단과 외상점 입구를 암시하는 정자형 알루미늄 구조물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연면적 237평, 지하층 지상5층의 소규모에 지나지 않는 이 건축물에서 다카마쯔 신은 다양한 공간적 형태적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카마쯔 자신이 말하는 것처럼 "교토 그 자체에는 확실히 그런 점이 있지요. 대항하



①



②

- ① 하부에서 올라다 본 V형 구조물
- ② 옥내의 매개공간과 옥외의 계단실
- ③ 가미 교구 거리의 오리진 ↓  
집승이나 사람의 얼굴을 유추시킨 듯한 형상으로  
조각과 건축의 결합이다.

보수적이면서도 문화나 예술에는 매우  
과격하여서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에서  
표현된 교도의 긴가쿠지(金關寺)와 같은  
잔재된 과격성이 형태와 공간에서 표출된  
건축물이 바로 이 위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위크의 평면구성은 장방형과 후면의  
원형이 결합되면서 공간적으로는 장방형과  
원형 평면 사이를 파내어 선권화된  
코트야드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패션매장이라는 건축물의 기능때문에 각  
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될 수 있으면  
별로 하여 각 점포의 개성을 최대한  
살리려고 평면구성을 취하고 있었다.

지상층에서 직접 지하 선권 레벨로의  
진입이나 후면 원형 구조물로의 브릿지에  
의한 진입, 계단에 의한 각 층 점포의  
진입방식은 기본적으로 상품의 광고에 있어

차별화 정책처럼 각 점포를 개성화시키려는  
아이디어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하나의  
연출장치로서의 건축의 의미를 심도있게  
분석 적용하려고 하고 있었다.

벽, 계단, 난간, 입구, 브릿지, 선권화된  
코트야드, 주랑, 개구부 등은 단순히 구조적  
물리적 의미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패션무대에서의 모델처럼 하나의 연출장치의  
일부가 되는 것이며 그런 건축적 요소들은  
위크라는 패션무대의 연출장치의 일부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위크의 브릿지를 건너면서, 선권화된  
코트야드로 내려 가면서 고객들은 다반의  
CF 광고에서 나오는 모델처럼 자기 자신이  
모델과 같은 각각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건축물에서의 연출장치의 역할처럼  
느껴졌다.

무대세트나 영화의 배경세트는 물론  
일상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영화나 무대의  
또다른 비밀상적 성격때문에 좀 더 화려하고  
자극적이며 관능적인 분위기를 요구하게  
된다.

“사물의 상태는 기계적으로 가공하면  
할수록 사물을 빠져나와 자극자체가  
된다.”고 말한 다카마쓰 신의 술회는 이  
위크의 성격을 잘 대변하고 있다.

위크의 기계미를 추구하는 형태, 도발적인  
색채, 비밀상적인 형태들은 교도  
기다야마거리라는 한적한 화면을 배경으로  
한 일회적 무대세트로서 이 위크가  
디자인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화려한  
무대세트를 지나서 동측으로 350m쯤 가면  
또 다른 다카마쓰 신의 무대세트와 만나게  
된다. 그 무대세트가 바로 기다야마 이닝  
23(1987)이다.

그러나 무대세트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위크와 다른 점은 이번에는 아동용  
로봇영화에나 나올 것같은 무대세트  
형상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건물은  
다시 거론할 신택스와 마주보고 있다)

지상6층 연면적240평 정도인 이 건축물  
역시 소규모 임대빌딩이나, 위크가 적색  
파이프나 브릿지 등으로 상당히 화려하고  
밝게 형태적 접근을 현대 비헤 전면의  
옥외계단실을 중심으로 노출 콘크리트  
구조에 예리한 V자형 철골구조물을 부착해  
형태적으로는 자극적이기는 하나 어둡게

접근하고 있다.

이 건축물의 형태적 공간적 열쇠는 바로 전면에 위치한 옥외계단실이나 이것은 또한 상업적 측면에서 결함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면계단실의 하부에 부착된 V자형 철골구조물, 상부의 정방형 개구부가 있는 가벽, 3층까지의 계단실을 중심으로 오픈된 내외부의 매개공간 등 기따야마 이닝 23빌딩 역시 다양한 형태와 공간적 장치로 부대화되어 있으나 위크와 같은 화려한 각광은 받지 못하고 있다.

필자가 처음 이 건축물을 방문했을 당시인 88년 상부의 3개층이 비임대 상태였다. 그 당시 이 건축물에서 느낀 것은 전면에 옥외계단실이 위치한 관계로 1층에서도 점포가 쉽게 노출되지 않는 점이 이 건축물이 지닌 상업적 측면에서의 결점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카마쯔 신은 건축이 하나의 형태적 쾌락이며 욕망의 분출구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런 건축이 현실사회에서 성립이 가능한 것은 기능이라는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에서 탈피한 일본현대건축의 감성적 측면의 부각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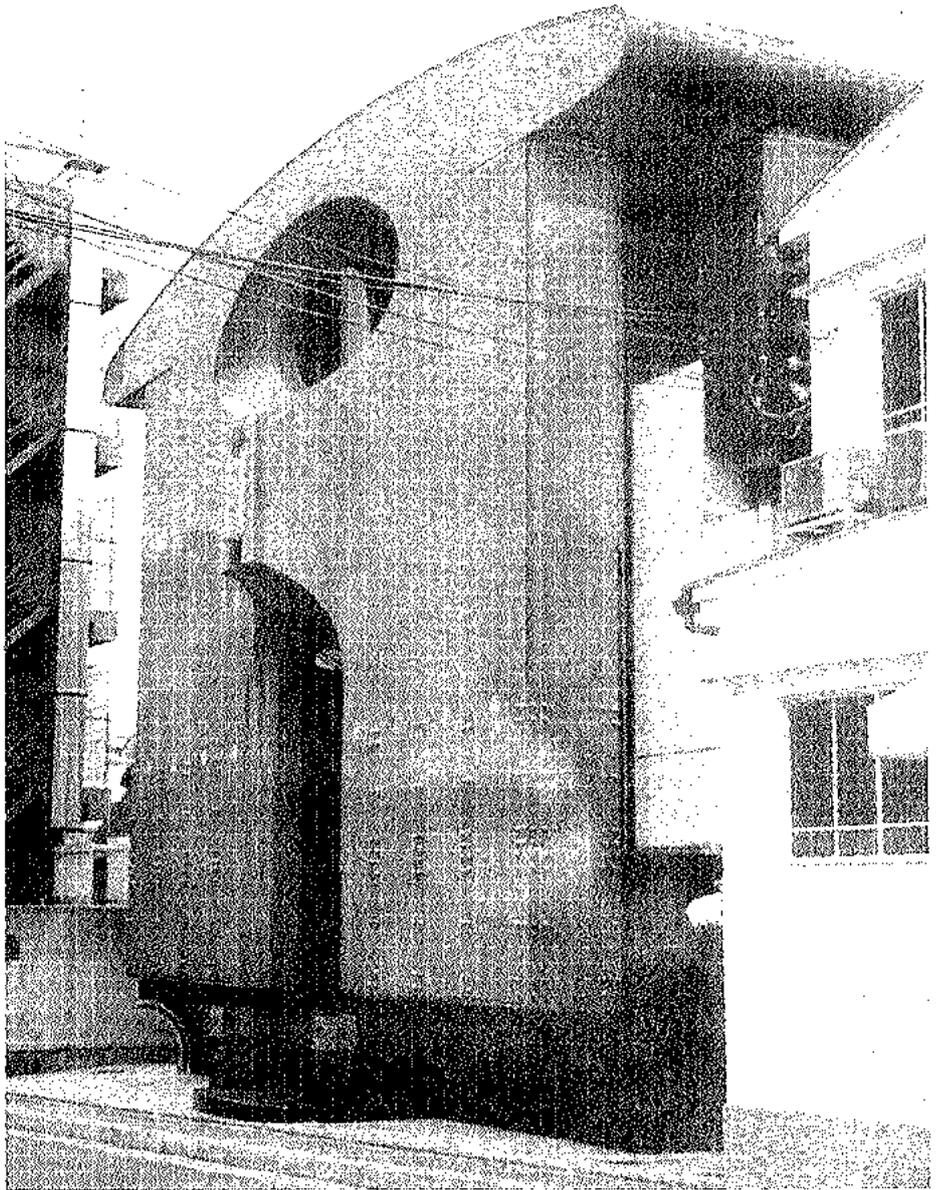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자극적인 광고와 영상의 홍수 속에 사람들의 뇌리에 남은 것은 침잠된 자극과 욕망의 단편이며 의면적으로는 보수적인 교토의 조용한 거리 기따야마에 잠재된 자극과 욕망이 분출되어 현실화된 것이 위크와 기따야마 이닝 23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카마쯔 신의 초기작과 최근작사이의 변화의 간격을 탐구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 4. 오리진(織陣)연작

오리진 I (1981) / 필자가 대학원 시절 건축잡지를 펴는 순간 강력한 형태에 압도되었던 이 건축물은 다카마쯔 신이라는 존재도 뇌리에 같이 부각시킨 인상적인 건축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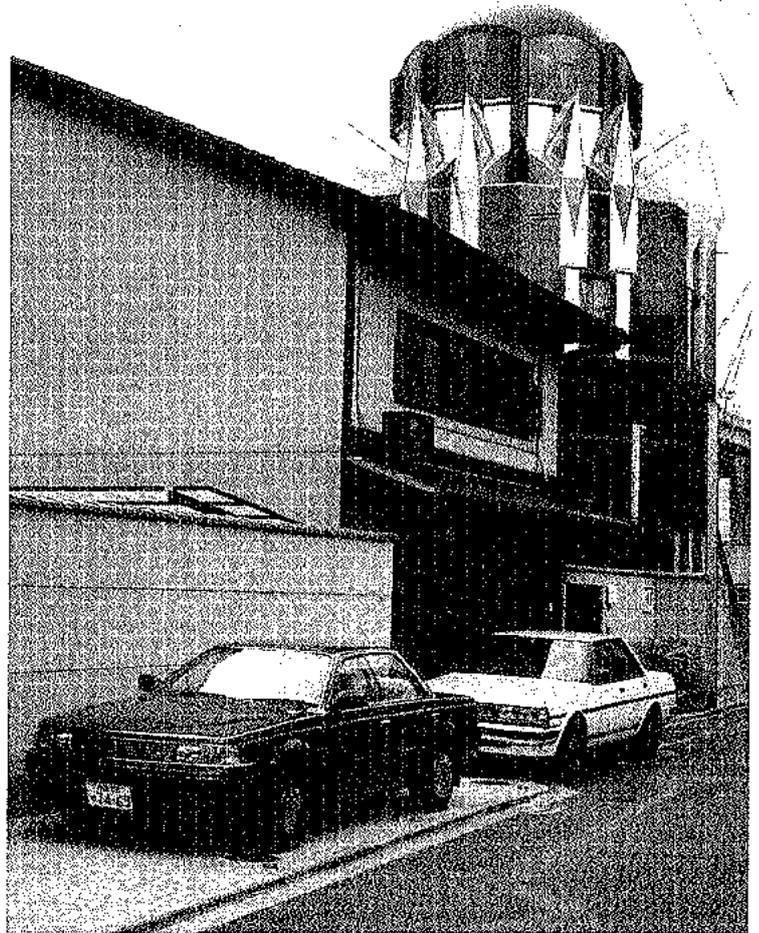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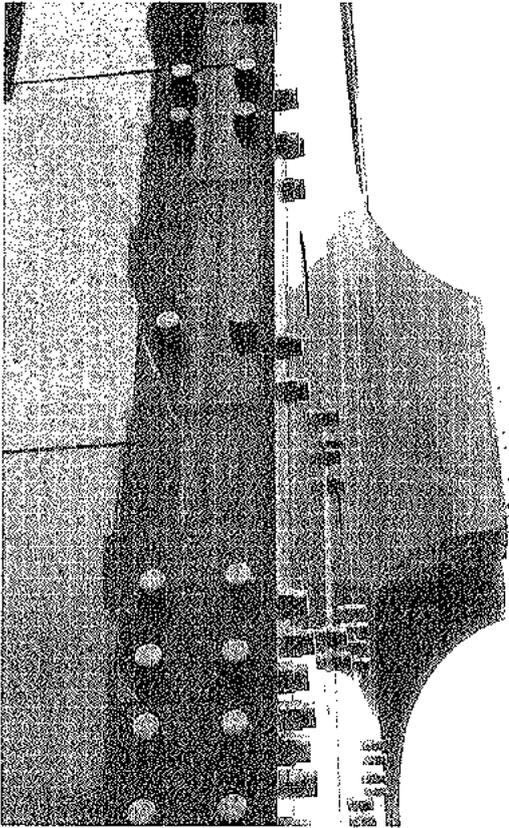
현재 기억하기로는 모노톤의 사진으로 나타난 거대한 유기적 조각처럼 느껴졌던 이 건축물은 형태적 충격자체였다. 그것은 빈의 건축가 귄터 도메닉(Gunter Domenig)의 빈 중앙은행(1979)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감정과도 유사한 것이었다.

여러가지 점에 있어 다카마쯔 신의 건축은



빈의 건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빈의 세기말 건축가 오토 바그너, 아돌프 로스 그리고 현대의 한스홀라인 그리고 귄터 도메닉으로 이어지는 세기말의 동질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다카마쯔 역시 일부 인정하고 있다.)

교토 가미교(上京)구의 전통적인 목조 가옥들이 들어선 조용한 거리에 위치한 이 오리진 연작들(오리진 I, II, III이 서로 연결되어 I과 III은 각기 다른 길에서 입면을 볼 수 있다)은 히나야라는 직물회사의 사옥으로 도시문맥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과격한 형상을 취하고 있다. 물론 이



과격함은 다카마즈 신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지만, 그의 건축이 보편화되기 이전의 상황에서 이 건축가의 이름을 일본현대건축계에 회자시키게 만든 건축물이 바로 오리진이라고 생각된다.

짐승이나 유기적 생물체의 얼굴을 유추시킨듯한 과격한 형태, 적색 여영석을 예리한 석재 연마기계로 카빙한 형태의 정교성, 오토 마그너의 우편저금국을 연상시키는 황동 볼트에 의한 석재판의 부착에서 볼 수 있듯이 다카마즈 신의 장기를 유감없이 발휘한 최초의 건축물이 바로 오리진 I 인 것이다.

실제 가보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형태석 충격보다는 그 충격이 감소되지만 이런 형태를 제안했다는 점, 그리고 건축주가 받아 들였다는 점이 모두 놀랄기만 하다.

충격적인 형상의 오리진 연작들은

다카마즈 신이 “제1기, 제2기로 나눈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맨 처음 시라이 세이이찌(白井 晟一)등을 의식하고 있던 시기가 있었고 오리진(織陣)이라든가 요시다 하우스(先斗町の 賃貸 : 1982)라든가 절(寺)이라든가 일련의 시라이 색이 짙은 건축을 몇 개 다루었습니다. 가공시킨 서양, 또는 유사한 서양적 풍으로 강하게 나타내어 보았습니다.”라고 한 말처럼 오리진은 1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고, 이탈리아의 카를로 스카르파를 연상시키는 시라이 건축에서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다카마즈 신 자신은 제2기를 ARK (1983)와 파라오(1984)를 설계한 시기로, 위크나 덴스 홀(1985)의 시기를 제3기에 진입시기로 나름대로 구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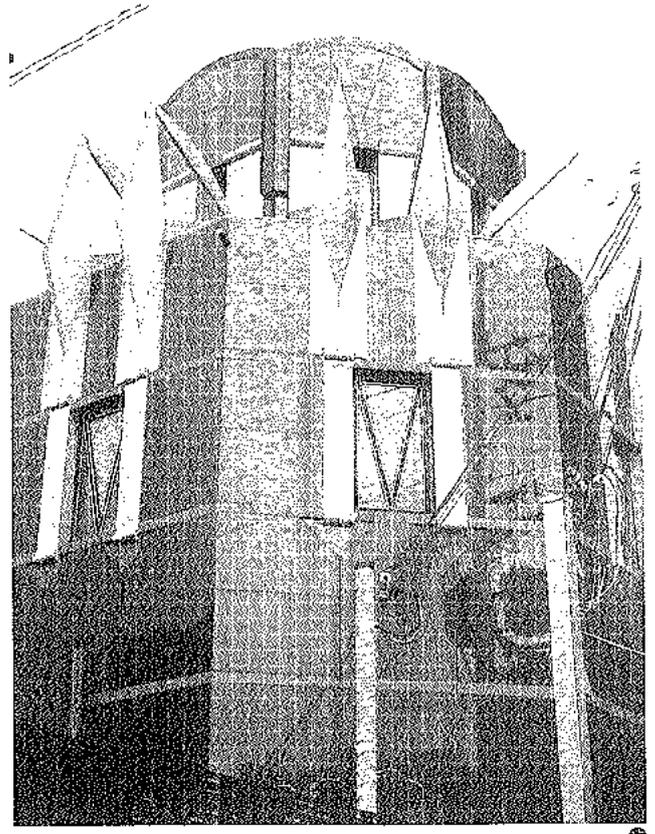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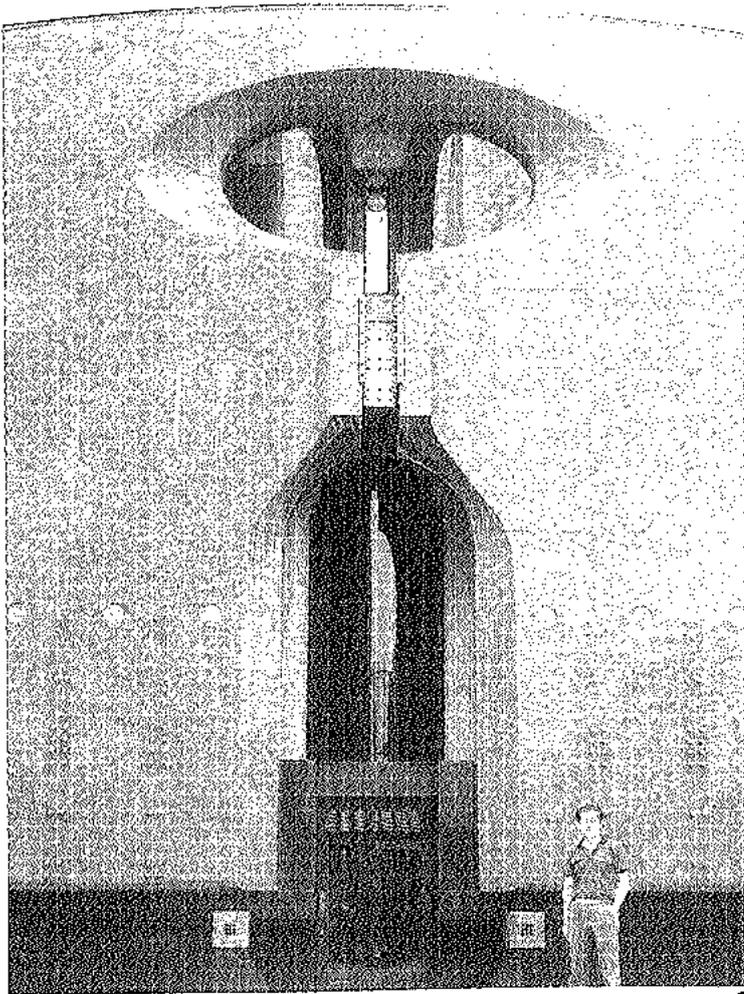
그가 오리진을 설명하는 문장은 난해

하기만 하나, “인식의 범위를 초월하는 과도한 스케일을 가진 도시공간”이나 “진통과 대사(代謝)와 인공과 메타퍼”, “건축에 의한 건축을 위한 건축”라는 말들은 다카마즈의 오리진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 (Key Word) 라고 할 수 있다.

실제의 오리진 I 은 충격적인 형태도 형태이지만 상당히 오버 스케일로 느끼도록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스케일의 증폭, 자극의 증폭, 형태의 증폭에 의해 건축과 조각과의 관계가 애매모호한 건축물 형태의 자율성이 중시된 건축물이 오리진 I 이지만, 오버 스케일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은 디테일의 정교함이 뒷받침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었다.

다카마즈 신이 오리진 I 에서 영향받았다는 건축가 시라이 세이이찌는 교토 태생의



16

17

건축가로 베를린 대학 철학과를 나온 유니크한 건축가이지만, 그가 설계한 노아 빌딩(1974)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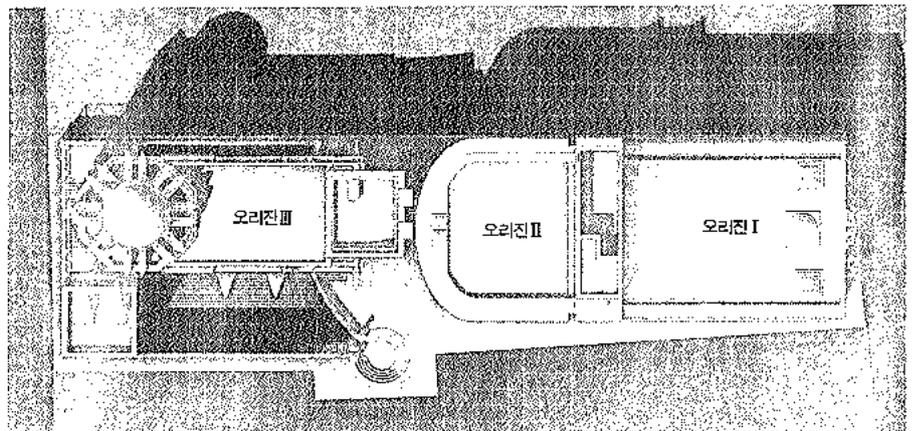
신화(新和)은행본점(1966-69) 등은 조각적 형태와 함께 그로테스크한 관능적 분위기로 차있다.

또한 논리적 정합성보다 시각적 효과를 바탕으로 형태와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에서 다카마쓰 신과 공통점이 있지만 시라이의 건축이 훨씬 온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리진 I 은 세포가 증식하듯이 오리진 II (1982)와 오리진 III (1986)으로 독자적 체계를 지니면서 연결되어 성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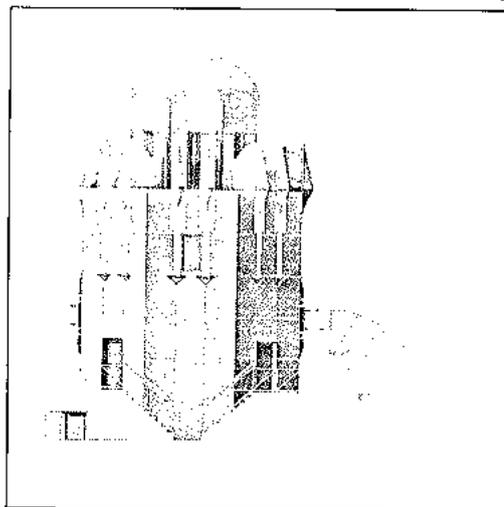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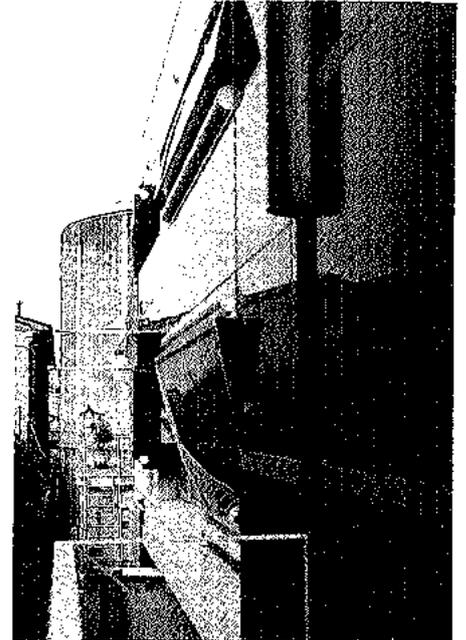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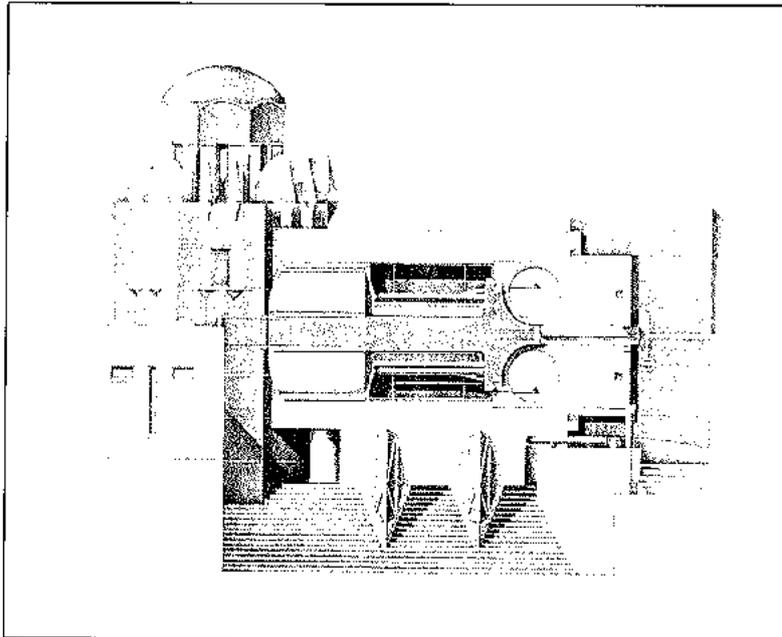
오리진 I 이 원시적인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면, 오리진 III 는 고도로 발전된 기계적 관능미를 보여주고 있다.

르 꼬르뷔제가 "주택은 살기 위한



- ⑬ 적색 어영석을 볼트로 부착한 디테일  
오토 바그너의 우편 저금국을 연상시킨다.
- ⑭ 정면  
입면의 스케일을 알 수 있다.

- ⑮ 오리진 III의 전경
- ⑯ 상부 디테일  
틀날 모양의 트라이트가 인상적이다.
- ⑰ 오리진 연작 배치도



기계"라고 말한 것처럼 이것은 결국 "건축은 기계"라는 명제로도 환원이 가능한 것이고 그 당시 유럽에서 풍미했던 기계가 지닌 역학적 기계이미지가 은유적으로 접합된 것이었다."

다카마쓰 신 역시 기계의 이미지를 선망하는 동시에 마르셀 뒤샹이나 피카비아, 키리코 등이 기관차에서 관능미와 폭력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를 발견했던 것처럼 관능과 폭력, 죽음의 이미지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기계미의 건축을 추구하고 있다.

오리진 I의 원시적 기계미를 발전시킨 오리진III은 지하1층 지하3층의 건축물로 마징가 Z 같은 일본의 만화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건축물이다.

동형의 적색지붕 수위로 솟아있는 날카로운 침탑형 툰 라이트, 기관차의 기관구조와 차륜의 연결을 연상시키는 벽면의 장식과 창외 개폐장치, 지하를 채광하는 반달형 불 라이트, 그리고 노출 콘크리트 만으로 마감된 선콘 코트 야드 등에서 보여지는 형태와 평면구성은 기관차에서 유추되었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다.

또한 작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실내에서의 공간장치는 정교하면서도 다양하다 교또의 가미교구 거리를 달리는 신칸센(新幹線) 다카마쓰 신호!

이것이 오리진 연작에 대한 필자의 소감이다. "관성, 실속(失速), 활공, 제동, 당착, 편향, 편재, 노광(露光), 침윤, 횡단, 해상, 이완……" 다카마쓰 신호의 난해한 기관음이 이 건축물을 배경으로 들리는 착각을 하면서 다시 기따야마거리로 되돌아가 본다.

## 5. 신택스(Syntax) 그리고 OXY 교또

기따야마 거리에 있는 워크와 기따야마 이닝 23을 거론하면서 바로 인접해 있는 신택스와 OXY 교또를 후반부에서 거론하는 것은 약간 모순된 감이 있지만 필자 나름대로는 그 이유가 있다. 첫째는 신택스,

OXY 교토가 다카마쓰 신의 최신작이라는 점과 전술한 건축물들이 1988년에 방문했던 것에 비해 후술하는 건축물들은 1990년에 다시 기따야마를 방문한 후 조우한 건축물이기 때문이다. 「백 투 더 퓨처 (Back to the Future)」라고 할까?

교토 기따야마 거리의 성격을 완결시킨 건축 / 이것이 신택스를 설명하는 표제이다. 단지 800m 정도의 길이에 지나지 않는 기따야마 거리의 성격을 현 단계에서 완결시킨 건축이 바로 신택스라는 것이다.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야화(千日夜話)처럼 교토 기따야마 거리에 잠재되었던 신화가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온 등잔을 문지르는 순간 현실화되는 것인가? 워크가 기따야마 거리의 서쪽 기점이라면 신택스는 동쪽에서의 기점인 것이다. 워크이후 4년이라는 시간의 흐름은 다카마쓰 신의 건축을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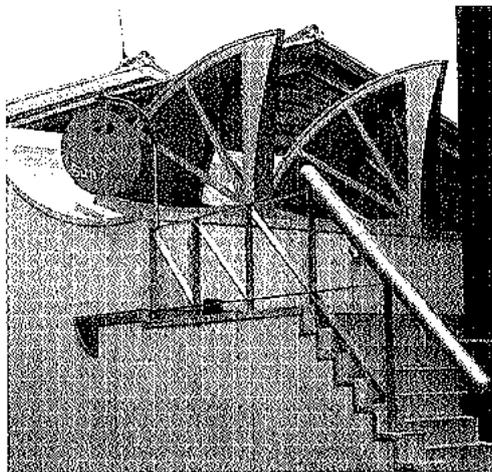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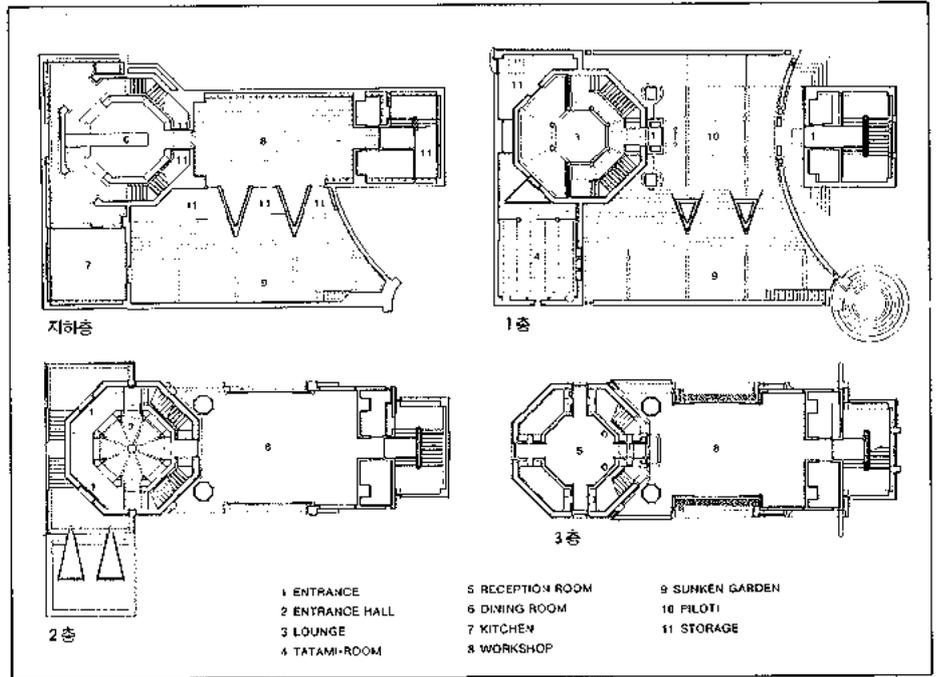
브라질 리오 데 자 네이로의 산 정상에 양관을 벌리고 서 있는 그리스도상의 형상처럼 날개를 펼치고 비상하려는 듯한 형상의 신택스는 달리는 기계에서 이륙하려는 기계로 탈바꿈하려는 다카마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까?

신택스(Syntax) = 구문론, 문장론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실제 이 건축물에 어떤 시술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일까? 라는 의문들을 이 “팔기 위한 기계 = 상업용 건물”을 돌아 보면서 풀어 보기로 하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60평, 총공사비 4만6천2백만엔(평당 177만엔), 1층 카테라이카레라(보석상), 2층 판태온(의상점), 3층(미분양), 4층(카페), 지하 1층(레스토랑), 외벽: 노출 콘크리트+흑색 어영석 버너구이 혹은 본갈기+철관 아크릴 우레탄 도장+알루미늄 판넬이 이 신택스의 명세서이다.

형태 및 평면구성을 살펴 보면, 형태에 있어 대칭적인 T자형 정면을 지닌 이 건축물을 1층 양쪽에 대칭적으로 배치된 계단을 따라 후면으로 오르면 후면의 지붕부분은 계단으로만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후면 계단부의 3, 4층 부분에서는 날카로운 타원형 툴라이트와 출입구가 결합된 구조물이 정면과는 다른 이미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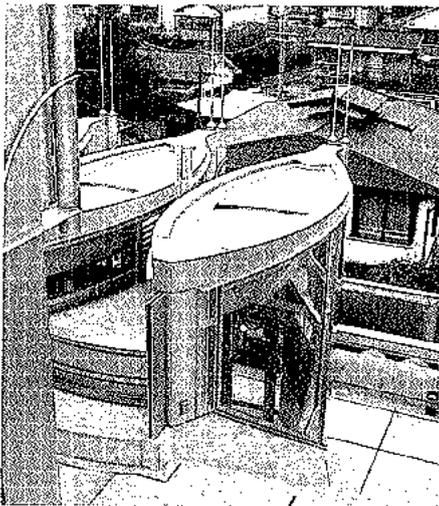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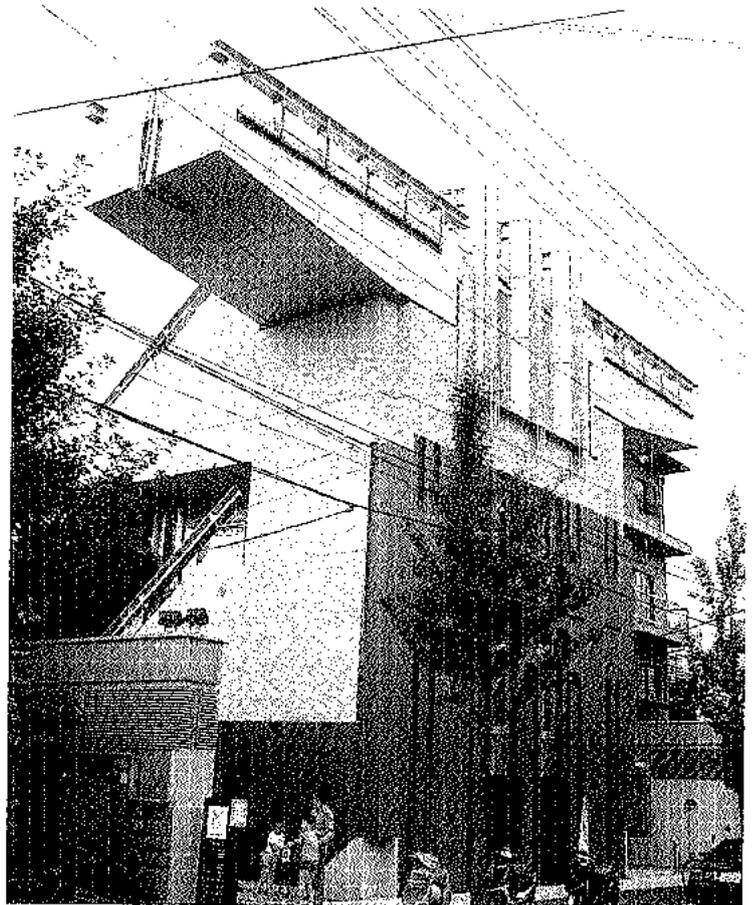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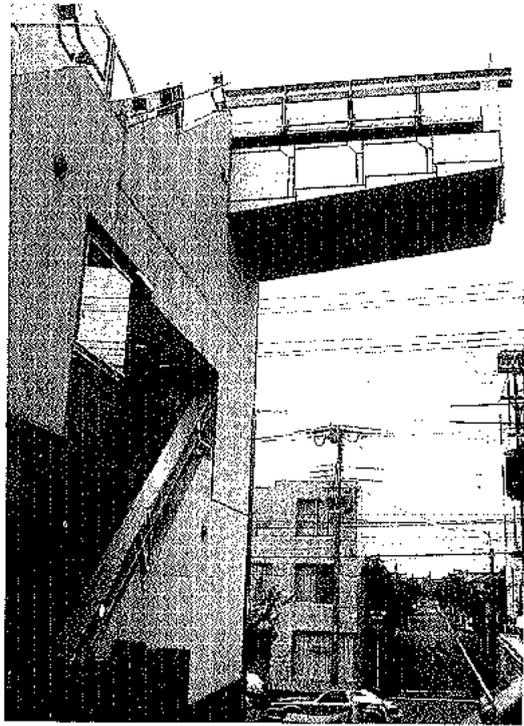
- ① 오리지 II의 서측면도
- ② 남측면도
- ③ 오리지 II와 노출 콘크리트 마감된 오리지 II 오리지 III의 벽면은 기관차의 기관구조를 연상시킨다.
- ④ 각 층 평면도
- ⑤ 하부 디테일

부각되고 있다.

정면과는 또 다른 의미의 상승감을 구현한 후면의 표현은 정면이 형태적 상승감을 표현한데 비해 후면은 공간적 상승감을 표현하고 있다.

평면은 형태적 구성과 마찬가지로 대칭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정문을 통해 입구홀에 들어 서면, 마주 보는 엘리베이터가 양측에 설치되어 4층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또한 1층에서 점포가 분리되었고 2층에서는 브릿지로 연결되어 다른 다카마쓰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공간장치로 이 건축물을 연출하고 있음을 알



- ㉔ 신탭스 전경  
칸티레버구조가 구성주의 건축을 연상시킨다.
- ㉕ 벽면과 칸티레버 부분의 디테일  
상승감 있는 형태를 연출하고 있다.
- ㉖ 노출된 계단 형태의 후면에서 바라본  
기타야마 지역

수 있다.

“최근 다카마쓰의 건축에 있어서 그 스케일의 취급과 내외부 관계의 취급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다카마쓰 자신은 내측과 외측의 관계라는 문제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술회하고 있다. 외측의 요구처럼 다카마쓰 신은 소비를 강요하는 매세지로서의 기능적 역할과 내측의 세제사이에는 필연적으로 균열이 생긴다. 이런 균열을 통하여 「내부와 외부가 서로의 세계를 강조하고 선동한다고 하는 생각」이라는 것이다.”

스즈키(鈴木隆之)는 신탭스에서 이 균열을 거리의 일부, 건물의 일부로서의 통과공간으로 포착하고 있다.

건축에 있어서 동적 이미지를 추구했던 역사적 선례를 우리는 1920년대 러시아 구성주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칸티레버로 돌출된 날개형 구조물, 후면의 경사형 계단, 기계 이미지의 외관 등에서 우리는 기계적 형태와 생태학적 구조 사이에 놓여 있는 한 장르로서 건축물을 인식했던 러시아 구성주의의 건축을 연상시키기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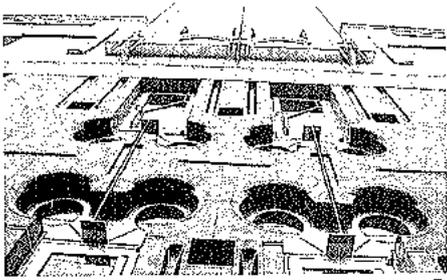
충분한 것이다.

리시츠키와 스태(E.Lissitzky & M. Stam)의 공중도시 계획안(1924-5)이나 멜리니코프(K. Melnikov)의 두사코프 노동자 클럽(1927-8)은 신탭스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 위에서 있다는 느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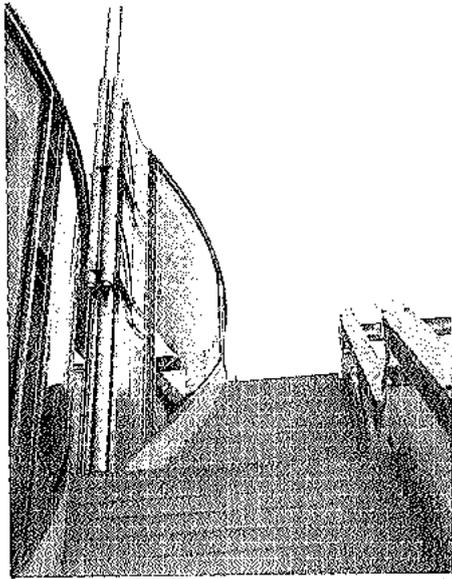
그러나 일견 고전적이기까지 한 위계적 구성이나 인체를 유추시킨 것같은 형태구성은 교토 기타야마라는 오랜 거리의 역사적 맥락에 대한 인식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과거와 현재, 인체와 기계, 수공예적 재료와 대량생산화된 재료가 혼합되어 이 거리의 착종된 상황을 서술된 문장형태로 만들어 진 것이 신탭스인 것이다. 즉 형식과 의미상의 괴리, 외부형태와 내부공간 사이의 괴리, 오래된 고도의 거리와 첨단 상공간의 괴리가 형태와 공간으로 표출된 것이 신탭스인 것이다.

이 형태와 공간 사이의 괴리, 정면과 후면 사이의 형태적 공간적 반전이 극도의 상승감을 불러 일으키면서 자극과 쾌락을



17



18

만들어 내고 있다.

이 자극과 쾌락을 생성하는 이 관능기계는 상공간에 느끼는 소비의 쾌락, 식도락의 쾌락을 에스컬레이트하는 장치로 기능하는 것이다.

러시아 혁명시대 건축적 이념의 산물이었던 구성주의적 골격이 자본주의의 최첨단 상공간으로 표변하여 나타난 듯한 이 신택스에 대한 우리의 비평은 어떤 것이 될까?

최근 소비는 미덕이라고 강요하는 서구의 관능기계 혹은 상업기계를 양산하는 서구 자본주의의 대리인인가?

과거 근검 절약을 강조하던 사회에서 소비는 미덕이라는 풍조가 물들어 있는 현재 국내의 설정에서도 이런 소비적 관능기계의 출현은 시간문제이고 이미 일부는 부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자극과 관능으로 차있는 현대라는 또 다른 새기말의 징후를 극명히 보여주는 건축물이 협으로는 교또의 기따야마, 광의로는 자본주의의 소비문화의 상징을 상징적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 신택스인 것이다.

17 정면부 고도의 기계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신택스 디테일  
18 추면의 계단과 트라이트 구조를

19 다카마쯔 신의 작품중의 하나인 OXY 교또  
20 OXY 교또의 선 큰 가든에서 바라본 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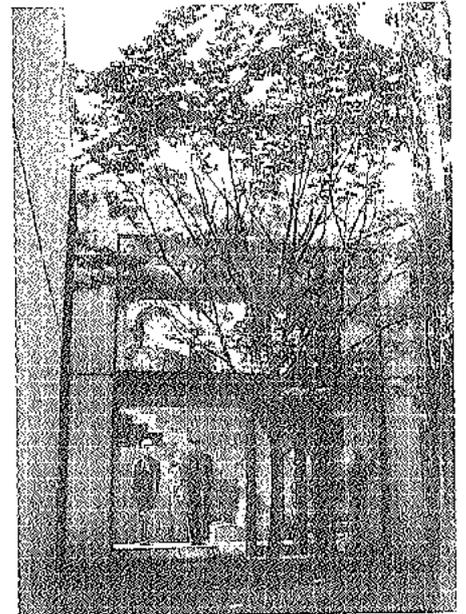
20

1층 부분 외벽면에 부착된 TV 모니터의 화면에서 보여지는 패션모델들의 움직임들이 어쩐지 공허하게 보이면서도 현대라는 시대현상의 단면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몇 년 후 다시 이 기따야마 거리에 서면, 어떤 다카마쯔 신의 관능기계와 조우할까 하는 상상을 하면서 이 거리를 떠났다.

註)

1. “高松 伸 인터뷰”(GA DOCUMENT 15.1986.12), P. 72
2. 전계서, P.73
3. 高松 伸 “非構想の形式…京都から”(SD 1988.1), P. 57~59
4. 足立 圭介 “機械の「ルケオロジ」”(Archeology of Machine)”(建築文化 1984. 8), P.60
5. 鈴木隆之 “快樂としこの亀裂”(新建築 1990. 5), P. 316~317



21

# 제 4 회 아시아 건축사 대회 및 제11차 ACAE 이사회 참가기



## 1. 개 관

격년제로 열리는 아시아 건축사대회는 1988년 11월 서울에서 열렸던 제3회 대회에 이어 이번에는 제4회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미 1988년 11월에 있었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제9차 이사회에서 인도의 루시 캄바타씨가 아카시아 제5대 회장으로 선출됨과 동시에 제4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의 장소가 결정된 바 있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아시아에서의 건축 개발 및 환경'이었으며 통상적 관례인 이사회의를 먼저 치르고 학술강연회를 하는 순서를 바꾸어 이번에는 델리에서 먼저 이틀동안 학술강연회를 하고 아그라라는 작은 도시로 옮겨 하루쉬고 이틀간의 이사회를 하는 일정이었다. 대한건축사협회에서는 송기덕회장이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하게 되었고 국제위원회 김지덕 위원장 및 전봉수 위원과 본인이 참석하여 전봉

李廷根  
건축사사무소 우리계획,  
本協會 국제위원회 의원  
by Lee, Jeong-Keun

수위원은 학생잼버리 및 교육위원회의 관계 일을 맡고 본인은 학술회의와 이사회에 집중하는 반면 김지덕 위원장은 이들을 총괄하는 책임을 맡았다. 송기덕회장은 협회의 대외 정책적인 문제와 다른나라 협회와의 친선 및 상호교섭문제에 치중하게 되었다. 한국대표단에는 젊은 학생 2명이 학생잼버리 참석차 동행하게 되었다. 연세대학교 4학년 이소진양과 서울대학교 3학년 남수현군으로 영어와 기타 건축상식에 대한 시험과 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학생잼버리는 9월 26일에 시작하므로 김지덕소장이 학생들을 데리고 25일 먼저 출발하고 27일 저녁에 열리는 학술회의 개막식에 늦지않기 위해 송기덕회장, 전봉수위원 및 본인은 26일에 출발하였으며 이번 학술회의와 관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회원 방문단 일행 16명은 27일에 출발하게 되었다.

## 2. ACA - 4(Architecture, Development, & Environment)

28일과 29일 양일간 발표가 있었는데 28일에는 오전과 오후 각 두 Session에 10명의 발표자가 발표하였고 29일에는 오전의 두 Session에 5명의 발표자가 발표하였으며 오후에는 회장 루시 캄바타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있었고 Resolution이 발표되었는데 Resolution은 인쇄물로 배부되지 않아 여기에 밝힐 수가 없으며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발표자들의 구성은 이사회의 관계로 초청된 사람중에서 서너명 그리고 강연만을 위해 외국에서 초청된 사람이 2명 정도이며 나머지는 모두 인도사람들이었다. 초청비용 때문에 그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학술회의 책자가 배부되었는데 발표자들의 발표내용은 5원밖에 없으며 나머지 삼분의 이는 연관된 논문들이다.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발표자수를 너무 많이 배당했다는 감을 갖게 된다. 양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논문을 8~10권 발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논문집에 실리도록 하였으면 좋았을듯 싶었다. 발표논문중에서 특히 인상적인 것들은 인도의 Miki Desai 교수, Mrs.A.Baig 와 Romi Khosla 건축사 B.Doshi 및 중국의 Wu Lianyong 교수 등의 발표이었다. (발표자들이 바뀌기도 하고 발표제목이 적혀있는 유인물이 없었으

므로 내용만을 요약하고자 한다.)

### 1. 9월 28일 Session I

#### 1) Rod Hackney (영국)

Hackney는 현재 세계 건축가협회(UIA) 회장이며 커뮤니티건축에 대한 그의 업적은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영국에서도 여러 번 수상한 바 있다. 그의 사무실은 맨체스터에 있는데 커뮤니티건축만 하는지 일반적인 건축설계도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두가지를 다 한다하며 커뮤니티건축은 소득이 없고 오히려 돈을 부어 넣어야 하는 형편이니 일반 건축설계업무를 하지 않을 수 없다한다. 설계사무소원들이 두 가지 일을 모두 같이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일반건축설계팀과 커뮤니티건축팀을 갈라서 하는데 커뮤니티건축에 5~6년 종사한 후 일반건축팀으로 복귀한다고 한다. 커뮤니티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힘이 들고 개인적인 희생이 많아 일단 일반건축팀으로 넘어가면 다시 커뮤니티 건축팀으로 복귀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의 발표내용은 커뮤니티 건축가의 관점에서 본 오늘의 도시와 건축환경 및 건축가의 건축행위에 대한 것이었다. 1988년 11월 서울의 제3회 아시아 건축사대회에서 그가 발표한 내용과 소재는 달라도 관점은 크게 변한 게 없다고 할 수 있겠다. 그는 건축이 화려한 장정의 건축잡지에 덧붙여진 사진을 신기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단언한다. 기념비적인 건축을 남기고자하는 건축가들의 작업 풍토를 예로 들어서 모뉴먼트는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대지와 돈을 소유한 건축주를 만난 행운의 건축가의 작품일 뿐이라고 정의한다. 따라서 모뉴먼트는 많은 공예중의 한 가지 일 뿐이다. 건축가가 소비지향의 상업주의 문화의 상징물들을 시각화하는 영역에 빠져 버리지 말고 사용자로서의 일반 사회성원에게 불고 조언을 구하여야 하며 그들이 참여하는 과정으로서의 건축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정규 건축교육에서 왜 바우하우스 및 서양 건축문화의 지침이 가르쳐져야 하는지 의문을 표했으며 보다 그들 지역문화를 반영하는 풍토건축을 가르쳐야 하지않겠느냐고 제안한다.

#### 2) Hans C. Bjønness (노르웨이)

Bjønness 교수는 Norwegian Institute of Technology, Trondheim 대학의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교수로 UN 관련 프로젝트를 통해 네팔의 수도 카트만시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한 바가 있으며 지금도 카트만시를 자주 방문하여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의 말에 의하면 카트만시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공업화되고 과민한 현대도시의 문제점들을 오염되지 않은 전통도시들에 비견하여 검토하였으며 앞으로의 도시에 대해 비전을 여기에서 찾고자 하였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현대의 도시는 자연 및 사회의 생태적인 고려를 등한시한 개발에 따라 생태적인 위기에 처해있다고 본다. 경제적인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향과 토지를 상품화한 토지소유제도가 맞물려서 자연을 바꾸잡이로 착취한 결과 현대 도시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본다. 카트만시와 같은 전통도시에서 볼 수 있는 인간세계와 자연계의 조화를 앞으로의 도시환경에 대한 지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의 실천적 대안으로는 지역적인 자원의 이용을 높이고 통제적인 개입을 완화 절제하며 지역간 상호의존성을 높이는 것이라 한다. 총체적으로는 도시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총량을 줄여서 온갖 유형의 배기, 배설물의 양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2. 9월 28일 Session II

#### 1) Mrs.A.Baig 와 Romi Khosla (인도)

INTACH(Indian National Trust for Architecture and Heritage)라 하는 6년전에 설립된 기구의 사업내용과 현황에 대해 설명하였다. 영국의 National Turst 와 비슷하고 우리 나라에 비유하면 환경청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리국에서 관장하는 업무까지도 수행함을 알 수 있다. 역사적 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과 보전이 INTACH의 주업무인데 인도의 땅이 넓으니 전국을 여러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마다 분소가 있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있는데 분소의 수는 200여에 이른다. 이 기구의 주요기능은 환경정화 및 환경보존을 위한 지원, 보존지역의 지정, 사회경제 발전계획 등을 들 수 있다. 예술품과 건축유산 및 구조물 뿐아니라 자연자원까지도 보존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보존지역에 대한 사회, 경제적인 계획까지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그들이 계획하고 추진중인 Leh 유적지와 Andaman 과 Nicobar 섬의 계획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그들

이 추구하는 보존사업이 역사적 유물뿐 아니라 인근지역의 총체적인 자연 및 인문환경에 대한 다방면적 상호연관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시해 볼 필요가 있겠다.

#### 2) Mrs. Sarayu Ahuja (인도)

Ahuja는 현대의 물리적 환경의 문제를 "What time is this place?"란 문구로 대변하고자 한다. 세계 각처의 도시들은 역사와 지리가 무색해진 온통 고정된 건축 및 계획의 표준이 지배하는 동일성의 바다로 변해 버렸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밀려서 장소의 지리 및 지질적인 특성은 매몰되고 건축의 보물들과 역사적 유산들이 사라져 갔다. 우리는 현대도시의 생활환경 속에서 축적된 시간의 흔적이 지워져 버리고 복귀의 백야와 같이 시간을 알기 힘든 장소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다. 물리적인 환경은 사람과 생태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전통취락의 생활환경을 분석해 봄으로써 내일의 생활환경을 계획하는 지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huja는 인도의 전통취락들을 Domain, Threshold, Interface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오늘의 취락계획을 위한 10가지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지리적 형상과의 조화
2. 문화적 환경과의 조화
3. 공간 조직
4. 상징성 추구
5. 위계성
6. 시각장(visual field)의 조절
7. 공간에 시간성의 부여
8. 잔여공간의 활성화
9. 감추어진 질서내에서의 다양성
10. 분리와 연결

### 3. 9월 28일 Session III

#### 1) David Jackson (오스트레일리아)

Jackson씨는 영국 A.A.School과 미국 예일에서 건축을 공부한 오스트레일리아의 중견 건축가이며 오스트레일리아 건축사협회 전임회장으로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아시아 건축사협의회 가입을 위해 애쓰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발표에 임한 것 같다. 그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인도의 사정과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의 사정을 병렬해서 얘기를 시작했다.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의 건축에서부터 식민시대의 건축을 거쳐 선진대열에 선 오늘의 오스트레일리아 현대건축을 개관하면서 환경을 고려한 설계와 계획에 초점을 맞추었다. 복축업을 위한 원시림의 파괴로 인해 인간의 생활환경에 파급되는 제해를 예로 들었다. 에너지

절약형으로 설계된 건축물들을 소개하였으며 태양과 바람, 물 등 자연의 에너지지원을 적절히 이용할 것과 건축재료의 적절한 선택을 강조하였다.

## 2) Miki Desai (인도)

Desai 교수는 인도서북부 아메다바드 대학의 건축과 교수로서 Gujarat 과 Saurashtra 지방의 풍토건축뿐 아니라 현대건축에 이르기까지 그 지방의 건축을 문화발전의 변이에 상관해서 설명해 나갔다. 구즈랏 지방의 건축에 대한 전시회를 최근 스위스에서 가졌다 하며 그 전시회에 출품했던 도면 모형 및 현지촬영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 지방의 풍토건축과 힌두문화를 반영하는 건축, 후에 포르투갈인들의 영향을 받은 건축, 영국식민시대의 건축 그리고 오늘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여러시기의 문화가 서로 복합 중첩되면서 구즈랏지역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건축은 세계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그들만의 독특한 건축을 만들어 내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그의 말대로 문화가 사물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하는 것이고 건축이 집합적 삶의 표출이라 한다면 구즈랏지방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외적인 기준에 의해 재는 것이 우스운 것만큼 그들의 건축을 그들의 문화의 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분명한 한계를 가지는지 명백해진다. 그는 그 지방 건축에서 어떻게 구조적인 요소와 기능적인 요소 및 장식적인 요소들이 그들의 필요와 관심하는 바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용되었는지 보여 준다. 가령 기구단위들이 옥외공간 및 길들과 조합하여 생활공간을 만들어내는 유형적인 발전에서부터 자연의 거대 스케일의 축소 모형을 건축에 도입하는 예는 다른 문화권에 서도 발견되는 것이지만 이러한 현상을 문화의 일반법칙으로 설명해 버리면 문화변용의 핵심을 빠뜨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만약 구즈랏 사람들이 자신들의 건축을 서양건축이나 또는 어떤 다른 문화권의 잣대로 계량하려 한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가 분명해지는 것처럼 똑같은 논리가 우리에게도 또 어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리라 생각된다.

Desai 교수의 발표가 매우 인상적이어서 저녁에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그는 우리 아시아 문화권에 훌륭한 건축이 구석구석에 산재해 있는데 왜 그러한 것들을 들여다

볼 엄두는 두지 않고 서양 일변도로 가서 배우고 학생들 보내고 하느냐하는 의견이었으며 나도 동감을 적극적으로 표시하는 것이외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우리도 우리와 더욱 가깝게 연계되어 있는 아시아 문화권의 건축에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무와 학계, 신진과 기성, 또 학생층을 포함해서 모든 건축인의 상호교류를 통해서 건축문화 발전의 물꼬를 터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 4. 9월 28일 Session IV

### 1) Kulbhushan Jain (인도)

보존과 개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축가 Jain 씨는 다른 발표자들과는 달리 요사이 출판물들을 통해서 세계에 많이 알려진 현대건축가들의 최신 작품들을 예로 들어서 그들이 표방하는 서로 다른 디자인 방법과 철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작품이 어떻게 오늘의 환경속에 그 건물이 자리하는 지역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하고자 했는가를 설명했다. 대상작가와 작품은 독일 Schirmacher 가 설계한 1944년에 완전 파괴된 Frankfurt 의 Romerberg 대지에 6개의 집을 재건축 한 것, Ungers 의 Frankfurt 박물관, Richard Meier 의 Frankfurt 예술 및 공예 박물관 및 Peter Eisenmann 의 Wexner Center 등 4개였다. 그는 역사적인 지역에 새건물을 앉히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분석의 범위를 재료, 스카이라인, 색채라고 제시했다.

### 2) Fu Ji Xiang (중국)

Xiang 교수는 중국의 전통적 모티브를 반영하고자한 중국의 현대건축들을 Slide 를 사용해서 설명하였다. 우리 건축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는 전통건축의 외형을 현대적인 재료와 구법으로 그대로 모식한 것도 많고 전통적인 모티브로 현대적인 건축어휘를 만들어 보려는 노력들도 많이 엿보인다.

### 3) K.P. Bhattacharya (인도)

개발도상국가의 도시화현상은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소득, 고용기회, 문화생활 등의 격차로 농촌지역인구의 도지역으로의 이동이 극심하여 도시지역의 인구과밀과 생활환경의 악화에 더하여 여러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10년전까지만해도 이러한 사정이

심각했었고 현재도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이란 면에서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문제점이 계속 남아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아시아는 인구밀도가 높고 주요 도시들은 식민통치의 유산을 이어받아 도시기능의 집중현상이 심화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도시문제를 그 도시 자체만의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위계적인 여러단계의 취락들의 상관관계로 취급해야 하는 하나의 생태계제로 볼 것을 주장한다. 지방정부는 지방도시의 규모와 경제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조세권의 부여등 기타방법으로 실행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와 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공식 부문과 비공식부문은 다 같이 서로 보완하며 하나의 생활권을 이루어 가는데 각각의 고유영역을 가진다고 보아서 다양한 규모와 기능군의 역할을 끌고루 진작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 5. 9월 28일 Session V

### 1) Wu Lianyong (중국)

Wu Lianyong 교수는 북경의 청화대학교 건축대학 교수이자 건축도시 연구소장으로 있으며 교육과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각종 국제기구에서 중국건축을 알리는데 열성을 보이는 중국 건축계의 중진이다. 이번 발표내용은 지난 8월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북경에서 “역사도시의 보존과 현대화”라는 주제로 열렸던 국제 심포지엄에서 Wu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반복한 것이었다. 아시아의 여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중국의 도시에서 주거의 부족과 기존주거의 손괴가 심해서 사회주택의 문제가 심각한 것 같다. 북경, 소주, 장안, 복주, 성도와 같이 역사적인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들은 특히 전통양식의 주택이 밀집되어 남아 있는 도시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해야 할지 또는 어느 정도로 보존사업을 해야할지 양면적인 딜레마에 처해 있는 듯싶다. 이 밀집된 전통주거 지역의 도시하부구조는 현대도시생활을 영위하기에는 너무 뒤쳐져 있는데다 예전에 수용하던 가구와 인구 수의 몇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 원형이 많이 변형되었고 주거조건이 열악한 상태에 있다한다. 북경시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관기관과의 협조아래 Wu 교수가 이끄는 팀에게 연구를 의뢰하였다. 우교수는 10여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실행안을 설계하여 실험적인 주택을 세우게 되었다. 중국에서도 역사도시에 산재하는 역사적인 관청건물이나 모뉴먼트들은 보존에 신경을 썼지만 전통양식의 주거와 특히 주거지역을 보존대상으로 하는 사업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북경시에서는 중정식 전통주거가 밀집한 Luo Gu Xiang 지역을 포함한 몇개의 지역을 보존지역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현대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되어온 것처럼 거대 스케일의 재건축과 새건축으로의 대치는 지양되어야 하며 시간의 흐름을 함축하고 있는 환경을 일시에 파괴하기보다는 점진적 복원(rehabilitation)을 꾀해야 한다는 것이 우교수의 의견이다. 도시의 지역은 유기체의 부분과 같이 신진대사를 계속하며 연구대상이 되는 전통주거지역도 생체조직의 일부분처럼 인근지역과 연계하여 생활에너지가 계속 주고 받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생활공동체 생활환경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유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아래 전통 주거지역의 기존 중정식 주거에 대처할 수 있는 2~3층의 현대식 중정식 주거양식을 제안하였다. 아직 입주는 시작되지 않았지만 Ju,er Hutong 지역에 46기구를 위한 신중정식 주택이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 이 신중정식 주거의 특징은 전통중정식이 갖는 중정을 그대로 살려 전에 1층이던 건물을 2~3층으로 용적을 늘리고 각 세대마다 독립된 입구와 서비스공간 확보로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말하자면 중정식 연립주택이라 할 수 있겠는데 전통적인 중정양식은 한가구 또는 한집안의 여러가구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독립성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중정식에는 혈족이 아닌 여러 가구가 모여 살게 되므로 조건이 다른 것이며 단지 가족 성원들이 공유하는 외부 공간이었던 중정을 살려서 이웃 가구간에 공동생활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이다. 지붕과 대문등은 전통적인 색깔과 문양, 형태 등을 많이 살렸다. 특히 주목할 점은 hutong 체계라고 명명한 동선체계로서 북경의 전통적 주거단위와 주거지역 및 도시에 일관되게 적용되던 가시뼈와 같이 척추동선에서 계속 가지가 뻗어나가는 식의 동선체계가 신중정식주택에도 적용하였으며 이 동선체계는 이 신주택이 들어서게 되는 기존의 도시조직과 상치되지 않고 연속적인 연결을 보

아시에는 인구밀도가 높고 수요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의 유산도 이겨낼 수 있는 도시계획의 필요성이 실감되어 왔다. 그러므로 도시문제를 그 도시 자체만의 문제로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인 여러 단계의 위력들의 상향관계로 접근하여야 하는 하나의 선택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마치 생체에 이식된 신조직이 그 조직과 신경, 혈관 등이 연결되어서 일체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이 신중정주택은 아직도 실험단계이며 사람들이 입주하여 그들의 반응과 주위에 미치는 영향, 종합적인 의미에서의 비용문제들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경우는 좀 다르지만 소위 달동네와 같은 불량주거지역과 보존대상으로 지정된 전통주거 보존지역이 있다. 도시내에서의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앞으로의 발전계획에 중국의 참용성 있고 점진적인 해결방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 2) BU Zhengwei (중국)

중국 국영 주택 토지개발공사의 주임 건축사로서 그 기관에서 설계한 많은 건물들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으며 비록 자본주의 사회에서처럼 개인사업을 하는 건축사는 아니지만 창의성을 발휘하려고 애쓰는 중국건축사

들의 일면을 볼 수 있었다.

## 6. 9월 29일 Session VI

### 1) Xu Anzhi (중국)

홍콩에 인접한 지역으로 중국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도입하기 위해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지역개발을 하고 있는 심천의 심천대학 건축학과 주임교수이자 대학부설 설계사무소 소장이기도 하다. 슬라이드를 통해서 심천지역에 새로 지은 건물들과 도시를 소개했는데 서구의 현대도시를 방불케하며 엄청난 규모의 건물들과 세련된 디자인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 서고 있으며 홍콩 및 서구의 건축가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건축인들도 기회가 닿으면 중국의 전통적인 도시들과 더불어 한번 관찰해 볼 만한 곳이라 생각이 든다.

### 2) Jeet Malhotra (인도)

푼잡지방에서 건축설계에 종사하며 학생들

도 많이 교육하고 한 낱잡지방 건축계의 원로에 속하는 분 같다. 꼬르뷔제가 낱잡시 도시계획과 의사당, 주정부건물 등에 관여할 때 꼬르뷔제를 도우며 많이 배웠다 한다. 그의 작품들도 꼬르뷔제의 영향이 많은 듯하며 수준이 꽤 높아 보인다. 요사이 기능주의 거장들을 비판하는 사조를 강하게 질타하는 논지를 폈다. 꼬르뷔제가 모뉴먼트건축을 만들어

내는데만 진력한 것이 아니라 지방의 문화와 역사 지방주민의 생활풍습, 풍토와 기후 등에 대한 각별한 연구와 배려에 의해 오늘 우리가 모뉴먼트라고 생각하는 집들을 설계했다고 반증한다. 어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모뉴먼트건축은 어느 누구의 창작이 아니라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심상에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품이 아닐런지도 모를 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타하는 모뉴먼트 건축은 어느 누구의 창작이 아니다. 현대인들이 자신들의 심상에 스스로 만들어낸 자작품이 아닐런지도 모를 일이다.

이다. Malhotra 씨의 정열이 너무 지나쳐 할당된 강연시간을 너무 많이 초과하므로 사람들이 박수로서 연단에서 끌어 내렸다. 그런 정도의 건축에 대한 정열과 생활환경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이 많다면 인도 건축의 장래는 밝다고 보아야 하겠다.

### 3) B.V. Doshi (인도)

Doshi 는 일찌기 1951년부터 57년까지 꼬르뷔제가 인도의 아메다바드와 산디갈에 많은 건물을 설계할 때 문하에서 설계수업을 한 건축가로서 인도의 주요한 하우징 계획을 많이 한 건축가이다. 이번이 발표한 내용은 그가 1983~6에 설계한 Indore 저소득층 주거단지과 1984~6년에 설계한 Vidyadhar Nagar 신도시이다. 그가 관여한 대부분의 하우징 계획들이 산업체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직장인들을 위해 마련한 사원주택 단지였다. 그러나 Indore 단지는 델리와 봄베이 사이에 위치한 대지에 6천5백 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연립주거단지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

면 인도의 도시주변에 빠르게 번식하고 있는 무허가촌의 집단생활에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공간구성의 유형을 발견해 내어 그의 설계에 반영했다 한다. 특히 무허가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중변소의 위치와 공공공간과의 관계를 그 기능은 살리면서 우수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독립성을 부여하였다. 공공시설은 작게 여러개로 나누어 전역에 등분포 시키면서 녹지공간 속에 포함시켜서 작은 부분마다의 그룹별 사람들의 접촉을 활성화시키려 시도했다.

Vidyadhar Nagar 신도시는 라자스탄 지방의 Jaipur 시의 위성도시로 계획되었다. Doshi 는 전통적인 사막도시에서 보이는 건물간격을 밀집시키고 중정과 골목을 증첩시켜 공공공간과 개적공간의 층을 누적시키는 방법을 도입했다. 건물의 향도 태양의 직사광선을 적게 받고 바람이 관통하도록 하였다. 전체 도시의 구조는 18세기초에 힌두의 도시계획 지침에 따라 만다라 성상으로 아홉개의 정방형으로 전체지역이 나누어지고 다시 각 정방형이 교차하는 주, 부도로로 분할되는 형식을 빌렸다. 모뉴먼트는 교차로서 중심에서 비켜서게 하며 기능의 눈에 안보이는 면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살고 있는 실제 생활공간에서 발견하여 적용하였다. 그래서 그는 집이 작은 도시이며 도시는 큰 집이라고 말한다. 그의 프로젝트에서 그의 이러한 생각을 느낄 수 있다. 좋은 건축은 스타일을 초월한다고 하며 그는 결론지었다.

### 7. 9월 29일 Session VIII

마지막 회기로서 아시아 건축사 협의회 회장 루시 캄바타의 사회로 최종 결의안(Resolutions)만 낭독하고 인사말을 전하고 끝냈다. 며칠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반정부 데모가 폭동화하여 인도 전국적으로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학술회의를 끝내고 귀향하는 인도사람들과 제1차 이사회의를 계속하기 위해 아그라시로 떠나야하는 외국 대표단의 안전한 장도를 위해 서둘러서 끝을 맺었다.

《이사회 내용은 '91년 1월호에》

# ACAЕ 건축교육위원회 연례회의 및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를 보고나서



ACAЕ가 추구하는 것이 건축과 학생의 교육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협회의 주 기능의 조직구성은 그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田鳳秀/전우구조건축사사무소  
by Jeon, Bong - Soo

## 1. 처음에

아카시아 건축교육 위원회(ACAЕ, Arcasia Committee for Architectural Education)는 매년 연례회의를 갖는다. 이 회의는 아카시아 이사회(Council Meeting)가 개최되는 곳에서 동시에 이루어 지는데 금번은 4차 회의로 1990. 10. 1 인도의 아그라(Agra)에서 있었다.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대회(Asian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는 격년제로 아카시아 총회(Congress)와 함께 개최된다. 금번은 3차 대회로 인도의 델리(Delhi)에서 1990. 9. 26부터 9. 28일까지 있었다.

ACAЕ가 추구하는 것이 건축과 학생의 교육분야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협회의 주 기능과 조직구성은 그에 맞는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아카시아 가입후 얼마간은 본 협회 연수

위원회에서 대 ACAЕ의 창구역할을 하였으나 연수위원회의 본래의 역할과 거리가 있었다. 1990년부터 국제 위원회 내에서 전담위원을 두어 임시 방편으로 운용하고 있지만 이 또한 대학교육에 관한 본협회의 목표설정등과 함께 추후 더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것이다.

## 2. 제4차 아카시아 건축교육위원회 연례 회의

회의는 1990. 10. 1 아그라시 타지뷰(Taj View) 호텔 2층홀에서 개최되었다. 예의 절차에 따라 ACAЕ 회장인 인도 나그푸르공대(Nagpur, India) 학장 데쉬판데씨(S.A. Deshpande)의 환영사 및 개회사에 이어 각국 대표단 및 참관인의 자기소개가 있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인도, 중국, 홍콩, 필리핀,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및 말레이시아 등 8개국에서 참석함으로써 정족 회원국 수 6개국을 약간 상회하여 성원이 선포되었다.

토의주제에 관한 질의가 있는 다음 1989년 태국의 방콕연례회의시 작성된 회의록을 약간의 문구조정과 오차등을 수정한 후 승인 채택하였다.

회의에서 토론된 주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아시아지역 대학교 현황 자료집 작성
  - 각국 건축과 학생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건축도서 정보센터(ICAAP) 운영
  - 아시아내 3개지역의 활동상황
  - ACAЕ 회지 발간
  -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 전기대회 결산 및 참석 학생과의 대화
  - 차기 회장단 및 간사국 선거
  - 차기 회의지 결정
- 위 각 내용에 대하여 약간의 설명을 부언하면,

1) "아시아 지역 대학교 현황(건축과가 있는)에 관한 자료집 작성"은 1988년부터 홍콩 건축사 협회(HKIA)가 주축이 되어 작업을 하였는데 당시까지 아시아지역 대학의 30~40% 정도 자료가 수집되었고(한국은 6개 대학의 자료제공)정리 분석하는 것은 착수도 안한 상태였다. HKIA는 한 회원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는 큰 무리라고 하소연하였고 또 그렇게 인식을 함께하였다. 자료집 작성 전담기구를 만들어 각국간의 통신 및 비용 염

아시아 건축실계  
시장진출을 위한  
정치·법적이라는 측면, 입장이  
따라 관심 하일 수도 있으나  
동국적으로 건설업의 아시아  
진출시 동원적으로 수반될 것이  
건축 설계 분야이므로 아시아  
지역의 필요성이든 설계시장이  
활여될 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않는다. 이러한 불확의 대회에  
구분해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는 축적된다고  
알는다.

출등의 해결방안에 묘책이 없었다. ACAE 회장 자신도 자료집 작성의 목적과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취소하자는 각국의 의견도 만만치 않아서 더이상 작업을 확대시키지 않고 현재의 자료만으로 마무리하면서 더 연구하자는 선에서 배들을 지었다.

2) "아카시아 회원국의 건축과 학생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은 1989년 방콕회의서 인도 건축사협회(IIA)가 6가지의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각 회원국에게 연구의뢰되었으나 회원국간 의견이 있고 궁극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제시하는 회원국도 없었다. 계속적인 연구과제로 두기로 하였다.

3) 1986년 이사회에서 승인된 바 있는 "아시아 건축도서정보센터(ICAAP, Information Center for Asian Architectural Publication)"의 운영에 관하여 몇가지 새로운 제안이 있었으나 이미 아카시아의 소관업무로 이관된 상태 이어서 더이상의 토론이 없었다.

4) 아시아를 남아시아 지역(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지역(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동아시아지역(한국, 중국, 홍콩, 일본)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을 대표하는 간사국을 순차로 임명하고 간사국이 연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금번 회의시 남아시아 지역(간사국, 파키스탄)은 정치적 불안을 이유로 보고 내용이 없다고 하였고 동남아시아 지역(간사국, 싱가포르, SIA) 및 동아시아 지역(간사국, 홍콩, HKIA)도 특별한 내용없이 의례적인 사항만 보고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간사국인 HKIA의 경우는 영국과 중국간의 조차 만료기한인 1997년 6월 이후의 회원국 자격여부가 거론되고 있어 기간중 의기소침한 상태로 일관하였다.

5) ACAE 회원국간 정보교환등을 목적으로 "회차 발간"이 제안되어 "ACAE REVIEW"라는 제호를 채택하였고 이사회의 발간승인을 요청기로 하였다.

6) "아시아 건축학도 잼버리대회 전기대회 결산 및 참석 학생과의 대화." 1986년 콜라롬푸르에서의 제1차대회 보고서가 당일 접수되었다. 그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여 추후대회의 보고서 작성시 기초자료로 채택하였다.

1988년 서울대회의 대회보고서도 금년 6월경 제출되었으나 회의개최 전에 내용이 다소 개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다음과 같이 긴 내용의 보충 설명을 하였다. 설명은 본 협회가 사전에 작성 배포한 내용을 필자가 읽는 형식을 취하였고 정식 보고서로 채택 되었다.

3차 건축학도 잼버리 대회에 참석한 학생과의 대담은 주최측의 무계획성인 대회진행으로 학생의 참석에 차질이 생겨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당초 본 협회는 연세대 4학년 이소진 학생이 1988년 서울대회와 금번대회를 모두 참석한 바 있으므로 양대회의 특징에 관한 이양의 경험을 피력하게 하고, 잼버리 대회에 관한 몇가지 사항을 제안할 예정이었으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7) 차기(1990-1992)회장단과 3지역 간사국이 다음과 같이 선임되었다.

회 장	말레이시아(PAM)	카씨
(P. Kasi)		
총 부	말레이시아(PAM)	추후
결정		
간사국	남아시아	
	방글라데시(IAB)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IAI)	
	동아시아	
	한국(KIRA)	

본 협회가 동아시아지역의 간사국이 되었으므로 남후 중국, 홍콩 및 일본(차기대회시 회원국 임해 신청예정)등과 긴밀한 연락업무를 맡게 되었다.

8) 제5차 연례회의는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기로 되었다.

### 3. 제3차 아시아 건축학생 잼버리 대회 (3rd Asian Architectural Student Jam-boree)

대회 참석 대학생의 선발은 당초 학생작품 설계경기에 응모한 학생중 우수 작품을 낸 학생을 선발기로 하였으나 금년에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아 각대학에서 추천된 20여명의 학생을 서류 및 면접 전형에 의하였다. 영문 자기소개서, 평소설계작품, 건축지식, 영어 구사력 및 태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였는데 심사위원(국제 위원회 위원 및 영어 테스트 전문 외국인)의 거의 일치된 견해로 연세대 4년 이소진양과 서울대 3년 남수현군이 선발

되어 이 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다.

대회기간중 인도는 북부 전역의 학생시위로 운동 어수선했다. 매일같이 수명에서 십수명씩 항의 분신 자살하거나 시위진압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많은 도시에 통행금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시위의 진원은 인도 정부가 지난 8월 입안한 교육 및 취업정책에 대한 반발과 지지에서이다. 쿼타(Quota)라든가 리저베이션(Reservation)이니 하여 인도 특유의 카스트제도에 따른 하류계층의 국민에게만 일정 비율의 교육 및 취업을 추가 보장하겠다는 정책에 대한 중산층의 국민, 특히 학생층의 저항이 큰 것이다. 한편 사회주의자들의 지지추구시위로 만만치 않았다. 인도의 일간지 인디아 타임지의 1면 머리기사는 9월 27일자 "선북부지방에 걸쳐 쿼타제 반대시위의 확산 일로", 9월28일자 "계속된 시위속 15명 사망", 9월29일자 "진정안되는 소요속 10명 피살"등으로 장식되는 등 살벌하고 어수선했다.

"인구 8억3천5백만명의 47%가 문맹이고 40~50%가 절대빈민인 상황에서 애매한 기준의 하류층에게만 27%의 추가 쿼타는 말도 안된다."는 인도의 한 젊은 건축사의 푸념에 인도 사회의 분계점을 자새하는 알 수 없어도 매우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회불안으로 대학내에서도 학생의 의견이 첨예화하여 아시아 건축학도 잭버리 등과 같은 사치(?)한 행사를 방해하고 있어 원만한 대회준비와 진행을 기대하는 것이 당초부터 무리였다.

예측대로(?) 주최국 인도건축사협회(IIA)는 잭버리 대회준비는 엉망이었다. 개최장소는 인도 YMCA 회관, 무계획한 대회진행, 거들된 시행착오, 지도교수의 무성의, 남아시아 어느나라의 비동등 학생 다수의 억지참가로 인한 혼란, ACAE 측과의 상호 협조 부족, 각 대표단의 참관을 막는 등 거의 방치하다시피한 상태 속에 막을 내렸다. 참석 학생들의 불만은 높았고 이사회 각국 대표의 항의도 잦았다.

구체적인 사항은 참석학생의 참가기에서 다룰 예정이므로 중언치 않고자 한다. 다만 차후의 원만한 대회를 위하여 무성의한 대회진행에 대한 항의시한을 적당한 경도로 전달할 예정이다.

#### 4. 끝으로

필자는 1988년 서울 연례 회의시, 본 협회 연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연례회의의 총무로서 전임 ACAE 회장을 보좌한 바 있었고 금번 아그라회의에는, 국제위원회 소속으로 참여하는 등 두번의 좋은 기회를 가졌다. 필자 개인적으로는 색다른 경험의 기회를 갖는 행운이었다. 두 차례의 대회에 참가하며 가진 몇가지 소감을 피력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분명 대학교육은 대학과 문교당국의 소관이다. 그런데 직업 교육면에서의 본 협

대회의간중 인도는 북부 전역의 학생시위로 운동 어수선했다. 매일같이 수명에서 십수명씩 항의 분신 자살하거나 시위진압경찰의 발포로 사망자가 속출했다. 곳곳의 도로가 통제되고 많은 도시에 통행금지 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회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타단체인 대한건축학회는 이에 비해 상대적인 적극성이 있음은 구성원의 차이에만 있는가 하는 생각이다. 본 협회도 대학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ACAE 등과 같은 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우수한 설계자와 건축사 탄생의 모태가 대학교육이라는 원론적인 점에 있어서이다. 여러회원과 함께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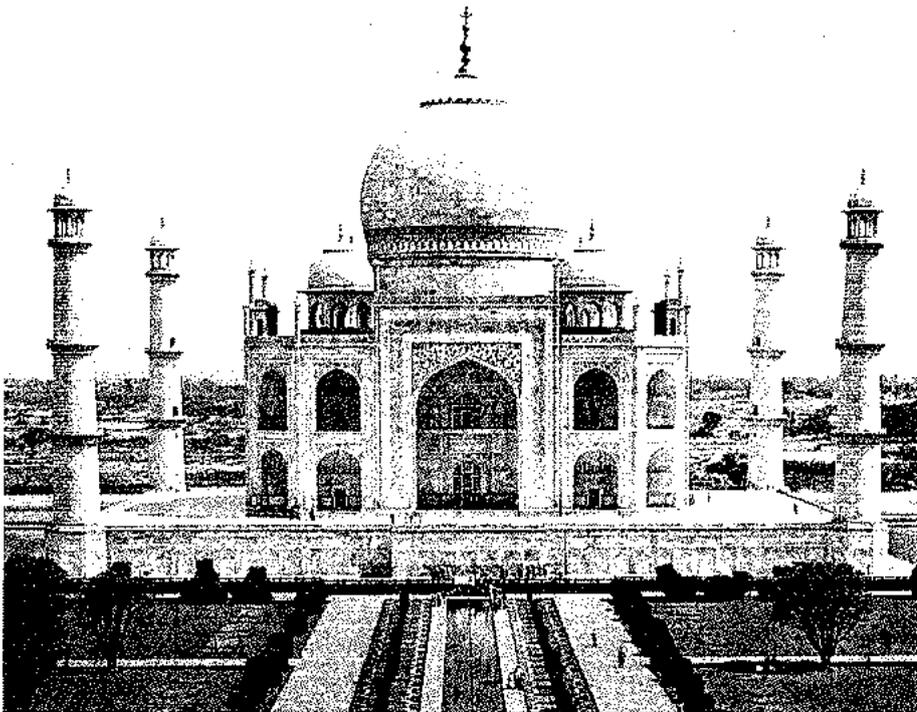
둘째, 아시아 건축설계 시장진출을 위한 정지 작업이라는 측면, 입장에 따라 관심 밖일 수도 있으나 궁극적으로 건설업의 아시아 진출시 필연적으로 수반될 것이 건축 설계 분야이므로 아시아 지역의 정보없어도 설계시장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종류의 대회에 꾸준히 참석함으로써 그러한 정보는 축적된다고 믿는다. 일부의 경우는 정식 회원국도 아니면서 참관인, 발표자 또는 패널리스트 등으로 대회 참석하는 열의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그들의 오늘이 특유의 수집벽에서 비롯되었다는 진단도 있다.

셋째, 국제회의의 감각이 함양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국내에서도 웬만한 격식을 갖춘 회의에도 매우 어색해하는 필자와 같은 소양으로는 어렵도 없었다는 점이다. 기실 국제회의의꾼이라는 소리를 들을만한 세련된 언행과 소양이 국제화 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닐지. 앞으로 이러한 소양을 가진 각종 세대의 회원이 참석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

# 인도에서의 9일

—제3차 아시아건축학생 잼버리대회에 참여하고—



9월 25일 아침 김지덕 선생님 내외와 우리는 협회공식 대표단보다 하루먼저 인도를 향해 출발했다. 인도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먼 세점을 둘러 보았는데 많은 상품들이 한국어로 「사은품」, 「추석할인판매」 등의 팻말을 진열대 위에 놓아 둔 것이 눈에 띄었다. 다섯 시간을 기다려서 Air India 를 탔더니 인도의 민속의상을 입은 스텐더드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예쁘다. 방콕에서는 터반을 쓴 사람들이 많이 탑승했다. 시크족인데, 부유층이 많으며 이들도 파키스탄처럼 정치적인 독립을 원한다고 한다.

방콕에서 네 시간만에 델리에 도착한 시간이 열한시 반—한국보다 네시간 반 빠르다—이었다. 입구수속을 마치고 짐이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비행장 안을 둘러보니 많은 벽화가 있었다. 축제의 모습, 여인의 모습, 도를 닦는 선인의 모습 등 갖가지이다. 종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원으로 상징되는 「만다라」를

강조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대부분이 원을 프레임으로 사용하였으며, 원만을 그려놓은 것도 눈에 띄었다.

짐을 찾은 후 환전소에서 달러를 루페로 바꾸어 택시를 탔다. 택시는 1950년대 피아트 모델로서 미터기가 밖에 달려 있었다. 그곳에는 거의 모든 도로를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대신 Round - About 으로 처리, 영국의 도로망과 매우 유사했다. 숙박지인 YMCA 호텔에 새벽 한시에 도착하여 인도에서의 첫 밤을 보냈다.

9월 26일 아침, 처음으로 햇빛 아래서 본 인도는 무척 넓다는 느낌을 받았으며 녹지가 있는 가운데 건물이 하나 돌씩 서 있는 것 같았다. 김수근 선생님이 설계한 주인도 한국대사관을 보기 위해 대사관이 모여 있는 곳으로 갔다. 개인적인 편견일지는 모르지만 각국 대사관들 가운데 우리 대사관이 가장 돋보였다. 무조건 엄격하지도 않고 기념비적이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소박하지도 않게 서 있는 모습을 보니 언젠가 학교에서 어느 건축가가 말씀하신 안마당의 극대화란 개념이 머리에 떠올랐다.

오후에는 행사장소인 School of Planning & Architecture - SPA 에서 각국 대표 학생들과 간단한 인사를 한 후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첫날 참석한 학생들은 우리 한국을 포함해서 싱가포르, 홍콩, 말레이시아, 인도 및 파키스탄의 대표들 이였으며, 우리였고, 다음날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의 대표들이 도착하였다. 비록 초면에 풍습도 제각기 달랐지만 건축을 전공한다는 것 하나로도 마음 편히 이야기할 수 있었다.

9월 27일, 홍콩,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의 순으로 근번 잼버리대회 주제인 「나의 건축, 나의 환경」에 대한 오진서간 발표가 있었다. 홍콩은 주로 High Rise 빌딩과 고층 아파트들, 그리고 그들 사이에 생기는 공간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그들은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상업화되고 비인간적인 그들의 도시에 대해 매우 만족해 하는 것 같았다.

싱가포르 대표들은 자기 학교—홍콩,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싱가포르에서는 건축대학이 하나밖에 없다—에서 사용되는 한가지 프로젝트를 보여주었는데, 짧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도 전통을 찾아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통적인 형태의 단면과 평면, 입면을 만들어 풀라주화시킨 다음, 건물의 평면

남수현/서울대학교 건축공학과 3학년  
이소진/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4학년

과 입면에 바로 도입을 시키는 방법이었다. 현실성이 조금 결여된 듯 싶었으나 실험적이고 전위적인 것이 매우 마음에 끌렸다.

우리는 전통적인 한국의 주거양식과 현대 주거에 계승되는 특징들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인도의 순서로 발표를 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시골의 마을에서 자신들이 자기집을 짓는 과정과 집들의 배치 및 공간 분할 등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찰흙으로 짓는 집에 이용되는 부조장식의 소박한 아름다움이 인간의 장식욕구는 어디서나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말레이시아 대표들은 현대 건축에 인용된 전통 건축의 요소들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 그러나 확일적으로 인용되는 전통요소가 어딘지 모르게 건물과 융합되지 않아 보였고 설계자의 창의성도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발표에 나선 인도는 인도 전통 건축의 특징과 현대 건축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보여주었다.

저녁에는 콘퍼런스 센터에서 개최되는 제4차 아시아 건축사대회 개최식에 참석하였다.

행사의 마지막날인 9월 28일, 주제는 『아시아 건축교육의 청사진』이었는데, 각 나라의 건축 교육 현황을 비교해서 보다 나은 제도를 제시해 보려고 마련한 시간이었다. 이때 들은 각 나라의 교육제도중에서도 가장 공감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학교에 다니는 중간기간에 1~2년의 실습시간을 두고 있다는 것이었고, 또 학교를 졸업하면 바로 실시 설계를 한다는 것도 부러웠다.

잼버리대회의 공식적인 행사는 28일로 끝이 났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도현지의 불안한 정치사정 때문에 아그라로 가는 Tour가 모두 취소되었다는 것이고 또 시간을 지켜서 개회대로 된 것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본 대회가 잼버리대회와는 별개로 운영이 되어 당초 참관 예정이었던 ACAE 회의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다음날부터는 개별적으로 행동을 했다. 싱가포르 친구들과 같이 Janph라고 하는 쇼핑 거리에 가서 쇼핑을 했는데 가격을 실랑이 하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 그 다음날 파키스탄 대표들이 따로 준비한 버스를 타고 새벽 3시에 아그라로 출발했다. 버스 밖으로 펼쳐지는 시골의 풍경은 마치 아프리카를 연상시켰

다. 넓은 평야의 수풀 속에 가끔 하나씩 서있는 집들, 시골의 중간 중간에도 조그마한 모스(이들의 성당같은 것)가 자주 눈에 띄어 종교의 나라임을 엿볼 수 있었다. 4시간을 달려서 타지마할에 도착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라는 타지마할은 모든 사람들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다.

이 타지마할은 배치에 있어서도 기존의 무덤에 비해 매우 혁신적이라고 한다. 기존의

16세기경에 지어진 인공 도시라고 하는데 그 질서정연함과 공간적 느낌이 너무 멋있었다. 몇 년전에 기본적 있는 이탈리아의 폼페이보나 오히려 보존이 더 잘된 것 같다. 저녁에의 실루엣이 매우 인상깊었다.

그 다음날은 델리에 폭동이 예상된다고 하여 숙소에서 그냥 머물렀다.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잠시나마 느끼게 되었다.



무덤들은 직사각형의 대지를 4등분하여 그 중앙에 무덤을 위치시키고 수로를 네방향으로 트는 것이 보통인데 이 타지마할은 무덤의 위치를 강쪽으로 불임으로써, 강에 비치는 타지마할의 모습에서 죽음과 삶의 무상함을 느끼도록 하였고, 입구에서부터는 반대로 진입로가 더 길어져서 그 기념비적 느낌이 더욱 강하도록 계획하였다고 하며, 정원도 원래에는 나무가 빽빽히 차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타지마할의 본 건물에 가까이 갈수록 나무에 가려진 모습이 조금씩 조금씩 그 위용을 드러내면서 그 신비함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였는데, 영국인들이 나무를 다 잘라버려서 지금은 그러한 감흥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한다.

그 다음에 들린 곳이 Fort of Agra인데 상당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창문으로 멀리 보이는 타지마할을 의식하도록 너무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아닌가 해서 물어보았더니 이 건물이 먼저 지어진 것이라 한다. 마지막으로 간 곳은 Fartapha - Sikri였다. 약

다음날은 델리의 Red Fort, India Gate, Jantur Mantur를 보았는데 특히 잔타 만타는 매우 인상 깊었다. 이것의 원래 용도는 천체관찰이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것은 모사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용도 뿐만 아니라 그 형태가 주는 공간의 깊이와 느낌이 매우 좋았다.

마지막 날은 숙소 근처를 조금 돌아본 후 떠날 재미를 했다. 네시 반까지 기다리다가 공항으로 갔으나 배웅 나온 친구들은 아무도 없었다. 회장님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들이와 계셨다. 연락이 안되어 걱정하셨다고 한다.

오는 비행기는 시간이 별로 안걸리는 것 같았다.

끝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신 대한건축사협회에 감사말 드리며 특히 저희를 도와주신 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 1990년 10월분 전국도서신고 현황

## 1. 종합평가

- 가. 전년동월비 : 전년 10월분 7백17만9천83㎡보다 6.68% (47만9천3백24㎡) 증가한 7백65만8천4백7㎡의 실적을 보였다.
- 나. 전년동기비 : 전년도 1~10월 누계 8천1백27만4천9백87㎡보다 43.85% (3천5백64만87㎡) 증가한 1억1천6백91만5천74㎡의 실적을 보였다.
- 다. 전월비 : 9월분 1천4백79만3천5백61㎡보다 48.23% (7백13만5천1백54㎡) 감소한 7백65만8천4백7㎡의 실적을 보였다.

全國圖書申告 概況 (地域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분	1989년도	1990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서울지부	881,989	1,796,948	914,959	103.74%
	부산지부	333,875	419,978	86,103	25.79%
	대구지부	160,976	432,815	271,839	168.87%
	대전지부	293,787	343,725	49,938	17.00%
	충북지부	203,790	457,326	253,536	124.41%
	전북지부	238,439	294,921	56,482	23.69%
	제주지부	54,063	72,455	18,392	34.02%
감소지역	인천지부	338,743	268,685	(70,058)	-20.68
	광주지부	233,267	118,278	(114,989)	-49.30%
	경기지부	2,218,809	1,661,554	(557,255)	-25.12%
	강원지부	353,745	215,248	(138,497)	-39.15%
	충남지부	344,748	205,348	(139,400)	-40.44%
	전남지부	263,914	202,111	(61,803)	-23.42%
	경북지부	520,049	436,128	(83,921)	-16.14%
경남지부	738,889	732,887	(6,002)	-0.81%	
합계	7,179,083	7,658,407	479,324	6.68%	

全國圖書申告 概況 (用途別 增減狀態)

(연면적기준)

(단위/㎡)

종별	9월분	10월분	증·감	비율(%)
단독주택	1,059,263	629,992	(429,271)	-40.53%
다세대주택	570,225	435,378	(134,847)	-23.65%
연립주택	202,694	292,579	89,885	44.35%
아파트	8,581,448	3,601,033	(4,980,415)	-58.04%
근린생활시설	1,490,581	843,380	(647,201)	-43.42%
종교시설	66,155	58,811	(7,344)	-11.10%
의료시설	30,757	20,047	(10,710)	-34.82%
교육연구시설	143,477	260,849	117,372	81.81%
업무시설	580,075	302,543	(277,532)	-47.84%
숙박시설	60,700	22,519	(38,181)	-62.90%
공장	1,343,782	718,729	(625,053)	-46.51%
기타	664,404	472,547	(191,857)	-28.88%
계	14,793,561	7,658,407	(7,135,154)	-48.23%

支部別 全國圖書申告 概況 (10月分)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계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지부	997	1,243	1,765,656	82	86	31,292	0	0	0	1,079	1,329	1,796,948
부산지부	995	1,238	385,427	195	218	24,739	27	31	9,812	1,217	1,487	419,978
대구지부	387	438	410,355	428	448	15,285	28	28	7,175	843	914	432,815
인천지부	183	277	261,651	13	18	2,531	16	18	4,503	212	313	268,685
광주지부	218	234	86,055	65	68	31,098	6	6	1,125	289	308	118,278
대전지부	261	320	305,790	46	47	24,291	137	142	13,644	444	509	343,725
경기지부	1,419	1,674	1,536,999	136	139	89,545	42	42	35,010	1,597	1,855	1,661,554
강원지부	340	413	173,419	88	95	37,828	16	16	4,001	444	524	215,248
충북지부	435	557	396,785	75	87	46,585	42	42	13,956	552	686	457,326
충남지부	300	333	166,230	97	100	34,602	30	30	4,516	427	463	205,348
전북지부	297	337	263,943	74	77	22,526	31	31	8,452	402	445	294,921
전남지부	418	479	173,141	93	126	25,395	24	25	3,575	535	630	202,111
경북지부	487	604	314,253	146	171	115,683	18	18	6,192	651	793	436,128
경남지부	989	1,192	594,445	211	257	129,225	28	29	9,217	1,228	1,478	723,887
제주지부	130	146	59,549	57	57	12,906	0	0	0	187	203	72,455
합계	7,856	9,485	6,893,698	1,806	1,994	643,531	445	458	121,178	10,107	11,937	7,658,407

支部分 全國圖書申告 概況(1~10月 合計分)

구분 지부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지부	38,697	39,903	20,696,141	1,132	1,227	566,649	0	0	0	39,839	41,130	21,262,790
부산지부	12,810	15,647	8,346,425	2,813	3,521	496,611	445	472	283,296	16,068	19,640	9,126,332
대구지부	8,387	8,903	4,511,140	4,476	4,608	462,791	316	318	99,055	13,179	13,829	5,072,986
인천지부	7,586	9,037	7,002,822	401	526	175,984	183	223	67,371	8,170	9,786	7,236,177
광주지부	3,908	4,369	3,317,463	1,278	1,365	349,150	119	119	41,182	5,305	5,853	3,707,795
대전지부	4,040	4,471	3,604,034	536	544	176,925	980	1,007	307,130	5,556	6,022	4,088,089
경기지부	30,088	34,384	27,137,446	2,202	2,428	1,265,479	735	742	553,350	33,025	37,554	28,956,275
강원지부	4,975	6,017	3,199,956	1,247	1,459	464,234	164	171	37,719	6,386	7,647	3,701,909
충북지부	6,164	7,073	2,928,113	1,119	1,303	609,594	466	477	283,834	7,749	8,853	3,821,541
충남지부	4,628	4,928	3,091,645	1,244	1,262	495,969	294	297	169,855	6,166	6,487	3,757,469
전북지부	4,020	4,659	3,251,926	986	1,081	286,054	237	238	66,602	5,243	5,978	3,604,582
전남지부	5,423	6,420	3,644,999	1,549	1,862	567,022	239	246	83,356	7,211	8,528	4,295,377
경북지부	7,562	8,967	4,858,475	2,148	2,520	1,142,151	247	247	154,946	9,957	11,734	6,155,572
경남지부	14,445	16,512	9,727,115	3,175	3,637	1,302,095	322	326	184,302	17,942	20,475	11,213,512
제주지부	2,103	2,436	806,307	592	604	98,361	0	0	0	2,695	3,040	904,668
합 계	154,836	173,726	106,124,007	24,898	27,947	8,459,069	4,747	4,883	2,331,998	184,481	206,556	116,915,074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0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3,590	3,742	570,185	865	885	55,862	87	87	3,945	4,542	4,714	629,992
다세대주택	954	1,046	429,129	47	55	4,935	15	17	1,314	1,016	1,118	435,378
연립주택	83	134	289,934	7	8	2,645	0	0	0	90	142	292,579
아파트	164	866	3,543,935	6	11	56,184	4	4	914	174	881	3,601,033
근린생활시설	1,772	1,837	747,751	296	310	42,912	197	197	52,717	2,265	2,344	843,380
종교시설	82	98	42,036	43	48	15,651	7	8	1,124	132	154	58,811
의료시설	3	8	1,527	5	5	18,520	0	0	0	8	13	20,047
교육연구시설	50	75	193,153	73	85	60,646	16	16	7,050	139	176	260,849
업무시설	71	90	278,566	35	36	13,867	14	18	10,110	120	144	302,543
숙박시설	19	19	11,769	13	14	5,630	6	6	5,120	38	39	22,519
공장	411	700	452,320	177	263	241,232	53	56	25,177	641	1,019	718,729
기타	657	870	333,393	239	274	125,447	46	49	13,707	942	1,193	472,547
합 계	7,856	9,485	6,893,698	1,806	1,994	643,531	445	458	121,178	10,107	11,937	7,658,407

用途別 全國圖書申告 概況(1~10月 合計分)

구분 용도별	신축·개축·재축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			합 계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76,490	77,915	13,694,915	11,676	12,020	788,871	700	704	47,959	88,866	90,639	14,531,745
다세대주택	19,264	20,677	6,337,657	913	932	74,619	110	123	10,969	20,287	21,732	6,423,245
연립주택	1,089	1,488	1,814,409	39	46	22,256	7	7	2,350	1,135	1,541	1,839,015
아파트	2,367	11,217	44,376,340	118	183	358,779	41	51	199,794	2,526	11,451	44,934,913
근린생활시설	40,165	41,134	19,836,939	4,996	5,490	1,015,187	2,257	2,271	718,185	47,418	48,895	21,570,311
종교시설	927	1,065	549,749	507	568	195,703	73	78	64,159	1,507	1,711	809,611
의료시설	67	77	144,943	86	95	121,872	32	32	25,602	185	204	292,417
교육연구시설	432	610	1,288,169	702	834	772,434	212	221	173,545	1,346	1,665	2,234,148
업무시설	1,487	1,632	5,292,055	494	509	347,905	107	112	111,539	2,088	2,253	5,751,499
숙박시설	653	703	1,323,378	192	199	99,576	97	97	185,073	942	999	1,608,027
공장	4,806	7,945	6,756,172	2,363	3,651	3,365,943	509	554	508,031	7,678	12,150	10,630,146
기타	7,089	9,263	4,709,281	2,812	3,420	1,295,924	602	633	284,792	10,503	13,316	6,289,997
합 계	154,836	173,726	106,124,007	24,898	27,947	8,459,069	4,747	4,883	2,331,998	184,481	206,556	116,915,074



# 1990

## 7 월호

총권 제255호

會員作品	안학수(安學洙)/원형(原形) + 승선(昇仙)	12
	세종 고려궁지 이순권(李舜權)등	14
	영선(英仙)/김원(金源)	18
	제주 고려대이스터비포로(李)등	22
	이로(伊魯)/안희(安熙)	26
	광양시인전(光陽詩人展)	30
나의 스케치	에버워드(艾佛華德) 최희영(崔熙英)	32
論 壇	가덕(加德)의 건축(建築) 및 조경(造景) 설계(設計)에 대한(對) 고찰(考察)	34
誌上中興	건축(建築) 제정(制定)에 대한(對) 고찰(考察)	36
研 究	중국(中國)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의 유형(類型) 분석(分析) 연구(研究)	42
	기원(起源)의 역사(歷史)와 건축(建築)의 고고(考古)학(學)	48
	세종(世宗)의 세종(世宗)대(代)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58
建築紀行	베트남(越南)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6
	민수(民水)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74
설계(設計)기	서울(서울)의 근대(近代)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76
지 點	1990년 5월(五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80
新入會員	1990년 5월(五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4
協會消息	1990년 5월(五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6

## 8 월호

총권 제256호

會員作品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12
	경희(京熙)대(代)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8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0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2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6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8
나의 스케치	최수(崔秀)가 보낸(寄) 스케치(草圖)	32
論 壇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4
誌上中興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6
研 究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44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5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54
建築紀行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4
설계(設計)기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8
지 點	1990년 6월(六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82
新入會員	1990년 6월(六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2
協會消息	1990년 6월(六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6

## 9 월호

총권 제257호

會員作品	전우(全宇) 김동진(金東鎭)등	12
	경희(京熙)대(代)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8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0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2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6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8
나의 스케치	최수(崔秀)가 보낸(寄) 스케치(草圖)	32
論 壇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4
誌上中興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6
研 究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44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5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54
建築紀行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4
설계(設計)기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8
지 點	1990년 7월(七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82
新入會員	1990년 7월(七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2
協會消息	1990년 7월(七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6

## 10 월호

총권 제258호

會員作品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12
	경희(京熙)대(代)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8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0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2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6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8
나의 스케치	최수(崔秀)가 보낸(寄) 스케치(草圖)	32
論 壇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4
誌上中興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6
研 究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44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5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54
建築紀行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4
설계(設計)기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8
지 點	1990년 8월(八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82
新入會員	1990년 8월(八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2
協會消息	1990년 8월(八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6

## 11 월호

총권 제259호

會員作品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12
	경희(京熙)대(代)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8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0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2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6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8
나의 스케치	최수(崔秀)가 보낸(寄) 스케치(草圖)	32
論 壇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4
誌上中興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6
研 究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44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5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54
建築紀行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4
설계(設計)기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8
지 點	1990년 9월(九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82
新入會員	1990년 9월(九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2
協會消息	1990년 9월(九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6

## 12 월호

총권 제260호

會員作品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12
	경희(京熙)대(代)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18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0
	이우(李宇) 김동진(金東鎭)등	24
	대흥(大興)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6
	제주(濟州)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28
나의 스케치	최수(崔秀)가 보낸(寄) 스케치(草圖)	32
論 壇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4
誌上中興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36
研 究	한국(韓國)의 전통(傳統)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44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에 대한(對) 고찰(考察)	5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54
建築紀行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0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4
설계(設計)기	도시(都市)계획(計劃)에서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68
지 點	1990년 10월(十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82
新入會員	1990년 10월(十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2
協會消息	1990년 10월(十月)의 건축(建築)사(史) 연구(研究)	96

# 新(留)任 各 市・道 支部 會長 團 중점추진사항

## 서울 特別市 支部

### 중점추진사항

▶ 會長 :



李文雨(40년 5월 京畿生)  
63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0년 연세대 산업대학원(건축전공) 졸업  
81~85년 본협회 서울지부 간사  
85~87년 본협회 본부 이사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여성 대표

- 다수회원이 참여하는 위원회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지부의 활성화를 이룩
- 협동과 창의로운 협회상을 이룩하고,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의 기쁨을 다지는 협회를 구축
- 협회의 중추적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지부로서 본회를 적극지원, 각종 악법 개정에 앞장
- 관주도적 건축행정 및 각종조례, 임의규제등의 모순점을 적극 개입하여 개선(지부차원의 업무지원센터 설치)
- 제반 행정업무의 개선 및 각종 법령등의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통보
- 건축사보 및 보조원의 관리, 교육들을 위한 기구 설치 운영
- 지방자치제를 대비해 분소업무를 적극 지원

▶ 副會長 :



朴昌浩(37년 11월 서울生)  
62년 홍익대 건축과 졸업  
87~89년 서울건축사복지회 운영위원  
서울건축사 신용협동조합 이사  
87~89년 본협회 서울지부 간사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환경, 스페이스5 대표

## 釜山 直轄市 支部

### 중점추진사항

▶ 會長 :



成勳燮(38년 4월 慶南生)  
63년 부산대 건축과 졸업  
72년 본협회 부산지부 간사  
76~77년 본협회 부산지부 감사  
82~84년 본협회 본부 이사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삼정·도성·공간 대표

- 기본적 사업계획 추진의 충실
- 회원의 「권익옹호」와 「복리증진」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위한 전담위원회 구성, 운영
- 「정보상황실」의 설치운영-회원상호간 건축기술정보 교환활동 원활 도모
- 제반 업무에 관한 의견의 적극적 수렴통한 회원참여 기회 확대

▶ 副會長 :



卞京烈(40년 2월 慶南生)  
67년 동아대 건축과 졸업  
79~81년 본협회 부산지부 간사  
82년 본협회 부산지부 총무간사  
현 동원·미일·신한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光州 直轄市 支部

### 중점추진사항

▶ 會長 :



徐廷珉(37년 2월 全南生)  
63년 전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75년 전남체육회 이사  
현 광주직할시 성구협회 회장  
현 법무부 보호감찰위원회 광주직할시 회장  
현 건축사사무소 동양·신도시 대표

- 지역건축문화 발전과 회원 창작의욕 고취를 위한 지부회원 설계작품전 개최 및 작품집 발간, 홍보
- 건축관계 자료수집과 건축에 관한 견문을 넓히기 위한 회원해외시찰 추진
- 관계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건축행정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회원의 화합 및 단결 도모와 회원 권익옹호를 위한 사업추진

▶ 副會長 :



鄭在京(43년 10월 全南生)  
광주대 건축공학과  
87~88년 본협회 광주지부 감사  
86~88년 광주직할시 건축위원회 위원  
88~90년 본협회 광주지부 간사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미진·시민·신전대표

大田直轄市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宋昇鎬(44년 6월 大田生)  
67년 충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90년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졸업  
73년 본협회 충남지부 감사  
81~84년 본협회 충남지부 간사  
89~90년 본협회 대전지부 부회장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대표

- 대전건축사지(계간) 발간
- 일본 자매 건축사회와의 환일 상호 교류, 선진국 건축계 시찰등 국제교류 사업추진
- 제 3회 건축디자인 캠프 지원 등 보조금 및 사회사업지원



▶ 副會長:

林根洙(44년 1월 大田生)  
62년 대전공고 졸업  
78년 본협회 충남지부 간사  
85~86년 본협회 충남지부 간사  
현 조형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京畿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李一濶(留任, 40년 11월 京畿生)  
65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5~88년 본지부 경기지부 간사  
88~90년 본협회 경기지부 회장  
현 한림건축사사무소 대표

- 지부 자체 회관 건립 추진
- 장학금 지원사업 실시
- 회원 복리증진을 위한 연금사업 실시



▶ 副會長:

禹鍾善(32년 2월 서울生)  
61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졸업  
81년 단국대대학원 건축공학과 졸업  
85~87년 본협회 의정부분소 회장  
87~90년 본협회 경기지부 간사  
현 우중선건축사사무소 대표

江原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洪永培(46년 9월 江原生)  
70년 중앙대 건축공학과 졸업  
89년 중앙대건설대학원 건축 및 도시설계 전공 졸업  
71년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72년 강원도 설계심사위원회 위원  
현 (합)종합건축사사무소 부광 대표

- 건축사 행정처분 완화 대책 강구
- 분소직원 인사 합리화
- 지역 간담회 활성화
- 관계기관과의 유대 도모



▶ 副會長:

崔柄郁(留任, 44년 2월 江原生)  
66년 영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67년 한양대 산업대학원 도시계획전공 졸업  
82년~ 본협회 강원지부 간사  
87년~ 본협회 강원지부 부회장  
현 공간건축사사무소 대표

忠清北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李容鐵(留任, 36년 4월 忠北生)  
61년 충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86~88년 본협회 충북지부 간사  
88년~ 본협회 충북지부 회장  
현 청주건축사사무소 대표

-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 회원간 친목도모와 화합단결
- 합리적인 지부운영



▶ 副會長:

朴五均(留任, 25년 6월 忠北生)  
61년 건국대 법과대 졸업  
75년~77년 본협회 충북지부 감사  
87년~ 본협회 충북지부 부회장  
현 신화건축사사무소 대표

忠清南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李甲俊(留任, 38년 8월 忠南生)  
57년 대전광고 졸업  
88년~ 본협회 충남지부 회장  
현 갑진·우인·서해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회원간의 융화 도모 및 자질 향상
- 내고장 건축전문인으로서 사회적 기여 증대
- 사회발전의 선도자로서 모범적 생활과 연구풍토 조성



▶ 副會長:

李天珪(留任, 45년 3월 忠南生)  
64년 대전광고 졸업  
88년~ 본협회 충남지부 부회장  
현 대영건축사사무소 대표

全羅北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兪鐵鉞(留任, 47년 4월 全北生)  
69년 홍익대 건축과 졸업  
75년 본 협회 전북지부 총무간사  
82년 본 협회 전북지부 감사  
88년~ 본 협회 전북지부 회장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원건축 대표

- 1천㎡미만 건축물의 설계 감리 보수액을 협회에서 직접 수납('91. 1)
- 전 회원사무소에 FAX 를 설치하여 신속한 업무 전달 체계 구축
- 전북건축사 실험의 활성화 및 중점 육성
- 회원복지증진사업(복지기금조성등) 강화



▶ 副會長:

李相澈(47년 10월 全北生)  
81년 원광대 건축과 졸업  
85년 전남대 대학원 건축전공 졸업  
77년~78년 본 협회 전북지부 총무간사  
현 종합건축사사무소 미건설 대표

全羅南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金洸鎬(36년 5월 全南生)  
59년 조선대 도시계획과 졸업  
69~70년 건설부 도시주택국 근무  
75년 한국청년회의소 건축사회 부회장  
현 김광호건축사사무소 대표

- 회원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옹호에 노력
- 분소운영의 강화로 지역회원의 권익신장에 기여
- 지방산하 각 분소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
-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



▶ 副會長:

金容正(35년 12월 全南生)  
63년 전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66년 순천시청 근무  
74년 해남 청년 회의소 초대 회장  
현 고미건축사사무소 대표

慶尙北道支部

회 중점추진사항



▶ 會長:

崔種培(留任, 34년 3월 慶北生)  
54년 영남대 건축과 졸업  
82~83년 본 협회 경북지부 간사  
84~87년 본 협회 포항분소 회장  
89년~ 본 협회 경북지부 회장  
현 최종배건축사사무소 대표

- 마을규모 운영을 통하여 공동유대를 위한 상호간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도모
-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개최하여 회원간의 신뢰 돈독
- 각 분소별로 설계비 수령장구를 일원화하는 방안 연구
- 지방자치체에 대비한 지부 운영체제 확립 등



▶ 副會長:

金泳哲(留任, 41년 7월 慶北生)  
68년 영남대 건축과 졸업  
82~87년 본 협회 김천 분소회장  
88년 본 협회 경북지부 부회장  
현 현대건축사사무소 대표

慶尙南道支部



▶會長:

崔鳳亨(46년 7월 慶南生)  
70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졸업  
86년 마산시 시장자문위원  
88~90년 본협회 경남지부 부회장  
현 시민·연대·동양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 중점추진사항

- 자문위원회 활성화 및 임원의 역할분담으로 효과적인 사업추진
- 각 위원회 활동의 적극전개
- 체계적인 분소관리로 능률화 유도
- 교육, 홍보 및 권익옹호 사업강화
- 제도 개선 및 복리증진 방안 강구, 추진
- 대사회사업 및 대관업무 적극화 및 능동적 자세경립
-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각종기구 진출, 참여 협력체제 강화



▶副會長:

朴文星(47년 10월 慶南生)  
68년 동아대 건축공학과 졸업  
83~90년 본 협회 울산분소 회장  
85~90년 북울산로타리 회원  
현 대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濟州道支部

▶會長:



金晝祐(43년 10월 濟州生)  
68년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82~86년 본협회 제주지부 간사  
제주시 건축위원회 위원  
83~86년 북제주군 건축위원회 위원  
현 우신건축사사무소 대표

☐ 중점추진사항

- 불합리한 법규 개선등을 통한 회원 권익신장과 지위향상 도모
- 건축문화 예술의 창달을 위해 노력
- 제주지역 환경개선과 지역 특성 개발 노력
- 회원의 복리증진과 총화를 위해 노력

# 제 9 회 서울특별시 건축상 작품모집

서울시내에 건축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이를 설계한 건축사와 건축주를 포상하므로써 건축문화의 창달과 도시미관조성을 도모하고자 제 9 회 서울시 건축상 시상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작품을 모집하니 많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 11. 29 서울特別市 市長

■ 상의 명칭 : 제 9 회(1990년도) 서울특별시 건축상

■ 모집분야

- 주거용 건축물
- 상업용 건축물
- 특수 건축물

■ 상의 종류

- 금상(1점), 은상(3점), 동상(3점), 장려상

■ 상의 내용

- 설계자에게는 상패와 소정의 부상
- 건축주에게는 우수건축물 상패가 주어짐

■ 모집대상

- 건축사 면허증을 소지하고, 실제 작품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자의 작품으로서,
- 1989년~1990년에 준공 또는 준공예정인 건축물

■ 작품 제출요령

- 소정 양식의 응모 원서
- 규격 90cm×90cm의 패널 2~4개 제작 제출 (건물개요, 완공사진, 투시도,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주단면도, 건축물 부설예술장식품, 기타)
- 작품 사진(5호×7호) 각 10장
- 모형 제출은 임의(권장사항)
- 건축물 부설예술장식품 패널은 별도 제작 가능(구체적인 설명 부기)

■ 제출기간 및 장소

- 1990. 12. 26~12. 28.
- 서울특별시 건축지도과(731-6381-4)

■ 수상자에 대한 특전

- 수상작품 설계자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건축설계용역이 가능토록 지원하고, 건축시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감면할 수 있음.

# 開 會 辭

존경하는 金大泳건설부차관님과 辛鉉植대한건축학회 회장님 張錫雄 건축가협회 부회장을 비롯하여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來賓 여러분과 전국 각처에서 모여 주신 代議員 여러분, 그리고 여러 모로 후의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번 전국 각 支部 總會에서 새롭게 지부임원 및 대의원에 選任되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시게 된 분들께 祝賀의 뜻을 표하며 歡迎하는 바입니다.

오늘 이 총회는 본 협회가 창립된지 꼭 4반세기가 되는 해에 개최된다는 것과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先輩會長님을 중심으로 수 會員 모두가 협회의 근간을 마련하고, 기틀을 다지기 위하여 땀흘려 노력해왔다면 지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한층 跳躍의 契機로 삼고자 몸부림치는 轉換期的 時點에서 개최된다는 데에 큰 意義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總會에서는 우리 모두 좀더 성숙되고, 의연한 모습으로 협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폭넓고 진지하게 그리고, 소신껏 의견을 개진하여 보다 알찬 결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全國代議員 여러분!

본인은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2년전 이 자리에서 大韓建築士協會 會長이라는 막중한 소임을 부여받고 본인 나름대로의 업무추진 소신을 피력했었는데 어느덧 2년의 세월이 흘러 갔습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 볼때 本人은 代議員 여러분과 전국의 회원여러분께 만족할만큼의 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모든 사안을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많은 기반을 조성하였고 열심히 일한 보람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건축사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건축사 고유의 업무를 통하여 국가와 사회에 충실히 이바지하고 있으면서도, 施工者나 建築主의 잘못까지 책임져야만 하는 제도상의 모순으로 인하여 自意에 관계없이 업무상 조그마한 過誤만 있어도 마치 犯法者와 같이 취급되어 처벌을 받고 言論에도 무슨 큰 죄인이나 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음은 실로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누구를 탓할 수도 없으며, 탓할 필요조차도 없는 것입니다. 弱肉強食이라는 엄연한 사실앞에 우리 건축사들이 이 사회속에서 너무도 힘없이 살아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했던 자세를 떨쳐 버리고 우리의 권익을 찾기위해서 분연히 일어서야만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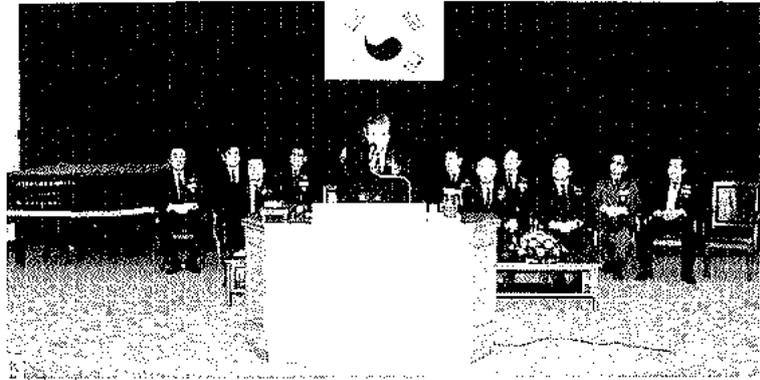
우리 자신의 권익을 모두 찾을때 만이 우리는 이 사회속에서 보다 더 자유롭고, 意欲的으로 創作藝術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임은 물론 국가와 국민에게는 좀더 많은 봉사물, 후배에게는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의 선배로, 그리고 우리의 後孫에게는 같이 자랑할 수 있는 건축분화를 물려줄 수 있는 훌륭한 建築士像을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하여 본 협회에서는 작년에 이어서 지난 3월 전국 3천 4백여 회원과 關係 當國, 各政黨, 學界, 有關機關 및 團體 人士들이 참석한 가운데 全國 建築士大會를 개최하고, 우리의 結集된 힘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으며, 民生爲主의 法이 되지 못하고 處罰爲主로 되어 있는 비합리적인 건축법의 개선을 위하여 관계요로에 수차례 걸쳐 건의하였음은 물론, 내적으로는 우리의 권익을 스스로 찾고 지켜나기야 한다고 생각하여 작년 6월 협회 내에 建築法令研究所를 설치하고 建築士法과 建築法을 비롯하여 회원 업무와 관계가 있는 각종 건축관계법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다각도로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관계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많은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법에 대하여는 관계 당국과의 수많은 협회속에 최종적으로 조정안요한바 있는데 그 내용중 주요사항을 요약해보면 먼저 建築士의 處罰基準을 완화하면서 처벌대상도 施工者, 建築士등 직접위법 행위자 위주로 하도록 하였고 현장의 위해 방지 및 토지굴착 부분의 처벌대상에서 工事監理者는 제외토록 하였으며 施工上의 誤差도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준공시까지 일괄사후 설계변경으로 하도록 하였고, 調査·檢査代行 機關을 건축사협회로 명문화 하였으며, 건축허가 창구를 일원화 하는 등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정된 法律案이 정부 당국에 의해 작성되어져서 금번 제151회 정기국회에 상정되어 곧 그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第 三 回 定 期 總 會 及 新 秩 序 · 新 生 活 實 踐 決 意 大 會  
大韓建築士協會



開會辭를 하는 宋基德會長

또한, 건축사행정처분 제도의 개선, 단독 사무소의 업무범위 상향조정, 종전 규정에 의한 2급 건축사 구제방안등을 내용으로 한 건축사법 개정 건의안을 이미 건설부에 제출한바 있고, 특히 금번 건설부의 건축사법 대폭 개정방침에 따라 본 협회의 전반적인 建築士法 개정 방향을 재설정하여 개정안을 작성,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곧이어 그 결실 또한 보게 될 것이며, 이외에도 消防法 및 駐車場法등 건축관계법규의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근간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종합건설업면허제도는 대형제별 몇개 건설사회가 우루과이라운드와 관련하여 대외 경쟁력 제고를 통한 해외 진출을 꾀한다는 구실 아래 문어발식 기업확장을 획책하는 것으로써 마땅히 규탄받아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 건축사의 고유업무인 건축설계 업무까지도 독식하려는 의도에 대해서는 결사적으로 막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해서도, 우리가 선진기술에 뒤떨어져 있음을 자각하고 우선 기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야 함은 물론 이에대한 장기적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여 협회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외에도 우리업무의 영역을 침입하려는 어떠한 도전에도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한편, 建築法 施行令 및 시행규칙개정과 건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문제를 繼續 研究 반영시켜야 하겠으며 정부의 豫算編成지침상의 工事費 單價 현실화를 통한 設計費現實化 문제, 建築士報酬基準의 현실화 문제,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는 건축사 所得標準基準率의 인하조정문제, 조달청의 建築士業務取扱에 대한 대책문제, 건축설계의 入札防止 대책문제, 設計監理費를 100% 받을 수 있는 방법 마련 문제, 建築許可抑制에 대한 해제문제 등 우리가 會員을 위하여 解決해 나가야 할 일들이 눈앞에 산적해 있음을 생각해 볼때 내년 일년이야말로 실로 중요한 한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代議員 여러분!

본인은 우리 협회가 이렇듯 중요한 시기에 모두가 힘을 합하여 당면한 難局을 슬기롭게 克服하고, 명실공히 우리나라 建築文化를 先導하는 대표적인 단체인자 이 사회속에서 그 어느 단체보다도 앞선 제일 훌륭한 단체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위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가 각자 精神的 改革을 통한 보다 成熟한 자세로 모든 불의와 부정에 항거하며 社會 指導層 人士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될때만이 사회를 향하여 더 큰 목소리로 우리의 권익을 주장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최근 범국민적으로 일고 있는 새질서·새생활운동에도 동참하는 길이 되고 이 방에는 진정한 건축문화를 심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사의 社會的 地位 向上과 專門職能人이자 文化 藝術創作人으로서의 굳건한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地方自治制가 실시되면 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서 많은 會員들이 地方 議會에 진출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본 협회는 우리회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잘 알고 있으며, 협회가 회원을 위하여 무엇을 해주기를 마라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에서도 모든 力量을 動員하여 협회 발전의 기틀을 확고히 해 나가면서 지난 2년동안 닦아놓은 基礎를 토대로 하여 이제는 힘있는 협회로 도약시켜야 하겠다는 굳은 의지에 차있으며 대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회원을 위한 협회가 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來賓 여러분들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디 代議員 여러분의 健勝하심과 가정에 幸運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開會辭를 삼습니다.

감사합니다.

1990. 11. 28

大韓建築士協會  
會長 宋基德

# 致 辭



건설부장관 처사를 대독하는 金大泳次官

존경하옵는 宋基德 대한건축사협회 회장과  
辛鉉植 대한건축학회 회장, 張錫雄 대한건축가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全國 建築士 여러분!

오늘 대한건축사협회 제25회 정기총회와 새秩序·새生活實踐 決意大會에서 제가 致辭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귀 협회가 오늘날과 같이 짜임새있고 규모있게 성장발전하여 온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자리는 협회가 '91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논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광범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알찬 결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敬愛하는 建築士 여러분!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등 각 분야에서 自律化와 民主化를 위한 大變革을 겪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설계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잘아시다시피 쾌적한 住居環境을 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특히, 서민들의 住宅難을 解消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만호 주택건설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는 전국 각처에서 우리나라 건축문화를 선도하고 계신 바로 建築士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大韓 建築士協會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머지않아 다가올 地方化 時代에 副應하여 각종 규제완화와  
위임사항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建築法 改正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建築士 여러분의 항의성을 복돋고 권익을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建築士法 改正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요즘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協商과 관련하여 볼 때 우리 건설분야 역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특히 건축설계 분야의 개방에 따른 제반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만으로는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으므로  
협회는 물론 건축사 여러분들이 부단한 노력으로 선진건축기술을 도입 개발하고, 세계속에 자랄 수 있는 한국고유의  
건축문화를 창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하는 建築士 여러분!

대외적으로는 페르시아만 사태로 인한 油價상승으로 물가를 위협하고 우리 경제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物質萬能主義, 人命輕視風潮 등 價値觀이 교란되면서 범죄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豪華 奢侈風潮가  
漫然하여 경제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大統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犯罪와의 戰爭을 선포하셨고 內閣에서는 전 공권력을 동원하여 犯罪退治와  
民生安定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秩序·새生活運動을 통하여 질서있는 사회, 범죄없는 사회, 마음놓고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범국민적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지도층에 계신 建築士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난국극복을 위한 이러한 국민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건설한 국가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애하는 建築士 여러분!

여러분들은 건축전문인이자 조형장조 예술인으로서 이 시대를 대표하여 우리의 후대에 길이 물려줄 건축문화를 창출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大韓 建築士協會를 중심으로 합심단결하여 사회와 국가에 봉사하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는 建築士像을 정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建築士여러분의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致辭에 갈음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 11. 28

建設部長官 李相熙

## 第25回 定期總會 개최

시행사: 1990년 10월 28일(토) 10시 10분



제25회 정기총회

본 협회 제25회 정기총회가 지난 28일 본협회 대강당에서 재직대의원 368명중 3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10분 宋基德회장의 成員報告로 개회되어 국민의례와 건축가현장 낭독이 있는 후 세철서, 생활실천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議長の 開會辭와 김대영 건설부차관이 대독한 建設部長官의 致辭에 이어 신현식 대한건축학회 회장, 장석웅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의 축사가 있는 후 감사패 수여와 공로패, 표창패 수여가 있었다.

'90년도 제1회 임시총회 회의록은 유인물에 따라 이의없이 승인하고 사무처장의 추대회원

추대보고와 주요업무보고를 들은 후 金永吉감사로부터 監査報告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이를 접수하였다. 이어 의장의 '91년도 시·도지부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보고를 이의 없이 유인물대로 승인하고 부의안건을 상정한 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

오후 1시 40분 의장이 속개를 선포하고 부의안건치리에 들어갔다. 부의안건의 처리는 제1호의안: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제2호의안: '91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3호의안: '91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4

호의안: '91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5호의안: '91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제6호의안: 시부명칭변경 및 참여이사제도 승인의 건, 제7호의안: 임원개선의 순으로 일괄 상정하여 개별 심의에 들어갔다.

• 제1호의안: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을 사무처장의 제안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제26조의 지부윤리위원회 구성조항 중 "...간사중에서..."를 삭제하는 등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승

인하였다.

- 제2호의안: '91년도 사업계획 및 일반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사무처장의 제안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다.
- 제3호의안: '91년도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제안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다.
- 제4호의안: '91년도 건축법령연구소 특별회계수지예산(안) 승인의 건을 제안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원안대로 승인키로 의결하였다.
- 제5호의안: '91년도 건축사연금 특별회계 수지예산(안)

# 總會消息

승인의 건을 사무처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제 6호의안 : 지부명칭 변경 및 참여이사제도 승인의 건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거쳐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승인하였다.
- 제 7호의안 : 안건진행중 정관 제16조 제1항의 해석상의 논란에 따라 정회하고, 다음 속개총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제25회 정기총회는 새질서, 새생활 실천결의대회를 겸했다. (결의문 채택 광경)

## 새질서, 새생활 實踐 決意大會

### 決 意 文

우리 建築士는 10.13 大統領 特別宣言을 전폭 支持하며 새질서, 새생활을 率先垂範 實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決意한다.

- 一. 우리는 過消費와 頹廢享樂 風潮를 追放하고, 勤儉節約을 生活化하여 明朗하고 和合하는 社會氛圍氣 造成에 앞장선다.
- 一. 우리는 投機를 부추기는 相談이나 過多 設計受注 競争을 하지 않고, 良心과 誠實으로써 맡은 바 任務에 充實을 기한다.
- 一. 우리는 快適한 生活環境 造成을 위해 設計, 監理業務에 充實하고 不法建築行爲 防止와 工事場 周邊 整理등 環境改善 運動을 積極 展開한다.
- 一. 우리는 社會安定 混害 行爲를 排擊하고, 忍耐와 努力으로 家政과 職場, 社會에서 새질서, 새생활 運動을 展開한다.

大韓建築士協會 全國代議員 同



공로패 및 감사패 전달광경



김영길 감사의 감사보고



축사를 하는 대한건축가협회 회장과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 理事會 개최

本協會 제12회 理事會가 지난 11월 14일 개최되어 우루과이라운드 및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대책등 주요현안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또한 13, 14, 15회 理事會도 지난 21일과 4, 5일에 각각 개최되어 정기총회 속개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理事會 주요 부의안건 및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12회 이사회

- 우루과이라운드 및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대책위원회 구성
- 다음과 같이 구성키로 결의함

1. 위원회명: 우루과이라운드 및 종합건설업면허제도 대책위원회

### 2. 위원회구성

- 위원장: 회장
- 부위원장: 부회장
- 간사: 강대석, 강기세
- 위원: 박성규, 우남용, 이종완, 장상진, 이영희, 이분우

- '91년도 일반회계예산조정(안) 승인

- 우루과이라운드 문제 대처를 위한 활동비를 증액키로 결의함

- 윤리위원회 규정 및 윤리규약 개정(안) 승인

- 윤리규약 제 9조에 대하여는 '91년 3월 임시총회시까지 검토하여 결정키로 보류하고 기타조항은 원안대로 하되 문맥 조정은 부회장과 법제위원장에게 위임키로 결의함

- 윤리위원회 결정사항 승인
- 제주지부의 의견을 물어 다시 심의키로 보류함

- 수해건축물의 설계감리비 감면 운영기간 연장 승인
- 요청지부인 경기, 강원지부에 대하여 원안대로 기간 연장을 승인함

### ▶ 제13회 이사회

- 지부명칭변경 및 참여이사제도 승인

- 지부명칭을 현행 ○○지부에서 ○○건축사회로 변경할 것과 협회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건축사법상 법정 임원이외에 건축사법 개정전까지 참여이사제도를 신설키로 하고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결의함

### ▶ 제14회 이사회

- 제25회 정기총회 속개에 관한 협의

- 지난 28일 개최되었던 제25회 정기총회의 정회여부에 따른 속개회의 개최방안에 대해 협의

- 정관 제16조(임원의 임기) 운용에 관한 협의

- 정관 제16조 제 1항에는 임원의 임기만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중임규제조항이 없으므로 중임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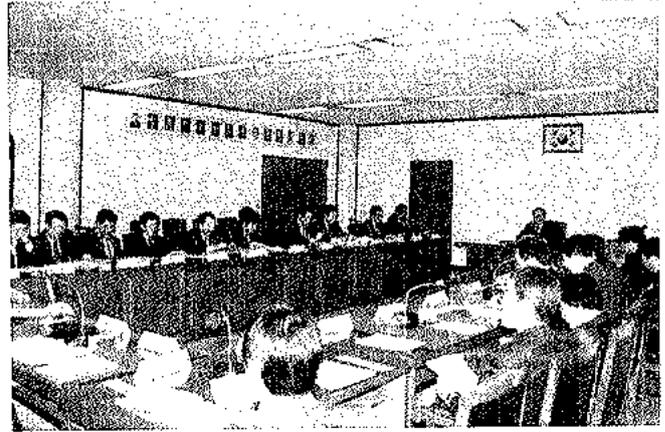
### ▶ 제15회 이사회

- 제25회 정기총회 속개회의 일차 및 장소결정

- 오는 12월 21일(금) 오후 2시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키로 함

- 예비비 사용 승인

- 예비비사용 요청액중 임원의 총회 참석여부는 삭제하고 대의원의 총회참석여비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을 승인함



전국 시도지부 회장회의

## 全國 市道支部會長會議

제 9, 10회 시도지부회장 회의가 지난 27일과 5일에 각각 개최되어 정기총회 부의사항 및 속개총회 개최에 관한 협의를 하였다.

이날 협의된 주요안건의 처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제9회 지부회장회의

- 총회부의사항에 대한 협의
- 제25회 정기총회에 상정되어 있는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안

대로 협의함

### ▶ 제10회 지부회장회의

- 제25회 정기총회 속개회의 개최에 관한 협의

- 총회 속개회의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최할 것과, 정관 제16조 제 1항에는 임원의 임기만 2년으로 하고 중임규제조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임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함

## 서울特別市支部 주차정책에 대한 세미나 개최

서울支部는 자동차시대의 도래와 함께 주차관련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지난 11월 8일 대한민국토도시계획학회와 함께 그 해결방안을 관계요로에 건의하기 위한 주차정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인터컨티넨탈호텔 로즈홀에서 개최된 이날 세미나는 「주차정책의 기본방향」과 「건물부설주차장 관련제도의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감평회(성균관대) 교수의 사회아래 이진영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과 유완연 세대교수의 발표가 있었다.



서울지부 주차정책에 대한 세미나

충북지부 회원친목 단합대회



**忠淸北道支部**  
**회원친목단합대회 개최**

忠北지부는 지난 17일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운동경기를 통한 '화합하고 단결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회원친목단합대회를 개최하였다.

소속회원 및 직원들이 참석한

이번 단합대회에서는 참가자를 5개조로 나누어 족구, 계수, 줄다리기, 등산대회(번외)를 실시, 종합 1위는 C팀이, 당일 MVP에는 김중기회원이 영예를 차지하였다.

**忠淸南道支部**  
**해외건축시찰 및 회원친목행사**

忠南지부는 지난 11월5일부터 9일까지 4박5일간 회원친목 단합을 겸한 해외건축시찰을 실시하였다.

소속회원 45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부부동반으로 대국에서 실시되었다.



충남지부 해외건축시찰



전남지부 회원친목 단합대회

**全羅南道支部**  
**회원친목 단합행사**

全南지부는 지난 10월 23, 24일 양일간 소속회원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소

속회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친목행사를 개최하였다.

**慶尙北道支部**  
**회원친목 등반대회**

慶北지부는 소속회원간의 이해증진과 친목도모를 위해 지난 10월 21일 소속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남산에서 회원친목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慶尙南道支部**  
**南道 한마음축제 친교행사 개최**

慶南지부는 남도한마음축제의 일환으로 全南지부의 金仁橫회장등 10명을 초빙, 지난 10월 26, 27일 양일간 지부회의실

에서 애경, 진실,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한 친교행사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경북지부 회원친목 등산대회



제주지부 가설 선전탑

경남지부 간담회



**濟州道支部**  
**한라문화재 지원사업 실시**

濟州지부는 제31회 전국민속 예술경연대회와 제29회 한라문화재가 관내에서 동시에 병행 개최됨에 따라 문화행사의 분위기를 고양하고, 뜻깊게 하기 위해 제주도 용담로타리에 대형 문화행사 선전탑을 설치, 지원

하였다. 또한 지난 10월 22일에는 임원 일행이 경북 민속예술공연단 속소를 방문하여 이 고장 특산물인 감귤 15상자를 선물하여 관광 제주의 인정을 나누었다.

# 유리하면 “한국유리,” 한국유리하면 “한글라스”



## 세계적인 유리 회사 한국유리의 “유리”이름, “한글라스”

지난 설흔 몇 해 동안에 오직 유리산업 한 길만 걸어와 이제 세계 10대 유리회사로 자란 한국유리의 제품은 유리의 대명사가 되었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더 많아지고 좋아지는 저희 유리 제품들을 이제는 세계적인 자세로 체계있게 공급해 드리려고 저희가 만들어 공급하는 모든 상품에 새 이름 “한글라스”를 붙였습니다.

유리는, 아니, 한국유리의 “한글라스”는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우리 생활 주변 구석구석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일하는 건축물의

안팎에, 이제는 없으면 살 수 없을 정도가 된 자동차에, 거울과 가구에, 그릇에, 불을 밝혀주는 조명기구와 내은사인에, 텔레비전같은 가전제품에, 의료기와 이화학 실험기구에, 심지어는 예술가들의 창작품에까지 불가결한 것이 되어 환경을 쓸모있게 구성하면서 우리의 세상살이를 거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글라스”로 해 달라고 하세요.

맑고 좋은 상품과 서어비스로 여러분을 섬기고자 저희 “한글라스”의 모든 식구들은 한층 더 애쓸 터임을 다짐합니다.

유리하면 “한국유리,” 한국유리하면 “한글라스”





# 우리는 물을 안 먹습니다.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방수성 단열재로 단열효과가 오래 지속됩니다.**



단열재는 물을 흡수하지 않아야만 뛰어난 단열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열재가 수분을 흡수하면 단열효과를 잃게될뿐 아니라 장시간이 경과한 후 자체중량에 의해 처지는 현상이 생기므로, 즉시 벽이나 지붕을 헐고 다시 시공해야 합니다.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물기를 흡수하지 않는 뛰어난 방수성 단열재이므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불이 붙으면 3초 이내에 스스로 꺼지므로 화재의 위험이 없습니다.**

한남화학이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발포성폴리스티렌비드(Polystyrene Beads)를 원료로 한 청색·녹색스티로폼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UL 규격을 인증 받을만큼 난연성이 뛰어나고, 인체에도 해가 없습니다. 불이 붙으면 3초 이내에 꺼지는 자기소화성(KSM-3808규격)이므로 화재시 안전하고, 무게가 가벼워 운반 및 시공이 간편합니다. (국내최초로 UL94HF-1 규격인증)

**한남화학이 업계 최초로 영예의 품질관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품질관리대상 수상! 이는 좋은 품질의 스티로폼만을 만들고자 애써온 한남화학의 오랜 노력의 결실일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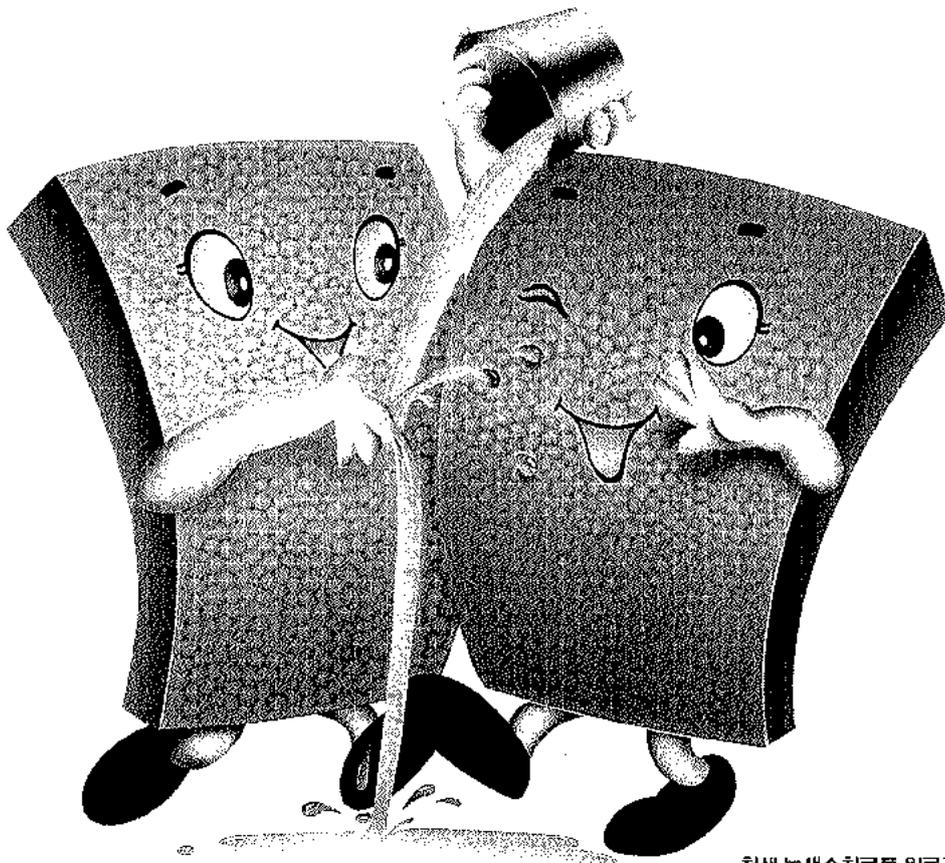


아니라, 스티로폼업계 모두의 커다란 기쁨입니다.

최고의 제품은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에서 탄생됩니다. 한남화학은 앞으로도, 더욱 품질높은 청색·녹색스티로폼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한남화학의 원료로 만든 청색·녹색 스티로폼은 건축용 단열재로, 백색 스티로폼은 포장재용으로 사용하도록 용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 청색·녹색스티로폼



청색·녹색스티로폼 원료제조원

**N 한남화학주식회사**

본사·영업 : 서울·영등포구 여의도동 43 ☎ 784-1171~9  
공장 : 경남 울산시 남구 성암동 45-25 ☎ 73-1141~5